

도서관

제61권 제1호(통권 제376호) · 2006. 06(반년간)

국립중앙도서관 부산분관 건립계획의 타당성 분석 / 윤희윤	1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공연권에 관한 연구 / 이호신	45
어린이 그림책의 평가기준과 적용에 대한 연구 / 조현애 · 장덕현	63
KORMARC 형식 통합서지용의 특성에 관한 연구 / 김정현	89
해외 협력형 디지털참고봉사 사례조사 / 주제정보과 디지털 참고봉사 협력네트워크 구축 연구팀	115
이제부터의 도서관 상 / 도서관미래구상연구회 編 · 황 면 譯	165

<자 료>

제10차 한 · 중 국립도서관 업무교류 주제발표	209
----------------------------	-----

편찬위원장 : 강창석

편 찬 위 원 : 곽동철·김휘출·신인용·신현태·윤인현·이귀원·이숙현·조순영

DOSEOGWAN

Vol.61 No.1(376) June 2006(Bi-annual)

Contents

Feasibility Analysis of the Busan Branch Library Planning of National Library of Korea	Yoon, Hee-yoon	1
A Study on performance rights at Library	Lee, Ho-sin	45
A Study on the Evaluation Criteria of Picture Books for Children and Its Application : With a Special Reference to “Flop Ear” by Guido V. Genechten	Cho, Hyun-ae • Chang, Duk-hyun	63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an Integrated KORMARC Bibliographic Formats	Kim, Jeong-hyun	89
A Study on foreign cases for cooperative digital reference CDRS(Cooperative Digital Reference Systems) Team of Public Service Division		115
これからの図書館像	これからの図書館の在り方検討協力者会議 編・黄 勉 譯	165
<References>		
The 10th exchange Programme of Librarian between NLK and NLC		92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국립중앙도서관 부산분관 건립계획의 타당성 분석

Feasibility Analysis of the Busan Branch Library Planning of National Library of Korea

윤 희 윤(Hee-Yoon Yoon)*

■ 목 차 ■

<Abstracts>

1. 서 언
2. 국가도서관 분관건립의 당위와 논거
 - 2.1 국가도서관의 역할과 위상
 - 2.2 국가도서관 분관건립의 역사와 당위
 - 2.3 국립중앙도서관 분관건립의 논리적 근거
3. 국립 부산분관 건립계획의 배경과 타당성 분석
 - 3.1 부산분관 건립계획의 추진과정과 배경
 - 3.2 부산분관 건립계획의 타당성 분석
4. 요약 및 제언

<Abstracts>

In a broad sense, the national library is the mirror to reflect cultures and history of a nation and the most important indicator of its nation' s cultural level and quality of life. Therefore, national library should preserve the documentary heritage of Korea and serve as a source of enduring knowledge accessible to all and as the continuing memory of the government of Korea and its institutions for the benefit of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In order to carry out these accountabilities,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Busan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hy@daegu.ac.kr)

Metropolitan City suggested to basic plan for constructing Busan national branch librar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a feasibility of the Busan national branch library planning in term of necessity and urgency, compatibility of site, appropriateness of construction size and budget supply, potential expectation effect. The results of analysis was proved to have social and economic feasibility on national branch library planning.

1. 서 언

국가도서관은 국내외를 상대로 자국을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모든 유형의 정보자료를 수집·보존하여 당대의 국민에게 제공하고, 완벽하게 전수하여 후대의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국가도서관은 다른 어떤 관중이나 도서관보다 ‘수집자료의 포괄성 내지 망라성, 축적의 누적성과 통시성, 완벽한 보존성’을 중시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국가차원의 국립도서관 내지 정부출연기관 산하의 도서관은 모든 주제를 포괄하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을 비롯하여 주제가 한정적인 법원도서관과 한국과학기술정보원 등이 있으며, 그 가운데 국립중앙도서관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것처럼 국가대표도서관이다. 비록 지난해에 현행 법률을 전부 개정하는 안을 발의·심의하는 과정에서 소위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 대표성’이 쟁점으로 부각된 바 있으나,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행정부 소속의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을 정점으로 하는 현행 국가도서관시스템은 완전 집중형이기 때문에 실정법이 규정한 ‘국내외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중에서 특히 ‘보존과 이용’은 수장공간의 확장성과 봉사대상의 전국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참여정부가 주력하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등의 정책에도 부합하지 못한다.

요컨대 국립중앙도서관이 한국의 지식문화유산을 총괄하는 국가대표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집중화 정책으로 인하여 인적 및 물적 자원의 지역분산은 불가능하고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정책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에의 부응, 중앙관 및 지역단위 공공도서관의 수장공간 부족문제의 해소, 국가장서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 등의 현안을 해결하려면 정책적 내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데, 그 방안 중의 하나가 지역분관 건립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도서관 분관건립의 당위와 논거를 바탕으로 국립중앙도서관부산분관 건립의 추진과정과 배경을 기술한 다음에 현재의 완전 집중형 국가도서관시스템을 집중-분산형으로 재편하기 위한 첫 번째 사업으로 부산광역시에서 2005년부터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가칭 ‘국립중앙도서관 부산분관’ 건립의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부산분관’ 건립의 필요성과 시급성, 예정입지의 특성과 적합성, 건축규모와 재원조달의 적절성,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건립의 타당성을 심층 분석하고자 한다.

2. 국가도서관 분관건립의 당위와 논거

2.1 국가도서관의 역할과 위상

일반적으로 국가도서관의 통상적 함의에는 자국의 다른 모든 도서관에 대한 비교 우위성과 대표성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어의적 측면에서 보면 ‘설립·운영주체가 국가라는 보통명사로서의 의미’와 ‘자국을 대표하는 대명사로서의 함의’를 가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 후자에 속하는 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이다.

따라서 국가도서관은 납본¹⁾을 전제로 자국 출판물의 3A(Acquisition, Archiving, Access)에 충실할 때 지적 문화유산을 수집·보존하는 구심체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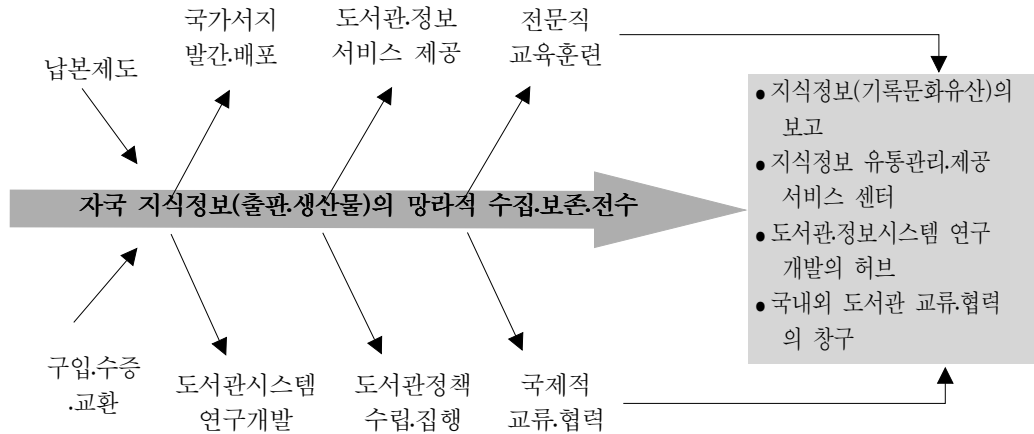
1) 납본제도의 국가적 중요성은 출판물의 체계적 수집, 접근 또는 이용을 위한 최후의 보루, 국가 서지의 생산과 배포, 국가 출판통계의 작성, 저작권의 보호, 교환자료의 확보, 지식문화의 보존과 계승 등에서 찾을 수 있다.

4 국립중앙도서관 부산분관 건립계획의 타당성 분석

접근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할 때 지식정보서비스의 보루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자국을 대표하는 국립도서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미 미국의 LC는 국가도서관인 동시에 국회의 연구기관, 저작권 관리기관, 학술연구정보센터, 고등학생 이상을 위한 공공도서관, 행정 및 사법부를 위한 정부도서관, 장애인을 위한 국가도서관, 우수한 법률도서관, 국내외 문화프로그램의 후원기관, 자료보존연구센터, 세계 최대의 서지기관 및 시청각자료보존소 등으로 회자되고 있다. 영국의 BL도 국가대표도서관, 도서관 및 정보기관 지원센터, 국가서지센터, 세계 문헌제공센터 등의 위상을 자랑한다. 독일 연방의 국가도서관(DEZ : Die Deutsche Bibliothek)은 국가 중앙자료보존도서관, 음악자료보존도서관, 국가서지센터, 대중용 참고도서관, 문헌복원 및 보존센터, 도서 및 활자 박물관 등으로, 일본의 NDL은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센터, 시각장애자서비스센터, 세계 최대의 동양학 자료센터로 공인받고 있다.

그렇다면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양하면서도 포괄적인 국가장서의 구축·보존과 그것에 대한 만인의 접근성 보장’이라는 양대 공리를 충족시키고 있는지, 그 결과로 선진국의 국가도서관이 내외적으로 공인받고 있는 ‘지식정보(문화유산)의 보고’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반문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다른 나라에 선례가 없는, 국가차원의 도서관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있어 현존하는 세계의 국가도서관 중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할 입장이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은 <그림 1>에 도시한 것처럼 한국에서 생산된 지식정보(출판물)의 망라적 수집·보존·전수를 중핵기능으로 삼고 그 바탕 위에서 국가서지의 발간과 배포, 도서관·정보서비스의 제공, 전문직의 교육과 훈련, 도서관·정보시스템의 연구개발, 국제적 교류·협력, 도서관정책의 수립과 집행 등을 제대로 수행할 때 중장기 비전인 「국립중앙도서관 2010」에서 제시한 ‘지식정보(기록문화유산)의 보고, 지식정보 유통관리·제공서비스 센터, 도서관·정보시스템 연구개발의 허브, 국내외 도서관 교류·협력의 창구’라는 4대 목표(핵심가치)²⁾를 위상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외연을 확장하고 주요 기능을 분담 또는 보완할 수 있는 전략적 복안이 필요한데, 그 중의 하나가 거점형 분관건립이라 할 수 있다.

2)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2010(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5), pp. 16-17.



<그림 1>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과 위상

2.2 국가도서관 분관건립의 역사와 당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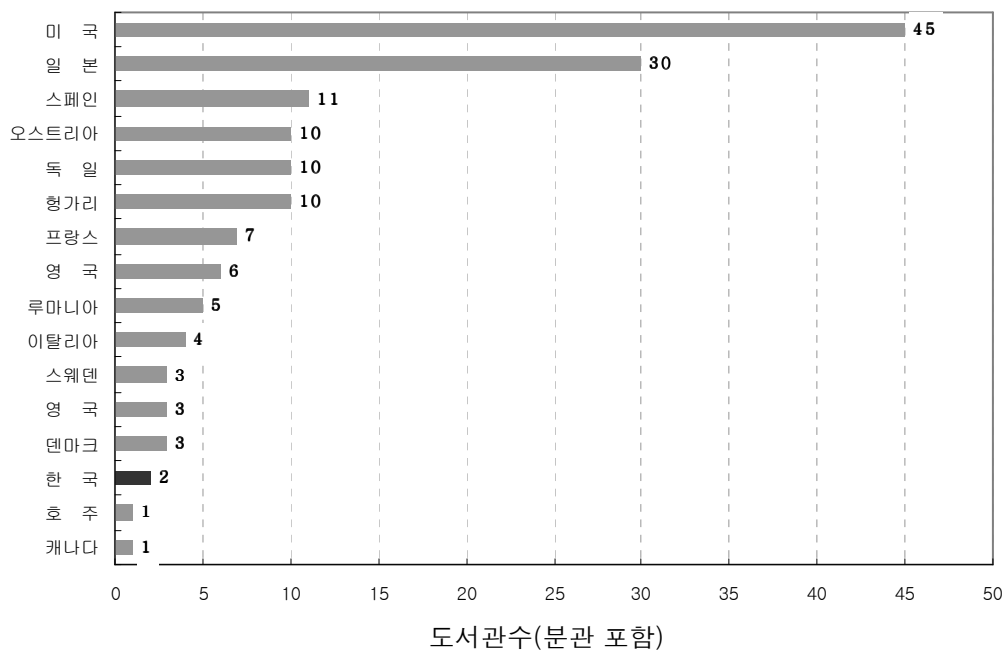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공공도서관은 행정논리에 따라 지역단위로 대규모 중앙관(시·도 단위의 대표도서관)을 건립하여 자료를 수집·제공하다가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이를 해소할 목적으로 하위 행정구역별로 중소 규모의 도서관이나 분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2001년말 현재 유럽연합의 공공도서관과 봉사포인트(중앙관, 분관, 이동도서관의 합)는 각각 44,242개관과 59,975개로 그 비율이 1 : 1.36³⁾에 달할 정도로 분관의 설립과 운영은 보편적이다. 국내의 공공도서관도 20004년말을 기준으로 471개관 가운데 74개관(15.7%)이 분관이다. 대학도서관의 경우도 캠퍼스의 지리적 분화와 학내의 단과대학별 연구 및 강의동 배치의 관행에 따른 주제별 내지 학문영역별 도서관의 필요성과 접근의 편의성으로 인하여 중앙관과는 별개로 주제별 도서관이나 분관을 설립·운영하여 왔으며, 최근에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사실은 2004년 5월 현재 1,341개관(중앙관 708개, 분관 275개, 부국도서

3) David Fuegi & Martin Jennings, International Library Statistics : Trends and Commentary Based on the Libecon Data <http://www.libecon.org/database/current/pub_2003_gdp.xls>

6 국립중앙도서관 부산분관 건립계획의 타당성 분석

관분실 358개)에 달하는 일본 대학도서관의 중앙관과 분관(분실 포함)의 상대적 구성비율인 1 : 0.89가 반증하고 있다.⁴⁾

그러나 나라 전체를 봉사대상으로 하는 국가도서관은 그 권역이 지역사회로 제한되는 공공도서관이나 단일 캠퍼스 내에 단과대학별 또는 학문영역별 학술정보의 원스톱 서비스 기능을 중시하거나 캠퍼스의 지리적 분립으로 여러 도서관을 유지해야 하는 대학도서관과 사정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도서관의 경우도 오래 전부터 분관건립을 통한 지리적 분산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현재도 <그림 2>와 같이 많은 국가에서 중앙관 외에 다양한 명칭을 부여한 지역관 내지 분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 역사적 배경, 국제적 동향을 중심으로 분관건립의 당위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주요 국가도서관의 구성단위(중앙관+분관) 비교

4) 文部科學省 研究振興局情報課 學術基盤整備室, 平成16年度 大學圖書館實態調査結果報告(東京 : 文部科学省, 2005), p. 13.

첫째, 가장 중요한 당위성은 국가도서관의 자료공간 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 대다수 국가가 오래 전부터 납본제도를 통하여 자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는데 머물지 않고 국내외 자료를 구입하거나 수증함으로써 다른 관중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연차 증가량을 유지하여 왔다. 그 결과, 수장공간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확장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새로운 국가도서관을 신축할 경우에는 기존의 건물을 보존전용 내지 다른 용도로 전환함으로써 복수 단위의 국가도서관시스템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 왕실문고를 모태로 발전한 프랑스 국립도서관(BnF)의 공간확장과 다관체제가 이를 대표한다.

둘째, 통상 자국의 수도에 위치하는 국가도서관의 수장공간 부족현상을 해소하려면 신축하거나 증축해야 하는데 지리적 및 구조공학적 제약이 많아 지방에 분관을 건립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였다. 이미 19세기 이전에 콜롬비아의 Biblioteca Nacional de Colombia(1777년)와 엘살바도르의 Biblioteca Nacional(1870년)이 지방에 분관을 설립하였고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는 영국의 웨일즈국립도서관(1909년), 스코틀랜드 국립도서관(1925년)처럼 장기 보존과 이용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분관건립이 성행한 바 있다. 예컨대 이탈리아는 6개 도시(피렌체, 나폴리, 로마 등)에, 유고슬라비아는 베오그라드 등 6곳에 국가도서관의 분관을 설치하였다. 반면에 미국,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 호주 등은 별도의 국가도서관을 설립하여 의학, 농학, 과학 등을 분산 배치·관리하여 왔으며, 과거 서독도 국가장서를 지역별로 분산·관리한 적이 있다. 그 외에도 남미의 많은 국립도서관은 출판연대가 오래된 자료를 지방으로 배치·전환하고 있다. 반면에 아일랜드, 멕시코, 덴마크 등은 1970년대에 일부 장서를 대학으로 이전하였다.⁵⁾

셋째, 자국의 정치적 역정이나 권력구조의 변화가 국가도서관시스템의 구성에 영향을 미친 경우도 적지 않다. 예컨대 독일은 동서로 분단된 상태에서 각각 국가도서관을 유지하다가 통일을 계기로 동독의 라이프찌히 도서관과 서독의 프랑크푸르트 도서관이 단일의 국가도서관시스템으로 재정비되었다. 마찬가지로 남북으로 분단된 한국도 남한의 국립중앙도서관과 북한의 인민대학습

5) 圖書館情報學ハンドブック編輯委員會編, 圖書館情報學ハンドブック(東京: 丸善, 1988), pp. 176-184.

당이 각각 국가도서관으로 존속하고 있으나, 단일국가로 통일되면 하나의 국가도서관시스템 아래에 봉사권역이나 기능을 분담하는 형태로 재편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넷째, 국가장서의 주제별 수집·보존과 서비스강화 전략이 복수의 국가도서관을 출현시키는데 일조하였다. 미국의 국립의학도서관(National Library of Medicine)과 국립농학도서관(National Agricultural Library), 영국 BL 산하의 신문보존소, 독일 DEZ의 베를린 독일음악아카이브, 프랑스 BnF의 오페라 도서관-박물관과 아비뇽 소재의 장 빌라르관, 덴마크의 수의농학도서관(National Veterinary and Agricultural Library)과 과학의학도서관(Danish National Library of Science and Medicine), 멕시코의 국립신문잡지도서관(National Newspaper and Periodicals Library of Mexico), 인도의 국립과학도서관(National Science Library of India)과 국립의학도서관(National Medical Library of India), 일본 NDL의 지부동양문고 등을 들 수 있다.

다섯째, 비교우위의 지식정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범국가적 전략이 새로운 성격의 분관을 태동시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해당하는 국가로는 단연 영국과 일본을 들 수 있다. 전자는 런던의 국립중앙도서관(NCL : National Central Library)과 보스턴 스프링필드의 NLLST를 통합하여 BLLD(British Library Lending Division)로 개칭한데 이어 현재의 BLDSC(British Library Document Supply Centre)로 발전시킴으로써 명실상부한 세계 문헌제공봉사(DDS : Document Delivery Service)의 중심기관으로 부상하였다. 후자는 2002년 관서문화학술연구도시인 교토에 과학기술자료 중심의 관서관을 개관함으로써 아시아권 고급 학술정보의 소비시장을 선점하려는 기세이다.

여섯째, 정부 및 국가도서관의 독서진흥을 위한 정책적 의지도 특이한 명칭을 부여한 분관을 등장시키고 있다. 예컨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의 분관인 ‘국제어린이도서관’과 이를 벤치마킹하여 한국이 건립 중에 있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반증한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으로 대표되는 국제적 사조도 공공도서관의 자료보존 문제와 맞물려 국가도서관시스템의 분산화 및 조직구조의 복잡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영국 BL의 BLDSC, 일본 NDL의 관

서관, 한국 NLK의 ‘부산분관’ 건립 제안 등이 전부는 아닐지라도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하였거나 그럴 가능성이 많다.

2.3 국립중앙도서관 분관건립의 논리적 근거

국가장서 수장공간의 부족, 신축 및 증축을 위한 부지확보의 어려움, 역사적 궤적과 정치적 상황요인, 주제별 자료보존 및 서비스기능의 강화, 비교우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독서진흥정책,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등이 개별적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다종다양한 국립분관의 설립을 촉진하였고, 그 결과로 선진국일수록 국가도서관시스템의 양태는 복잡하다. 따라서 상술한 요인은 앞으로도 국가도서관시스템의 외연을 확장시키는 당위성 논거로 거론될 가능성이 많다. 특히 ‘자국 출판물의 망라적 수집과 보존’이 국가도서관의 정연적 명제로 존재하는 한 수장공간의 확장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분관건립의 핵심논거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다만 부족한 자료공간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지식 강국화 전략, 전국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국가장서에 대한 공평한 이용기회의 제공, 지역단위로 산재하는 공공 및 대학도서관 등의 수장한계 등도 지역분관의 건립을 정당화하거나 그 필요성을 부추기는데 동원될 개연성이 적지 않다. 이를 감안하여 국립중앙도서관 분관건립의 논리적 근거를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분관 계획은 국립중앙도서관의 부족한 수장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이다. 현재 중앙관의 자료실 면적을 포함한 서고공간은 총 42,919m²(본관 26,338m², 자료보존관 14,285m², 학위논문관 2,296m²)⁶⁾에 불과하며, 선진 5개국의 국가도서관과 비교한 <표 1>을 보면 절대 부족하다.

6) 연면적은 본관(반포동)의 자료실 면적(12,434m²)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으로 전용되어 재개관할 학위논문관(역삼동)의 자료실 면적(2,296m²)을 포함한 수치이다.

<표 1> 주요 국가도서관의 건물면적 및 서고현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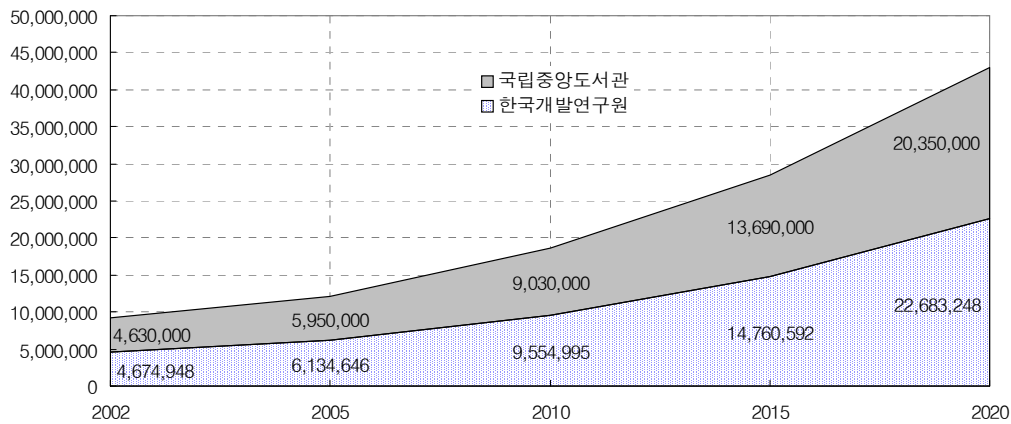
국가도서관	건물 부지면적 (㎡)	건물규모(㎡)		서고 저장력		서고형태	
		연면적	서고면적	최대(만권)	책수/1㎡	고정	밀집
한국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82,463	42,971	26,338*			■	■
영국 국립도서관 (St. Pancras)	38,000	112,643	81,000	1,200	522	■	■
독일 국가도서관 (프랑크푸르트)	19,000	48,000	30,000	1,800	222	-	■
프랑스 국립도서관 (프랑스와 미테랑)	75,000	290,000	81,000	1,200	600	■	■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관서관)	37,500	60,000	28,000	600	214	■	■

* 서고면적(13,904㎡)과 자료실 면적(12,434㎡)을 합산한 것임

그 뿐만 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과 국립중앙도서관이 각각 2002년의 소장자료를 기준으로 증가추이를 예측한 <그림 3>을 보면 2020년에는 최소한 2천만 권을 소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미국의 1㎡당 소장기준(개가서고 : 185권, 보존서고 : 274권)⁷⁾을 적용하여 산출하면 <표 2>와 같이 개가서고로 운영할 경우에 필요한 연면적은 108,100㎡로 60.3%, 보존서고는 73,000㎡로 41.2%가 부족하며, 개가서고 및 보존서고를 절충할 경우에도 90,550㎡로 역시 52.6%나 부족하므로 장서증가 추정치를 인정한다면 2020년에는 서고공간을 2배 이상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이 경우에 현재의 위치에 신축 중인 국립디지털도서관의 서고공간이 그 일부를 감당할 수 있으나, 건물의 연면적이 11,500㎡에 불과하므로 큰 의미가 없고 따라서 도심 외곽지에 별도의 보존관을 신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지만, 선진국의 유사한 사례(영국의 BLDSC, 일본의 관서관 등)를 감안하면 바람직한 선택으로 볼 수 없다.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차원에서 지방에 행정중심도시가 건설되고 불요불급한 공공기관이 전국 각지로 이전되는 분산정책을 감안하면 사고와 발상을 전환하여 지역분관 또는 보존관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7) 윤희훈, 대학도서관경영론, 완전개정판(대구 : 태일사, 2002), p. 334.



<그림 3> 국립중앙도서관 장서증가 추정치(2002~2020)

<표 2>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수장을 위한 소요공간 산출(2020년 기준)

구 분	소요 공간 산출내역* (A)	현재공간 (B)	부족공간 (A-B)
개가서고	2,000만권 ÷ 185권/㎡ = 108,100㎡	42,919㎡	65,181(60.3%)
보존서고	2,000만권 ÷ 274권/㎡ = 73,000㎡	42,919㎡	30,081(41.2%)
절충서고**	1,000만권 ÷ 185권/㎡ + 1,000만권 ÷ 274권/㎡ = 90,550㎡	42,919㎡	47,631(52.6%)

* 1㎡당 수장책수를 산출할 때의 서가규격은 6단 양면서가임

** 절충형은 개가제 서고 50%, 보존서고 50%를 적용한 것임

둘째, 지역분관 설립계획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립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외연을 확장시키는 전략적 메뉴에 속한다. 어느 나라든 국가도서관의 제도적 정체성은 정부가 설립한 여러 ‘국립도서관’ 가운데 직접 운영하는 국가 수준급의 소수 ‘국가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정법에 ‘대표성’을 규율할 때 보장된다. 이를 정당화하는 양대 공리는 납본제도에 기반한 자국 출판물의 망라적 수집과 모든 국민을 봉사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책무와 역할이다. 따라서 국가의 ‘설립-운영-대표성 부여’라는 상향식 구조를 인정한다면 행정부 소속의 국립중앙도서관이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도서관이라는 당위성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지난 해에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전면 개정안인 ‘도서관법’이 국회 공청회와 문화관광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위 ‘대표성’ 논쟁으로 비화된 바 있다. 이러한 정체성 시비를 차단하려면 권역별 거점형 분관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분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의 핵심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다. 한 나라의 국가도서관은 내적으로 자국의 지식정보를 농축시킨 보고와 자존심일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자국의 지적 기억과 총체적 정신문화를 대변한다. 이러한 상징성은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일체의 정보자료와 지적 문화유산을 수집·보존하는 지식보고로서의 위상, 자국민의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이용)권리를 보장하고 상대적 격차를 해소하는 서비스센터로서의 책무, 전국에 산재하는 모든 도서관의 발전과 서비스를 지원·계도하는 지도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다른 국가의 도서관과 교류·협력하는 창구로서의 기능을 통하여 당대의 문화수준을 제고시키는 한편, 후대의 접근과 이용을 예비하는 타임캡슐(time capsule)로서의 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때 가능하다.⁸⁾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이 단일의 사이트에 머무는 한 ‘모든 국민을 위한 국가 지식정보센터 및 모든 관중의 성장·발전을 견인하는 구심체’로 각인되는데 한계가 있다. 부언하면 아무리 몸집을 늘려도 허리가 부실하고 수족이 없으면 일선의 비난과 비판은 계속될 것이고 공룡의 화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단적인 예로 현재 국가차원의 도서관 정책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권역별 하부조직이 없어 국가정책의 중개기능과 위임형 집행기능이 취약하다. 그 성격과 역사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박물관 외에 11개의 지방국립박물관이 존재하는 이유를, 그리고 국가기록원이 왜 서울과 부산에 분원을 설치·운영하고 있는지를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례와 더불어 지역단위에서 국가 도서관정책의 실효적 집행기능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에게 국가장서와 정보서비스에 대한 접근·이용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역단위 분관건립의 논거는 충분하고 타당하다.

넷째, 지역분관은 국립중앙도서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수장공간 부족현상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미 2002년에 수립된 「국립디지털

8)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2010, p.9.

털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에서도 공동보존센터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적시한 바 있다.⁹⁾

자료 보존공간 부족문제는 국립중앙도서관 뿐만 아니라 모든 도서관들의 공통된 현안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동보존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 경우 공동보존센터는 도서관간 자료의 공동이용센터 역할을 겸할 수 있다. ... 제도를 통해 국립도서관은 아직까지 취약한 납본제도로 인해 생긴 국가도서관 장서의 갭을 보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자료의 장기보존과 공동이용을 촉진하고, 다른 도서관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쉽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도심에 자리잡고 있는 현행 학위논문관 부지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첫째, 부지 값이 비싼데 따른 경제성과 향후 확장가능성이 낮다는 점, 둘째, 재난대비를 위한 백업센터는 본관과 100km 이상 떨어지는 것이 좋다.

또한 최근에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3항에 대한 개정의견을 문화관광부에 제출하였다. 그 주요 골자는 ‘현재 장서수용이 한계에 도달하여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또는 문고의 전체장서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이 폐기 및 제적을 보유장서의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시·도지사(교육감 포함)에게 장서관리의 재량권을 부여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한국도서관협회는 2006년 2월 8일자로 ‘법령정비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표명하였다.

...장서증가에 따른 도서관에서의 수용한계 초과와 이로 인한 시설의 안전관리 문제 발생, 서고의 초밀집화로 인한 효율적인 자료이용이 저해받고 있다는 지적은 단순히 제적 또는 폐기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단위로 ‘보존도서관’을 건립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일반열람실의 축소 등의 방식으로 우선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런가 하면 2005년 12월 20일에 개최된 ‘대구지역 공공도서관 세미나’에서는 ‘대구광역시 공동보존도서관 설립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이 세미나에서 필자는 2005년말 현재 서고 대비 수장율이 한계 수장율(75%)을 상회하는 평균 83.4%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0년에는 수장공간 부족율이

9)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디지털도서관(가칭) 건립 기본계획(프로그램) 수립 기술영역 보고서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2), p. 141.

약 58.7%에 달하므로 가칭 ‘대구광역시 공동보존도서관’을 달구벌 대로 부근에 설립하도록 제안한 바 있다.¹⁰⁾

이처럼 해방 이후에 설립된 국립중앙도서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공공도서관은 그 동안 수집·축적된 자료를 더 이상 수장할 공간이 없어 폐기에 대한 재량권 부여와 공동 보존방안을 제시하거나 요구하고 있다. 이미 1970년대부터 자료공간의 부족문제로 고민한 선진국은 지역단위 또는 여러 관종의 연합체 방식으로 공동보존센터를 설립하여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조만간 대다수 광역지자체는 자료공간을 확장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막대한 재정부담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여러 대안 중의 하나로 국립 지방분관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분관의 건립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 균형발전과 분권정책의 기초에 부합한다. 2003년 6월 12일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 구상’ 선언에서 3대 원칙, 즉 ①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종합적인 접근으로 지방화 추진, ② 자립형 지방화를 위해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경제를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 ③ 지방우선 육성과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통해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의 토대 구축과 이를 위한 7대 과제¹¹⁾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2003년 4월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설립되었고, 12월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그리고 2004년 3월에 동법 시행령을 제정함으로써 법적 기반을 갖추었으며, 동년 8월에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다. 그 이후의 가장 가시적인 성과는 2000말을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율이 각각 84% 달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며, 모든 국민이 주

10) 윤희윤, “대구지역 공공도서관 자료보존의 문제와 대안,” 대구 공공도서관 직원 세미나 자료집(대구 : 중앙도서관, 2005), pp. 7-21.

11) 7대 과제는 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행정중심복합도시, 지방분권특별법 등 3대 특별법과 균특회계 설치,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한 혁신도시 건설, ③ 국가 R&D 예산의 지방지원비율확대(20~40%) 및 지방대학 집중 육성, ④ 지역혁신체계 시범사업 추진 및 지역산업정책 추진체계 전면 개편, ⑤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⑥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제정으로 지역경제발전의 토대 구축, ⑦ 신활력사업을 통한 낙후지역 특별대책 추진을 말한다.

목한 바 있다. 전자의 경우, 2005년 2월 충남 연기군 및 공주시 일대에 18개 정부부처(12부, 4처, 2청)와 23개의 소속기관 및 18개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후자는 동년 6월 24일자로 총 176개의 수도권 공공기관을 2012년까지 12개 시·도로 이전하기로 확정하였다.

이처럼 숨 가쁜 일정으로 진행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은 역대 정부의 지역발전계획과 근본을 달리하는, 행정부처 및 공공기관의 지방분산이기 때문에 국립중앙도서관을 모체로 하는 국가도서관시스템도 전향적으로 재검토하여 균형발전에 일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도 지방으로 이전되는 국가 및 공공기관의 정보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도서관의 정보서비스를 백업하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수집 및 보존기능을 주도할 국립 지방분관을 권역별로 설립할 필요가 있다.

3. 국립 부산분관 건립계획의 배경과 타당성 분석

3.1 부산분관 건립계획의 추진과정과 배경

부산광역시에는 총 16개 기초자치단체(15개구, 1개군)로 구성된 국내 제2의 도시이며 태평양의 관문이다. 부산은 오래 전부터 대륙과 해양의 교두보 내지 물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며, 1970년대 이후에는 국력 신장과 더불어 국제 경제권이 대서양에서 태평양 연안국가로 전환되면서 태평양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전진기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장점과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따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대상인 총 176개¹²⁾ 기관 중에서 12개 기관¹³⁾을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확정하였는데, 이들의 기능적 특징은 ‘해양수산, 금융산업, 영화진흥 관련기관’ 등이다.

12) 167개 기관의 성격은 소속기관 67개, 투자출자기관 26개, 출연기관 54개, 개별법인 29개이다.

13) 12개 기관은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주),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청소년상담원을 말한다.

이에 편승하여 부산지역에서는 서울의 대청점에 위치한 제2의 도시에 국립 중앙도서관 부산분관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고, 2005년에 부산광역시와 부산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수립한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 사업 구상」은 그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장기 비전은 ‘부산을 바꾸자’ 라는 슬로건 하에 7대 전략적 프로젝트를 제시하였는데, 그 가운데 두 번째인 ‘문화도시(ACE) 프로젝트’는 SWOT 분석에서 부산광역시의 약점으로 ‘문화예술 인구, 문화시설, 재정 및 정책 결정권 등의 중앙정부 편중’을 적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중점 추진사업의 핵심과제의 하나로 ‘국립 부산도서관 건립’을 제안하였다. 그 구체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다.¹⁴⁾

- 현대사회에서 도서관은 자료와 시설, 전문직원과 이용자 등의 구성요소를 충분히 갖추고 정보를 수집·보존하여 제공하는 기능과 함께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 남부권 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남부권 거주민의 문화복지와 삶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정보와 문화의 종합공간인 국립 부산도서관의 건립을 추진한다.

이를 계기로 국립 부산분관의 건립문제는 문서로 공식화되었다. 2005년 9월 13일자로 부산광역시는 ‘국립도서관 부산건립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부산시청 문화예술과-10679)을 국립중앙도서관장(도서관정책과장)에게 발송하였다. 그 주요 사업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부산 분관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07년 ~ 2010년(2006년 기본방향 연구용역 실시)
- 총사업비 : 건축비 1,700억원(추정 / 전액국고)
- 사업규모 : 연건평 17,000평~20,000평
- 시행자 :
 - 부지제공 : 부산광역시
 - 건립 및 운영 : 국립중앙도서관
- 주요 시설 : 열람실, 자료보존관, 디지털관, 사서연수관, 편의시설 등
- 부지선정 및 확보
 - 건폐율 및 용적율을 감안하여 연건평 17,000평 이상 신축가능 부지
 - 용역결과, 자문위원회 의견, 국립중앙도서관 의견 등을 수렴하여 결정

14) 부산광역시, 부산발전연구원,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사업 구상(부산 : 부산광역시, 2005), p. 31.

이어 국립중앙도서관은 2006년 1월 13일자로 ‘부산분관 건립 기본계획’에 관한 사전용역을 발주하였다.

3.2 부산분관 건립계획의 타당성 분석

일반적으로 타당성 분석은 기획 중에 있거나 제안된 프로젝트가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으로 타당한지를 조사하고 검토하는 과정 내지 작업을 말한다. 그 유형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조사가 있는데, 전자는 기획예산처가 담당하며 경제적 및 정책적 타당성을 주된 검토 대상으로 삼는 반면에 후자는 사업 주무부처가 담당하며 주로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통상적인 사업추진 단계는 ‘예비 타당성 조사 → 타당성 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진행되므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조의 2의 규정¹⁵⁾에 따라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공공 건설사업 및 공공 개발사업’은 반드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이 제도는 1999년에 대규모 개발사업의 개괄적인 경제성, 정책성, 투자의 우선순위, 적정 투자시기, 재원조달 방법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여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분석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도서관 건립계획을 위한 현황조사, 기초자료 조사, 현지조사, 관계자 면담 등의 조사방법을 적용하되, 분석방법은 통계기법 및 비용-편익 위주의 경험적 분석을 배제하고 분관의 특성을 중심으로 검증하는 문헌분석법을 채택한다. 따라서 부산광역시의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사업 구상」에 포함된 ‘국립부산도서관 건립’의 골자와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의 ‘국립부산도서관(가칭) 건립 검토보고’, 그리고 중앙기관의 사업계획(안)인 ‘국립중앙도서관 부산분관 설치’에서 그 필요성과 시급성, 예정입지의 적합성(영향

15) 제9조의 2(대규모개발사업의 예산)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 타당성 조사비,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비, 실시 설계비, 보상비와 공사비의 순서에 따라 그 중 하나의 단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평가는 제외¹⁶⁾), 건축규모와 재원조달의 적절성, 기대효과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가. 분관건립의 필요성과 시급성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은 타당성 분석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서,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나머지 모든 항목별 분석이 무의미하다. 통상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이용 및 독서환경을 제공할 목적으로 건축되는 도서관은 이동 거리, 자료수, 지출예산, 1인당 좌석수 등의 지표를 분석하고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상대 평가하여 그 필요성을 확인한다.

그러나 부산분관은 특정 봉사권역 또는 지역주민에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도서관이 아니라 지역 거점형 국립분관이기 때문에 상술한 여러 지표를 적용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부산광역시와 국립중앙도서관이 부산분관 건립사업을 발의·요청하면서 제시한 목적(검토 배경) 내지 필요성도 <표 3>과 같이 공공도서관의 그것과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국립 부산분관 건립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는가.

<표 3> 국립 부산분관 건립의 목적(배경)과 필요성 비교

부산광역시	국립중앙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지역균형발전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사업 구상」에 따른 시민 문화인프라 구축 ●각 기관, 교육·연구시설 및 시민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한 부산지역 학문발전 토대 마련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교육·문화시설의 지역분산을 통한 지역 문화향유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지역균형발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교육·문화시설의 지역분산을 통한 지역 문화향유 기회 확대 ●각 기관, 교육·연구시설 및 시민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한 지역 학문발전 토대 마련 ●현재 국립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국립문화시설 건립으로 지역 경기부양 및 고용창출 기대 ●국립시설의 운영으로 지방대학 발전 유도 ●지역 청년실업 해소

16)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한 동법 시행령 제2조(영향평가대상사업 등) 제3항의 ‘별표 1’은 ‘나. 평가대상 시설’ 아래의 ‘(과) 교육·연구시설’에서 ‘교육원·직업훈련소·연구소·도서관·학원: 건축 연면적 3만 7천㎡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산분관의 계획면적인 최대 2만평(66,000㎡)은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지만, 하야리아 부대를 입지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교통영향을 평가하기 어렵다.

첫째, 국내 도서관계가 신세기의 지식기반사회 및 지방화시대를 선도하려면 그 정점에 위치하는 국가도서관시스템을 ‘집중-분산형’으로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산분관이 그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둘째, 부산분관의 건립은 정부가 추진하는 행복도시의 건설, 중앙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방혁신도시 구상 등과 같은 국가기관의 지방분산 및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부합한다. 또한 그 범주에 국가의 핵심문화기반시설인 도서관이 포함될 때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문화적 기대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 게다가 서울의 대각점에 위치하는 부산에는 남부권 지식정보의 구심체가 절대 필요하며, 중앙관의 일부 장서를 이관하여 국가장서의 재난에 대비하고 기타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유리하다.

셋째, 부산분관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 배치되어 있는 국립교육·문화시설의 지역분산을 상징하며, 이를 통하여 영남권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자체 수집하는 해양·물류분야 등의 특화자료, 중앙관 및 지역도서관의 이관자료, 지방행정기관의 납본자료 등으로 구성되는 보존센터와 편의시설을 갖추어 남부권 교육·연구기관과 시민에게 제공할 때 지역사회의 학문발전 및 문화수준을 높일 수 있다.

넷째, 주요 선진국의 국가도서관시스템은 수도와 지방으로 분산된 형태를 유지하는데 비하여 한국은 서울에 위치한 국립중앙도서관 중심의 일극시스템이다. 이를 분산형으로 재편하여 지역사회의 문화발전, 경기부양,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성장과 발전의 단초로 삼을 필요가 있다. 또한 부산분관을 건립하여 국가문화기반시설의 서울편중에 따른 지방의 소외감과 피해의식을 최소화할 때 전국에 만연한 차별적 양극화도 줄어든 수 있다.

<표 4> 부산광역시의 공공도서관별 세부현황(관장직급, 건물면적, 소장자료 등)

소관	도서관명	관장 직급	건물(㎡)	소장자료 및 증가				개관 연월
				도서자료	연속간행물	비도서자료	연간증가책수	
교육청	시 민	부이사관	12,558	513,022	898	21,918	29,455	1982. 8
	중 앙	"	6,172	186,585	433	7,043	17,135	1990. 4
	중앙분관	"	1,418	49,703	139	6,907	8,354	1999. 11
	부 전	사서서기관	2,704	196,477	615	5,007	22,207	1982. 8
	반 송	사서사무관	1,333	119,548	491	8,278	12,803	1978. 3
	해운대	"	1,407	115,223	481	5,664	7,869	1982. 6
	구 덕	"	1,314	122,559	435	2,771	10,714	1978. 3
	서 동	"	1,019	85,111	588	4,197	9,885	1983. 5
	구 포	"	1,287	107,802	561	4,159	12,030	1983. 7
	사 하	"	1,739	92,464	444	5,971	8,029	1984. 9
	연 산	"	1,297	91,845	350	3,670	9,815	1987. 3
	명 장	"	1,700	120,746	441	6,550	10,182	1994. 3
소계(12관)			33,948	1,801,085	5,876	82,135	158,478	-
구청	강 서	행정사무관	997	32,153	156	1,781	3,911	1998. 1
	남 구	사서주사	5,259	85,631	264	5,830	8,721	1997. 7
	동 구	"	2,462	45,110	30	1,760	5,188	1998. 4
	북구디지털	공석	2,142	42,415	315	17,313	19,924	2002. 2
	영 도	행정사무관	2,009	72,087	271	2,584	7,019	1996. 7
	해운대반여	사서주사	890	36,818	17	3,551	5,926	1999. 12
	수 영	"	2,748	31,164	60	1,406	10,740	2002. 7
	금 정	사서사무관	8,466	86,213	80	9,874	11,956	1991. 12
	기 장	사서주사	2,091	53,908	33	2,073	8,000	2003. 2
	사 상	"	2,719	32,703	65	6,965	8,018	2003. 3
소 계(10관)			29,783	518,202	1,291	53,137	89,403	-
사립	추리문학관	관 장	1,566	40,253	150	300	2,000	1992. 10
	빅뱅놀이체험	관 장	289	1,804	6	1,235	0	2004. 10
	소 계(2관)		1,855	42,057	156	1,535	2,000	-
계(24관)			65,586	2,361,344	7,323	136,807	249,881	

다섯째, 부산분관이 시급히 건립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2004년말 현재 부산광역시 산하의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도서관 인프라가 전국 평균보다 훨씬 열악하기 때문이다. 부산에는 <표 4>에 집계한 것처럼 총 24개의 공공

도서관이 있지만, 1개관당 봉사대상인구가 국내 평균인 99,761명보다 53%나 더 많은 152,764명에 달하고 1인당 소장책수도 국내 평균 0.79권보다 적은 0.64권이다.¹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5>처럼 총 22개 공립 공공도서관의 연면적인 63,731㎡ 중에서 적정 수장공간을 25%(15,933㎡)로 가정할 경우에 모든 자료를 개가서고로 운영하면 지금의 소장책수가 적정 공간의 78.7%, 절충서고(개가서고+폐가서고)로 계산하면 63.4%에 불과하지만 전자는 2007년에, 후자는 2009년부터 각각 심각한 공간부족에 직면하게 된다. 이를 해소하려면 개별 도서관 내지 광역대표관의 서고공간을 각각 확충하거나 별도의 공동보존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상술한 국가균형발전, 선진국형 국가도서관시스템의 구성, 국가장서에 대한 접근격차의 해소, 지자체의 건축 및 운영재원의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면 국가예산으로 부산분관을 건립하도록 계획한 것은 타당하다.

<표 5> 부산지역 공립 공공도서관의 수장공간 및 향후 부족율 예측

구 분 연 도	건물 연면적 (㎡)	적정 수장공간* (연면적의 5%) (㎡)	소장책수 (연차증가율 기준 10%)	적정 수장공간 대비 소요공간의 비율(%)	
				개가서고 (185권/㎡)	절충서고 (185권/㎡+274권/㎡)
2004	63,731	15,933	2,319,287	78.7	63.4
2005			2,551,216	86.6	69.8
2006			2,806,634	95.2	76.7
2007			3,087,297	104.7	84.4
2008			3,396,027	115.2	92.9
2009			3,735,630	126.7	104.8
2010			4,109,193	139.4	112.4
2011			4,520,112	153.3	123.6
2012			4,972,123	168.8	136.0
2013			5,469,335	185.6	150.0
2014			6,016,269	204.1	164.5
2015			6,617,896	224.5	181.0

* 도서관 건물에서 순사용면적(수장공간, 업무공간, 이용공간)의 일반적 기준
: 연면적 75%(국내 대학도서관 70.7%, 일본 대학도서관 81.5%)
도서관의 연면적 중 자료 수장공간의 적정 비율 : 25%~30%

17) 한국도서관협회, 전게서, p. 11.

여섯째, 부산분관 건립의 당위성은 주요 선진국의 국가도서관시스템이 반증한다. 영국은 요크셔 지방에 위치하는 BLDSC를, 독일은 라이프찌히의 ‘Deutsche Bibliothek’를 편입시켜 국가도서관시스템의 양대 축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거점형 국가도서관이 설립되어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여러 관종을 지원하고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때 지역주민의 정보접근권이 강화되어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

나. 분관건립 예정입지의 특징과 적합성

통상 입지의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이 특정 시설의 건립을 계획하는 단계에 해당시설의 위치, 특성과 규모,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입지의 평가기법은 시설물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상례인데, 도서관 건립은 공공시설 입지이론이 적용되는 사례로 인구의 규모중심지·이동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타당성을 평가하거나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중심지를 파악하는 기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도서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에서 규정한 기반시설 중에서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에 속하기 때문에 동법 제43조 제2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480호) 제103조 각호에서 규정한 다음의 ‘도서관 결정기준’을 따라야 한다.

- ① 지역의 특성과 기능에 따라 도서관의 적절한 계열화를 도모할 것
- ② 규모가 큰 도서관이나 도서관의 본관은 도심지로서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하고, 위치를 확인하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
- ③ 규모가 작은 도서관이나 도서관의 분관은 대부분의 이용자가 도보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근린주거구역 또는 지역단위로 설치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와의 연계를 고려할 것
- ④ 지역별 이용인구에 따라 주민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배치간격을 유지할 것

- ⑤ 도심지에 설치하는 도서관은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조경 등 부대시설을 확보할 것
- ⑥ 눈에 잘 띄이는 장소로서 대지가 평평하고 도로에서 출입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 ⑦ 장래의 확장에 필요한 면적과 교통시설의 확대, 이동문고차의 운행 및 조경을 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로 할 것
- ⑧ 학교 및 문화시설 등 관련시설과 연계되는 지역에 설치할 것

그렇다면 국립 부산분관의 예정입지, 다시 말해서 건립 예정지는 상술한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가. 이를 평가하려면 건립 예정지 또는 후보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표 6>과 같이 ‘국립부산도서관(가칭) 건립검토 보고’는 미지정 상태이고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사업 구상」¹⁸⁾은 <그림 4>의 점선 부분, 즉 ‘하야리아(Hialeah) 공원 부지를 지목한 바 있다. 이 위치가 「건설교통부령」이 규정한 도서관의 결정기준에서 추출한 5대 핵심 입지조건(중심성, 접근성과 인지성, 연계성, 확장성)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지 평가하면 적합성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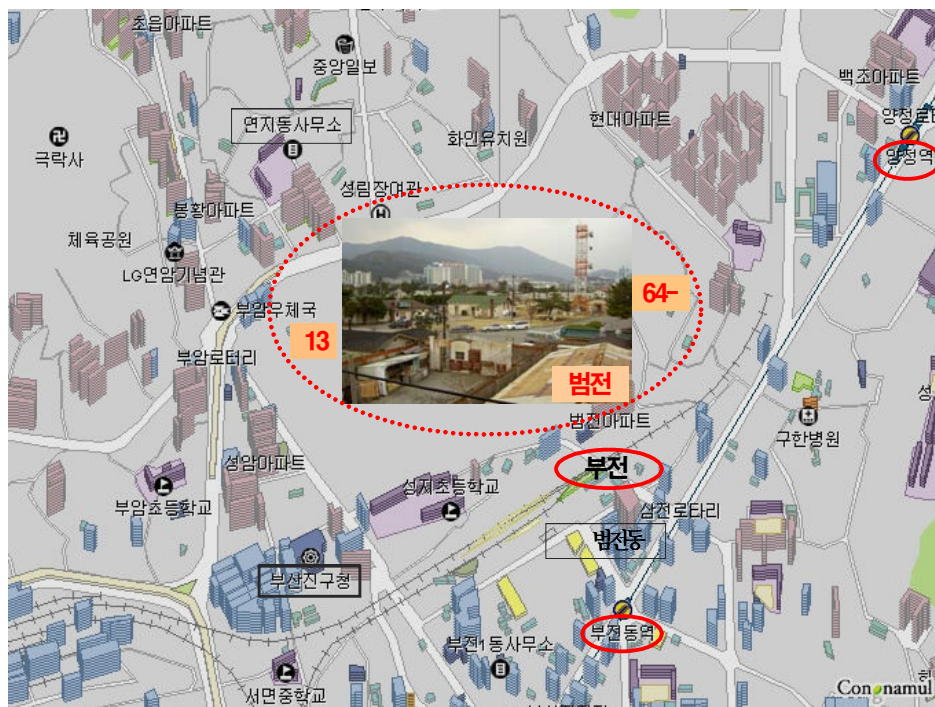
<표 6> 국립 부산분관의 건립 예정지 비교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사업 구상	국립부산도서관(가칭) 건립검토 보고
● 하야리아 공원 부지(부산 부산진구 범전동 64의 3 및 연지동 130번지 일대 16만 8천여평 내)치	● 미지정(교통여건, 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는 입장만 표명)

첫째, 부산분관의 건립 예정지는 부산광역시 산하의 지자체 가운데 도심지, 인구의 규모 및 특성을 포괄하는 중심성(centrality)에 가장 잘 부합하는 입지이다. 이 위치는 당초 2011년까지 완전 이전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한·미 미래동맹정책구상회의(FOTA)의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조기에 반환하는 것으로 확정.발표된 하야리아 미군부대의 부지로 행정구역상 부산진구 범전동 64의 3

18) 부산광역시, 전게서, p. 84.

번지 및 연지동 130번지 일대를 지칭한다. 이를 관할하는 부산진구는 서면이 있는 부산의 중심지로서, <표 7>¹⁹⁾에 집계한 바와 같이 주민등록 인구수가 40만명을 상회하는 최대 규모의 기초지자체이며, 유동인구도 가장 많은 곳이다.



<그림 4> 국립 부산분관의 건립 예정지(점선) (사진 : 하야리아 미군부대)
(지도 출처 : <http://jsaby.egloos.com/1447206>)

둘째, 국립분관 예정지로 거론되는 하야리아 부지는 접근성과 인지성도 매우 우수하다. <그림 5>에서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을 보면 지하철 부전동역이 가장 가깝고 아래에는 1호선과 2호선의 환승역인 서면역이, 위로는 양정역이 있다. 그리고 서면에서 반경 1Km 내에, 시청과는 2Km 내에 위치하는 부산시 교통의 요충지인 동시에 도심 속의 핵심 녹지공간이다. 그 외에도 부산의 대표적인 혼잡지역인 부전역이 있는데, 이 철도역은 동해남부선(부전~경주)과 경전선(부전~목포)의 출발역인 동시에 종착역이다. 이러한 접근의 우수성 때

19) 문화관광부, 2005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서울 : 문화관광부, 2005), p. 5.

문에 시민과 NGO는 하야리아 부지에 대규모 도심공원을 조성하도록 요구하여 왔으며, 지난 해 부산광역시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미군부대의 부지를 자연녹지공원으로 결정하였고 금년부터 공원화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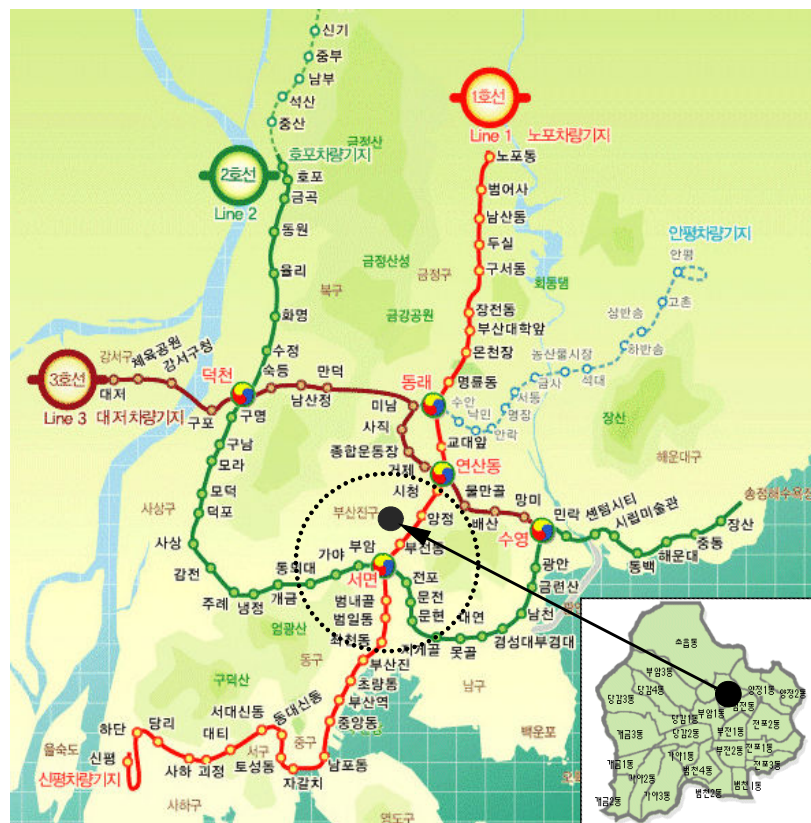
<표 7> 부산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별 인구·면적·도서관 현황

기초지자체	인구수(명)	면적(km ²)	공공도서관			
			계	지자체	교육청	사립
중 구	53,772	2.80	-			
서 구	143,172	13.68	1		1	
동 구	115,052	9.77	3	1	2	
영 도 구	166,938	13.98	1	1		
부산진구	406,860	29.68	2		2	
동 래 구	79,965	16.64	1		1	
남 구	305,595	15.93	1	1		
북 구	333,976	38.30	2	1	1	
해운대구	405,178	51.44	4	1	2	1
사 하 구	376,919	40.90	1		1	
강 서 구	56,388	179.04	1	1		
금 정 구	271,346	65.20	3	1	1	1
연 제 구	222,404	12.08	1		1	
수 영 구	181,408	10.21	1	1		
사 상 구	284,626	35.84	1	1		
기 장 군	80,554	39.2	1	1		
계(16)	3,684,153	217.90	24	10	12	2

셋째, 거론되고 있는 분관입지는 해당 자치구인 부산진구 뿐만 아니라 광역시에 산재하는 각종 공공기관과의 연계성도 매우 높다. 부산진구는 <표 8>에 집계한 바와 같이 광역시 산하의 16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많은 관공서 및 주요 기관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국가 중앙직속기관인 부산지방병무청이 관할지역 내에 있고 부산시청 및 경찰국과도 인접하고 있다. 또한 부전도서관과 광역대표도서관인 시민도서관이 구내에 있어 국립 부산분관이 건립되면 어느 지자체보다 국가의 중앙관과 지역대표관 및 단위도서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유리하다.

넷째, 분관 예정지의 확장성은 현 시점에서 재단하기 어렵다. 하야리아의 부지가 16만 4천여평(상업지역 14만 1천여평, 주거지역 2만 3천여평)에 달하지만, 시민들과 여러 NGO가 도심 녹지공원으로 개발되기를 바라고 있어 설령 국립 부산분관을 포함한 문화 및 위락시설이 들어간다고 해도 제한적인 규모일 수밖에 없다. 다만 거대한 녹지공원이 도서관을 비롯한 양질의 문화시설과 어우러질 때 시민의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 부지에 부산분관이 건립되면 한반도의 남부권을 대표하는 자료보존센터와 정보제공메카로서의 위상을 높여가야 하므로 대지 및 건물의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림 5> 부산분관 건립 예정지(점선 내)의 지하철 교통여건

<표 8> 부산진구(국립분관 건립 후보지의 관할구)의 공공·교육·문화기관 현황

주요 시설		단위수	소계	비 고
지방행정관서	구 청	1	29	
	동사무소	25		
	직속기관	1		
	사 업 소	2		
경찰서. 소방관서	경찰.지파출소	21	25	경찰서 1개, 지파출소 20개
	소방파출소	4		
법원.검찰관서	등 기 소	1	1	
교육기관	교 육 청	2	117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진구교육청 유치원 44개, 초등 31개, 중학 19개, 고등 18개, 대학 3개
	학 교	115		
우 체 국		16	16	
중앙직속기관		1	1	
방송.전화국	전 화 국	2	3	
	방 송 국	1		
협동조합		18	18	농업 10개, 축산업 3개, 수산업 5개
문화공간	공연시설	10	24	민간공연장 4개, 영화상영관 6개 복지관 4개, 청소년회관 1개 시민도서관, 부전도서관
	전시시설(화랑)	7		
	문화복지시설	5		
	도 서 관	2		
언론출판기관	출 판 사	108	110	방송사 1개, 신문사 1개
	방송.신문사	2		
계		344		

다. 건축규모와 자원조달의 적절성

일반적으로 신축할 건물의 규모는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용적율, 건폐율, 사선제한 등을 고려하여 최대 규모로 산출한 후에 건물의 형태적 및 환경적 측면을 감안하여 적정 규모를 도출한다. 그런 다음에 국내외의 유사한 건축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방식으로 규모 및 시설을 비교하고 특별한 상황요소를 추가하여 적절성을 평가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부산분관의 경우, 부산광역시와 국립중앙도서관은 각각 <표 9>와 같이 9,000평

(29,700m²) 이상의 부지에 17,000평(56,100m²)~20,000평(66,000m²)의 연면적' 을 적정 규모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소요재원도 부지는 부산시가 부담하고 건축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제안하되, 그 추정액을 최대 1,500억원으로 잡고 있다. 이처럼 사업규모나 소요비용이 동일한 이유는 부산광역시가 발의한 건립규모를 국립중앙도서관이 적정한 것으로 보고 그대로 수용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9> 국립 부산분관의 건축규모와 소요재원 비교

구분	부산광역시	국립중앙도서관
건축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 9,000평 이상 ● 연건평 17,000평~20,000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 9,000평 이상 ● 연건평 17,000평~20,000평
	* 열람실, 자료보존실, 교양강좌실, 휴게시설 등	* 열람실, 자료보존관, 사서연수관, 디지털관, 편의시설 등
소요 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비 : 1,200억~1,500억원(국비) ● 부지 매입비 : 별도(부산시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비 : 1,500억원(국비) ● 부지 매입비 : 200억원(부산시 부담)

그렇다면 먼저 양자가 계획한 부지면적과 건축규모는 적절한가. 부지의 경우는 하야리아 부대가 이전된 후의 용도를 자연녹지공원으로 결정한 이상, 도시지역 가운데 녹지 또는 관리지역 중에서 계획관리 내지 보전관리의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건축법」 제47조에서 규정한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의 바닥면적)과 제48조의 용적율(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의 연면적)에 근거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과 제78조 제1항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를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따라서 부산분관 건립을 위한 건폐율은 20%~40% 이하, 용적율은 100% 이하를 적용해야 한다.

<표 10> 건물의 건폐율과 용적율 기준

구 분	건폐율 (제77조 제1항)	용적율 (제78조 제1항)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가. 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 1천50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가.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이 경우에 계획한 건물의 연면적은 규모의 경제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간인지를 판별함으로써 부지면적의 적절성도 가늠할 수 있다. <표 10>에서 부산분관에는 자료보존관, 사서연수관, 디지털관, 열람실, 편의시설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통상의 공공도서관처럼 다목적 복합공간으로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남부에 치우쳐 있는 부산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면 사서연수관은 제외하는 대신에 다른 용도로 계획하는 것이 합당하며, 교육학술 중심도시인 대구에 국립분관을 설립하여 사서연수관을 운영·설치할 때 교육대상자 및 교수요원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다. 따라서 연면적의 75% 내외를 순수용면적(수장공간, 업무공간, 이용공간)으로 배정할 때 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간의 활용성이 극대화되며, 기능별 공간구성도 수장공간 30%~35%, 직원공간 5%~10%, 이용공간 40%~45%, 기타 공유공간 20%로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²⁰⁾ 부산분관은 자료보존센터가 핵심기능이므로 이용공간을 25%~30%로 축소하는 대신에 수장공간을 일본의 관서관처럼 45%~50%로 확대해야 한다. 이를 부산시와 국립중앙도서관이 계획한 최대 연면적(20,000평)에 적용하면 부산분관의 자료수장공간은 9,000평~10,000평이 되며, 수장공간 적용비율의 구간별 및 축적방식별 수장책수를 시뮬레이션하면 <표 11>과 같이 30%를 배정하여 절충형(개가제+폐가제)으로 축적하는 경우에는 약 455만권, 40%를 배정하면 530만권, 50%를 배정하면 757만권을 보존할 수 있다.

20) 윤희운, 전게서, p. 309.

<표 11> 부산분관의 수장공간 배정비율 및 서고운영 방식에 따른 자료 수장량

구간 서고 운영	건물의 연면적 중 수장공간의 배정비율				
	30% (6,000평=19,800㎡)	35% (7,000평=23,100㎡)	40% (8,000평=26,400㎡)	45% (9,000평=29,700㎡)	50% (10,000평=33,000㎡)
개가제	3,363,000권	4,273,500권	4,884,000권	5,494,500권	6,105,000권
폐가제	5,425,200권	6,329,400권	7,233,600권	8,137,800권	9,042,000권
절충형*	4,544,100권	5,301,450권	6,058,800권	6,816,150권	7,573,500권

* 절충형은 개가제와 폐가제를 각각 50% 적용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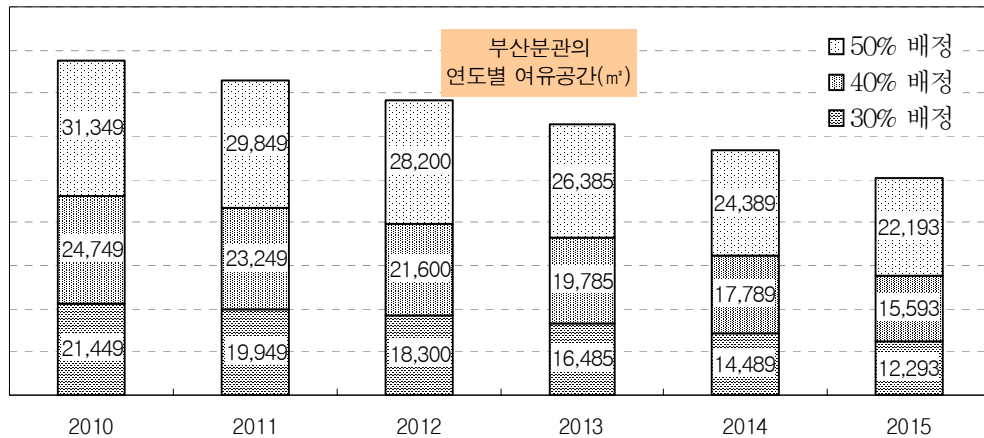
이러한 축적량은 부산지역의 공공도서관이 수장공간의 부족으로 부산분관에 이관해야 할 자료를 <표 5>에 근거하여 재산출한 <표 12>와 <그림 6>을 보면 2010년에 개관한다는 전제 하에 2015년까지 약 296만권을 이관하더라도 연면적 중에서 수장공간의 비율을 30%로 설정하면 약 12,293㎡(3,725평), 40%로 잡으면 약 15,593㎡(5,725평), 최대 50%로 가정하면 약 22,193㎡(6,725평)가 여유공간으로 남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 이후에도 자체 수집한 자료 뿐만 아니라 지역의 공공도서관 및 서울 중앙관의 일부 자료를 수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대 20,000평으로 계획한 연면적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는 부담능력이나 비용산정의 측면에서 현실성이 있는가를 검토하면, 2005년말을 기준으로 16개 광역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그림 7>처럼 7대 광역시와 경기도가 전국 평균치인 56.2%를 상회하는 반면에 8개 광역도는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그 가운데 부산광역시는 73.4%로 비교적 높지만, 분관건립 예정지의 관할지자체인 부산진구의 재정자립도는 <그림 8>에 도시한 것처럼 1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높은 43.3%임에도 불구하고 절반을 밑도는 열악한 수준이다.

<표 12>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자료의 부산분관 이관 후
수장공간 배정비율별 여유공간

구분 연도	부산지역 공립 공공도서관의 이관 대상책수 (소요공간*)	자료이관 후 부산분관의 수장공간 배정비율별 여유공간*		
		30% 배정 (23,100㎡)	40% 배정 (26,400㎡)	50% 배정 (33,000㎡)
2010	452,340권 (1,651㎡)	21,449㎡ (6,515평)	24,749㎡ (7,500평)	31,349㎡ (9,500평)
2011	863,259권 (3,151㎡)	19,949㎡ (6,045평)	23,249㎡ (7,045평)	29,849㎡ (9,045평)
2012	1,315,270권 (4,800㎡)	18,300㎡ (5,545평)	21,600㎡ (6,545평)	28,200㎡ (8,545평)
2013	1,812,482권 (6,615㎡)	16,485㎡ (4,995평)	19,785㎡ (5,995평)	26,385㎡ (7,995평)
2014	2,359,416권 (8,611㎡)	14,489㎡ (4,391평)	17,789㎡ (5,391평)	24,389㎡ (7,391평)
2015	2,961,043권 (10,807㎡)	12,293㎡ (3,725평)	15,593㎡ (5,725평)	22,193㎡ (6,725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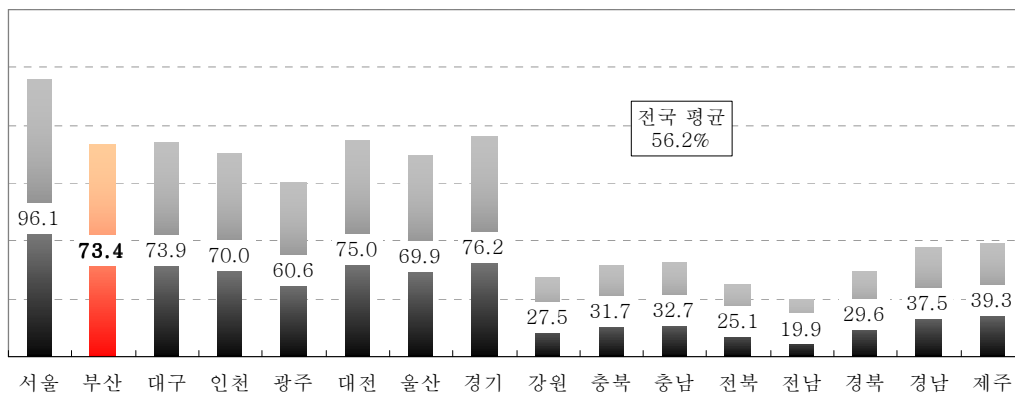
*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이 국립 부산분관으로 이관할 자료는 보존용이기 때문에 1㎡당 274권을 기준으로
소요공간을 산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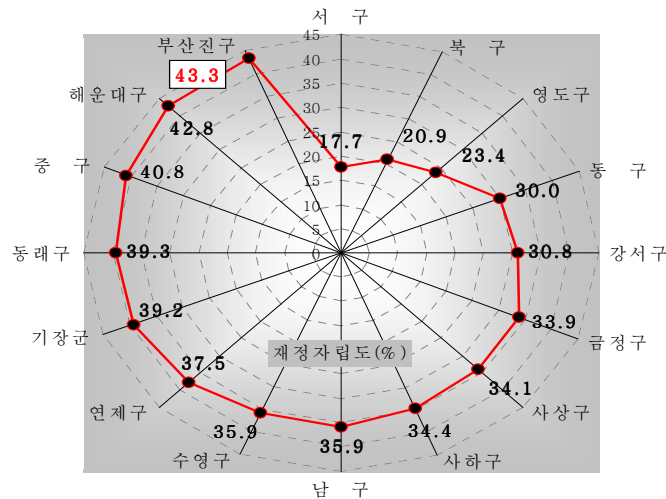
<그림 6> 부산분관의 수장공간 비율에 연도별 수장공간 감소추이

이러한 재정능력을 감안하면 부산시가 부지비용을 해결하고 국가가 건축비를 부담하는 방식은 적절하며, 국가도서관시스템의 재편을 통한 외연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도 당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게다가 하야리아 부대의 이전부지를 공원 등의 공공용지로 사용할 경우에 부지양여 비용 중 70%를 국가

가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5년에서 20년까지 장기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따라서 하야리아 부지(16만 4천평)의 추정 매입비용인 2,700억원 중에서 70%인 1,890억원을 정부가 부담하고 부산시가 810억원을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어 이자를 포함한 연간 부담액은 40억~50억원에 불과하다.



<그림 7> 전국 광역자치체의 재정자립도 비교(2005)



<그림 8>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 재정자립도(2005)

한편 현재 국내에서 신축되는 도서관의 건축비는 평당 600만원 내외이다. 그런데 부산광역시와 국립중앙도서관은 최저 750만원(15,00억원÷20,000평)에서 최고 883만원(15,00억원÷17,000평)까지 계상하고 있다. 물론 부산시의 주장대로 주민의 편의성을 최대로 보장하는 복합 문화공간을 구상하고, 영남권의 모든 관중을 대변하는 중심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부산의 대표적인 건축물로 인식되도록 설계하려면 평당 건축비가 증가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비는 보다 설득력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라. 분관건립의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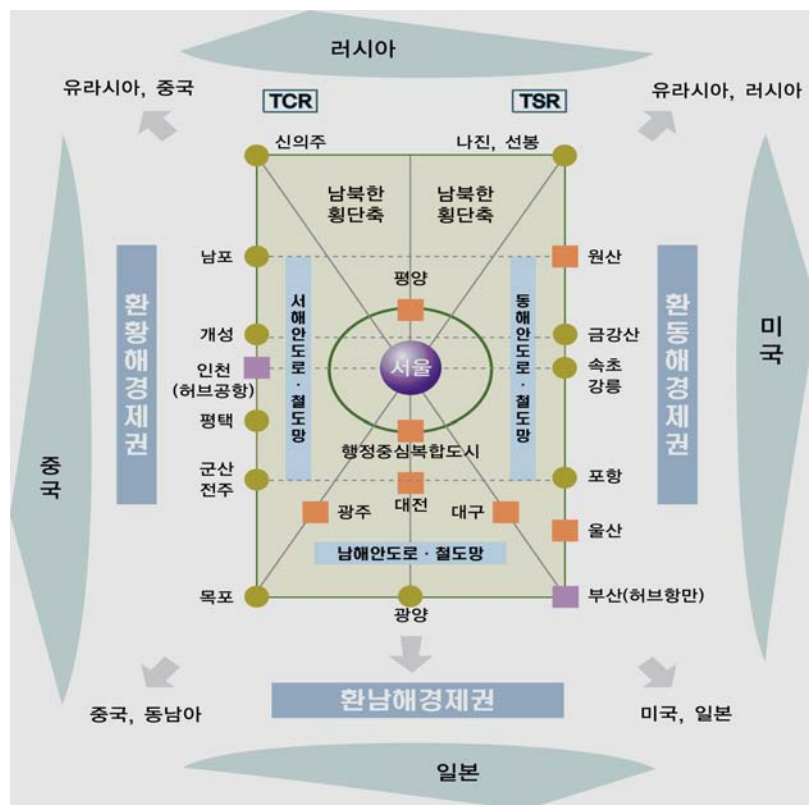
부산분관은 국가차원의 막대한 신축비가 투입될 뿐만 아니라 건립된 이후에도 매년 고정비 성격의 인건비와 기타 운영비를 지출해야 하는 만큼 그것의 기대효과를 담백하게 논급할 필요가 있다. 부산분관 건립의 발의주체인 부산시와 중앙정부의 주무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은 <표 13>과 같이 기대효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편의상 서울의 중앙관, 부산지역의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여러 관중별 도서관, 그리고 지역사회와 주민으로 나누어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표 13> 국립 부산분관 건립의 기대효과

부산광역시	국립중앙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남권 학문의 중심지 :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의 중심으로서의 역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 도서관 이용객 및 관광객 방문, 부산지역 업체 건립 참여, 근무자 등 인력 채용 ●도서관 협력체제 구축 : 부산, 울산 및 경남 일원의 중심 도서관으로서 역할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 신장 ●부산 등 지역학문의 발전토대 마련 : 지역별 특화분야의 자료 수집·보존, 지역주민에 정보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 관련지역 업체 건립 참여, 근무자 등 인력 채용 ●도서관 협력체제 구축 : 지역내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의 구심체 역할

첫째, 가장 거시적인 기대효과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부산분관 건립이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양과 지방분권으로 대표되는 국가균형발전과 국력증진에 적

극 동참한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주지시키는데 일조한다는 점이다. 최근에 정부는 동북아 경제권을 형성·주도하기 위한 한반도 공간구상 모델을 <그림 9>²¹⁾와 같이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반도국가’로서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한반도를 IT·첨단산업·관광·물류의 허브로 육성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3대 해양경제권과 1개 북방경제권을 형성하여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장기 국력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부연하면 서울을 기준으로 남쪽의 대각점에 위치한 부산을 미국 및 일본의 허브항만으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이 부산에 분관을 건립하여 해양 및 물류정보를 최대한 수집·제공할 경우에 고용창출에 이은 지역의 경제발전과 국력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림 9> 동북아 시대의 한반도 공간구상 모델(연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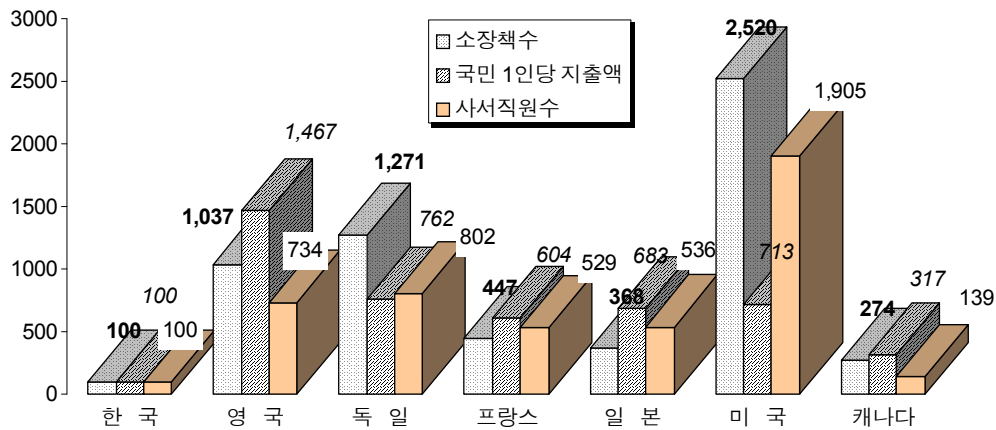
21)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 비전과 성과보고(2005. 11), p. 57.

둘째,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핵심 인프라는 대다수 문화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열악하다. 2001년말을 기준으로 주요 선진국의 국가도서관 인프라(서비스 포인트, 직원, 지출액, 자료)와 서비스를 집계한 <표 14>²²⁾와 그 일부를 지수로 변환하여 비교도시한 <그림 10>이 반증한다. 물론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과 달리 한국에는 2개의 국가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이 양립하는 상황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의 그것만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지만, 그럼에도 핵심지표인 소장책수와 전문인력은 절대 취약하다. 이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은 아니라 하더라도 부산분관의 건립은 신세기형 국가도서관시스템을 구축하고 외연을 전국으로 확장시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가장서의 일부를 이관함으로써 중앙관의 공간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표 14> 주요 국가도서관의 인력·자료·서비스의 비교

지표 국가	인구 (천명)	서비스 포인트수	직원		지출액/ 1인 (유로)	자료			서비스	
			사서	전체		소장책수 (도서+제본잡지) (천권)	현행 잡지 종수	소장책수 /1천명	방문회수 /1천명	대출책수 /방문자
영 국	60,297	6	1,005	2,827	3.52	29,030	67,800	481.5	9.3	8.2
독 일	82,214	10	1,099	2,106	1.83	35,610	82,673	433.2	19.3	2.5
프랑스	60,223	2	725	2,527	1.45	12,510	10,940	236.8	60.2	0.6
일 본	127,171	4	734	858	1.64	10,290	62,059	80.9	3.9	7.7
한 국	49,235	2	137	253	0.24	2,800	23,354	56.9	4.3	1.0
미 국	275,828	45	2,610	5,670	1.71	70,560	238,662	255.9	15.7	1.7
캐나다	31,375	1	190	421	0.76	7,670	37,060	24.5	0.6	10.2

22) http://www.libecon.org/database/current/nat_2003.xls



<그림 10> 주요 국가도서관의 장서.예산.인력지수 비교(한국=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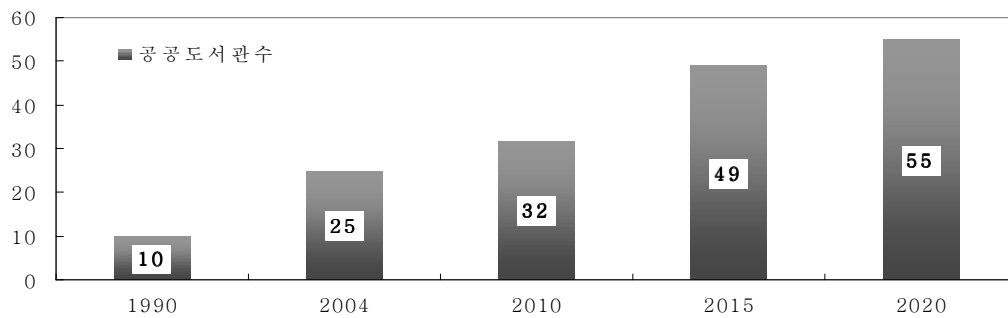
셋째, 부산분관의 건립은 남부권 도서관의 협력체계 구축과 이를 통한 정보 입수 및 학문발전을 촉진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총 24개의 공공도서관을 포함하여 부산에 산재하는 도서관의 분포지도는 <그림 11>과 같다.²³⁾ 그러나 부산시의 공공도서관 인프라는 전국 평균보다 낮기 때문에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사업 구상」을 통하여 <그림 12>처럼 2020년까지 총 55개관으로 늘리는 한편, 국립 부산분관을 건립하여 지방분권과 지식정보화의 상징시설로 조성하고 동남권 지식정보의 허브시설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²⁴⁾ 따라서 부산분관이 건립되면 자체 수집한 자료, 중앙관 및 각종 도서관에서 이관한 자료로 국가장서를 구축하여 남부권 자료보존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도서관의 상호대차 및 개인의 원스톱 접근.이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데 유리하다.

23) http://203.241.185.12/asd/read.cgi?board=News&nnew=2&y_number=2994

24) 부산광역시, 부산발전연구원, 전게서, p. 16.



<그림 11> 부산광역시의 도서관 분포 지도



<그림 12> 부산광역시의 공공도서관 달성 지표(2020)

마지막으로 분관건립에 따른 가장 직접적인 기대효과는 부산시민을 비롯한 남부권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이용권리가 크게 신장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서울중심의 국가도서관 운영시스템은 지역사회의 상대적 박탈

감과 차별의식을 가중시켜 왔다. 2004년에 국가 도서관정책이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역사회를 위한 중앙관의 지원활동이 강화되고 있으나, 체감도가 낮아서 그런지 지역민들의 불평과 불만은 여전하다. 그 저변에는 국가장서에 대한 신속한 접근과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차별의식과 불만을 해소하는데 유용한 정책적 수단 중의 하나가 거점형 국립분관의 설립이며, 그것은 어떤 국가서비스보다도 중앙과 지역간의 정보접근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환원하면 부산분관은 남부권 지역주민의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향유권을 보장하는 메카가 될 것이다.

4.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을 대표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이 본연의 책무와 역할을 강화하되, 국가균형발전 내지 지방분권정책을 감안하여 대도시를 봉사권역으로 하는 거점도서관 또는 지역분관을 설립·운영하게 함으로써 국가 지식정보의 분산형 보존관리와 대국민 접근·이용의 편의성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부산광역시와 부산발전연구원이 수립한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사업 구상」에 포함된 ‘국립부산도서관 건립’의 골자,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의 ‘국립부산도서관(가칭) 건립 검토보고’, 그리고 중앙기관의 사업계획(안)인 ‘국립중앙도서관 부산분관 설치’에서 그 필요성과 시급성, 예정입지의 적합성, 건축규모와 재원조달의 적절성, 기대효과를 발췌하여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관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논거는 타당하다. 부산분관의 건립은 정부가 추진하는 행복도시의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방혁신도시 구상 등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산에는 남부권 지식정보의 중심체가 절대 필요하며, 중앙관의 장서를 이관하여 재난에 대비하고 기타 위험관리를 위해서도 분관건립이 시급하다. 그리고 남부권 교육·연구기관과 시민

의 학문발전 및 문화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부산분관의 건립은 지역사회의 문화발전, 경기부양,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국가문화기반시설의 서울편중에 따른 소외감과 피해의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부산지역의 공공도서관은 개가서고로 추정하면 2007년, 보존서고로 잡으면 2009년부터 심각한 공간부족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공동보존관 설립을 생각할 수 있으나 국가균형발전, 선진국형 국가도서관시스템의 구성, 국가장서에 대한 접근격차의 해소, 지자체의 건축 및 운영재원의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면 국립분관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부산분관의 건립 예정지는 적합하다.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사업구상」은 부진진구의 ‘하야리아 미군부지를 분관건립의 후보지로 지목하였는데, 이 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의 핵심 입지조건(중심성, 접근성과 인지성, 연계성, 확장성)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한 결과, 부산시의 지자체 가운데 도심지, 인구의 규모 및 특성을 포괄하는 중심성에 가장 잘 부합하며 접근성과 인지성도 매우 우수하다. 또한 당해 자치구인 부산진구와 광역시에 산재하는 각종 공공기관과의 연계성도 매우 높다. 다만 예정지의 확장성은 현 시점에서 평가하기 어렵다.

셋째, 건축규모와 재원조달의 방법도 적절하다. 먼저 부산분관은 연면적을 17,000평~20,000평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순사용면적의 적정 기준을 연면적의 75%, 수장공간을 순사용면적의 최대 50%로 잡을 경우에 약 757만권을 보존할 수 있다. 따라서 부산지역의 공공도서관이 수장공간의 부족으로 2015년까지 이관할 약 296만권을 수용하더라도 약 22,193㎡(6,725평)가 여유공간으로 남게 되므로 2015년 이후에도 자체 수집자료, 지역도서관 및 서울 중앙관의 일부 자료를 수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재원조달의 경우, 부산시가 부지를 해결하고 정부가 건축비를 부담하도록 한 것은 부산시의 재정부담과 국가도서관시스템의 외연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적정하다. 다만 국내 도서관의 평당 건축비가 600만원 내외인데 부산분관의 건축비를 750만원~883만원으로 계상한데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분관건립의 기대효과는 적절하게 제시되었고 타당하다. 그럼에도 서울의 중앙관, 부산지역의 도서관, 지역사회와 주민으로 구분하여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대효과를 검토한 결과, 부산분관 건립은 국가균형발전과 국력증진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천명하고 주지시키는데 일조한다. 또한 국가도서관시스템의 재편과 외연 확장에 기여하며 중앙관의 부족한 공간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남부권 도서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정보입수 및 학문발전을 촉진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직접적인 기대효과는 부산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이용권리를 신장시키고, 중앙과 지방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 지구촌의 인구에 회자되는 지식기반경제와 디지털 유토피아는 지식정보에 대한 무제한적 접근과 공유를 전제조건으로 한다. 그것은 도서관을 단순 영조물에서 유기체적 정보공유지로 격상시키고 무차별적 접근과 이용을 보증할 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도서관이 대중의 기본권인 지식정보의 자유로운 접근권과 향유권을 보장하지 못하면 진정한 민주사회, 문화국가, 디지털 유토피아를 기대할 수 없다. 그 중심부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은 시대상황에 부합하는 정책과 제도를 정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의 도서관을 지원·견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은 기본에 충실하되 사고를 일신하여 관행을 혁파하려는 각오로 신세기형 국가도서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디지털과 고속철도가 시공간적 거리를 극도로 좁히는 작금에도 수도권 이외에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은 좀처럼 약화되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지역사회가 기대하는 국가도서관의 서비스는 무엇이며 국립중앙도서관은 어떤 시스템을 제공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사고와 발상의 전환을 전제로 하는 ‘집중-분산형 국가도서관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 부산분관의 건립이 그 신호탄과 도화선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참여정부 균형발전정책 비전과 성과.” 혁신도시보고회발표자료(060221.pdf)
- 国立国会図書館. “開館3周年を迎えた関西館.” 国立国会図書館月報, 第536号 (2005. 11), pp.1-9.
- 国立国会図書館. 国立国会図書館関西館(仮称)設立に関する第二次基本構想」策定. 東京 : 国立国会図書館, 1991.
- 国立大学図書館協議会. 保存図書館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東京 : 同協議會, 1994.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디지털도서관(가칭) 건립 기본계획(프로그램) 수립 기술영역 보고서.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2.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2010.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5.
- 국립중앙도서관. 2005년도 도서관협력망 운영실태 자료집 : 공공도서관.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5.
- 국립중앙도서관 편. 21세기 도서관이 나아갈 길.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4.
- 盧荷生. “談國家圖書館之經營.” 國家圖書館館刊, 九十二年 第1期(2003, 4), pp. 17-26.
- 多摩地域の図書館をむすび育てる会, 多摩地域から東京の図書館を考えるプロジェクト. 東京にデポジット・ライブラリーを作ろう! : 多摩発. 共同保存図書館 (デポジット・ライブラリー) 基本構想(2003. 9)
- 大西 康雄. “図書館情報の社会的機能 : インターネット時代の図書館情報をめぐって.” 山梨県立女子短期大学紀要, 第35号(2002. 3), pp.93-104.

- 図書館をハブとしたネットワークの在り方に関する研究会. 地域の情報ハブとしての図書館 : 課題解決型の図書館を目指して. 東京 : 同研究会, 2005.
- 문화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서울 : 문화관광부, 2005.
- 문화관광부. 독서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 서울 : 문화관광부, 2001~2003.
- 부산광역시, 부산발전연구원.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사업 구상. 부산 : 부산광역시, 2005.
- 윤희운. “대구지역 공공도서관 자료보존의 문제와 대안.” 대구 공공도서관 직원 세미나 자료집(대구 : 중앙도서관, 2005), pp. 7-21.
- 윤희운. “도서관정책의 신조류와 시사점.” 國會圖書館報, 제34권, 제4호(2004, 1), pp. 16-30.
- 윤희운. “지방분권과 공공도서관의 향방.”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8권, 제4호(2004, 12), pp. 25-48.
- 윤희운. “한국 도서관·정보정책의 스펙트럼과 지향성.”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3권, 제3호(2002. 9), pp. 41-60.
- 李叔玲. 英美兩國國家圖書館體制與功能之比較研究. 臺北 : 漢美, 1990.
- 張慧銖. “國家圖書館與資訊服務政策 : 馬來西亞與臺灣之比較研究.” 大學圖書館 第一卷 第一期(1986, 1), pp. 79-102.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도서관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서울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2.
- 黃世雄, 胡歐蘭. 「國立圖書館整併案」研究報告. 臺北 : 國立台中圖書館, 2001.
- British Library. The British Library for Scholarship, Research and Innovation : Strategic Objectives for the Year 2000. London : BL, 1993.

- British Library. Measuring Our Value : Results of an Independent Economic Impact Study Commissioned by the British Library to Measure the Library's Direct and Indirect Value to the UK Economy(2004) <<http://www.bl.uk/pdf/measuring.pdf>>
- British Library. Redefining the Library : The British Library's Strategy 2005-2008. London : British Library, 2005.
- Cilip & British Council. An Investment in Knowledge :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in the United Kingdom 2002. London : Cilip & British Council, 2002.
- Council on Library & Information Resources. Library as Place : Rethinking Roles, Rethinking Space. Washington, D.C. : CLIR. 2005.
-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Framework for the Future : Libraries, Learning and Information in the Next Decade. London :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2002.
- 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 Libraries, Museums, Galleries and Archives for All : Co-operating Across the Sectors to Tackle Social Exclusion. London : DCMS, 2001.
- Fuentes-Romero, J.J. "National Libraries : Their Position with Regard to Cultural and Ethnic Minorities." Alexandria, Vol.16, No.1(2004), pp. 49-59.
- Goodrum, Charles A. "National Libraries," In ALA World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2nd ed., edited by R. Wedgeworth, et al. Chicago : ALA, 1986, pp. 580-592.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The Public Library Service : IFLA/UNESCO Guidelines for Development. München : K.G. Saur, 2001.

- Kempf, Klaus. “Storage Solutions in a Co-operative Library System : The Case of Germany/Bavaria.” Library Management, Vol.26, No.1-2(Jan. 2005), pp. 79-88.
- Lor, P.J. Guidelines for legislation for National Library Services. Paris: UNESCO, 1997.
- Missingham, Roxanne. “A New Strategic Direction for the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Alexandria, No.16(2004), pp. 37-48.
- National Preservation Office. A National Preservation Strategy for Library and Archive Collections in the United Kingdom and Ireland : Principles and Prospects. London : British Library, 2001.
- Research Support Libraries Group. Co-ordinating the Distributed National Collection of Research Resources : Report to the Research Support Libraries Group. London : The Group, 2001.
- Resource, the Council for Museums, Archives and Libraries. Building on Success : An Action Plan for Public Libraries. London : Resource, 2001.
- Varlamoff, Marie-Thérèse. “The Share of Preservation Issues When Planning a Library Building.” Liber Quarterly, Vol.12(2002), pp. 14-25.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공연권에 관한 연구

이 호 신*

1. 여는 말

오늘날의 도서관은 도서의 소장·열람·대출이라는 전통적인 서비스의 제공 이외에도 지역사회의 문화거점으로 역할하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보를 기록하고 전달하는 매체와 기술이 다양해지면서 도서 이외에도 CD, 카세트 테이프, 비디오, DVD, 컴퓨터파일과 같은 멀티미디어 자료를 소장하고 이러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기기를 구비하여 제공하고 있다.

도서관에서 행해지는 각종 문화행사와 자료 제공도 여러 가지 형태의 저작물 이용을 필수적으로 동반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적용범위가 된다.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이용은 그 공익적인 목적을 인정받아서 저작권 면책에 해당되는 경우가 상당수 포함되지만, 그 모든 경우에 있어서 면책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도서관의 저작물 이용이 면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하고 있는 까다로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하는 도서관 사서들도 저작권에 대한 적절한 지식을 갖추는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 글은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문화행사와 멀티미디어 자료의 이용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저작물의 복사와 전송에 관한 사항은 이미 다른 문헌에서 많은 검토가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글은 저작권의 여러 가지 지분 권리 가운데에서 공연권에 관한 부분으로 논의를 한정하려고 한다. 먼저 법률 내용의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 공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정보관 사서 (leehs@arko.or.kr)

연권의 내용과 그것이 제한되는 범위를 살펴보고 최근에 이루어진 저작권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그리고 도서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별적인 사례와 면책을 인정받기 위한 그 세부적인 요건을 살펴보도록 한다.

2. 공연권과 그 제한

가. 공연의 개념과 공연권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작물이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창작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창작의 동기를 부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구성원들이 문화적 성취를 고르게 향유할 수 있도록 저작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서로 상반되는 역할의 균형을 통해서 저작권은 문화의 향상과 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한 경제적인 권리를 뜻하는 저작재산권과 인격적인 권리를 뜻하는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진다.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또한 각각 세분화된 지분권으로 나누어진다.

공연권은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방송권과 같은 저작재산권의 지분권 가운데 하나이다. 공연권이란 저작물의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스스로 공연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하도록 허락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배타적인 권리를 뜻한다.(저작권법 제17조) 다시 말해서 저작물을 적법하게 공연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에게 적절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3호는 공연을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연술·상영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이의 복제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연극저작물을 무대에서 실행하여 관객들이 볼 수 있도록 실현하는

‘상연’, 음악저작물을 악기를 이용해서 실연하는 ‘연주’, 음악저작물을 목소리를 통해서 실연하는 ‘가창’, 시, 소설, 논문과 같은 어문저작물을 목소리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연술(演述)’, 영화와 같이 영상으로 제작된 저작물을 영상막에 영사하는 ‘상영’ 하는 행위가 모두 저작권법상의 공연에 해당이 된다. 또한 이런 행위들을 녹음하거나 녹화한 복제물을 재생해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행위도 저작권법상의 공연에 해당된다. 따라서 판매용 음반이나 비디오테이프를 구입하여 음악감상실, 백화점, 호텔, 음식점 등에서 기계적으로 재생하여 고객이 보거나 들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도 모두 공연의 범주에 포함된다.¹⁾

이 때 ‘일반공중’이라 함은 불특정다수 또는 통상적인 가족이나 친지 등 개인적인 관계에 의하여 서로 연결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상당수의 사람들(a substantial number of person)을 말한다.²⁾ 가족과 친지 등으로 참석범위가 한정되는 통상의 결혼식이나 피로연에서의 연주,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연습을 위한 연주, 가정에서의 수인의 동호인을 위한 연주나 상영 등은 공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³⁾ 그러나 가족이나 친지 이외의 다수인이 참석하는 결혼식에서의 저작물 실연은 공연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정당의 집회나 단체의 회원 대회는 특정한 다수의 모임이지만 개인적인 관계에 의하여 서로 연결되는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 이루어진 실연은 공연에 해당된다.⁴⁾

한편 동일인이 점유하는 서로 연결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송신도 공연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공연의 대상이 되는 일반공중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있지 않더라도 동일인의 점유 하에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마땅히 공연에 해당이 된다. 또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서로 다른 시간에 일반공중에게 제공되는 행위들도 모두 공연에 해당이 된다.

1) 오승중, 이해완 <저작권법> 제3판. 서울 : 박영사, 2004. 283쪽.

2) 이성호, “저작권법상 ‘공연’의 의미와 노래방 업주의 책임,” 대법원판례해설 제25호(1996.11), 법원행정처, 599쪽.

3) 오승중, 이해완. 앞의 책, 284쪽.

4) 김병일, “음악공연권과 그 제한에 관한 고찰” <산업재산권> 제17호, 2005년 218쪽.

나. 공연권의 제한

공연권은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배타적인 권리이다. 저작물을 공연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연권은 일반공중의 문화감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⁵⁾ 때문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배타적인 권리인 공연권을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26조는 공연권에 대한 면책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 세부적인 내용과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에 대한 면책

저작권법 제26조 제1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해당이 되려면 먼저 해당 저작물은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하며, 공연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하며, 입장료 등 반대급부를 징수하지 않아야 하며, 출연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며, 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표된 저작물” 이라 함은 공연·방송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된 경우와 일반공중의 수요를 위해 복제·배포된 저작물⁶⁾이어야 면책의 대상에 포함됨을 의미한다. 즉, 누구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접근이 가능한 상태에 놓인 저작물이어야 함을 의미한다.⁷⁾

저작물의 공연이 직접적으로는 물론 간접적으로도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면책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리’란 ‘어떤 활동이나 수단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⁸⁾ 따라서 공연을 통해서 입장료와 같은 직

5) 허희성, <신저작권법초개설(상)>, 저작권아카데미(2001), 282쪽.

6) 오승중, 이해완, 앞의 책, 84쪽.

7) 채명기, <저작권법상 비영리 목적의 공연에 관한 연구> 1999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쪽.

8) 앞의 책, 쪽.

접적인 이익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한 홍보와 광고 등으로 간접적인 반사효과를 기대하는 경우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기업 등이 자사의 홍보나 상품에 대한 광고를 목적으로 행하는 무료시사회나 연주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⁹⁾

또한 청중이나 관객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 반대급부를 받는 경우에는 이러한 면책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관람객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공연 자체는 무료이지만 일정한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해서만 공연장에 입장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회비 자체가 반대급부¹⁰⁾에 해당되어 면책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공연의 실연에 참여한 사람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면책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실연자(가수·악단·연기자·무용수 등)에게 보수를 줄 수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저작재산권자에게도 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용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¹¹⁾ 이 때 통상의 보수란 실연에 대한 사례와 출연료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식대나 교통비 정도의 실비를 지급하는 것은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 판매용 음반 및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무상 공연에 대한 면책

저작권법 제26조 제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음반이나 영상저작물을 이용해서 일반공중이 감상하거나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의 면책의 요건을 규율하고 있다. 이 경우는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것만으로 면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26조 제1항의 경우에 비해서 그 요건이 매우

9) 오승중, 이해완, 앞의 책, 344쪽.

10) 앞의 책, 345쪽.

11) 장인숙, <저작권법원론> 개정판, 1996년, 보진재. 100쪽.

단순하다. 이 조항은 이런 정도의 면책은 오히려 음반¹²⁾이나 영상저작물¹³⁾의 판매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¹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단서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연 자체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다면, 공연 자체가 영리 활동을 위한 보조적 도구로 사용되어도 무방하다. 또한 광고나 협찬에 의한 간접적인 급부를 받거나 실비 이상의 청소비 등을 징수하여도 이 조항에 의한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다.¹⁵⁾

그러나 음반이나 영상저작물의 공연이 영업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여 그 영업의 구성요소가 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에게도 마땅히 그 영업에 따르는 이익이 분배되는 것이 합당¹⁶⁾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최근에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령¹⁷⁾은 판매용 음반 및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무상 공연 가운데에서 면책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예외의 항목을 확대한 것으로 다음 절에서는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 판매용 음반 및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무상 공연 중 예외 항목

저작권법 시행령 제2조는 판매용 음반 및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공연하였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면

12) 저작권법 제2조에 따르면 ‘음반’은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음악을 카세트 테이프나 CD와 같은 유형물에 고정한 것은 물론이고, 음악 이외의 연설이나 특정한 소리를 유형물에 고정한 것도 모두 음반에 포함되고, 영상을 동반하는 것은 제외된 개념이다.

13) 저작권법 제2조에 따르면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 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4) 앞의 책, 101쪽.

15) 김병일, 앞의 글, 223쪽.

16) 앞의 책, 101쪽.

17) 대통령령 제19240호 (2005.12.30)

책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항목에 해당이 될 경우 해당 저작물 사용에 대한 적절한 허락을 받아서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장소에서의 저작물 사용은 개별적인 저작권자로부터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 대신에 저작권의 신탁·대리·중개를 업으로 하는 저작권위탁관리단체와 협의하여 일괄적으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저작물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¹⁸⁾

판매용 음반 및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무상공연의 면책의 요건은 비교적 간단하여 그 면책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매우 넓어질 수 있다. 때문에 이러한 면책이 저작권자의 경제적 권리를 지나치게 해칠 수도 있는 위헌적인 조항이라는 주장¹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영리적인 목적으로 판매용 음반과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공연하는 특정한 경우에 대해서 면책을 인정하지 않도록 시행령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이용이 대단히 빈번하고 상당한 과급효과를 지니고 있어 저작권자의 정당한 경제적 이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이러한 예외의 조항에 포함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다음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판매용 음반이나 영상저작물을 활용한 공연에서 면책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이 될 경우에는 적법한 권리처리를 통해 저작물을 이용해야 한다.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음식점 영업 중 무도유흥음식점에서 하는 공연
2.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으로서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일부로 하여 이를 광고하고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특별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 영업장소에서 하는 공연
3. 「한국마사회법」상의 경마장, 경륜·경정법상의 경륜장 및 경정장에서의 공연
4. 무도장, 에어로빅장 및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의 공연
5. 여객용 항공기, 선박, 열차에서의 공연

18) 오승중, 이해완, 앞의 책, 347쪽.

19) 채명기, 앞의글. 쪽. ; 김병일, 앞의 글, 248~253쪽.

6. 호텔 및 카지노 등에서의 공연
7. 백화점 또는 쇼핑센터 등에서의 공연
8.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에서 하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
9.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하는 발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 나.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미술관
 - 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 마.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원
 - 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관
 - 사. 「여성발전기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여성관련 시설
 - 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관
 - 자.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중 시·군·구민회관

이 가운데 제8호와 제9호는 2005년 12월 30일 개정된 시행령에서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제1호부터 제7호까지는 판매용 음반과 판매용 영상저작물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지만 제8호와 제9호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활용한 공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제9호는 도서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등에서 공익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연에 대한 제한이라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다. 최근 들어서 국민의 문화 복지를 확대하고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문화기관 등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영상저작물을 상영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영상제작자의 권리가 훼손되고 있다²⁰⁾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러한 활동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여 영상제작자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설된 조항이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 자체가 본질적으로 지역 주민에 대한 문화복지의 실현과 문화 향수권의 신장이라는 공익적인

20) 저작권법시행령 개정이유 (문화관광부) <http://www.mct.go.kr>

목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고려해서 발행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영상저작물의 경우로 그 예외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있다.

3.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공연

오늘날의 도서관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전통적인 매체인 도서는 물론이고 음반, 비디오테이프, 디브이디(DVD),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의 정보 자료를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과의 친화력을 높이고 도서관 이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에 매월 도서관음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의 계기로 삼고 있으며, 필자가 근무하는 아르크예술평보관에서는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매주 영상감상회와 문학작품 낭독회를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도서관이 제공하고 있는 이런 문화프로그램과 서비스에는 앞서 살펴본 공연권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 장에서는 도서관이 제공하는 각종 문화프로그램과 정보서비스에서 발생하는 공연권 문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주회

도서관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연주회 프로그램은 주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문화체험을 제공하여 문화적으로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익적인 역할과 취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공익적인 취지에서의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필요로 한다.

도서관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벌이는 연주회는 음악저작물을 불특정 다수의 관객들에게 제공하는 행위로 저작권법 상 공연에 해당함에는 아무런 이견

이 없다. 도서관이 개최하는 연주회에서의 저작물 사용이 저작권 면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26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주의 대상이 되는 음악은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하고, 공연이 영리를 위한 목적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결부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관람객이나 제3자로부터 아무런 반대급부도 받지 않아야 하며,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된다. 다만 실연자에게 실비의 교통비나 식대 정도를 지급해도 무방하다.

또한 연주의 대상이 되는 음악저작물이 이미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면 별도의 권리처리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저작물을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다.

연주회에서 사용되는 음악저작물이 가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음악뿐만 아니라 가사에 관해서도 적절한 권리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면책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은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 저작권자에게 아무런 반대급부도 제공하지 않고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고, 적절한 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적법하게 공연을 진행할 수 있다.

나. 어린이를 위한 동화 구연

최근 들어 공공도서관의 아동열람실 혹은 어린이도서관에서는 어린이와 유아들의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동화구연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대개 동화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로 분장을 한 사서 또는 자원봉사자가 어린이들을 모아 놓고 동화를 읽어주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동화구연은 어문저작물인 동화의 텍스트를 구연자가 목소리를 통해서 표현하는 실연행위로 도서관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어린이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행해진다.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2조 제3호가 언급하고 있는 연술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저작권법이 정의

하는 공연에 해당된다. 따라서 동화 구연 역시 저작권자가 실연행위에 대해서 허락을 할 수 있는 대상 행위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동화구연 프로그램이 적법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얻은 후에 프로그램이 진행되거나, 그 실연행위 자체가 저작권법 제26조가 정하고 있는 면책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도서관의 동화구연 프로그램이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서 이루어진 경우를 발견하기는 좀처럼 쉽지 않다. 상당히 많은 도서관에서 동화구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개는 저작권자에게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도서관의 동화구연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26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면책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한다. 그 세부적인 요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구연의 대상이 되는 동화는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한다. 일반공중의 수요를 위해 이미 책으로 출판이 되었거나 공연·방송·전시 등의 형태로 일반공중에 공개된 동화를 구연할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즉 누구라도 특별한 제한 없이 접근이 가능한 상태에 놓인 동화이어야 한다.

둘째, 동화구연 프로그램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도서관에서 행해지는 동화구연의 대개의 경우는 지역주민과 어린이들에게 독서활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것으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청중이나 관객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든 반대급부를 받지 않아야 한다. 청중이나 관객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고 무료로 제공되어야 하며, 참가자들에게 회비를 징수해서는 안된다. 또한 동화구연 프로그램에 대해 특정한 기업의 후원이나 협찬을 받아서도 안된다.

넷째, 동화를 구연하는 사람은 도서관으로부터 통상의 보수를 지급받아서 안된다. 이 때 통상의 보수라 함은 실연 행위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반대급부를 의미한다.²¹⁾ 동화구연이 도서관으로부터 아무런 급료도 제공받지 않는

21) 오승중, 이해완, 앞의 책. 345쪽.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데 아무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만 도서관으로부터 급료를 받고 근무하는 사서(유급 직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동화구연도 면책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에 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동화구연 행위는 도서관 직원의 직무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동화구연 활동에 직접 참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도서관은 매월 해당 직원에게 통상적인 급여를 지급할 것이다. 따라서 동화구연에 대해서 별도의 수당이나 사례를 책정하여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이다. 동화구연은 어린이에게 독서활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을 띄고 있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들로 하여금 구연되었던 동화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어 저작물에 대한 구매를 촉진시키는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저작권자의 경제적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는 실제로 어려울 것이다. 또한 구연에 직접 참여한 직원이 구연활동의 참여함으로써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이익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도 무급 자원봉사자의 활동과 마찬가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동화 구연의 실연자를 유급직원이 아닌 무급 자원봉사자만으로 제한해서 해석하는 것은 그것이 미치는 파급효과나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는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기계적인 해석일 것이다.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열람실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화구연 프로그램도 이제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는 이러한 요건에 합당하도록 구성되어야만 불필요한 분쟁이나 오해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시낭독회나 문학작품 낭독회도 어문저작물을 낭독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표현하여 불특정다수의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연술 행위의 일종으로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이 되며 동화구연과 마찬가지로 법률적인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앞서 언급한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만 면책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다. 영상물 상영 프로그램

지역주민들에게 도서관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고, 도서관 이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하나로 영화상영회²²⁾를 진행하는 경우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영화감상회는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상저작물의 녹화물을 재생하여 영사막에 비추는 상영 행위의 하나로 저작권법이 정의하고 있는 공연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 우리 저작권법은 녹음물이나 녹화물의 재생 행위 까지도 폭넓게 공연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이 행하는 영화감상회도 공연권의 적용 대상이 된다.

따라서 도서관이 저작권자에게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로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26조가 정하는 면책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한다. 영화감상회는 대개의 경우 판매용으로 제공되는 비디오테이프 또는 DVD 등을 재생하여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26조 제2항의 요건에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세부적인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객들에게 영화감상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의 ‘반대급부’라 함은 영화감상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영화관람료, 입장료 등을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영화 관람객에 직접적인 관람료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다른 기업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협찬이나 지원을 받아서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해도 무방함을 의미한다. 또한 영화감상회의 목적 자체가 특정한 영리적인 활동을 위한 간접적인 광고 등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둘째, 영화 상영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판매용으로 제작된 경우라면 해당 저작물이 발행된 지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발행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상영할 경우에는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이러한 요건은 지난 2005년도 말에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도서관을 비롯한 각종 문화시설 등에서 무료 영화상영 프로그램 제공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비디오

22) 편의상 영화상영회를 대표적인 경우로 언급하였으나, 영화를 비롯한 모든 영상저작물의 상영에 똑같은 맥락으로 적용된다.

나 DVD의 판매나 대여와 같은 상업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서 저작자의 경제적 권리를 제약하고 있다는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이러한 경우를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영상제작자의 배타적인 권리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 것이다. 영상저작물이 발행된 후 6개월 동안은 공익적인 목적의 경우에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관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문화적인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공익적인 목적을 띄고 있음을 감안하여 면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기간을 발행 후 6개월로 최소화하고 있다. 이 요건은 2006년 3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영화상영회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료 영화상영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 후 6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만 별도의 저작권 처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

라. 판매용 음반과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이용자 제공

오늘날 도서관이 소장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기록매체는 도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음반과 영상물을 포괄하고 있다. 많은 도서관들이 멀티미디어실을 마련하여 시청각부스를 갖추고 이러한 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자료의 열람행위는 불특정다수의 이용자에게 저작물을 공개하는 것으로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공연에 해당이 된다.²³⁾ 실제 대부분의 열람행위는 시청각부스에서 개개의 이용자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해당 저작물은 통상적인 가족이나 친지 등 개인적인 관계에 의하여 연결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상당수의 사람들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이고, 다만 서로 다른 시간에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을 뿐이다.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공연은 일반공중에게 서로 다른

23) 이호홍, “저작권신탁제도를 통한 소장자료의 디지털화 및 서비스 방안” <디지털도서관> 2003년 여름호, 50쪽.

시간에 제공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음반이나 영상저작물을 열람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의 공연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음반이나 영상저작물을 도서관에서 이용하는 것도 공연권의 적용 대상이다. 다시 말하면 도서관에서의 음반이나 영상저작물 이용도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는 면책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 저작권자에게 아무런 반대급부를 지급하지 않고서도 저작물을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다. 도서관에서의 음반이나 영상저작물 열람은 녹음물과 녹화물을 재생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26조 제2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 세부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 이용자에게 음반이나 영상저작물 열람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의 ‘반대급부’라 함은 음반이나 영상저작물 열람을 위해서 이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입장료, 관람료 등을 지칭한다. 도서관에서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입장료는 도서관 시설물과 자료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를 띄고 있는 것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의 입장료는 명백히 자료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권리 처리를 필요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판매용으로 제공되는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된 지 6개월이 경과된 경우로 그 범위가 제한된다. 다만 판매용으로 제작되지 않은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하여도 도서관 관내에서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판매용 영상저작물로 그 매체가 한정되기 때문에 음반의 경우에는 발행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도서관 관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이러한 요건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최근에 이루어진 저작권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도서관이나 그 밖의 공공기관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을 상대로 제공하는 문화프로그램이 비디오나 DVD의 판매나 대여에 영향을 미쳐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추가된 것이다.

도서관 관내에서 영상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은 영화상영회처럼 다수를 대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물 이용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훨씬 제한적일 것이다. 또한 도서관의 자료 대출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기²⁴⁾ 때문에 영상저작물을 도서관 관내에서 이용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도서관 이용자에게 해당저작물을 관외대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따라서 발행된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영상저작물을 도서관 관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면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에는 실제로 저작권자의 경제적인 이익을 보존하는데 아무런 실익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제약은 다만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기기를 개인적으로 구비한 사람에게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개인의 경제적인 지위에 따라 공공서비스가 제공되는 범위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불합리한 것이다.

또한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도서 등의 경우와 달리 그 발행일이 명확하게 표기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이기 때문에, 도서관 사서들은 발행 후 6개월이 경과된 저작물과 그렇지 않은 저작물을 구분하는 것에 실무적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이용자 서비스 범위를 발행후 6개월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변경하여 관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막대한 노동력의 소요를 발생시킬 것이다. 이것은 저작권자에게는 아무런 경제적인 실익을 제공하지도 못하면서, 도서관과 그 이용자에게는 커다란 불편을 강요하는 것으로 매우 불합리하다.

공공기관에 의해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영화상영회가 영상제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제약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저작권법 시행령의 개정이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없이 이루어진 까닭에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 도서관 관내에서의 개별적인 저작물 열람행위에 대한 단서조항을 추가해서 도서관의 서비스가 합리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24) 앞의 글, 51~52쪽.

저작권법 제43조 제2항은 배포권자의 대여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판매용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도서관의 자료 대출은 대여권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도서관의 자료 대출을 위한 별도의 저작권처리는 필요하지 않다.

4. 닫는 말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작물이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문화의 향상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한편 도서관이 제공하는 각종 문화행사와 정보자료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복지를 증진시키려는 공익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서관과 저작권은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도서관은 저작물을 대량으로 이용하는 곳으로 저작권 침해가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런 까닭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기획하는 사서는 저작권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숙지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그래야만 불필요한 분쟁으로부터 도서관을 보호하고, 공공재로서의 지식과 정보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고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김병일. “음악공연권과 그 제한에 관한 고찰,” <산업재산권> 제17호 2005
- 오승중, 이해완. <저작권법> 제3판. 서울 : 박영사, 2004
- 이상정, <저작권법개설> 제3판. 서울 : 세창출판사, 2003
- 이성호. “저작권법상 ‘공연’ 의 의미와 노래방 업주의 책임,” <대법원판례해설> 제25호, 서울 : 법원행정처, 1996
- 이호신.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와 전송에 관한 연구,” <도서관> 2004년 봄호제59권 제1호(통권 제370호).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4
- 이호홍. “저작권신탁제도를 통한 소장자료의 디지털화 및 서비스 방안,” <디지털도서관> 2003년 여름호. 경기도 : 한국디지털도서관포럼, 2003
- 장인숙. <저작권법원론> 개정판. 서울 : 보진재, 1996
-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이유 (문화관광부, <http://www.mct.go.kr>)
- 채명기. <저작권법상 비영리 목적의 공연에 관한 연구>, 서울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9
- 허희성. <신저작권축조개설(상)>, 서울 : 저작권아카데미, 2001

어린이 그림책의 평가기준과 적용에 대한 연구

: <내 귀는 짹짹>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valuation Criteria of Picture Books
for Children and Its Application: With a Special Reference
to “Flop Ear” by Guido V. Genechten

조 현 애(Hyun-Ae Cho)*

장 덕 현(Duk Hyun Cha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II. 어린이 그림책 평가기준 시안 |
| 1. 연구배경과 목적 | 1. 글 측면 |
| 2. 연구대상 | 2. 그림 측면 |
|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 IV. 어린이 그림책 평가기준 시안 |
| II. 어린이 그림책 평가기준에 대한 분석 | 적용 사례 |
| 1. 문헌에 나타난 어린이 그림책 평가기준 | 1. 시안 적용 사례 |
| 2. 어린이 그림책 평가기준 분석과 요약 | 2. 어린이 그림책 평가기준에 |
| | 대한 현장의 평가 |
| | V. 결론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selection criteria of children's picture books, and to assess the usability of such criteria applied in the libraries. For this job, this paper strives to evaluate corresponding criteria from referenced literatures that deal with assessment standards of children's picture books, including Jalongo, Hillman, Caldecott Medal, And Hans Christian Andersen Award committee. From the reviewed literatures,

*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 owlmoon@hanmail.net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dchang@pusan.ac.kr

overlapped items were extracted. A list of summarized criteria were reviewed and measured by six collection development librarians. In this study, five major criteria were selected for measuring children picture books. And they were evaluated with a sample children's picture book. For the final step, a feed back was also received from the collection development librarians for the review of evaluation contents and the measurements results, which can verify the validation and apply in the library. As a result, this research shows positive responses that those criteria can be applied for assessing children picture books in the libraries.

I.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국내 어린이그림책 출판에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그림책 전문기획집단과 출판사, 전업 그림책 작가가 생겨남으로써 완성도 높은 작가주의 작품이 생산되고, 서양의 유명 그림책 대부분이 번역 출판되고 있다. 이것은 곧 독자들이 그림책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다양해졌음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그림책 선정이 더 막연하고 까다로워졌음을 뜻한다. 책 선정에서부터 구입에 이르기까지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개인이 모두 져야 한다면 더욱 그렇다. 이와 같은 개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도서관의 역할 가운데 하나일지 모른다. 그런 점에서 사서가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가지고 출판되는 그림책의 옥석을 가려 추천도서목록과 서평을 제시하는 등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 사례는 모범적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모습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도서관의 장서 개발 담당부서가 어린이책 전문 유통업체에서 발간하는 그림책 관련 서평지나 인터넷서점 정보, 어린이전문서점 간행물 등을 참고하여¹⁾ 자료를 선정하고,

1) 부산 S도서관 H사서와의 면담, 2005. 4. 22.

도서관마다 서로 다른 도구를 사용하다 보니, 객관적이고 문서화된 평가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그림책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이 연구는 기존의 어린이 그림책 평가기준들을 일별하고, 그 가운데 어린이 그림책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을 가려 뽑아 어린이 그림책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그것을 그림책에 직접 적용시켜봄으로써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이 연구는 그림책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림책은 대상연령에 제한이 없지만 이 연구는 어린이 그림책, 주요 독자층인 4-7세용 그림책, 그리고 스토리가 있는 창작 그림책을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어린이의 인지, 정서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면의 기준만을 다루었다.

가. 그림책의 정의와 특성

그림책 속엔 글과 그림이 있다. 둘은 절묘한 조화²⁾를 이루며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한다. 이 때 그림은 글의 이해를 도와주는 보조장치가 아니라 그 자체로 많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수단이다. 즉, 그림책 속 그림은 글과 대등하게 때로는 그 이상으로 많은 이야기를 전달한다. 화면의 선과 색, 질감, 그것에 의한 표현이 여러가지 의미를 나타내고, 화면과 화면의 의미가 이어져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다. 이것이 그림책이 다른 장르와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이다.

나. 그림책의 종류

1) 지식정보그림책

주로 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그림책으로³⁾, 숫자 익히기와 같이 어떤 개념을 탐구·정리해서 설명하는 단순한 개념그림책에서부터 특정 물체나 대상을

2) 엘렌E. M. 로버츠, 김정 옮김, 『그림책 쓰는 법』, 문학동네, 2002, 10쪽.

3) 유소영, 『아동문학 어떻게 이용할까』, 건국대학교출판부, 2001, 177쪽.

심도 있게 설명하는 정보그림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⁴⁾ 대표적인 예로 『함께 세어보아요』⁵⁾, 『브루너 아장아장 그림책시리즈』⁶⁾, 『술술 말놀이 1, 2』⁷⁾ 등이 있다. 백과사전 같은 내용이나 역사, 과학, 탐험 등과 같은 정보를 픽션이나 논픽션의 방법을 통해 전달해 주는 그림책도 여기에 속하는데,⁸⁾ 『우리 몸의 구멍』⁹⁾ 『강아지가 태어났어요』¹⁰⁾, 『집짓기』¹¹⁾ 등이 있다.

2) 이야기그림책

주인공이 어린이의 마음을 사로잡는 서두, 흥미를 돋우는 중반부, 독자를 만족시키는 결말까지 이야기를 끌고 가는 그림책을 말한다.¹²⁾ 이것은 크게 설화, 민담, 신화, 역사이야기 등을 포괄하는 옛이야기그림책과 창작동화그림책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창작동화그림책은 환타지 세계를 그린 환상동화그림책과 현실적인 생활모습을 그린 생활동화그림책¹³⁾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옛이야기그림책에 『까막나라에서 온 삼사리』¹⁴⁾, 환상동화그림책에 『지각대장 존』¹⁵⁾, 생활동화그림책에 『우리 친구하자』¹⁶⁾를 들 수 있다. 『눈사람 아저씨』¹⁷⁾, 『노란 우산』¹⁸⁾처럼 글은 없지만 주제, 줄거리, 인물, 장면 등 모든 문학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그림책도 여기에 속한다.¹⁹⁾

4) 이경우, 장영희, 이차숙, 노영희, 현은자, 『유아에게 적절한 그림책』, 양서원, 1997. 64쪽.

5) 안노 미즈마사 글, 그림, 『함께 세어보아요』, 마루벌, 1997.

6) 덕 브루너 글, 그림, 『브루너 아장아장 그림책시리즈』, 아가월드, 2003.

7) 권태웅 외 글, 권문희 외 그림, 『술술 말놀이 1, 2』, 다섯수레, 1998.

8) 류재수, 「A. J. Keats를 통해 본 우리나라 그림책의 리얼리티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5쪽.

9) 허은미 글, 이혜리 그림, 『우리 몸의 구멍』, 돌베개어린이, 2000.

10) 조애너 쿨 글, 제롬 웨슬러 사진, 이보라 옮김, 『강아지가 태어났어요』, 비룡소, 2000.

11) 강영환 글, 홍성찬 그림, 『집짓기』, 보림, 1996.

12) 엘렌E. M. 로버츠, 김정 옮김, 앞의 책, 48쪽.

13) 이오덕, 『시정신과 유희정신』, 창작과 비평사, 1977, 134쪽.

14) 정승각 글, 그림, 『까막나라에서 온 삼사리』, 초망책방, 1994.

15) 존 버닝햄 글, 그림, 박상희 옮김, 『지각대장 존』, 비룡소, 1996.

16) 쓰쓰이 요리코 글, 하야시 아키코 그림, 『우리 친구하자』, 한림, 1994.

17) 레이먼드 브릭스 그림, 『눈사람 아저씨』, 마루벌, 1997.

18) 류재수 그림, 신동일 작곡, 『노란 우산』, 재미마주, 2001.

19) 김세희, 현은자, 『어린이의 세계와 그림이야기책』, 서원, 1995, 10쪽.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우선 그림책 평가기준 관련 선행연구에서 중복적으로 인용되며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제이롱고(Jalonggo)와 힐먼(Hillman)의 평가기준, 그리고 미국도서관협회의 칼데콧상(Caldecott Medal) 수여협회, 국제아동도서협회(IBBY)²⁰⁾에서 수여하며 ‘어린이문학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국제안데르센상(Hans Christian Andersen Award) 선정위원회의 그림책 평가기준을 살펴보았다. 위의 평가기준들 가운데 중복적으로 언급되는 항목을 가려 뽑아 평가기준을 분석, 요약하였다.

다음으로 요약된 어린이 그림책 평가기준을 공공도서관의 수서담당사서 6명에게 보여주고 그림책을 평가할 때 고려하고자 하는 항목 순으로 순위를 매기도록 하였다. 가장 높게 평가된 항목 5개를 가려 뽑아 그것을 어린이 그림책의 평가기준 시안으로 삼았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마련한 평가기준을 실제로 그림책에 적용시켜 봄으로써 평가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평가기준의 타당성을 검증해보았다. 평가의 대상이 된 사례 그림책은 4~7세를 주요대상으로 한 그림책으로 부산/경남지역 공공도서관 가운데 2개관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자녀독서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30, 40대, 학부모 5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림책 6권²¹⁾에 대한 반응을 조사한 결과, 호응도가 가장 높았던 책 1권을 선정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그림책 평가기준과 그를 통한 그림책 평가내용을 도서관의 수서담당사서들에게 보여주고 반응을 조사함으로써 평가기준의 타당성과

20) International Board on Books for Young People : 어린이들이 좋은 글과 그림이 담긴 책을 통해 여러 나라 간의 이해를 더하는데 목적을 둔 비영리 국제기구. 교육학자, 사서, 출판인, 서점인, 편집자, 동화작가, 일러스트레이터, 교사, 학부모 등 어린이책과 문화에 관심이 있는 개인, 단체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7월 1일 65번째 국가 지부로 가입했다.

21) 장애우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은 많지 않다. 어린이 전문서점과 인터넷서점 조사를 통해 4~7세를 주요대상으로 하고 장애우이야기를 담은 그림책 6권을 다음과 같이 수집하였다. 『깃털 없는 기러기 보르카』(존 버닝햄 글, 그림, 엄혜숙 옮김, 비룡소, 2001); 『꽃처럼 향기로운 내 동생』(아그네스 라코르 글, 그웬 르 각 그림, 이해선 옮김, 파랑새어린이, 2004); 『내 귀는 짹 짹』(히도 반 헤네호텐 글, 그림, 장미란 옮김, 웅진닷컴, 1999); 『노엘의 산책』(루리코 듀아 글, 다카하시 미치코 그림, 박문성 옮김, 창해, 2002); 『민수야 힘내!』(아오키 미치요 글, 하마다 케이코 그림, 이영준 옮김, 한림, 2000); 『사랑을 배워요』(김홍신 글, 박기욱 그림, 삼성당, 1998).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가늠해 보았다. 연구된 평가기준에 대한 도서관의 반응을 조사함에 있어 성격이 다른 공공도서관, 어린이전문도서관, 민간도서관을 각각 1개관씩 선정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선정된 도서관은 어린이장서 가운데 그림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고, 어린이자료 이용률이 높은 곳, 수서담당 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어린이책 관련 활동 경험에 있는 사서가 근무하는 곳을 선정하였다.

II. 어린이 그림책 평가기준에 대한 분석

1. 문헌에 나타난 어린이 그림책 평가기준

어린이 그림책에 대한 평가기준은 크게 내용면과 형태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그림책 평가기준 가운데 내용과 관련된 것을 선별하여 살펴보았다.

1) 제일링고(Mary R. Jalongo)의 기준²²⁾

- ① 그 책이 그 종류의 다른 그림책과 비교하여 양질의 것인가?
- ② 그 책이 전문가의 추천을 받고 있는가?
- ③ 구성, 주제, 인물, 스타일, 배경 등의 문학적 요소가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나?
- ④ 그림이 이야기를 보완하는가?
- ⑤ 이야기가 인종과 성역할 고정관념을 보이지 않는가?
- ⑥ 어린이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가?
- ⑦ 어린이가 그 그림책에 열정적으로 반응하는가?
- ⑧ 주제가 어린이에게 적합한가?
- ⑨ 부모나 교사의 흥미를 끄는가?

22) Mary R. Jalongo. Young Children and PictureBooks: Literature from Infancy to Six.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1988.

2) 힐먼(Hillman)의 기준²³⁾

- ① 그림이 이야기를 잘 말해주어야 한다.
- ② 그림이 세부적인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해야 한다.
- ③ 구성이 논리적이고, 성격이 잘 묘사되어야 한다.
- ④ 그림과 글이 효과적으로 의미를 전달해야 한다.
- ⑤ 그림의 색깔, 선, 형태, 질감, 모양, 매체 등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⑥ 주제가 가치 있고, 언어나 개념이 어린이의 수준에 적합해야 한다.
- ⑦ 그림이 독창적이어서 유아를 즐겁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
- ⑧ 그림이나 글에 고정관념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3) 칼데콧상(Caldecott Medal) 수여협회의 기준²⁴⁾

칼데콧상(Caldecott Medal)은 1938년부터 해마다 미국도서관협회(ALA)에서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출판된 어린이도서 중에서 가장 탁월한 그림책에 수여하는 상으로, 19세기 말 이른바 ‘그림책의 황금기’를 연 영국의 그림책 작가 랜돌프 칼데콧(Randolph Caldecott, 1846~1886)을 기념하여 제정되었다. 그림이 창작이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림책의 주제나 성격에 대한 제한이 없다. 단 수상자는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작가로 제한하고 있다. 그림책 속에 담긴 교훈적인 의도나 대중성보다는 그림책 속의 뛰어난 그림과 어린이들을 위한 시각적 전시의 우수성에 더 큰 의미를 둔다. 수여협회의 심사기준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예술적 활용 기법이 우수한가?
- ② 이야기줄거리, 주제, 개념 등을 그림으로 해석하여 표현한 능력이 뛰어난가?
- ③ 구성, 주제, 인물, 배경, 분위기, 전체 구성 등을 충실하고 독특하게 묘사하고 있는가?

23) 이경우 외. 앞의 책, 24쪽.

24) 이해영, “그림책에 관련된 상”, 《동화읽는 어른》(어린이도서연구회), 제54호(1996. 11), 54쪽.)

- ④ 어린이의 흥미, 인식 능력, 이해 수준을 고려했나?
- ⑤ 어린이의 마음을 포착하는 통찰력이 있나?

4) 국제안데르센상(Hans Christian Andersen Award) 선정위원회의 기준²⁵⁾

국제안데르센상은 1956년 스위스의 취리히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국제기구인 국제아동도서협회(IBBY)가 제정한 것으로, ‘어린이문학의 노벨상’ 이라고 불린다. 덴마크의 유명한 동화작가 안데르센(Andersen)의 이름을 따왔으며, 그 해 아동문학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아동문학가 및 일러스트레이터에게 주어지는 국제적인 상이다. 특히 일러스트레이션 부분은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1966년부터 추가한 것으로, 어린이문학에 공헌한 바가 큰 현존 일러스트레이터에게 2년에 한 번씩 수여한다.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어린이가 좋아해야 할 뿐 아니라 어른의 마음도 끌 수 있어야 한다.
- ② 예술작품은 그 자체가 감수성, 발견, 기억을 확장시켜주는 도구로서 뛰어난 교사다. 미적가치는 어떤 교육적 목적보다 앞서므로 고려해야 한다.
- ③ 글의 내용과 형식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의 반복이 아닌, 독창성과 신선함이 있어야 한다.
- ④ 주인공은 우리의 생활에 있음직하고 합리적이며 독자의 관심을 계속 이 끌 수 있어야 한다.
- ⑤ 내용은 설교적이어서도 어떤 편견을 조장해서도 안 되며, 독자로 하여금 자신과 다른 것을 존중하고 이해하도록 이끌 수 있어야 한다.
- ⑥ 작품이 표현하고 추구하는 방향은 평화, 이해, 정의, 자유, 인종과 문화의 차이가 주는 풍요로움의 가치, 다양성, 사랑, 우정에의 욕구, 진실함 등이어야 한다.
- ⑦ 독자의 감정을 사로잡고, 독자가 스스로를 들여다보게 되는 잊지 못할 이야기를 담아야 한다.
- ⑧ 그 나라의 사회적·문화적인 면이 작품 속에 진지하게 반영되어 있어야 하고, 적어도 그 나라 어린이문학 발전에 기여를 해야 한다.

25) 국제아동도서협회 한국지부, “IBBY와 안데르센상”, 《케이비 뉴스》(KBBY), 창간호(1996. 8), 13쪽.

- ⑨ 그림에서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은 글과 그림의 관계, 창의성, 그림에 반영된 문화와 환경의 모습, 어린 시절의 영상이다.
- ⑩ 그 나라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성실하게 감동적으로 보여주어야 하며, 그러면서도 보편적인 가치를 담고 있어야 한다.
- ⑪ 작품 속 상상력이 독자들의 상상력을 고취시킬 수 있어야 한다.
- ⑫ 현대사회의 문제의식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 탁월한 예술성과 함께 인간 사회의 생동감, 온전함, 가능성, 희망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2. 어린이 그림책 평가기준 분석과 요약

이러한 평가기준들 가운데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범주들을 선정하여 1차 평가기준을 추출하였다. 이 평가기준을 도서관의 수서담당사서 6명(26)에게 보여주고, 2차 평가기준 추출을 위해 그림책 평가에 있어서 적절한 항목 순으로 순위를 매기게 하였다. 그 결과를 <표1>에 나타내었다.

<표1> 도서관별 어린이 그림책 평가기준 중요도

어린이 그림책 평가기준	도서관별 어린이 그림책 평가기준 중요도					
	대구S 도서관 S사서	부산 S도서관 H사서	울산 K도서관 C사서	울산 J도서관 K사서	울산 J도서관 H사서	울산 N도서관 K사서
●문학적 요소(인물, 구성, 문체, 배경)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1	2	1	2	6	3
●주제가 가치 있고, 이야기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가?	4	4	6	1	1	5
●어린이의 마음을 잘 담아내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가?	5	1	5	3	5	2
●그림이 이야기를 잘 전달해주는가?	6	5	2	4	3	1
●그림이 이야기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표현하고 있는가?	7	7	4	5	7	8
●그림이 아름답고 독창적인가?	2	8	7	7	8	7
●글과 그림이 조화로운가?	3	3	3	8	4	4
●어린이의 발달단계에 맞는 그림책인가?	8	6	8	6	2	6

26) 공공도서관에서 현재 수서를 담당하고 있거나 수서 경력이 있는 사서4명, 어린이전문도서관 사서 1명, 민간도서관 관장 1명을 포함한 6명이다.

이것을 2차 어린이 그림책 평가기준으로 삼아 글 측면, 그림 측면, 글과 그림의 조화 측면으로 나누어 <표 2>에 정리하였다.

<표2> 2차 어린이 그림책 평가기준

구분	어린이 그림책 평가기준
글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학적 요소(인물, 주제, 구성, 문체, 배경)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주제가 가치 있고, 이야기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가? ●어린이의 마음을 잘 담아내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가?
그림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림이 이야기를 잘 전달해주는가?
글과 그림의 조화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과 그림이 조화로운가?

Ⅲ. 어린이 그림책 평가기준 시안

1. 글 측면

그림책이 담고 있는 문학적 요소 또는 이야기적 요소를 말한다. 그림책은 글과 함께 그림도 이야기를 담고 있으므로 문학성을 글로 한정짓지 않고 그림이 담고 있는 문학적 요소까지 포함한다.

가. 문학적 요소(인물, 주제, 구성, 문체, 배경)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최근에는 스토리가 있는 모든 이야기를 서사문학으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그림책 또한 서사문학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림책에 있어서도 서사문학을 구성하는 일반요소인 등장인물, 주제, 구성, 문체, 배경²⁷⁾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27) 구인환, 구창환, 『문학개론』, 삼영사, 1976, 175쪽.

1) 등장인물

등장인물에 대한 정보는 행동이나 말, 표현, 작가나 다른 인물들의 언급 등을 통해 드러난다. 이때 등장인물은 아이들이 생각할 때 현실에 있음직한 인물이어야 하고, 믿을 만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특히 주인공은 이야기의 중심인물로 나타나야²⁸⁾ 독자의 흥미를 끌 수가 있다.

2) 구성

인과관계에 의해 전개되는 사건의 배열을 뜻한다.²⁹⁾ 발단, 전개, 위기, 결말이라는 논리적 단계로 이루어지며, 이것은 한 작품의 짜임새³⁰⁾가 되어 독자가 흥미를 느끼게 한다. 특히, 어린이 그림책은 간단한 발단으로 시작해 이야기가 흥미로우면서도 속도감 있게 전개되다가 위기에 이르고, 빨리 만족스런 결말을 맺는 것³¹⁾이 바람직하다.

◎ 발단 : 이야기가 처음 시작되는 부분으로 등장인물이 소개되고, 배경(시간과 장소)이 드러나며³²⁾ 사건의 실마리가 나타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독자가 관심을 가지고 작품을 계속 읽어나갈 수 있도록 흥미를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점이다.

◎ 전개 : 이야기가 복잡해지고 갈등을 일으키는 단계이다. 집중 시간이 짧은 아이들이 보는 그림책일수록 이야기 전개가 빠른 것이 좋다.

◎ 위기 : 이야기 속 주인공의 성격과 사건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단계이다. 이때 이야기가 시들해지지 않도록 사건과 행동이 더해지거나 세부 묘사하기 위한 잠깐의 휴식, 페이스를 바꾸는 대화, 주인공의 자문자답, 후렴 같은 반복문장, 의외성, 유머 등의 장치가 마련된다.³³⁾

28) Doll, Beth. & Carol, Doll. *Bibliotherapy with Young People: Librarians and Mental Health Professionals Working Together*, Colorado : Libraries Unlimited, Inc, 1997, p.41.

29) 구인환, 구창환, 앞의 책, 175쪽.

30) 위의 책, 176쪽.

31) 김현희, 채인선, “그림책 속의 글을 통한 그림책의 이해”, 《세계의 그림책 우리의 그림책》(KBBY), (1996. 3), 72쪽.

32) 마쓰이 다다시 지음, 이상금 엮음, 『어린이와 그림책』, 샘터, 2004, 161쪽.

33) 엘렌E. M. 로버츠, 김정 옮김, 앞의 책. 111쪽.

◎ 결말 : 결말은 충족감을 주는 동시에 약간의 의외성을 주어야 한다. 또 이야기의 발단과 맥락이 일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같은 장소에서 출발해 같은 장소로 되돌아오거나, 처음 만난 사람을 다시 만나는 구조를 띤다. 그러나 같은 장소로 돌아온 인물은 이미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출발할 때의 주인공과 비교하면 많이 성장해 있다.³⁴⁾ 독자 역시 주인공만큼 내적 성장을 이룬다.

3) 문체

어린이 그림책의 글은 쉽고 간결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읽었을 때 무슨 내용인지 명확하게 떠오르고 머릿속에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며 장식이 지나치게 많지 않은 꾸밈없는 문장을 뜻한다.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은 적절한 어휘 선택이 중요하고, 짧은 문장 안에 말하고자하는 것을 다 드러내야 한다.³⁵⁾ 특히 어린이는 그림책을 통해 말과 글을 배우기 때문에 더욱 신중함을 요한다.

4) 배경

이야기가 진행되는 시간이나 장소를 말한다. 인물과 사건을 생생하게 해주고 이야기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며 주제를 구체화하는데 도움을 준다.³⁶⁾ 어린이 그림책에서 배경은 이야기의 흐름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어린이가 믿을 수 있도록 명확해야 한다.

나. 주제가 가치 있고, 이야기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가?

장르와 상관없이 창작물은 개인의 가치관을 담고 있기 마련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제가 이야기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야한다는 점이다. 교과서처럼 직접 전달되는 교훈은 자칫 딱딱하고 지루해서 아이들이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에 교훈이 녹아들어 감동으로 다가

34) 김현희, 채인선, 앞의 책, 73쪽.

35) 위의 책, 73쪽.

36) 구인환, 구창환, 앞의 책, 181쪽.

을 때, 비로소 교훈이 자기 것이 되고, 아이들의 생각이 자란다.

다. 어린이의 마음을 잘 담아내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가?

아이들의 삶과 그 속에 담긴 마음을 정교하게 담고 있는 그림책은 아이들 마음을 쉽게 사로잡는다. 다시 말해, 아이들이 쉽게 이야기에 공감하고 등장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하려면 책이 아이들이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은 물론, 노여움, 슬픔까지도 아이들 입장에서 섬세하게 그리고 있어야 한다.

2. 그림 측면

어린이는 그림책의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를 읽고 이야기의 영상을 마음 속에 그려나간다. 그러므로 그림의 의미전달력을 중심으로 그림책의 그림 측면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 그림책의 특성상 그림책 속 그림의 의미전달력은 그림의 연속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 함께 살펴보았다.

가. 그림이 이야기를 잘 전달해주는가?

1) 선

선은 주로 사물의 경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구체화하고 정서적 반응을 표현 한다. 곡선과 원이 따뜻함, 귀여움, 안정감, 아늑함 등을 나타내고³⁷⁾, 날카롭거나 Z자형 선이 흥분과 빠른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³⁸⁾을 예로 들 수 있다. 수평선이 조용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반면, 수직선이 동적인 느낌을 주고 거리와 높이를 나타내는 것도 좋은 예다.

2) 공간

그림책에서 공간은 그림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뿐만 아니라, 문자와 그림과의 조화, 그림 속에서 공간이 주는 느낌까지를 포함하는 예술적인 요소를

37) 이경우, 장영희, 이차숙, 노영희, 현은자, 앞의 책, 89쪽.

38) 강문희, 이해상, 앞의 책, 252쪽.

말한다.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공간 속에서 어떤 위치와 크기로 나타내느냐에 따라 다양한 느낌을 자아내는데, 이것은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3) 형태

그림책에서 이야기를 표현하는 힘을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는 요소로, 그림의 모양, 선명한 정도, 단순하고 복잡한 정도, 화려함, 추상적 자유로움과 고정됨, 이야기와의 조화로우움을 말한다.³⁹⁾ 형태 역시 정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데, 부피가 큰 사물들이 한데 모여 있으면 안정감, 둘러싸임, 거북함, 답답한 느낌을 주고, 가볍고 섬세한 형태는 운동감, 자유로움을 느끼게 한다.⁴⁰⁾

4) 색

그림책의 특성상 색이 갖는 비중은 대단히 크다. 지금까지 그림책은 천연색이 주를 이루었다.⁴¹⁾ 이것은 어린이가 따뜻하고 밝은 느낌의 원색만을 좋아한다는 고정관념의 결과로, 그림책의 예술성을 떨어뜨린 원인으로 지적⁴²⁾받고 있다. 따라서 요즘은 어린이가 특별히 좋아하는 색이 있다기보다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얼마나 독창적으로 표현하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5) 구도

구도 역시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는데, 사물 또는 사건이 정면으로 크게 그려져 있으면 보는 이로 하여금 더 몰입한 느낌을 주지만, 멀게 그려져 있으면 그만큼 거리를 두고 느끼게 된다. 경우에 따라 그림책 작가는 지루함을 피하고 특별한 느낌을 주기 위해 각 장면마다 구도를 달리하여 표현하기도 하는데, 좋은 구도는 책장을 넘길 때마다 글의 성격에 맞게 리듬감을 가지면서도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준다.

39) 위의 책, 252쪽.

40) 김세희. 현은자, 앞의 책, 17쪽.

41) 강문희, 이해상, 앞의 책, 250쪽.

42) 이경우, 장영희, 이차숙, 노영희, 현은자, 앞의 책, 90쪽.

나. 그림이 이어지며 이야기를 만드는가?

그림책 속 그림의 의미전달력이 한 장면 한 장면이 담고 있는 이야기의 풍부함을 뜻하는 것이라면, 그림의 연속성은 장면과 장면이 이어져 얼마나 완성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가를 뜻한다. 그림책 속 그림과 삽화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 그림의 의미전달력과 연속성이 뛰어나게 되면 글 없이 그림만으로도 훌륭한 이야기를 완성할 수 있다.

IV. 어린이 그림책 평가기준 시안 적용 사례

1. 시안 적용 사례

어린이 그림책 평가기준을 적용할 그림책 1권을 선정하여 <표3>에 나타내었다.

<표3>적용사례: 『내 귀는 짹짹』의 출판사항, 줄거리, 대상연령

제목	『내 귀는 짹짹』
저자	히도 반 헤네흐텐(Guido Van Genechten) 글, 그림
출판사	웅진닷컴
출판년도	1999
대상연령	4~7세
줄거리	한 쪽 귀가 쳐져서 늘 놀림을 당하는 토끼 리키는 친구들과 똑같은 귀를 갖고 싶다. 처진 귀에 풍선을 달아보고, 붕대를 감아 세워보고, 온갖 방법을 써보지만 소용이 없다. 크게 실망하고 흐느껴 울던 리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소리를 듣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어. 원래 귀들은 모두 다르단다.”)에 용기를 얻는다. 다음날 리키는 친구들에게 당근과 끈을 가져오게 하고, 모두 한쪽 귀에 당근을 매달고 똑 같아진 모습에 즐거워한다.

가. 글 측면

1) 문학적 요소(인물, 주제, 구성, 문체, 배경)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가) 등장인물

이 책에는 다음과 같은 인물들이 등장한다. 한쪽 귀가 쳐져서 늘 고민인 주인공 리키, 그러한 리키를 끊임없이 놀리는 친구들, 리키에게 큰 위안이 되어 주는 의사선생님이다. 그들은 모두 토끼들이지만 아이들과 의사선생님을 의인화한 모습이다.

리키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나도 두 귀가 모두 쫑긋 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을까요?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있을 때는 리키의 귀도 쫑긋 서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계속 나무에 매달려 있을 수는 없잖아요?(5~6쪽)

리키는 아예 귀를 감추기로 했어요. 할머니가 만든 주전자 덮개를 머리에 꼭 덮어썼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리키를 보고 배꼽을 쥐고 웃었어요. 다행히 리키한테는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덮개 때문에 리키는 너무너무 답답했어요.(7~8쪽)

그래서 리키는 당근으로 귀를 세웠어요. 축 늘어진 귀에다 당근을 쑥 끼운 거예요. 친구들은 리키를 보자마자, 와하하 웃어댔어요. “리키야, 그 귀를 먹어도 되니?” 하고 놀리면서 말이에요. 리키는 귀에다 작은 나뭇가지를 대고 끈으로 친친 동여맸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더욱 더 까르르 웃어댔답니다.(9~10쪽)

화가 난 리키는 숲 속에 들어가 나무들한테 소리쳤어요. “이 보기 싫은 귀를 싹둑 잘라 버릴 거야. 두고 봐! 바보 같은 심술꾸러기 녀석들도 다시는 안 볼 거야, 절대로!” 리키는 훌훌 흐느껴 울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의사 선생님이 고쳐 주실 지도 몰라.’ 그러고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터벅터벅 걸어갔답니다.(15~16쪽)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 이 궁리 저 궁리하는 모습, 갈수록 심하게 놀리는 친구들 때문에 속상해하는 모습 등 리키를 둘러싼 친구들이 가하는 외적 갈등과 그로 인한 리키의 내면적 갈등이 중심이 되어 이야기가 진행된다.

나) 구성

◎ 발단 : 남들과 다른 리키의 귀를 친구들이 놀려대는 발단 부분이다.

세상에는 통통한 토끼도 있고, 홀쭉한 토끼도 있어요. 키 큰 토끼도 있고, 키 작은 토끼도 있어요. (중략) 남자 토끼가 있으면 여자 토끼도 있고요. 하지만 토끼라면 누구나 길쭉한 귀가 두 개 있지요. 리키도 길쭉한 귀가 두 개 있었어요. 단지...(1~2쪽)

리키의 귀는 조금 달랐답니다. 원래 토끼의 귀는 쫓긋 서 있잖아요. 양쪽 귀 모두가! 그런데 리키의 오른쪽 귀는 축 늘어져 있었어요. 친구들은 언제나 리키를 놀려댔죠. “야, 축 늘어진 귀! 귀를 쫓긋 세워 봐.” (3~4쪽)

그림책이 시작되는 부분으로, 주인공인 리키가 등장하고 배경이 되는 동산이 그림 속에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처진 귀를 가진 주인공 리키의 특징이 드러나고 이것은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리키의 처진 귀는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는 원인이 되고, 계속해서 리키가 놀림을 당하는 장면은 독자로 하여금 갈등이 깊어질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단지...’ 라는 여운이 담긴 말로 장면을 바꿈으로써 뒷이야기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더욱 불러일으킨다.

◎ 전개 :

리키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나도 두 귀가 모두 쫓긋 서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을까요?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있을 때는 리키의 귀도 쫓긋 서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나무에 계속 매달려 있을 순 없잖아요? (5~6쪽)

이번엔 당근으로 귀를 세웠어요. 축 늘어진 귀에다 당근을 쑥 끼운 거예요. 친구들은 리키를 보자마자, 와하하 웃어댔습니다. “리키야, 그 귀를 먹어도 되니?” 하고 놀리면서 말이에요. 리키는 귀에다 작은 나뭇가지를 대고 끈으로 친친 동여맸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더욱 더 까르르 웃어댔습니다.(9~10쪽)

가엸은 리키는 붕대로 귀를 둘둘 감았어요. 빨래집게로 귀를 집어서 낚싯대로 들어올리기도 했어요.(11~12쪽) ... 귀에다 풍선을 달아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여전히 깔깔대며 데굴데굴 굴렀답니다.(13~14쪽)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친구들의 놀림이 심해지고 그로 인해 리키와 친구들의 갈등도 깊어진다. 귀를 세울 방법을 생각해내기 위한 리키의 고민이 깊어질수

록 친구들의 비웃음은 커져만 간다. 갈등이 점점 증폭됨에 따라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진다. 중반에 접어들어 자칫 늘어지기 쉬운 이야기는 이 궁리, 저 궁리하는 리키의 기발한 생각과 그러한 모습을 담아놓은 그림으로 인해 흥미롭게 진행된다.

◎ 위기 : 친구들의 놀림에 상처받은 리키가 괴로워하는 위기 부분이다.

리키는 더 이상 좋은 수가 생각나지 않았어요. 화가 난 리키는 숲 속에 들어가 나무들한테 소리쳤어요. “이 보기 싫은 귀를 싹둑 잘라 버릴 거야. 두고 봐! 바보 같은 심술꾸러기 녀석들도 다시는 안 볼 거야. 절대로!” 리키는 훌쩍 훌쩍 울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의사 선생님이 고쳐 주실 지도 몰라.’ 그리고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터벅터벅 걸어갔답니다.(15~16쪽)

의사 선생님은 리키의 귓속이랑 귓볼을 살살이 살펴보았어요. 귀 길어도 재고, 온갖 이상한 소리도 들려 주셨어요. 의사선생님은 검사 결과를 공책에 꼼꼼히 적으시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죠. “으음, 네 귀는 멀쩡하단다. 조금 힘이 없긴 하지만 소리를 듣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원래 귀들은 모두 다르단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이 맛있는 당근이나 먹으렴.”(17~18쪽)

여러 가지 궁리를 했지만 소용이 없어진 리키가 숲으로 들어가 훌쩍 우는 부분에서 갈등은 최고조에 이른다. 외부와의 갈등으로 인해 내면의 갈등이 극대화된다. 리키가 의사선생님을 찾아가 용기를 얻는 장면에서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드러낸다.

◎ 결말 : 의사선생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은 리키가 달라진 모습으로 친구들에게 돌아온다.

리키는 돌아오는 길에 의사 선생님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원래 귀들은 모두 다르다고?’ 그건 맞는 말이에요. 엄마 귀는 예쁘고, 아빠 귀는 튼튼하죠. 할아버지 귀는 날카롭고, 할머니 귀는 보드랍지요. 리키는 생각했어요. ‘내 귀는 짹짹이야. 하나는 종긋서 있고, 하나는 축 늘어져 있고.’ 그러자 푸후후 웃음이 나왔어요. 그 때 꼬마 토끼가 반갑게 소리쳤어요. “야야, 리키가 온다!” (19~20쪽)

자신의 결점을 주저없이 이야기하고 웃음까지 짓는 모습에서 열등감을 극복한 리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처음과 같은 장소에서 여전히 처진 귀를 한 모습으로 친구들을 만났지만 리키의 마음은 분명 전과 달라져 있다. 스스로

아픔을 극복하고 한층 성장한 모습이다. 반갑게 리키를 맞아주는 꼬마토끼의 등장은 이어질 화해 분위기를 짐작케 한다.

그러자 덩치 큰 친구가 다가와 말했어요. “안녕, 리키! 어서 와. 네가 없어서 얼마나 심심했는지 몰라. 네 귀를 세울 방법을 알아냈니?” “으응, 그래.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 내일 다들 당근이랑 끈이랑 가지고 동산으로 와.” (21~22쪽)

이제 갈등은 완전히 사라지고 화해의 분위기가 무르익는다. 독자는 무르익은 화해의 분위기 속에서 만족감을 느낌과 동시에, 당근과 끈을 가지고 오라는 말에 궁금함을 느낀다.

이튿날, 리키는 활짝 웃으며 소리쳤어요. “얘들아, 당근을 귀에 매달아 봐. 한쪽 귀는 서 있고, 한쪽 귀는 누웠네!” 리키를 따라해 보니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까르르 까르르 소리 내어 웃었죠. 배꼽이 빠지도록 까르르 까르르, 까르르 까르르...! 그리고 리키도 친구들도 처음으로 모두 똑같아졌답니다.(23~24쪽)

토끼들이 모두 당근을 매달아 처진 귀를 하고 있는 뜻밖의 반전이 즐거움을 준다. 모두 똑같아졌음에서 차별없이 하나됨을 느낀다. 이 책의 주제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다) 문체

친구들은 리키를 보자마자, 와하하 웃어댔습니다. “리키야, 그 귀를 먹어도 되니?” 하고 놀리면서 말이에요. 리키는 귀에다 작은 나뭇가지를 대고 끈으로 친친 동여맸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더욱 더 까르르 웃어댔답니다.(9~10)

의사 선생님은 (중략) 검사결과를 공책에 꼼꼼히 적으시더니, 마침내 입을 여셨죠. “으음, 네 귀는 멀쩡하단다. 조금 힘이 없긴 하지만 소리를 듣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원래 귀들은 모두 다르단다. 그러니까 걱정말고 이 맛있는 당근이나 먹으렴.” (17~18)

대화글과 설명글이 고루 포함되어 있어 생동감을 준다. 말맺음 방식에 있어 ‘~요’ 라는 말투와 ‘~습니다’ 라는 글투가 고루 분포되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 친근한 느낌을 준다. 문장 또한 쉽고 간결하다.

라) 배경

이 책에서 주인공 리키가 머무르는 배경은 동산 → 숲속 → 병원 → 동산 순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때 배경은 그곳에 머무르는 리키의 마음을 잘 대변

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고 숨어들어간 숲 속은 어둡고 고립된 공간으로, 독자로 하여금 슬프고 외로운 리키의 마음을 더 강하게 느끼게 하는 하나의 장치가 되어준다. 배경의 변화가 이야기 전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2) 주제가 가치 있고, 이야기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가?

다음은 이 책의 주제가 잘 드러난 부분이다.

리키도 길쭉한 귀가 두 개 있었어요. 단지... 리키의 귀는 조금 달랐답니다.(중략) “으음, 네 귀는 멀쩡하단다. 조금 힘이 없긴 하지만 소리를 듣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원래 귀들은 모두 다르단다.” (중략) 리키도 친구들도 처음으로 모두 똑같아졌답니다.

장애우는 몸이 조금 다르거나 불편할 뿐 우리와 같은 존재라는 차별없는 시선이 리키가 겪는 갈등과 그것을 풀어가는 이야기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

3) 어린이의 마음을 잘 담아내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가?

썩썩이 귀를 가진 토끼를 통해 아이들이 겪었음직한 이야기와 그로 인한 기쁨과 슬픔을 아이들 입장에서 담아내고 있다. 이러한 점이 잘 드러난 몇 장면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리키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나도 두 귀가 모두 쫑긋 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을까요?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있을 때는 리키의 귀도 쫑긋 서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5~6)

리키는 아예 귀를 감추기로 했어요. 할머니가 만든 주전자 덮개를 머리에 꼭 덮어썼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리키를 보고 배꼽을 쥐고 웃었어요. 다행히 리키한테는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덮개 때문에 리키는 너무너무 답답했어요.(7~8)

가엾은 리키는 붕대로 귀를 둘둘 감았어요. 빨래집게로 귀를 집어서 낚싯대로 들어올리기도 했고요.(11 - 12) ... 귀에다 풍선을 달아 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여전히 깔깔대며 데굴데굴 굴렀답니다.(13~14)

리키는 더 이상 좋은 수가 생각나지 않았어요. 화가 난 리키는 숲 속에 들어가 나무들한테 소리쳤어요. “이 보기 싫은 귀를 싹둑 잘라버릴 거야. 두고 봐! 바보 같은 심술꾸러기 녀석들도 다시는 안 볼 거야, 절대로!” 리키는 흑흑 흐느껴 울며 생각했어요. ‘어

쩌면 의사선생님이 고쳐 주실 지도 몰라.’ 그러고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터벅터벅 걸어갔답니다.(15~16)

리키가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고 소외당하지 않기 위해 이 궁리 저 궁리 하는 모습, 갈수록 심하게 놀리는 친구들 때문에 속상해하는 모습, 아이다운 기발한 생각 등이 현실의 아이들 모습과 닮아있다.

나. 그림 측면

1) 그림이 이야기를 잘 전달해주는가?



<그림1> 리키의 심리상태를 표현한 장면(3~4쪽, 13~14쪽, 16쪽, 20쪽)

한쪽 귀가 처진 리키가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고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장면①) 여러 가지 궁리 끝에 풍선을 매달아 귀를 펴 보지만, 친구들은 오히려

려 깔깔대며 웃는다.(장면②) 속이 상한 리키는 숲 속에 들어가 흐느껴 운다.
(장면③) 용기를 내어 의사 선생님을 만난 뒤,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친구들
에게 돌아온다.(장면④)

그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큰 그림책이다. 장면마다 담긴 글이 많지
않다 보니, 그림이 충분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장면마다 주인공 리키의 감정
변화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그림을 통해 리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2) 그림이 이어지며 이야기를 만드는가?



<그림2> 그림의 연속성 평가를 위한 『내 귀는 짹짹』의 부분 장면(3~22쪽)

장면마다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림의 흐름으로 이야기
내용을 알 수 있다. 한쪽 귀가 처져 놀림을 당하는 주인공이 이 궁리 저 궁리
하며 귀를 세워보지만 친구들의 놀림은 계속되고, 마침내 속이 상한 주인공은
숲 속에 들어가 소리치며 운다. 그리고 의사선생님을 만나 마음이 달라진다.

축 쳐져 있던 처음과 달리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 나눈다. 앞의 장면이 다음 장면의 원인이 되고, 뒷장면은 그것을 이어받아 인과관계를 이루며 이야기를 엮어가고 있다.

2. 어린이 그림책 평가기준에 대한 현장의 평가

가. 긍정적 반응

다음은 도서관의 수서 담당자에게 어린이 그림책 평가기준과 그것을 그림책에 적용한 내용을 보여주고 수렴한 긍정적 반응들이다.

목록만 참고하여 수서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의 적용성이 좀 낮을 수 있겠지만, 서점에서의 현장수서 때에는 유용하리라 생각한다.⁴³⁾

일률적인 평가기준 적용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지만 기본적인 평가기준이 있으면 효율적인 수서를 할 수 있겠다. 수서를 해보면, 책 한 권 한 권마다 고르는 기준이 달라지는데, 평가기준이 있으면 좀 더 객관적인 수서를 할 수 있을 듯하다.⁴⁴⁾

이것은 최소한의 평가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림책을 글, 즉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는데, 그림책의 특성을 살려 글과 그림을 통합해서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줄 수 있겠다. 평가기준을 객관화 시키는 계기가 되겠다.⁴⁵⁾

그림책은 물론, 대부분의 장서를 혼자 구입하다보니, 주관적 성향이 많이 반영된다. 편향되는 경향이 있다. 어린이 그림책의 경우,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책이라 생각하지만 아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객관적인 평가기준의 필요성을 느낀다. 그리고 내가 수서하는 자리에 없어도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필요함을 느낀다. 그러한 의미에서 어린이 그림책 평가기준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이것은 그림책의 특성을 살려, 글과 그림을 골고루 안배를 해서 평가기준을 잡은 것 같다. 항목은 5개 정도가 적절한 듯하다.⁴⁶⁾

면담에 응한 도서관의 수서담당자 대부분이 어린이 그림책 평가기준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 연구에서 제시한 어린이 그림책 평가기준이 어린이 그림책

43) 부산 S도서관 H사서와의 면담, 2005. 4. 22.

44) 울산 N도서관 K사서와의 면담, 2005. 4. 25..

45) 울산 K도서관 C사서와의 면담, 2005. 5. 11.

46) 대구 S도서관 S관장과의 면담, 2005. 5. 10.

을 수서할 때, 최소한의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될 수 있다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어린이 그림책 평가기준은 그림책의 특성을 살려 글과 그림에 대한 항목을 고루 갖추고 있으므로, 글과 그림에 대한 안목을 길러줌과 동시에 균형 잡힌 수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평가항목이 다섯 개 항목으로 그 수가 적절하여, 현장에서 그림책을 평가할 때 적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나. 부정적 반응

면담에 응한 대부분의 도서관이 이 연구에서 제시한 어린이 그림책 평가기준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부족한 점이나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는 등 부정적 반응도 있었다.

현실적으로 외국 그림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므로 평가기준에 번역상태에 관한 언급이 포함되면 좋겠다.⁴⁷⁾

번역상태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정서를 반영한 그림책인가?’라는 항목은, 외국 번역 그림책이 우리나라 창작 그림책보다 6배 이상 많이 출판되고 있고, 그림책을 주로 보는 대상이 정서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어린이임을 감안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할 항목임에도 문헌상에 공통적으로 언급되지 않아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문헌에 나타난 평가항목이 주로 외국 것이다 보니 오늘날 우리나라 그림책 출판의 특수성을 적극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직접 책을 보고 수서하는 경우가 아니고, 목록만 참고하여 수서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의 적용성이 낮을 수 있다.⁴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기준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세세하게 따져 가면서 그림책을 수서하기란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림과 글과 내용과 삽화의 적정성 등을 동시에 파악하는 멀티플레이를 해야 한다고나 할까.⁴⁹⁾

47) 울산 K도서관 C사서와의 면담, 2005. 5. 11.

48) 부산 S도서관 H사서와의 면담, 2005. 4. 22.

49) 울산 J도서관 K사서와의 전화 인터뷰, 2005. 5. 25.

평가기준 항목이 다섯 개로 많지 않아, 현장 적용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그림책을 별도로 수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권 한 권 그림책을 보며 수서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을 갖지 못한 우리나라 도서관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 여건이 뒷받침 되지 못한다고 해서 평가기준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것은 사서 개개인의 노력의 문제라기보다 수서업무의 세분화, 전문화, 사서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점차적으로 해결해야할 구조적인 문제다.

아이들의 경우, 그림책을 통해 말과 글을 배우므로 맞춤법, 말투에 관한 기준을 넣었으면 한다. 그림책은 쉽게 파손이 되므로 제본, 장정 상태를 많이 본다. 즉 형태적 측면도 중요하므로 다루어졌으면 좋겠다.⁵⁰⁾

이 연구가 최소한의 어린이 그림책 평가기준만 다루다보니, 그림책의 번역 상태, 맞춤법, 제본, 장정상태 등이 중요한 항목임에도 평가기준에서 제외된 것을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앞서 연구대상에서도 밝혔듯이 이 연구가 어린이 그림책의 평가기준 가운데 어린이의 인지, 정서 발달과 관련이 있는 그림책의 내용면을 주로 다루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림책이 다른 책보다 쉽게 파손되는 점을 감안할 때, 그림책의 형태면은 반드시 고려해야할 사항임에 틀림없다. 그 밖의 반응으로 ‘평가기준 내용이 중복되는 느낌이 든다’⁵¹⁾가 있었다.

V. 결론

이 연구에서는 관련 문헌 연구와 도서관의 수서담당사서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어린이 그림책 평가기준의 시안을 도출하고 이를 독자들의 호응이 가장 높았던 사례 그림책에 적용해 봄으로써 실질적인 유용성을 검증해 보았다. 이를 통하여 막연한 독자의 반응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었다. 한편,

50) 울산 N도서관 K사서와의 면담, 2005. 4. 25.

51) 대구 S도서관 S관장과의 면담, 2005. 5. 10.

어린이 그림책 평가기준의 타당성과 유용성에 대한 사서들의 반응 역시 대부분 긍정적으로 나타나 평가기준의 유용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도서관이 그림책을 어린이책에 포함시켜 구입하고 있고, 객관적이고 일관된 평가기준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린이 그림책 평가기준이 도서관에서 그림책을 평가할 때 최소한의 평가기준이 되고, 객관적이고 일관된 어린이 그림책 수서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한편, 최소한의 범주만 다루다보니, 현실상 평가기준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항목임에도 문헌에 중복 언급되지 않아 제외된 항목이 더러 있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정서를 반영한 그림책인가?’ 라는 항목의 경우, 외국 창작 그림책이 우리나라 창작 그림책보다 6배 이상 많이 출판되고 있고⁵²⁾, 그림책을 주로 보는 대상이 정서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어린이임을 감안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항목임에도 문헌에 공통적으로 언급되지 않아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연구대상이 그림책 가운데서도 사실의 객관성보다 주관성이 훨씬 많이 작용한 문학성⁵³⁾을 띤 창작 그림책이다 보니, 평가기준의 실제 적용 과정에서도 연구자의 주관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이 연구는 어린이 그림책의 평가기준 가운데 내용면만 다루었으므로 어린이 그림책 평가기준의 형태면을 다룬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내용면과 형태면을 두루 갖춘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도서관에서의 객관적이고 일관된 어린이 그림책 수서를 뒷받침할 수 있었으면 한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52) 엄혜숙, “그림책 출판의 전망”, 《어린이도서연구회 2002년 정기 세미나 자료집》(어린이도서연구회), (2002. 5), 105쪽.

53) 김효정, 김승환, 한복희, 송영숙, 『독서교육의 이론과 실제』, 한국도서관협회, 1999, 129쪽.

KORMARC 형식 통합서지용의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an Integrated KORMARC Bibliographic Formats

김 정 현(Kim Jeong Hyen)*

■ 목 자 ■

- | | |
|-----------------------------------|-----------------|
| 1. 서 언 | 3.1 설계원칙 |
| 2. KORMARC 형식 통합서지용의 필요성과
경과과정 | 3.2 서지형식의 통합 |
| 2.1 KORMARC 형식 통합서지용의 필요성 | 3.3 KCR4의 수용 |
| 2.2 KORMARC 형식 통합서지용 개발의
경과과정 | 3.4 필드의 신설 및 변경 |
| 3. KORMARC 형식 통합서지용의 특성과
내용분석 | 3.5 새로운 용어의 사용 |
| | 4. 요약 및 결론 |

< ABSTRACT >

KORMARC formats have been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type of materials at different times. The format was firstly developed and soon after with formats for serials, audiovisual materials, archival and manuscript materials. Although all of the formats were developed according to the same principles, there were same inconsistencies among them. However, there are solved above problems as integrating KORMARC bibliographic formats. First of all, the result was better than we had expected both unified cataloging rules and standard of a descriptive form as accepted KCR4.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jhkim@chonnam.ac.kr)

This study is to roughly analyze integrating process and contents, planning principles, new or changed fields, reception and difference of KCR4, and definition of a new terminologies in KORMARC bibliographic formats.

1. 서 언

도서관계는 전 세계적으로 1990년대 이후 컴퓨터와 네트워크 관련 기술의 발달로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목록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하겠다.

목록환경이 바뀌면 당연히 목록규칙이 바뀌게 되며, 목록규칙은 가장 먼저 IFLA에서 세계 도서관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ISBD를 정비하게 된다. 각국에서는 대부분 이를 반영하여 목록규칙을 개정하게 되며,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AACR2R과 MARC 21 형식, KCR4(한국목록규칙 제4판)와 KORMARC(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 형식이 있다.

이미 ISBD는 이러한 변화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전자자료와 계속자료에 대한 서지기술을 위해 ISBD(ER)과 ISBD(CR)을 발간하였으며, AACR2R은 ISBD(ER)과 ISBD(CR)의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부분을 개정함은 물론, 전반적인 구조개편에 착수하여 이제는 완전히 모습을 달리한 새로운 규칙으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 MARC 21 형식도 1992년 통합서지용으로 발간된 이후, 개정을 거듭하여 최근의 변화 환경을 수시로 반영하여 오고 있다. 한국목록규칙도 이러한 변화 요인을 반영하여 2003년 제4판이 발간되었지만 AACR2R의 완전한 개정이 이루어지면 어떻게든 또다시 변화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KORMARC 형식은 이번에 통합서지용을 발간하면서 MARC 21 형식이 10여년 이상 걸쳐 완성했던 것을 불과 2, 3년 만에 통합은 물론 최근의 목록규칙 흐름까지 동시에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통합은 되었지만 KORMARC 형식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본래의 문제점은 그대로 상존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이 연구는 그동안 KORMARC 형식 가운데 서지정보용이 매체별로 각각 발간되어 있었지만 하나의 통합서지용으로 발간하게 된 의의와 경과과정, KORMARC 형식의 기본 설계원칙, KORMARC 서지형식의 구체적인 통합내용, KCR4의 수용과 상이점, 통합서지용에서 새로이 신설되거나 변경된 필드, 그리고 새로운 용어의 사용 등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KORMARC 형식 통합서지용의 필요성과 경과과정

2.1 KORMARC 형식 통합서지용의 필요성

KORMARC 형식은 지금까지 서지정보용, 전거통제용, 소장정보용으로 크게 3가지 종류의 형식이 개발되었으며, 이 가운데 서지정보용은 다시 매체별로 단행본용, 연속간행물용, 비도서자료용, 고서용으로 각각 발간되어 있어 도서관현장에서 사용상 불편한 점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KORMARC 형식의 통합은 이와 같이 유형이 다른 자료들 즉, 단행본, 연속간행물, 전자자료, 지도자료, 녹음자료 등 서지적 형식을 달리하는 모든 자료들을 위한 한 가지 형식으로 통합함을 의미한다.

MARC 21 형식도 KORMARC 형식과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통합서지용으로 발간된 것이 아니다. 미국의회도서관에서 1965년 처음 MARC을 개발할 때도 단행본을 먼저 개발하였으며, 이어서 1970년대에 단계적으로 연속간행물용, 지도자료용, 필름자료용, 고문서자료용을 개발하였다. 그 후 1980년대 초기부터 통합형식으로 발간하기 위해 꾸준한 연구와 노력을 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로서 1992년 비로소 오늘날과 같은 통합형식이 나오게 된 것이다.

미의회도서관의 Byrne은 이 당시 USMARC 형식의 통합 목표를 통일성(uniformity), 적합성(relevance), 통합성(consolidation)의 세 가지로 요약하였

다.¹⁾ 아래의 내용은 이것을 바탕으로 KORMARC 형식의 통합에 대한 의의를 분석한 것이다.

첫째, 통일성의 목표는 KORMARC 레코드의 범위 내에서 정보의 세분된 요소들을 코드화하여 모든 유형의 자료들을 위한 KORMARC 형식을 균일하게 만드는데 있다. 즉, KORMARC 형식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다른 시간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형식들마다 통일성이 결여된 된 부분이 상당히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통합서지형식을 만듦으로써 이러한 차이점을 조정할 수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246 필드(여러 형태의 표제)와 740 필드(부출표목-비통제 연관/분출표제)의 경우 통합서지용 이전에는 연속간행물용 형식과 다른 형식 간에 차이가 있었다. 통합을 함으로써 이전에 740 필드에 기술하던 요소들 즉, 대등 표제나 표지표제 등 다양한 형태의 표제들을 통일해서 246 필드에 기술하도록 하고, 740 필드에는 주로 비통제 연관/분출표제를 기술하도록 조정하였다. 또한 505 필드의 경우에도 통합형식 이전의 단행본용에서는 제2지시기호를 빈칸으로 둠으로써 부출기능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통합형식에서는 제2지시기호에 기본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부출기능을 적용할 수 있도록 통일하였다.

둘째, 적합성의 목표는 KORMARC 형식에서 아주 드물게 사용되거나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때 즉, 부적합한 구성요소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데 있다. 이는 이용자들에게 좀 더 적합하도록 코드의 이름을 변경하거나 식별이 되어야 정보의 코드이름을 좀더 명확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507 필드의 경우 통합형식 이전에는 원저자와 원표제에 관한 주기를 기술하였지만 통합형식에서는 그래픽자료의 축척주기를 하도록 변경하고, 원저자와 원표제는 다른 필드로 이동하였다.

셋째, 통합성의 목표는 모든 유형의 자료들에 관한 모든 서지형식을 하나의 형식으로 모으는 것이다. 즉, 단행본, 연속간행물, 비도서자료, 고서 등의 개별적인 형식 대신에 이제는 모든 유형의 자료들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의 통합된 형식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목록자들이 자료의 유형에 따라

1) Deborah J. Byrne. *MARC Manual : Understanding and Using MARC Records*, 2nd ed. Englewood, Colo. : Libraries Unlimited, 1998. pp.41-46.

KORMARC 형식을 따로따로 참조해야 하므로 번거로움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서지기술은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발간한 한국목록 규칙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간한 KORMARC 기술규칙으로 양분되어 있었지만 KCR4가 발간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서지기술이 하나의 규칙으로 표준화 될 수 있었다. 그런데 기존의 KORMARC 형식은 KORMARC 기술규칙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KCR4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보완해야 할 요소들이 많았으며, 또한 기존의 소장정보용 형식을 그대로 통합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와 같이 그동안 인터넷 환경을 비롯하여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보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온 이러한 문제들도 통합서지용의 발간으로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2.2 KORMARC 형식 통합서지용 개발의 경과과정

KORMARC(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은 ① 국가발전의 기틀인 지적 정보를 컴퓨터기법으로 처리하여 국내학술의 진흥과 사회개발을 위한 정보를 신속 정확히 공급하고, ② 전국 대학 및 공공도서관을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문헌정보의 네트워크를 편성하며, ③ 정보의 표준형식을 제정하여 유통망 형성의 기반을 조성하고, ④ 국내문헌의 전산화를 통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중앙 대표성을 부각하고 그 기능을 현대화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표준형식의 기본구조는 ISO 2709를 따르고 있으며, LC MARC과 공통적으로 호환될 수 있는 구조로 레코드가 설계되어 있다. 그러므로 세부적인 편성 방침도 LC MARC을 준용하고 있으며, 식별기호를 규정하는데 있어서는 UK MARC을 따르고 있고, UNIMARC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리고 목록 기술은 ISBD에 준거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매체별로 제정한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 기술규칙을 따르고 있으며, KORMARC 서지정보용으로 단행본용을 비롯하여 연속간행물용, 비도서자료용, 고서용이 단계적으로 개발되었다. 또한 전거통제용과 소장정보용도 개발되어 모두 KS로 제정되었다. 그 후 2003년

KCR4의 발간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서지기술법이 통일됨으로써 KORMARC 형식에도 KCR4를 그대로 수용하였으며, 그동안 별도로 되어있던 서지정보용도 하나로 통합하게 되었다. KORMARC의 개발과정을 시대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980. 2. KORMARC 단행본 실험용포맷 개발
- 1983.12. KORMARC 연속간행물 실험용포맷 개발
- 1991.12. KORMARC 비도서자료용(안) 포맷개발
- 1993. 1. KORMARC 형식 단행본용이 KS로 제정 (KS C 5867 - 1993)
- 1994.12. KORMARC 형식 연속간행물용이 KS로 제정 (KS C 5795 - 1994)
- 1996.12. KORMARC 형식 비도서자료용이 KS로 제정 (KS C 5969-1996)
- 1999.12. KORMARC 형식 전거통제용이 KS로 제정 (KS X 6006-4)
- 1999.12. KORMARC 형식 소장정보용이 KS로 제정 (KS X 6006-5)
- 2000.11. KORMARC 형식 고서용이 KS로 제정 (KS X 6006-6)
- 2004. 2. KORMARC 형식(안): 통합서지용 개발
- 2004.10. KORMARC 형식(안): 통합서지용 공청회
- 2005.12. KORMARC 형식: 통합서지용이 KS로 제정 (KS X 6006-0)
- 2006. 1. KORMARC 형식: 통합서지용(간략판) 발간

3. KORMARC 형식 통합서지용의 특성과 내용분석

3.1 설계원칙

KORMARC 형식 통합서지용은 각종 자료에 대한 서지정보의 교환을 목적으로 도서관시스템들 사이의 레코드 교환에 필요한 명세를 제공한다. 그리고 MARC 21을 모델로 하여 개발된 것이나 일부 독자적으로 처리한 부분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한 번 입력한 데이터는 재입력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우선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들이 적용된 대표적인 필드로는 245 필드를 들 수 있다. MARC 21에서는 식별기호 \$a(본표제)가 반복불가로 되어 있지만 KORMARC 형식에서는 반복가능으로 되어 있어, 종합표제나 대표표제가 없는 2개 이상의 표제가 열기되어 있는 경우 KORMARC 형식에서는 245 필드의 기술만으로 두 번째 이하의 \$a에 기술된 표제는 740 필드에 자동 생성하게 하여 부출표목이 될 수 있지만 MARC 21에서는 부출표목이 되기 위해서 740 필드에 다시 각각의 표제를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형식의 범위는 인쇄 또는 필사된 도서, 계속자료, 전자자료, 지도자료, 음악/녹음자료, 시청각자료, 고서, 복합자료의 서지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3.2 서지형식의 통합

KORMARC 형식은 2003년까지 서지정보용, 전거통제용, 소장정보용으로 크게 3가지 종류의 형식이 개발되었으며, 이 가운데 서지정보용은 다시 매체별로 단행본용, 연속간행물용, 비도서자료용, 고서용으로 각각 발간되어 있어 도서관 현장에서 사용상 불편한 점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미 KCR4에서 이러한 매체들을 모두 수용하여 하나의 규칙으로 통합하였으며, KORMARC 형식에서도 이러한 각각의 서지정보용 형식을 이번에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그동안의 불편한 점과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게 되었다.

3.3 KCR4의 수용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KORMARC 형식 통합서지용을 제정하면서 KCR4의 기술원칙 및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고, 기존의 KORMARC 기술규칙을 폐기하였다.

그런데 KCR4의 특성은 목록의 기능을 처음으로 제시하는 등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서지기술과 관련하여 도서관현장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은

기본표목과 통일표제에 관한 문제라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KORMARC 형식에서의 현실적인 수용과 문제점, KCR4와 상이점 등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3.3.1 기본표목을 규정하지 않음

KCR4에서 기본표목도 저록을 검색하기 위한 여러 유형의 접근점 가운데 하나로 이해하고 표목의 선정과 형식은 전거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KORMARC 형식에서 기본표목을 기술할 수 있도록 설계한 1XX(100 개인명, 110, 단체명, 111 회의명, 130 통일표제) 필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며, 아래의 예시와 같이 1XX의 내용을 7XX에 기술한다는 의미이다. 이미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하여 일부 대학도서관에서는 실제로 1XX 필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예시 •기본표목을 적용함

100 1 \$a김정현

245 20\$a(수험생을 위한) 자료조직론 /\$d김정현, \$e이경호, \$e김상진 편저

260 \$a대구 :\$b인쇄마당,\$c2005

700 1 \$a이경호

700 1 \$a김상진

•기본표목을 적용하지 않음

245 20\$a(수험생을 위한) 자료조직론 /\$d김정현, \$e이경호, \$e김상진 편저

260 \$a대구 :\$b인쇄마당,\$c2005

700 1 \$a김정현

700 1 \$a이경호

700 1 \$a김상진

그렇지만 국내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에서는 여전히 기존의 기본표목 개념을 적용하여 레코드를 작성하고 있으며, AACR2R이나 MARC 21에서도 여전히

기본표목을 적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KORMARC에서도 기본표목을 적용한 MARC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물론 기본표목의 필드는 그대로 있더라도 KCR4의 원칙을 수용하여 1XX 필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 이는 전적으로 개개 도서관의 판단에 맡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저자주기입방식의 오랜 관습과 함께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저자기호 때문에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다. 저자기호법이 기본표목을 근거로 기호화하기 때문에 저자기호법을 적용하는 한 기본표목을 그대로 사용하려고 할 것이다. 실제로 기본표목을 적용하지 않는 도서관에서는 도서기호를 연대순기호법으로 완전히 개편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저자기호법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연대순기호법으로 바꾸는 것이 힘들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다. 즉, 기본표목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기존의 저자기호법을 그대로 고수하려면 7XX 필드에 기술되는 것 가운데 첫 번째 필드를 기준으로 기호화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다. 이는 기존의 기본표목 1XX에 기술되는 내용이 그대로 7XX에 기술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저자기호법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3.3.2 통일표목을 적용하지 않음

통일표목과 관련이 있는 필드는 240(통일표제), 243(종합통일표제), 630(주제명부출표목-통일표제), 730(부출표목-통일표제), 830(총서부출표목-통일표제) 등이 있다. KCR4에서와 같이 특정 표목에 대해 하나의 특정 형식을 표준형식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들 필드를 굳이 기술할 필요는 없다. 다만 여러 개의 접근점 가운데 이들도 다른 요소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접근점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기술할 수 있을 뿐이다. 통일표목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이들 필드에 기술하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1) 240 필드와 243 필드

240 필드와 243 필드에 통일표제로 기술하던 ‘법령집’, ‘예규집’, ‘헌법’, ‘소설집’ 등은 일반적인 주제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들에 통일표목을 적용하지 않으면, 610 필드(주제명부출표목-단체명)와 650 필드(주제명부출표목-일반주제명) 등에 주제명부출표목으로 기술하면 된다. 다만 240 필드에 ‘사씨남정기’와 같이 특정 저작명이 통일표제로 기술된 경우에는 246 필드(여러 형태의 표제)에 부출표목으로 기술하면 될 것이다.

예시 •기본표목과 통일표제를 적용함

```
110   $a한국
240 10$a법령집
245 10$a예산회계관계법령집 /$d한국세무연구소 편
710   $a한국세무연구소
100 1  $a이광수
243 10$a소설집
245 10$a이광수 소설전집 /$d이광수 저
100 1  $a김만중
240 10$a사씨남정기
245 10$a남정기 /$d김만중 저
```

•기본표목과 통일표제를 적용하지 않음

```
245 00$a예산회계관계법령집 /$d한국세무연구소 편
610   8$a한국$v법령집
650   8$a법령집$z한국
710   $a한국세무연구소
245 00$a이광수 소설전집 /$d이광수 저
610   8$a한국$v소설집
650   8$a소설집$z한국
700 1  $a이광수
245 00$a남정기 /$d김만중 저
246 3  $a사씨남정기
700 1  $a김만중
```

(2) 630 필드와 730 필드

통일표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630 필드에 기술하던 내용은 일반주제명으로 취급하여 650 필드에, 730 필드에 기술하던 내용은 여러 형태의 표제가운데 하나로 취급하여 246 필드에 기술하면 될 것이다.

예시 •기본표목과 통일표제를 적용함

100 1 \$a콜만, 로버트

245 10\$a천상의 노래 :\$b요한계시록 강해 /\$d로버트 콜만 지음
; \$e석창훈 옮김

630 08\$a성서.\$p신약.\$p요한계시록\$x해설

700 1 \$a석창훈

•기본표목과 통일표제를 적용하지 않음

245 00\$a천상의 노래 :\$b요한계시록 강해 /\$d로버트 콜만 지음;
\$e석창훈 옮김

650 8\$a성서\$x신약\$x요한계시록\$x해설

700 1 \$a콜만, 로버트

700 1 \$a석창훈

(3) 830 필드

830 필드에 기술하는 총서부출 통일표제는 통일표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달리 기술할 곳이 없다. 따라서 830 필드의 명칭을 ‘총서부출표목-통일표제’ 대신에 ‘총서부출표목-여러 형태의 표제’ 로 변경하여 사용하면 될 것이다. 실제로 830 필드는 원래의 총서표제로는 식별성이 부족하여 발행기관 등을 임의로 첨가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이때 490 필드는 원래의 총서표제를 기술하고, 830 필드에는 목록자가 임의로 작성한 총서부출표목을 기술하고 있으므로 애당초 통일표제의 의미가 희박한 필드라고 할 수 있다.

예시 •총서부출표목-여러 형태의 표제

490 1 \$a연구보고서 ;\$vv.5

830 0 \$a연구보고서 (한국통신연구소) ;\$vv.5

3.3.3 KCR4와의 상이점

KORMARC 통합서지용은 KCR4를 그대로 수용하여 컴퓨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서지요소별로 코드화 한 것이므로 기본적으로는 서지기술에 있어 차이점이 없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목록규칙을 MARC 형식으로 구조화하면서 차이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미묘한 부분들이 있다.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지만 포괄적인 자료유형, 특정자료의 종별표시, 자료유형의 표시 위치 등을 중심으로 KORMARC 통합서지용과 KCR4를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1) 포괄적인 자료유형

포괄적인 자료유형이 KCR4와 KORMARC 형식 간에 차이가 있으며, KORMARC 형식 내에서도 <표 1>과 같이 자료의 유형이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다.

(2) 특정자료의 종별표시

특정자료의 종별표시가 매체마다 KCR4와 KORMARC 형식 간에 많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전자자료와 녹음자료의 경우, 특정자료의 종별표시를 비교하여 보면 아래와 같이 사용하는 용어나 종별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전자자료

- KCR4(전자자료의 특정자료종별표시): 전자 광디스크, 전자 디스크, 전자 디스크 카트리지, 전자 칩 카트리지, 전자 카드, 전자 테이프 릴, 전자 테이프 카세트, 전자 테이프 카트리지
- KORMARC(007 필드-전자자료의 특정자료표시): 테이프 카트리지, 칩

카트리지, 컴퓨터 광디스크 카트리지,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릴, 마그네틱 디스크, 광자기 디스크, 광디스크, 원격, 기타

② 녹음자료

- KCR4(녹음자료의 특정자료종별표시): 녹음카트리지, 녹음카세트, 음반, 녹음 테이프 릴, 사운드 트랙 필름
- KORMARC(007 필드-녹음자료의 특정자료표시): 음반, 실린더, 음향 카트리지, 음향-트랙 필름, 롤, 음향 카세트, 음향-테이프 릴, 전선녹음, 기타

<표 1> KCR4와 KORMARC 형식의 자료유형 비교

KCR4	KORMARC 형식		
1.1.2.1 기술대상 자료의 유형	자료의 형태에 따른 적용 서지 형식의 유형	서지레코드의 유형: 리더/06 레코드 유형	007 형태기술필드에서의 자료유형
단행본 지도자료 고서와 고문서 악보 녹음자료 화상자료 및 영상자료 전자자료 입체자료 마이크로자료 연속간행물 점자자료	도서 계속자료 전자자료 지도자료 녹음자료 시청각자료 고서 복합자료	문자로 된 인쇄자료 필사문자자료 필사악보 이외의 악보 필사악보 지도자료(구체포함) 필사지도 평면영사자료 평면비영사자료 녹음자료(음악 이외) 녹음자료(음악) 전자자료 입체자료(실물) 고서 복합자료 키트	지도 전자자료 구체 촉감자료 평면영사자료 마이크로자료 평면비영사자료 영화 고서 악보 원격탐사도 녹음자료 문자자료 비디오녹화자료 키트 형태를 구분할 수 없는 자료
11개 유형	8개 유형	15개 유형	16개 유형

(3) 자료유형표시의 위치

KCR4에서는 본표제 바로 다음에(별표제가 있으면 별표제 다음에) 자료유형을 표시하고 있지만, KORMARC 형식에서는 자료유형표시 부호인 \$h가 본표제(\$a, \$n, \$p) 다음에 위치하고, 표제관련정보(\$b), 종합표제가 없는 하위표제, 책임표시(\$d) 앞에 위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를 경우 차이점은 권차나 편차, 권제나 편제가 있을 때이다. 즉, KCR4에서는 권차나 편차, 권제나 편제 보다 먼저 기술되지만, KORMARC 형식에서는 이들 보다 나중에 기술되는 차이점이 있다.

3.4 필드의 신설 및 변경

서지형식을 통합하면서 KORMARC 형식에 다음과 같은 필드들이 새로이 신설되거나 수정되었다.

3.4.1 새로이 신설된 필드

새로이 신설된 필드는 아래와 같으며, 이들은 대부분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MARC 21형식에는 설정되어 있었지만 기존의 KORMARC 형식에서는 설정되어 있지 않았던 필드가 대부분이고 내용도 거의 유사하다.

- 013 \$b\$a특허제어정보
- 016 \$b\$a국가서지기관 제어번호
- 018 \$b\$a저작권료부호
- 023 \$b\$a출판시도서목록 제어번호
- 032 \$b\$a우편물등기번호
- 036 \$b\$a컴퓨터 데이터 파일의 원연구번호
- 051 \$b\$a미국국회도서관 복사본, 발행호, 발췌 인쇄물
- 055 \$b\$a지리 분류 기호
- 060 \$a미국국립의학도서관 청구기호

- 070 \$a미국국립농학도서관 청구기호
- 242 \$a목록작성기관에서 번역한 표제
- 243 \$a종합통일표제
예) [소설집], [Works], [Speeches], [Orchestra music. Selection],
[Laws]
- 270 \$a자료관련주소
- 307 bb\$a이용시간
- 342 \$a지리공간 참조 정보
- 343 bb\$a평면 좌표 정보
- 352 bb\$a디지털 그래픽 표현
- 357 bb\$a원작자의 배포 제어
- 513 bb\$a보고서 유형과 해당기간 주기
- 514 bb\$a지리공간데이터 품질 주기
- 522 bb\$a지리적 범위 주기
- 526 b\$a학습프로그램 주기
- 552 bb\$a개체와 속성 정보 주기
- 562 bb\$a사본/판본 식별 주기
- 563 bb\$a제본정보 주기
- 567 b\$a방법 주기
- 583 bb\$a보존처리 주기
- 584 bb\$a이용 누적 및 빈도 주기
- 654 b\$a주제명부출표목-패킷 주제어
- 655 \$a색인어-장르/형식
- 656 b \$a색인어-직업
- 657 b \$a색인어-기능
- 658 bb\$a색인어-교과과정 목표
- 720 b\$a부출표목-통제되지 않은 이름
- 752 bb\$a부출표목-계층적 지명
- 754 bb\$a부출표목-분류학명

- 774 \$a구성단위저록
- 786 \$a데이터의 정보원 저록
- 800 1\$b\$a총서부출표목-개인명
- 810 11\$b\$a총서부출표목-단체명
- 811 11\$b\$a총서부출표목-회의명
- 852 \$a소장위치
- 856 \$a전자적 위치 및 접속
- 886 1\$b\$a외국 MARC 정보필드
- 887 11\$b\$aMARC이 아닌 필드 정보

3.4.2 부분적으로 수정된 필드

100(기본표목-개인명), 600(주제명부출표목-개인명), 700(부출표목-개인명), 245(표제와 책임표시사항), 246(여러 형태의 표제), 500(일반주기), 505(내용주기), 507 필드(그래픽자료의 축척주기) 등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었다.

(1) 100, 600, 700 필드

100, 600, 700 필드는 아래와 같이 제1지시기호에서 개인명의 유형 가운데 ‘복합성’을 ‘성으로 시작하는 이름’에 통합하여 4개에서 3개로 줄였으며, 식별기호도 일부 변경되었다.

제1지시기호 - 개인명의 유형

0 성으로 시작하지 않는 이름, 1 성으로 시작하는 이름, 3 가계명

제2지시기호 - 미정의

식별기호

\$a 개인명, \$b 이름에 포함되어 世系를 칭하는 숫자, \$c 이름과 관련된 칭호 및 기타 명칭. 歷朝, 國名, 한국 및 중국의 世系, \$d 생몰년

예시

100 11\$b\$a이중섭,\$d1916-1956

100 0ℳ\$a혜경궁홍씨,\$d1735-1815
 100 0ℳ\$a세종,\$c조선 4대왕,\$d1397-1450
 100 0ℳ\$a나폴레옹\$b3세,\$c프랑스왕,\$d1808-1873
 600 18\$a허균,\$d1563-1589\$x전기
 700 3ℳ\$a김씨,\$d고려
 700 0ℳ\$a퇴계,\$d1501-1570

(2) 245 필드

245 필드의 경우 공청회²⁾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MARC 21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우리의 독자성이 많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기본적으로 한 번 입력한 데이터는 재입력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되어 아래와 같이 식별기호 \$a도 반복 기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고 생각된다.

제1지시기호 - 표제의 부출

0 표제를 부출하지 않음 1 표제를 부출함
 2 관제를 포함해서 표제를 부출함

제2지시기호 - 관제 및 관사 출력형태

0 그대로 인쇄 1 원괄호를 제외하고 인쇄

식별기호

\$a본표제 [반복], \$b표제관련정보 [반복], \$d첫 번째 책임표시 [반복], \$e두 번째 이하 저작자 [반복], \$f수집된 자료의 전체 포괄연도 (inclusive dates) [반복불가],
 \$g수집된 자료 중 대다수 자료의 포괄연도 [반복불가], \$h자료유형 표시 [반복불가], \$k형식 [반복], \$n권차 또는 편차 [반복], \$p권제 또는 편제 [반복], \$s판(version) [반복불가], \$x대등표제 [반복]

예시

245 00\$a고독의 여름 :\$b안장환 중편소설 /\$d안장환. \$a여자를 찾습

2) 국립중앙도서관. 통합서지용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안) 공청회 자료.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4. 10.

니다 :\$b김주영 중편소설 /\$d김주영
 245 00\$a메시아\$h[악보] :\$b오라토리오 /\$d[헨델 곡] ;\$e朴泰俊,\$e李
 有善, \$e郭商洙 翻譯
 245 00\$a建築計劃各論 /\$d金正秀,\$e金熙春,\$e劉熙俊,\$e尹道根,
 \$e李廷德 共著

(3) 246 필드

246 필드의 경우, 통합되기 전에는 연속간행물용에만 있었지만 통합서지용을 만들면서 연속간행물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새로이 통합된 필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변화는 제2지시기호 9에서 원표제를 기술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제1지시기호 - 주기 제어/표제부출

0 주기함, 표제부출하지 않음 1 주기함, 표제 부출함
 2 주기 않음, 표제부출하지 않음 3 주기 않음, 표제 부출함

제2지시기호 - 표출어 제어

1b 표출어를 생성하지 않음, 0 검색을 위한 부분표제
 1 대등표제, 2 식별표제, 3 기타표제, 4 표지표제, 5 부표제지표제,
 6 권두표제, 7 난외표제, 8 책등표제, 9 원표제

식별기호

\$i설명어구표시:\$a본표제\$h[자료유형표시] :\$b표제관련정보

예시

245 00\$a멀티미디어 CD-ROM /\$d아브라함 슐츠 원저 ;\$e조화형 번역
 246 19\$aIntroduction to multimedia CD-ROM
 700 1b\$a슐츠, 아브라함
 700 1b\$a조화형
 700 1b\$aSchulz, Abraham

(4) 500 필드

식별기호를 아래와 같이 \$a(일반주기)로 단순화하였다.

지시기호 - 미정의

식별기호

\$a일반주기

예시

500 bb\$a책등표제임

500 bb\$a감수자: 남광우, 이응백, 이을한

(5) 505 필드

505 필드는 아래와 같이 기본형과 확장형의 두 가지 기술방법이 있다. 기본형의 경우에는 7XX 필드에 다시 내용을 기술하여야 부출표목이 되며, 확장형의 경우에는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생성된다.

제1지시기호 - 표출어 제어

0 완전한 내용주기 1 불완전한 내용주기

2 부분 내용주기 3 표출어를 생성하지 않음

제2지시기호 - 내용표시의 수준

b 기본형 0 확장형

식별기호

(기본형) \$a형식화된 내용주기

(확장형) \$n권차.\$t표제 /\$d첫 번째 책임표시, \$e두 번째 이하 책임
표시

예시

(기본형)

505 0b\$a1. 사랑 / 이광수 저 -- 2. 운현궁의 봄 / 김동인 저 --
6. 삼대 / 염상섭 저

700 12\$a이광수.\$t사랑.\$n1

700 12\$a김동인.\$t운현궁의 봄.\$n2
 700 12\$a염상섭.\$t삼대.\$n3
 (확장형)
 505 00\$n1.\$t사랑 /\$d이광수 저 --\$n2.\$t운현궁의 봄 /\$d김동인 저
 --\$n6.\$t삼대 /\$d염상섭 저

(6) 507 필드

507 필드는 원저자 및 원표제에 관한 주기에서 그래픽자료의 축척주기로 변경되었다.

① 원저자명은 1XX, 7XX, 8XX, 9XX로 이동

지금까지 507 필드에 원저자명을 기술할 때는 주기와 부출의 역할을 겸하였지만 7XX에 기술함으로써 부출의 기능은 가능하지만 주기의 역할은 할 수 없으므로 필요하면 일반주기(500 필드)에 다시 기술하여야 한다.

② 원표제는 246 필드로 이동

원래 507 필드에 기술하던 원표제 주기 필드를 246 필드(여러 형태의 표제)의 제2지시기호 “9” (원표제)로 이동하였다. 그런데 MARC 21에서는 이와 같은 번역도서의 원표제는 240 필드에서 통일표제로 기술하고 있다.

3.5 새로운 용어의 사용

KORMARC 형식 통합서지용에서는 <표 2>에서와 같은 새로운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표 2> KORMARC 형식 통합서지용의 새로운 용어정의

새로운 용어	용어 설명
계속자료 (continuing resources)	종기(終期)를 예정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발행되는 서지 자료. 여기에는 연속간행물(serial)과 계속 갱신자료(ongoing integrating resources)가 포함된다.
관련자료 (related item)	해당 자료와 선후관계, 파생(수평적)관계, 계층(수직적)관계 등을 가지면서 연관저록필드를 생성하게 하는 자료이다.
선후관계 (chronological relationship)	시간순서에 따른 서지자료간의 관계 즉, 지명이 변경된 연속간행물의 선후관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777, 780, 785 필드)
파생관계 (horizontal relationship)	다른 언어, 형식, 매체 등과 같이 하나의 서지자료에서 파생된 상이한 판(version)간의 관계가 여기에 해당된다. (765, 767, 775, 776 필드)
계층관계 (vertical relationship)	부분에 대한 전체와 전체에 대한 부분의 계층관계 즉, 저널의 논문과 논문이 수록되어 있는 저널, 회의자료집의 종합표제와 그것을 구성하는 개별 표제, 상위총서와 하위총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760, 762, 770, 772, 773, 774 필드)
갱신자료 (integrating resources)	날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전체로 통합된 형태를 유지하면서, 추가되거나 갱신되는 서지자료이며, 종결 갱신자료와 계속 갱신자료로 구분된다. 여기서 발행기간이 처음부터 제한되어 있는 종결 갱신자료에는 저널의 영인본, 어떤 사건의 뉴스레터, 정치적 캠페인을 위한 웹 사이트, 회의자료 등이 해당되며, 발행기간이 계속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계속 갱신자료에는 갱신되는 가제식자료, 갱신되는 웹 사이트, 갱신되는 데이터베이스 등이 해당된다.
연속간행물 (serials)	연속적인 날개의 형태로, 일상적인 번호매김이 있으며, 종결예정 없이 발행되는 계속자료이다. 예를 들면, 저널, 잡지, 전자저널, 연속간행 지도, 연속간행 전자지도, 계속적으로 발간되는 명감, 연차보고서, 신문, 단행본 시리즈 등이 여기에 속한다.
단행자료 (monographic publication)	한 개의 부분으로 완성되거나, 제한된 숫자의 부분으로 완성하려는 의도가 있는 서지자료이다. 예를 들면, 도서, 전자도서, 지도, 전자지도, 음반, 악보 등이 여기에 속한다.

4.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KORMARC 형식 통합서지용의 제정배경과 경과과정, 설계원칙, 서지형식의 통합내용, KCR4의 수용과 상이점, 새로운 필드의 신설 및 변경, 새로운 용어의 사용 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KORMARC 형식을 통합하면서 KCR4를 수용하게 되어 우리나라의 목록규칙이 일원화되고, 기술형식이 통일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 도서관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본표목과 통일표제의 논란은 상존하고 있다.

KCR4에서 통일표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통일표제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KORMARC 형식에도 기술형식과 일부 통일표제의 기술 예시만 있을 뿐 구체적인 기술방법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도서관 현장에서는 자체적으로 규정한 동서양 고전 리스트(무저자명 또는 저자명)를 적용하거나 AACR2R의 규칙을 원용하여 통일표제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도서관계에는 표준화된 통일표제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결과적으로 기본표목과 통일표제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KCR4가 애당초 의도했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의 미비로 인하여 도서관 현장에서는 오히려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즉, 표목의 선정과 형식을 전거에서 처리하도록 하였지만 전거에 대한 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기본표목의 선정과 형식에서 야기되고 있는 문제들이 그대로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이다.

그리고 통일표목도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분야는 종교경전, 법령집, 음악 녹음자료 등 일부 특수 자료에 한정되어 있지만 이용자의 검색 편의성을 고려하면 여전히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자료들도 통일표목을 기본표목으로는 하지 않더라도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접근점의 한 요소로서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일표목의 개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KCR4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아직 미완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원래 의도했던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전거와 관련된 문제, 특히 표목의 기술형식만이라도 표준규칙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KORMARC 형식에서는 ISBD(CR)의 개념을 반영하여 계속자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KCR4에서는 아직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KCR4가 시급히 ISBD(CR)의 기술규칙을 반영하여 개정되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KORMARC 형식과도 완전한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 김정현. 목록조직의 실제, 개정판. 대구 : 태일사, 2006.
- 김정현. “AACR2R 2002 개정판의 개정내용과 특성분석,” 情報管理學會誌, 제20권 제1호(2003, 3), pp.251-270.
- 김정현. “목록규칙의 개정과 관련기관들의 동향분석,” 도서관, 제58권 제1호 (2003, 봄), pp.3-36.
- 이경호, 김정현. 자료목록법 : KORMARC-MARC 21을 중심으로, 개정판. 경산 : 대구대학교출판부, 2005.
- 이창수. “한국목록규칙 제4판에 반영된 목록의 유용성,”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6권 제3호(2005. 9), pp.137-148.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 고서용.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0.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 단행본용.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1993.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 비도서자료용.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1996.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 연속간행물용.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1995.
- 국립중앙도서관. 통합서지용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안) 공청회 자료.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4. 10.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안) : 통합서지용.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4.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 통합서지용, 간략판.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5. <<http://www.nl.go.kr/kormarc/index.html>> [인용 2006. 5. 5].

- 玄圭燮. 自動化目錄法序說. 서울 : 亞細亞文化社, 1986.
- 韓國圖書館協會 目錄委員會 編. 韓國目錄規則, 第4版. 서울 : 韓國圖書館協會, 2003.
- 古川肇. “英米目錄規則に關する改訂の動向; 一展望,” 資料組織化研究, 2000. 7, pp.15-29.
- Byrne, Deborah J. MARC Manual : Understanding and Using MARC Records, 2nd ed. Englewood, Colo. : Libraries Unlimited, 1998.
- Library of Congress. MARC 21 Concise Format for Bibliographic Data : 2004 Concise Edition.
<<http://www.loc.gov/marc/bibliographic/ecbdhome.html>> [cited 2006. 5. 5].

해외 협력형 디지털참고봉사 사례조사

A Study on foreign cases for cooperative digital reference

주제정보과 디지털 참고봉사
협력네트워크 구축 연구팀*

목 차

- | | |
|-------------------------|------------------|
| I. 개론 | III. 국가단위 협력형 |
| 1. 서론 | 1. 일본 |
| 2. 디지털참고봉사 개요 | 2. 덴마크 |
| 3. 정의 | 3. 영국 |
| 4. 협력형 디지털참고봉사 및 주요 흐름 | 4. 캐나다 |
| II. 사례조사 | IV. 국내협력형 서비스 사례 |
| 1. 주요협력형 디지털참고봉사 | V. 결론 |
| 2. 주요협력형 디지털참고봉사 항목별 분석 | 참고정보원 |

<Abstra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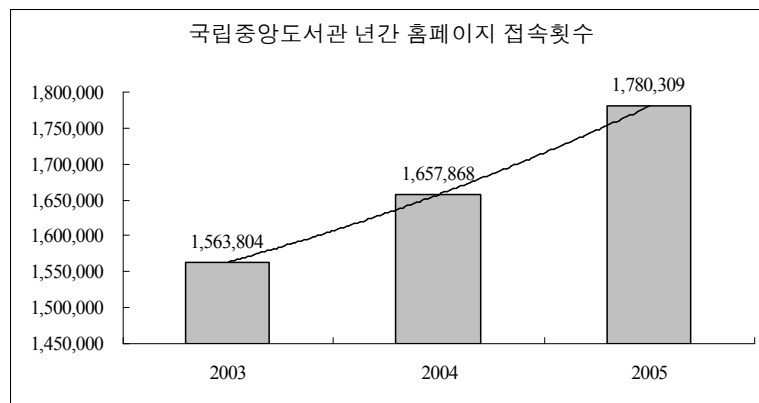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e of cooperative digital reference in other countries, specially focused on 17 cooperative digital reference systems(CDRS) via internet sites. The CDRS in foreign cases generally represents two types which lead by its nation and networked by local communities. A few suggestions based on this research finding will enable the preparation of future development of CDRS in Korea.

* 조미선, 정연숙, 김수정, 양진숙, 이화은, 노정미, 임혜은, 한혜선

I. 개론

1. 서론

인터넷의 발달은 우리 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급증하는 디지털 자원과 디지털커뮤니케이션의 발달은 도서관 정보서비스에도 변화를 야기하였다. 면대면의 참고봉사서비스의 눈에 띄는 감소와 이용자의 정보탐색 능력의 발달은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서비스와 사이버공간에서의 참고봉사서비스를 요구하게 되었다. 특히 디지털참고봉사는 네트워크만 연결되면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 개관시간에 관계없이 이용자가 직접 참고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물리적 접근과 시간적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장점으로 선진국의 경우 이미 디지털참고봉사는 미래의 서비스가 아니라 도서관 네트워크 서비스의 중심적 위치에 와 있다.¹⁾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이용현황을 보면 2003년 접속횟수가 1,563,804건, 2004년 1,657,868건, 2005년 1,780,309건으로 매년 접속횟수가 6%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증가하는 웹상의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참고서비스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참고정보서비스모델은 ‘Virtual’에서 ‘Cooperative’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²⁾



1) D. R. Lankes et al., Digital Reference Service in the New Millenium(New York : Neal-Schuman, 2000).

2) 최은주, 이선희, 협력형 디지털참고정보서비스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정보관리학회지 제21권 2호), 2004.

본 연구는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국립중앙도서관 주도 아래 향후 협력형 디지털참고봉사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참고봉사 개념을 파악하고, 15개국 83개의 협력형 디지털참고봉사를 조사한 후 7개국 17개 주요 협력형 디지털참고봉사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들 사례 중 일부는 국가 주도로 협력형 디지털참고봉사를 수행하고 있어 이것을 중점적으로 활용한다면 국립중앙도서관의 협력형 디지털참고봉사의 모형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디지털참고봉사 개요

최초의 디지털참고봉사는 1984년에 미국 University of Maryland, Health Science Library에서 시작된 EARS(Electronic Access to Reference Service)로 보고되어 있다(Wiese & Borgendale, 1986).³⁾ 그러나 디지털참고봉사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정보통신의 보급이 일반화되고 이용자들이 개인용 컴퓨터를 보유하게 된 1990년대였다. 이 기간에 Ask ERIC(1992)과 Internet Public Library(1995) 같은 성공적인 디지털참고봉사 모형이 수립되었다. 디지털참고봉사가 1990년대 중반 텍스트기반 플랫폼으로부터 웹기반 플랫폼으로 변경되기 시작하면서 더욱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되었고, 1990년대 말경부터는 협력형 실시간 모델을 지향하여 발전하고 있다.⁴⁾

3. 정의

디지털참고봉사는 “가상참고(virtual reference)”, “디지털 참고(digital reference)”, “전자참고(e-reference)”, “인터넷 정보 봉사(Internet information services)”, “생생한 참고(live reference)”, “실시간 참고(real-time reference)” 이라는 용어들과 상호 호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⁵⁾

3) Wasik, Joann M, Building and Maintaining Digital Reference Services. ERIC Digest. 1999; p.2.

4) 장혜란, 대학도서관의 디지털참고봉사 제공 및 이용 분석, 한국정보관리학회 (정보관리학회지 제20권 4호)

5) Virtual reference canada / http://www.collection.scanada.ca/vrc_rvc/s34-150-e.html

RUSA(참고봉사 및 이용자봉사협회)의 ‘가상 참고봉사의 구현과 유지에 관한 지침(2004)’에는 가상참고봉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가상참고봉사는 전자적이면서 종종 실시간으로 시작된 참고봉사로, 이용자들이 물리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컴퓨터나 기타 인터넷 기술을 사용하여 참고서와 대화하는 것이다. 의사소통 채널로는 주로 채팅, 화상회의, 무선인터넷전화, 협동브라우징, 전자우편, 무선인스턴트메시징(instant messaging)이 사용된다.
- 온라인 정보원이 가상 참고봉사를 제공하는데 자주 사용되지만 답변을 검색할 때 전자 정보원을 이용하는 것이 가상참고봉사 그 자체는 아니다.
- 가상참고봉사 질문은 때로 가상의 소통 방식은 아니지만 전화, 팩스, 직접 방문, 일반우편 교환 등으로도 후속조치가 이뤄진다.

또한 미국표준화기구(NISO)에 따르면 가상참고봉사는 이용자가 전자적인 수단으로 질문을 하면 사서가 답변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가상 참고봉사는 동시적으로는 채팅을 통해 실시간으로, 비동시적으로는 이메일로 진행되거나 두 가지를 결합하여 진행될 수 있다. 또한 가상참고봉사는 디지털참고봉사나 온라인참고봉사(NISO, 2001)로도 불리운다.⁶⁾ 한편 우리나라의 서용규, 김성희는 디지털 참고봉사를 디지털도서관시대를 맞이하여 이용자들이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 네트워크와 같은 정보기술에 의해 원격지에서 질의 답변을 받는 참고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인터넷참고서비스를 위한 도구로는 전자우편, 전자게시판, 화상회의시스템, 실시간 참고서비스 등이 주로 사용된다(2003).

위와 같은 정의들을 토대로 디지털참고봉사는 전통적으로 오프라인으로 행하는 도서관 참고봉사와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참고봉사로 볼 수 있고 디지털 참고봉사와 전통적인 참고봉사의 특징을 비교해보면 <표 1>과 같다.

6) NISO. Report on the NISO Workshop on Networked Digital Reference Services, 2001.4 (www.niso.org/news/reports/netref-report.html)

<표 1> 전통적 참고봉사와 디지털참고봉사의 특징 비교⁷⁾

전통적인 참고봉사	디지털 참고봉사
사서와 직접대면으로 이루어진다.	PC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용시간과 장소가 제한되어 있다.	이용시간과 장소의 제한이 없다.
이용자가 원하는 수준의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용시간과 원하는 수준의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
실시간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실시간 서비스가 어렵다.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기 힘들다.	자동으로 저장할 수 있다.
대화 커뮤니케이션으로 주로 이루어진다.	문자 커뮤니케이션으로 주로 이루어진다.
대면을 기피하는 소심한 사람은 사서에게 쉽게 접근하지 않는다.	대면을 기피하는 소심한 사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서비스 결과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기 어렵다.	서비스 결과를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도서관 내부의 어느 부서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다.	통합되어 질문을 받는 경우에 이용자는 도서관 내부의 어느 부서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지 알기 어렵다.
비언어적인 부분(표정 등)도 감지가 가능하다.	문자에 의해서만 의사표현이 가능하다. (화상시스템에서는 일부분 가능)

4. 협력형 디지털참고봉사 및 주요 흐름

협력형 디지털참고봉사는 도서관에서 이용자들이 요청하는 다양한 정보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도서관들이 협력 관계를 맺고 주제전문사서,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인터넷상에서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질문을 받고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여기에는 지역별 컨소시엄과 국제적 수준의 네트워크가 모두 포함된다.

협력형 디지털참고봉사는 지리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도서관끼리 참고질문의 답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각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을 최대한

7) 김휘출, 디지털 참고봉사 모형구축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0), p.8.

활용하는 것이 그 주요 목적이다. 이와 같이 디지털참고정보서비스 업무를 상호협력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들로는 우선 업무를 분담할 수 있고 각 도서관 정보전문가의 전문성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참고정보자료 및 정보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국내 네트워크는 물론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김석영 2002). 뿐만 아니라 협력도서관 자원의 공동활용과 온라인정보자원의 공동구축을 통해 단위 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며, 협력도서관을 이용하거나 공동사서를 두거나 상업기관을 이용해 서비스 가능시간을 확장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협력관계를 통해 날로 증가하는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으며 적은 인원으로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도 이용자가 만족하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경비가 절감된다.⁸⁾

QuestionPoint(<http://www.questionpoint.org>)는 미의회도서관이 1998년부터 시행해오던 Collaborative Digital Reference Service(CDRS)를 2002년에 OCLC와 함께 구축한 세계적인 협력형디지털참고봉사 시스템이다. QuestionPoint는 협력형디지털참고봉사의 제공 목적을 ‘전문가 수준의 정보서비스’에 두고 있기에 주제전문사서로서 자격은 MLS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주제분야의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기타 특정한 분야에서 서비스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선정하고 있다. 또한 각 참가하는 도서관들은 특별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특정한 분야의 전문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므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재 QuestionPoint에는 세계적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를 비롯하여 1,000여 개 도서관이 가입되어 있으며 이들 중 대학도서관이 41%, 국가도서관이 22%, 공공도서관이 27%, 특수도서관이 10%를 차지하고 있다.⁹⁾

최근 중국에서도 VRS(Virtual Reference Service) 제공의 중요성을 인지하

8) 최은주, 이선희, 협력형 디지털참고정보서비스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정보관리학회지 제21권 2호), 2004.

9) 김휘출, 협력형디지털참고봉사 모형구축, 2004.

는 도서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지역적인 VRS 시스템이 이용자 정보요구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러한 지역적 노력이 VRS 기술 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으나, 협력형가상참고봉사(CVRS)의 경우에는 중국국립도서관과 상하이 도서관에서 수행된 것처럼 단지 예비단계의 실험만이 수행되었다. 현재는 이메일 기반의 비동시적 협력만이 지원되는데 앞으로 CVRS 시스템이 비동시적 및 동시적 방법, 2개 국어의 인터페이스, 2개국어 및 cross-bilingual 검색, 중국어와 영어 간의 실시간 번역, 실시간 이용자 이동 등 회원기관들 간의 협력이 필요한 기능이 수행되길 바라고 있다. 중국 대학도서관들 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Distributed Collaborative Virtual Reference Service (DCVRS) project가 China Academic Library and Information System (CALIS)에서 시작되었다. CALIS는 7개의 로컬 센터와 152개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중국대학도서관 연합이다. CALIS는 중국대학교육디지털도서관에 기반한 대학교육지원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DCVRS 프로젝트의 목표는 최초로 중국대학도서관 이용자들에게 가능한 최상의 참고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점차 서비스를 공공도서관, 전문도서관, 정보서비스 커뮤니티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¹⁰⁾

II. 사례조사

1. 주요협력형 디지털참고봉사

연구팀에서는 국외 83개의 협력형디지털참고봉사 사이트를 대상으로 조사 작업을 실시하여 그 중에서 주단위 및 국가단위의 협력사이트를 선정하여 집중 분석 하였다.

10) Yi'Jin, Mfin Huang, Haming Lin, and JingAGuo', Towards Collaboration: The Development of Collaborative irtual ReferenceI Servie in China, 2005.3

1. 노르웨이 Biblioteksvar(Ask the Library) : <http://www.bibliotekvakten.no>

노르웨이의 Biblioteksvar(Ask the Library)은 국가단위 협력형으로 20개 도시, 39개 도서관이 참여하고 있다. 그 목적은 전통적인 참고봉사 방법에서 벗어나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이용자에게 참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참고봉사로 채팅, 이메일, 웹폼,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을 이용한다.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 질문에 답변하는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전화와 팩스를 통해서도 답변을 제공한다.

Biblioteksvar는 협력형 채팅참고봉사인 “Bibliotekvakten” 와 오슬로 공공도서관 중심의 이메일(웹폼)기반의 참고봉사인 “Spør Biblioteket no” 를 합친 통합형서비스이다. 통합형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으며 참가도서관과 각 도서관 사서 명단, 이메일주소로도 접근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메일과 웹폼을 이용한 서비스와 채팅서비스는 월요일-금요일 10시부터 4시까지, 즉답형질문 등은 24시간 SMS 문자메시지를 이용할 수 있다.

2. 뉴질랜드 AnyQuestions.co.nz : <http://www.anyquestions.co.nz>

뉴질랜드의 AnyQuestions.co.nz는 뉴질랜드 도서관과 교육부분 정부기관의 협력프로그램이다. 이 프로젝트는 뉴질랜드 학생들의 학업지원을 위하여 영어와 마오리어로 지원되는 온라인 참고서비스를 실시한다. 참가기관은 뉴질랜드 국립도서관을 포함한 9개 기관이며, 각 참가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학생들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서와 온라인상에서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을 할 수 있고, 채팅 시간이 아닐 경우에는 웹폼을 이용한 질문이 가능하다. 채팅 이용가능 시간은 2월에서 12월까지 학기 중 평일(월요일~금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공휴일에도 이용이 가능하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상담경험이 풍부한 각 도서관의 사서가 담당하며 학생들이 필요한 요구에 적절하고 수준있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상담시간은 평균 15분 내외이며, 상담내용은 당사자가 원할 경우 e-mail로 발송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또한 학생들이 질문하기 전에 미리 원하는 내용을 찾아

보고 검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search tips, FAQs, 다른 유용한 웹사이트로의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 후 상담내용에 대한 평가를 위해 홈페이지에 ‘Do your survey’ 라는 항목을 마련하여, 이용에 대한 피드백을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Tell your friends’ 는 이용한 학생들이 친구에게 추천메일을 보내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

3. 덴마크 Biblioteksvagten : <http://www.biblioteksvagten.dk/english/index.asp>

덴마크 “Biblioteksvagten” 은 국가단위프로젝트를 통해 47개 공공도서관과 19개 연구도서관, 66개 도서관이 협력하여 공공도서관중심의 참고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참고봉사협력체이다.

협력형디지털참고봉사 운영 현황을 보면 각 도서관서비스 담당사서로 구성된 “운영팀” 이 있으며 운영회 개최는 1년에 1번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Biblioteksvagten” 은 참여도서관 대표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성격의 “조정위원회” 가 중요한 결정들을 논의한다.

서비스는 전화와 이메일, 웹폼, 채팅을 통해 제공하며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직원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참고봉사 홈페이지 메뉴에 주제전문사서와 외부주제전문가가 협력하여 운영하는 Other Online Enquiry service를 연결시켜 서비스되고 있다. 외부주제전문분야는 어린이/가족, 소비/환경, 자연과학, 건강질병, 동물, 사회과학, 법학, 기술 등 8개 부분에 해당된다.

4. 미국 Ask A Librarian : <http://www.scu.edu>

산타클라라대학, 보스턴 칼리지 등 19개 카톨릭대학(AJCU)의 협력형 디지털레퍼런스로 디지털레퍼런스 명칭은 Ask A Librarian이다.

이들 대학의 협력형 홈페이지는 없으며, 각 대학도서관 내 위치한 Ask A Librarian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교수 및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19개 협력대학 도서관 사서와 주제전문가들이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방법으로 채팅과 이메일, 웹폼 양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채팅은 24

시간 7일(공휴일 제외)동안 서비스하고 있다. 웹폼 양식을 이용할 경우 답변 소요시간은 1일이며, 채팅을 이용하여 상담을 할 경우 채팅툴로 Tutor.com's Virtual Reference Toolkit™을 이용한다. 채팅 후 상담내용을 본인에게만 제공하고 있다.

산타클라라대학의 경우는 인류학(anthropology)등의 34개 주제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주제전문가에게 이메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주제가이드 제공시 청구기호에 대한 짧은 설명과 함께 해당도서의 상세정보를 볼 수 있도록 링크시켜 보다 편리하고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5. 미국 Ask A Librarian : <http://www.spl.org>

Ask A Librarian : Chat with a Librarian은 총 30개 도서관이 협력하여 만든 시애틀 공공 도서관(<http://www.spl.org>)에서 24시간 제공하는 채팅 참고봉사이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간단히 이름, 이메일 주소, 질문내용을 양식에 입력한 후 연결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채팅전용창이 뜬다. 또 전화서비스와 2일 이내에 답변을 제공하는 E-mail(웹폼 형식) 서비스도 제공하며 이용자가 시애틀 공공도서관의 분관을 찾아 직접 사서에게 질문할 수도 있다. the Library Services and Technology Act(LSTA), 박물관, 도서관 등을 통해 워싱턴 주립 도서관에 의해 기금이 모아졌다. 시애틀 공공도서관은 어린이들과 10대들을 위한 Ask your Librarian 메뉴가 따로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6. 미국 Ask A Librarian (Ask Us Now) : <http://www.columbia.edu>

콜롬비아대학 도서관은 Barnard and Teachers Collage 도서관과 함께 협력하여 대학내 교수 및 학생들에게 디지털참고봉사를 시행하고 있다. 참고상담 명칭은 Ask A Librarian으로 이메일, 전화, 채팅, Consultation을 제공하고 있다.

채팅서비스는 “Ask us now”이며 각 대학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로고를 한번 클릭하여 간편하게 사서와 채팅을 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대상은 해당 대학 교수 및 학생들로 이용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 기간은 학기 중 월~금요일, 오후 1~5시까지로 제한하였고 상담

소요 시간은 1세션에 약 15분 정도이다. 질문응답에 대한 공개여부는 도서관 보안정책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본인이 상담내용 사본을 원할 경우 본인에게만 제공하고 있다.

이메일로 질문하면 2일내에 답변을 얻을 수 있으며, Consultation은 연구형 질문이 있을 때 특정 주제의 정보원이나 검색전략상담을 받기 위해 주제전문가와 방문면담약속을 정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CLIO(Columbia's Online Catalog), e-journal, e-book 등 도서관 자원을 활용하여 답변을 제공하고 있으며 법률, 의학, 금융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디지털참고봉사를 제공하기 위한 공동홈페이지는 없으나 질문에 대한 답변은 3개 대학 도서관 사서들과 주제사서들이 협력하여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정보원, 도서관 콘텐츠를 토대로 주제가이드를 작성하여 이용자들이 상담을 요청하기 전에 충분한 내용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고, 대학도서관의 특성을 살려 Reference Workshop이라는 명칭으로 학생들이 논문을 작성할 때 도움이 될만한 서지작성법, 참고데이터베이스 찾는 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

7. 미국 ASK! : <http://ask.libraries.psu.edu>

ASK!(<http://ask.libraries.psu.edu>)는 총 18개의 Penn State(펜실베이니아주) 대학 주제별 도서관들이 연합하여 만든 참고봉사로 펜실베이니아주 학생들, 교수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며 제한적이지만 다른 연구자들에게도 서비스한다. Chat 서비스의 경우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오후 12시부터 자정까지, 일요일은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공하고 QuestionPoint 소프트웨어를 이용한다. E-mail(웹폼 형식) 서비스는 24시간 이내에 답변이 가능하도록 제공하나, 주제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E-mail 질문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72시간 이내에 답변을 한다고 되어있다. 중앙 참고데스크로 질문이 보내지면 펜실베이니아 주립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직접 처리하거나 적합한 주제 전문가에게 보내진다.

채팅 서비스 log-off 이후 설문조사를 하며, 서비스 평가를 위해 개인적인 정보를 제외하고 저장되고 통계(보고서, 출판물)에 이용될 수 있다고 명시해주

고 있다. 그 밖에 펜실베이니아주 대학도서관 홈페이지에는 주제별 연구 가이드, 온라인 참고정보원, A부터 Z까지 전자자원 리스트, FAQ 등 방대한 자료가 있다.

8. 미국 ASK?Away : <http://www.askaway.info>

위스콘신주는 WiLS, Winnefox Library System, South Central Library System, UW-Milwaukee등 도서관 협력시스템이 지역별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최근 통합형 홈페이지를 구성하여 위스콘신주 전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합홈페이지 구성은 Ask?Away(디지털참고봉사 협력서비스 명칭)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위스콘신주의 지도를 통해 각 협력도서관으로 링크하여 참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고, 협력대학도서관목록과 공공도서관 혹은 학교도서관목록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자관·인근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채팅과 웹폼 양식으로 디지털참고봉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채팅은 24시간 7일 서비스하며 상담소요 시간은 12~15분 정도이다. 이용자는 채팅 서비스가 종료된 후 본인의 이메일로 상담내용 사본을 받아볼 수 있다.

Ask?Away는 초기 24/7 Rerence Consortium 멤버이었는데 2004년 8월 이후 24/7 Rerence Consortium와 QuestionPoint와 통합되어 현재는 The Question Point/247 Reference System을 이용한다.

9. 미국 KANAnswer : <http://skyways.lib.ks.us/KSL/KLNB/KANAnswerWeb/>

KANAnswer는 캔사스 지역 24개 도서관 참여하에 2003년 1월 31일 처음 개통하여 캔사스 지역 24개 도서관이 참여 하고 있으며 이용대상은 Kansas 거주자, Kansas에 관해 알고자하는 비거주 주민들로 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LivePerson service를 사용하며 서비스 이용 시간은 월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화요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목요일, 금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이다. 채팅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이용자가 원하는 곳을 비즈니스, 건강

및 약학, 법률 정보 제공담당을 정해서 보낼 수 있고 기타 협력도서관으로 지정하여 이메일 보낼 수 있다. 법률자문은 수행하지 않는다. 채팅 대화내용은 원격파일서버에 저장되며 서비스 평가 및 품질관리를 위해 KANAnswer 관리자만 접속할 수 있고 미국도서관협회윤리기준에 의거하여 기밀을 유지한다. 또한 다른 채팅 서비스들과 달리 대화내용은 접속자들이 채팅하는 동안만 제공되며 종료 후 이메일로 제공되지는 않는다.

10. 미국 Live Librarian : <http://www.suffolk.lib.ny.us/snl>

뉴욕주 서포크카운티도서관 협력형 시스템으로 뉴욕주의 65개 공공도서관의 협력하여 운영된다. 답변은 채팅이나 이메일(잡지기사일 경우)로 제공하며 이용 시간은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오후 3시부터 11시, 일요일은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이다. 이 서비스는 뉴욕주 서포크카운티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질문이나 과제 도움을 주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온라인 구독 자료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답변하고 인터넷 탐색을 조력하지만 법률, 의료, 세금 관련 자문은 제공하지 않는다.

11. 미국 LiveHelp : <http://www.colapublib.org>

LiveHelp는 캘리포니아 주립도서관 (California State Library)이 운영하며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카운티(Los Angeles and Orange Counties)의 참고 사서들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답변을 제공한다. Metropolitan Cooperative Library System (MCLS) 의 프로젝트로서 Federal LSTA 의 자금지원을 받으며 캘리포니아 지역 135개의 도서관들의 참고사서들이 24시간 채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메일주소를 입력하면 세션 종료 후 답변내용 모두 확인가능하고 상담 마지막에 상담 중 이용했던 참고사이트 리스트를 제공하며 세션종료 후에도 더 나은 정보원을 발견하면 알려준다.

12. 미국 L-net : <http://oregonlibraries.net/index.shtml>

L-net은 오레곤주에 있는 도서관들을 위주로 구성된 지역단위의 협력형 참

고봉사네트워크로 파일럿 프로젝트에 의하여 2003년 1월 “Answerland”로 시작되었다. 파일럿 프로젝트는 오래곤주립도서관의 2002 E-Reference 테스트포스팀과 오래곤도서관협회 비전 2010추진팀에 의하여 구상되었으며 현재 9개 대학도서관, 11개 공공도서관, 2개의 전문도서관으로 총 22개 도서관이 참여하고 있다. 오래곤주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이며 메일과 24시간 채팅서비스를 제공한다. 협력에 참여하는 도서관의 참고사서는 적어도 3개월의 교육을 받게 되는데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 디지털참고봉사 기술과, 8~10주간의 실시간서비스(채팅)교육을 받게 된다. 이용자가 웹폼에서 답변할 도서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일차적으로 로컬에서 답변을 하고 사서가 L-NET을 이용하기 원할 때 이미 답변한 정보원 및 이용자 정보를 기재 후 사서가 질문할 도서관을 선택하여 질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대책으로 사이트에서 요청하는 개인정보와 획득된 정보의 처리과정을 명확히 밝히고 있으며 이용자의 요구에 대비하여 채팅의 기록은 90일간 보관 후 삭제한다.

13. 미국 MassAnswers : <http://www.massanswers.org>

MassAnswers는 보스턴과 메사추세츠 주의 10개 공공도서관들이 협력한 형태로 실시간 채팅 참고봉사이다. 협력형 디지털참고봉사 홈페이지를 따로 가지고 있고, 협력 도서관 중 하나인 The Boston Public Library(<http://www.bpl.org/>) 홈페이지에 로고로 링크되어 있어 그곳을 통해 접근할 수도 있다. Associates of the Boston Public Library, The Boston Public Library Foundation's, City-Wide Friends of the Boston Public Library에서 기금지원을 하며 Massachusetts Board of Library Commissioner(<http://mblc.state.ma.us/>)에서 운영하고 있다.

Massanswers에 참여하는 도서관들 중 한 곳의 메사추세츠 사서 또는 전국적으로 협력하는 도서관들 중 한 곳의 사서가 보스턴과 메사추세츠주의 거주자들에게 우선 책임감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 밖으로부터의 질문은 도서관 컬렉션의 특별한 것이나 보스턴과 메사추세츠에 관한 독특한 정보만 다룬다고 명시되어 있다. 도서관 목록과 데이터베이스, 유용한 인터넷 사이트, 도서관에서 구입한 데이터베이스들을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답변을 하며

홈페이지에 사서가 답변할 수 있는 질문과 답변할 수 없는 질문의 예들이 나와있다. 채팅 서비스가 끝난 후에 이용자에게 채팅 중의 사본을 이메일로 보내준다. The Boston Public Library 홈페이지에서는 24개 주제별로 나뉘어진 데이터베이스, 성인.어린이.10대들을 위한 주제별 책 목록, 주제별 FAQ, 인터넷링크 등 정보원도 제공하며 특이한 점은 청구기호를 설명해주는 메뉴가 따로 있었다.

14. 미국 (Q & A Live) : <http://www.lib.washington.edu>

Q & A Live는 워싱턴대학(University of Washington) 도서관들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디지털참고봉사 시스템으로 워싱턴대학 학생 및 교원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24시간 채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10시에서 저녁 8시까지인 워싱턴대학 도서관 직원이 답변을 제공하며(한 직원 당 일주일에 2~5시간 정도 수행) 그 외의 시간은 QuestionPoint 협력기관에서 수행한다.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와 웹사이트가 주요 정보원이며 온라인상으로 즉답이 이뤄지기 힘든 경우 이메일 등으로 답변해주시기도 한다. 소프트웨어는 '24/7 reference'를 사용하며 채팅 서비스 관련하여 훈련받은 25~30명의 사서들이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은 다수의 주제사서(Subject librarian)으로 구성되어 있다. 답변내용은 다른 이용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채팅 종료 후 접속 시 입력했던 이용자 이메일 주소로 대화 내용 전문이 발송된다. 또한 채팅 종료 후 이용자가 상담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설문지가 웹폼으로 제공된다.

15. 캐나다 Virtual Reference Canada (VRC) : <http://www.collectionscanada.ca>

Virtual Reference Canada(VRC)는 캐나다 국가단위 디지털참고봉사 협력네트워크로 도서관 뿐 아니라, 각종 형태의 자료로 참고상담서비스를 하는 아카이브, 박물관, 정보센터, 연구기관 등 다양한 조직들이 회원가입을 통하여 서로 협력하고 있다.VRC은 뒷장의 국가단위협력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16. 핀란드 Ask A Librarian : http://www.libraries.fi/en-gb/ask_librarian/

1995년부터 헬싱키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시작된 핀란드 도서관 네트워크 서비스는 6개의 채널로 구성되었으며 교육부가 기금을 지원한 국가단위 협력형참고봉사이다. 한 홈페이지에서 핀란드공공도서관과 연구도서관 및 다른 외국도서관 게이트웨이를 포함한 도서관채널, 핀란드 도서관의 문학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문학 채널, 핀란드 도서관의 음악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음악 채널과 핀란드 도서관의 어린이자료 정보를 제공한다.

핀란드는 헬싱키 시립도서관이 주관한 IGS(Information Gas Station)를 통하여 세계 최초의 도서관 인터넷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이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등에 참고봉사서비스 부스를 설치하여 참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료의 소장유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앞선 서비스를 실시하는 곳이기도 하다.

1998년부터 디지털참고봉사인 Ask a Librarian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현재 35개 공공도서관과 14개 전문도서관이 통합된 홈페이지에서 협력형디지털참고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제외한 제공된 질문의 답변내용을 직접 볼 수 있다. 또한 각 도서관 마다 디지털참고봉사를 위하여 10~15명의 사서가 배치되어 있고 답변은 3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하루에 약 100건 정도의 답변을 처리한다.

17. 호주 AskNow : <http://www.asknow.gov.au/>

AskNow는 호주의 Council of Australian State Libraries가 주도하는 협력형 프로그램으로 호주국립도서관과 각 주립도서관, 공공도서관이 참여하여 2002년 8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여 그 서비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온라인상의 실시간 채팅을 통하여 각종 웹자원과 도서관 소장자원을 이용하여 이용자와 상담한다. 각 참가도서관 홈페이지의 참고봉사 항목을 통하여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채팅 이용가능 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00~오후 7:00(Australian Eastern Standard Time), 오전 8:30~6:30(Australian Central Standard Time), 오전 7:00~오후 5:00 (Australian Western Standard Time)이고 동시에 3명이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참가도서관의 사서가 담당하며, 상담내용은 당사자에게 이메일로 발송된다. 상담이 끝나면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상담내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사서와의 채팅 전에 미리 원하는 내용을 찾아보고 검색에 도움을 주기위해 'Search tips', 'Homework help' 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의 프로그램 운영결과 분석을 살펴보면, 2002년 8월에서 2005년 말까지 106,000건 이상을 수행했고, 2004년 한 해 동안 38,325건이 수행되어 월평균 2,848건이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5월, 9월 등 학교 학기 중에 가장 많은 이용이 있었고, 가장 많이 이용한 그룹 역시 16세 이하의 학생들이었다. 상담 종료 후의 온라인 설문조사에 의하면 프로그램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사서들의 빠른 답변과 유용한 정보의 제공 등으로 이용자들은 만족하고 있으나, 기술적인 어려움과 이용자가 많을 경우 기다려야 하는 것이 불편한 점이었다. 많은 이용자들은 이 서비스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며 다시 이용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18. 미국 Ask a Librarian : <http://www.ocpl.lib.ny.us/website/ask.htm>

Ask a Librarian은 미국의 Onondaga주 공공도서관의 협력형 프로그램으로 연중 무휴 24시간 채팅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서비스에 대기시간에 Ask a Librarian에 링크된 도서관 목록 및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가 종료된 후에는 상담내용을 이메일로도 제공받고 있다. Ask a Librarian은 주로 Onondaga주 참고사서들에 의해서 서비스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접속할 수 있다.

19. Washington Research Library Consortium Ask a Librarian

: <http://www.wrlc.org/resource/virtualref>

WRLC(Washington Research Library Consortium)는 Washington내에 있는 7개 대학도서관 간의 자원 공유 및 협력형참고서비스를 하기 위한 컨소시움으로서 American Univ.와 Catholic Univ. 등이 참여하고 있다.

참고서비스의 형태는 채팅서비스이며, WRLC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공시간은 대학의 학기에 맞춰 운영되고 있으며, 2005년의 경우 가을 학기(8월 29일~12월 11일)에 요일별로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WRLC에서는 3개의 책임 기구를 구성하여 원활한 운영을 돕고 있는데, 시스템과 테크닉 전반을 책임지는 WRLC Responsibilities, 서비스 일정, 홈페이지 업데이트, 훈련 등을 담당하는 WRLC Virtual Reference Coordinator Responsibilities가 있으며, 공백 시 대행사서 등 인력 부분을 지원하는 Member Lib. Responsibilities가 있다.

그리고 참고서비스를 수행하면서 참조할 수 있는 지문·제안·사례 등을 홈페이지상에 연결하여 공유하고 있으며, WRLC자문평가그룹이 개발한 “Best Practice” 나 “Reference Session Evaluation Checklist” 를 통해서 참고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 주요협력형 디지털참고봉사 항목별 분석

○ 조사 국가 및 협력형 참고서비스 명칭

- 총 15개국 83개 협력형 디지털참고서비스 조사
- 총 7개국 17개 주요 사이트 집중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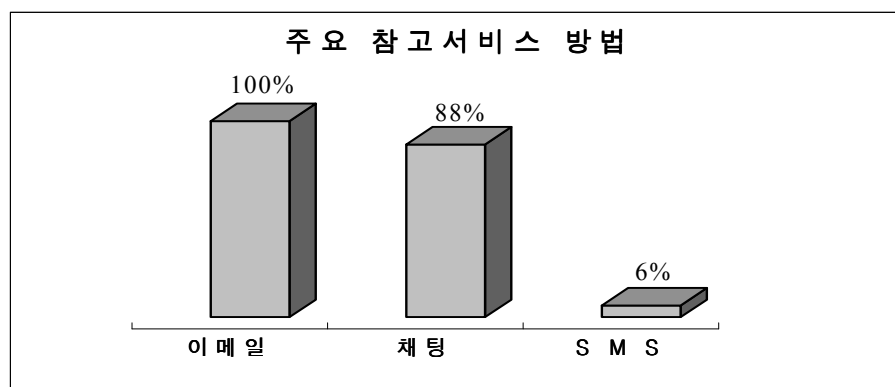
	참고서비스 명칭	국가	URL	협력범위
1	Biblioteksvar (Ask the Library)	노르웨이	http://www.bibliotekvakten.no/englishbv.html	국가단위
2	AnyQuestions	뉴질랜드	http://anyquestions.co.nz/en/anyQuestions.html	국가단위
3	Biblioteksvagten	덴마크	http://www.biblioteksvagten.dk/english/index.asp	국가단위
4	Ask A Librarian	미국	http://www.scu.edu/library/services/reference/rs/question.html	대학단위

	참고서비스 명칭	국가	URL	협력범위
5	Ask A Librarian, Chat with a Librarian	미국	http://www.spl.org/default.asp?pageID=info_ask	주단위
6	Ask A Librarian (Ask us now)		http://www.columbia.edu/cu/lweb/services/reference/	대학단위
7	ASK!		http://ask.libraries.psu.edu/	대학단위
8	Ask?Away		http://www.askaway.info	주단위
9	KANAnswer		http://skyways.lib.ks.us/KSL/KLNB/KANAnswerWeb/	주단위
10	Live Librarian		http://www.suffolk.lib.ny.us/snl/	주단위
11	LiveHelp, (Ask Now)		http://www.colapublib.org 참고: http://www.asknow.org	주단위
12	L-net		http://oregonlibraries.net/index.shtml	주단위
13	massanswers		http://www.massanswers.org/	주단위
14	Q & A Live		Q & A Live, http://www.lib.washington.edu/services/qnalive (이용자용), Digital Information & Reference Services, http://staffweb.lib.washington.edu/dirs (직원용)	대학단위
15	Virtual Reference Canada	캐나다	http://www.collectionscanada.ca/vrc-rvc/index-e.html	국가단위
16	ASK A Librarian	핀란드	http://www.libraries.fi/en-gb/ask_librarian/librarians.fi	국가단위
17	AskNow	호주	http://www.asknow.gov.au/	국가단위

1. 디지털 참고서비스 방법

17개 주요 분석 사이트에서는 디지털 참고봉사 방법으로 이메일(웹폼)을 이용한 방법, 채팅을 이용한 방법, SMS를 이용한 방법 등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었다. 이중 이메일을 이용하는 방법은 모두 적용하고 있었으며(100%), 채팅(88%)을 이용한 방법 또한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번호	국가	참고서비스명	이메일	채팅	SMS
1	노르웨이	Biblioteksvar(Ask the Library)	○	○	○
2	뉴질랜드	AnyQuestions	○	○	
3	덴마크	Biblioteksvagten	○	○	
4	미국	Ask A Librarian	○	○	
5	미국	Ask A Librarian	○	○	
6	미국	Ask A Librarian (Ask us now)	○	○	
7	미국	ASK!	○	○	
8	미국	Ask?Away	○	○	
9	미국	KANAnswer	○	○	
10	미국	Live Librarian	○	○	
11	미국	LiveHelp, (Ask Now)	○	○	
12	미국	L-net	○	○	
13	미국	massanswers	○	○	
14	미국	Q & A Live	○	○	
15	캐나다	Virtual Reference Canada	○		
16	핀란드	ASK A Librarian	○		
17	호주	Ask Now	○	○	
계			17	15	1
평균			100%	88%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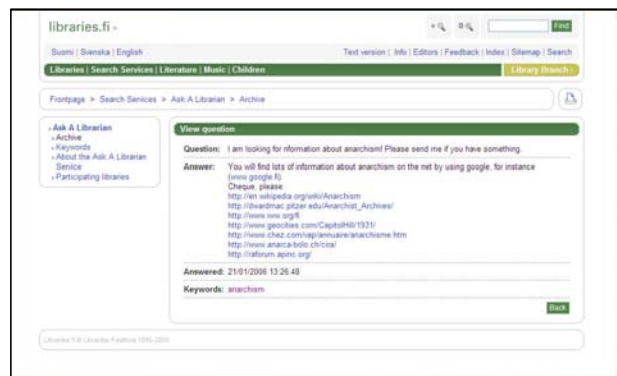


이메일(웹폼)을 이용한 방법은 주로 웹폼 형식으로 운영되었는데 이용자가 질문이외의 성명, 나이 등의 개인정보 뿐 아니라 질문목적, 정보요구 수준 등을 기재 할 수 있는 양식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이용자 정보요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려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에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메일을 이용한 방식 중에서 도서관내에서 주제별 담당사서를 정하여 그들의 전자우편을 링크시키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으며, 채팅은 온라인상에서 이용자와 실시간 대화를 나누는 방법이다. SMS를 이용한 방식은 소장정보 등 간단한 질문 등을 주로 처리한다. 주제별 담당사서에게 연결되는 이메일을 이용한 방식은 대학도서관이나, 연구소 도서관 같이 이용자가 제한되어있어 이용자가 원하는 수준과 분야를 미리 짐작가능한 곳에서 주로 사용되며 공공도서관이나 박물관처럼 이용자 분포가 다양한 경우에는 웹폼 사용이 일반적이다.¹¹⁾

2. 정보자원

디지털 참고봉사를 위한 정보자원은 도서관 소장자료,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정보원, 외부전문가 등을 주요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대부분 사서들의 답변의 경우 인터넷 자료를 이용한 경우가 많았으며 검색사이트를 활용하여 답변한 경우도 많았다.

※ 검색엔진 구글을 이용한 핀란드 국립도서관의 답변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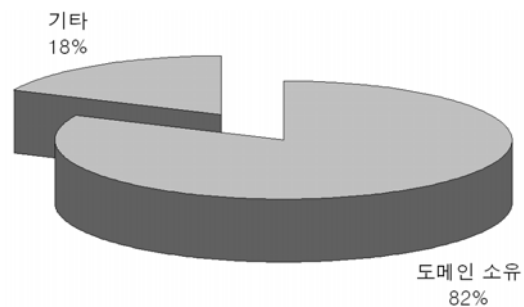


11) 2004.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용역 보고서 [협력형 디지털참고봉사 모형구축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김휘출

3. 웹사이트 접근 방법

17개 조사 대상 협력사이트 중 13개 사이트(82%)가 별도의 도메인을 가지고 협력형 디지털참고봉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국가단위협력형 서비스의 경우 대부분 국가대표도서관에서 주도한 서비스로 국가대표도서관 자관 홈페이지에서는 직접 서비스를 하지 않고 독립된 협력형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번호	국가	참고서비스명	도메인 소유	비고
1	노르웨이	Biblioteksvar(Ask the Library)	○	
2	뉴질랜드	AnyQuestions	○	
3	덴마크	Biblioteksvagten	○	Biblioteksvagten
4	미국	Ask A Librarian		각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접근
5	미국	Ask A Librarian, Chat with a Librarian		각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접근
6	미국	Ask A Librarian (Ask us now)		각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접근
7	미국	ASK!		각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접근
8	미국	Ask?Away	○	
9	미국	KANAnswer	○	
10	미국	Live Librarian	○	
11	미국	LiveHelp, (Ask Now)	○	Ask Now 홈페이지
12	미국	L-net	○	
13	미국	massanswers	○	
14	미국	Q & A Live	○	
15	캐나다	Virtual Reference Canada	○	
16	핀란드	ASK A Librarian	○	
17	호주	AskNow	○	



4. 서비스 제공 및 질문 배분 방법

번호	국가	참고서비스명	내 용
1	노르웨이	Biblioteksvar (Ask the Library)	참가도서관 및 각 도서관 담당자명단과 이메일주소로 접근
2	뉴질랜드	AnyQuestions	참가도서관 사서와의 온라인 채팅서비스를 제공
3	덴마크	Biblioteksvagten	공공도서관 : 모든 질문에 답변함 연구도서관 : 학생과 연구자 및 특정주제관련 질문에 답변함
4	미국	Ask A Librarian	각 도서관 사이트에서 참고서비스를 제공 (단, 답변은 연합도서관 사서들이 협력하여 제공)
5	미국	Ask A Librarian, Chat with a Librarian	
6	미국	Ask A Librarian (Ask us now)	각 도서관 사이트에서 참고서비스를 제공 (단, 답변은 3개 대학 사서들이 협력하여 제공)
7	미국	ASK!	중앙 참고데스크로 질문이 보내지면 직접 처리하거나 적합한 주제 전문가에게 보내짐
8	미국	Ask?Away	참여대학도서관과 지역공공도서관목록을 보여주어 참고봉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링크해 줌
9	미국	KANAnswer	채팅 이용시간 이외의 시간에 질문을 경우 이용자가 협력도서관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이메일 질문
10	미국	Live Librarian	채팅 이용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이메일로 질문하며 담당 도서관 외의 협력 도서관에서 답해줄 수도 있음. 분배 방법은 알 수 없음
11	미국	LiveHelp, (Ask Now)	메인페이지에 로고 연결이나 Ask a Librarian 메뉴로 연결됨
12	미국	L-net	이용자가 협력도서관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이메일 질문, 질문처리 담당자가 다른 사서의 도움을 얻고자 할 때는 이미 답변한 정보원 및 이용자정보를 기재하여 다른 도서관으로 질문을 보냄
13	미국	massanswers	
14	미국	Q & A Live	QuestionPoint와 협력하여 24시간 서비스함 (QuestionPoint에 참여하기 전 코넬 대학과 협력하였었음)
15	캐나다	Virtual Reference Canada	회원기관 간의 질문 · 답변
16	핀란드	ASK A Librarian	
17	호주	AskNow	참가도서관은 각각 정해진 시간에 참고서비스 제공

5. 서비스 제공자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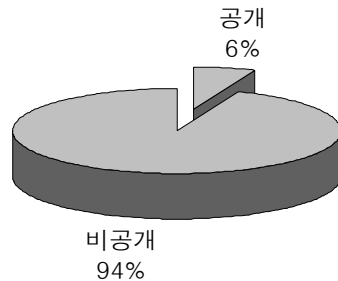
참고사서와 주제전문사서 뿐 아니라 관련학회 등의 분야별 전문가도 답변에 공동 참여하고 있다. 다양한 학문의 발전과 더불어 전문성을 요구하는 이용자의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서의 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교육이 요구되며 외부의 주제전문가와와의 협력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번호	국가	참고서비스명	내 용	비 고
1	노르웨이	Biblioteksvar (Ask the Library)	사서, 관련학회, 주제전문가	
2	뉴질랜드	AnyQuestions	사서	
3	덴마크	Biblioteksvagten	사서, 주제전문가	
4	미국	Ask A Librarian	사서, 주제전문가, 계약사서	
5	미국	Ask A Librarian, Chat with a Librarian	사서	
6	미국	Ask A Librarian (Ask us now)	사서, 주제전문가	
7	미국	ASK!	사서, 주제전문가	
8	미국	Ask?Away	사서	
9	미국	KANAnswer	사서	
10	미국	Live Librarian	사서	
11	미국	LiveHelp, (Ask Now)	사서	
12	미국	L-net	사서	
13	미국	massanswers	사서	
14	미국	Q & A Live	사서	채팅 서비스 훈련을 받은 25~30명의 사서로 구성.이중 다수가 주제사서임
15	캐나다	Virtual Reference Canada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 연구기관 등의 회원기관	
16	핀란드	ASK A Librarian	사서	
17	호주	AskNow	사서	

6. 상담내용 공개 여부

주요조사 기관 17개 사이트 중 16곳(94%)이 상담내용을 비공개하였으며 이
 용자가 원할 경우 본인에게만 상담내용을 발송한다.

번호	국가	참고서비스명	내 용	비 고
1	노르웨이	Biblioteksvar (Ask the Library)	비공개	
2	뉴질랜드	AnyQuestions	비공개	
3	덴마크	Biblioteksvagten	비공개	
4	미국	Ask A Librarian	비공개	
5	미국	Ask A Librarian, Chat with a Librarian	비공개	
6	미국	Ask A Librarian (Ask us now)	비공개	도서관보안정책(The library confidentiality policy)에 의함
7	미국	ASK!	비공개	
8	미국	Ask?Away	비공개	
9	미국	KANAnswer	비공개	대화내용은 원격파일서버에 저장되며 서비스 평가 및 품질관리를 위해 KANAnswer관리자만 접속 가능함. 대화내용은 미국도서관협회윤리기준에 의거하여 기 밀유지되며 접속자들이 채팅하는 동안만 제공됨.
10	미국	Live Librarian	비공개	
11	미국	LiveHelp, (Ask Now)	비공개	
12	미국	L-net	비공개	이용자가 채팅내용을 요구할 것을 대비하여 90일간 보관 후 삭제
13	미국	massanswers	비공개	
14	미국	Q & A Live	비공개	채팅 종료 후 이용자 이메일 주소로 대화내용 전문 이 발송됨. 담당사서도 본인 메일로 받을 것인지 선 택할 수 있으나 대부분 선택하지 않음. 서버에 저장 된 답변내용은 담당자 외에 접속할 수 없음
15	캐나다	Virtual Reference Canada	비공개	
16	핀란드	ASK A Librarian	공개	개인정보를 제외한 상담내용을 온라인상에 간략하게 제공하여 알파벳순으로 검색가능하게 함
17	호주	AskNow	비공개	



7. 이메일 답변기간

답변기간은 주로 2일(4개 사이트)이었으며 채팅 소요시간은 주로 15~20분이다.

번호	국가	참고서비스명	이메일	기 타
1	노르웨이	Biblioteksvar (Ask the Library)	1일	
2	뉴질랜드	AnyQuestions		
3	덴마크	Biblioteksvagten		직원근무시간 동안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걸어지는 답변은 다음 근무일에 계속
4	미국	Ask A Librarian	1일	
5	미국	Ask A Librarian, Chat with a Librarian	2일	
6	미국	Ask A Librarian (Ask us now)	2일	
7	미국	ASK!	1일	주제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질문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72시간 이내 처리
8	미국	Ask?Away		
9	미국	KANAnswer		
10	미국	Live Librarian		
11	미국	LiveHelp, (Ask Now)		
12	미국	L-net	2일	
13	미국	massanswers		
14	미국	Q & A Live	2일	
15	캐나다	Virtual Reference Canada		특정기간을 정하고 있진 않음 (질문의 수준이나 요구 정도에 따라 다양)
16	핀란드	ASK A Librarian	3일	
17	호주	AskNow		

8. 기금지원

○ 미국의 주단위 협력형 디지털 참고봉사의 기금조성은 대부분 LSTA법령에 의거하여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국가단위의 협력일 경우는 주로 국립도서관이나 국가기구에 의하여 기금이 운영되고 있다.

○ 국가단위 기금운영기관 예)

.덴마크의 Biblioteksvagten / 운영기관 : 덴마크국립도서관
 .핀란드의 ASK A Librarian / 운영기관 : 교육부

○ 주단위 기금운영기관 예)

.미국의 Massanswers / 운영기관
 : Massachusetts Board of Library Commissioners

9. 관련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의 경우 자체 제작하는 경우와 외부의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캐나다 국립도서관은 “Virtual Reference Canada”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Virtual Reference Toolkit” 는 미국의 Ask A Librarian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QuestionPoint software” 는 미국의 ASK!에서, “24/7 reference” 은 미국의 Q & A Live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채팅 프로그램이다.

10. 모니터링, 평가방법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거나 채팅서비스 종료 후 이용자에게 만족도를 평가하는 방법 등의 다양한 설문조사 및 서비스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11. 홍보 방법

주로 다른 도서관 웹페이지에 링크하여 이용자의 접근을 유도하며, 신문광

고, 이벤트성 홍보, 이용자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홍보내용으로는 전통적인 참고서비스와 차이점을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곳도 있으며 로고와 포스터 등을 이용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방법도 수행되고 있다. 이용자를 통한 방법으로 홈페이지에 친구에게 추천메일 보내기 메뉴와 “Tell your friends” 처럼 입소문을 이용한 최근 마케팅 기법으로 홍보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III. 국가단위 협력형

1. 참고봉사 협동데이터베이스 제공 협력형디지털참고봉사 : 일본

일본은 국립국회도서관 주도로 참고봉사 협동데이터베이스 사업을 2005년 4월부터 실시하였는데 이는 소속도서관들의 참고질문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도서관 상호간에 제공하는 협력형 디지털참고봉사이다.

참고봉사 협동데이터베이스 사업은 일본 내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에서 이루어진 참고상담사례, 조사방법 매뉴얼(특정 주제의 정보를 찾는 방법 매뉴얼), 특별컬렉션(개인 문고나 귀중서 등 참가도서관이 소장하는 특수한 컬렉션에 관한 정보) 및 참가도서관 프로파일과 관련되는 데이터를 축적하여 인터넷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도서관 참고봉사 및 일반이용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참고봉사 협동데이터베이스 사업은 2002년 8월 사업 실시 계획 책정을 시작으로 기본 계획을 설계하고 2003년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시스템을 개발하고 제1기 참가도서관을 모집하였다. 2004년 3월에는 참가도서관 간의 회의를 개최하고 7월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제2기 참가관 모집을

하였다. 다음 해인 2005년 2월 참가기관 포럼을 개최한 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였다.

2003년 제1기 참가도서관을 모집한 이래 2006년 2월에는 266개 공공도서관, 93개 대학도서관, 27개 전문도서관과 4개 국립국회도서관이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각 기관의 참고상담사례 서비스를 공유하고 있다.

참고봉사 협동데이터베이스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은 국립국회도서관에서 제시하는 자격을 갖춘 도서관(자료실)으로서 동 사업 참가 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해야 하며 참고봉사 사례데이터 또는 조사방법 매뉴얼을 1건 이상 등록해야한다. 참고봉사 사례데이터의 등록은 『참고봉사 협동 데이터베이스 표준 포맷 Ver. 1.0』에 근거, 사례데이터 작성 지원툴을 활용하여 각 도서관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참고봉사 협동데이터베이스 사업과 미국, 유럽의 협력형 디지털참고봉사의 분명한 차이점은 각 도서관에서 이미 이루어진 참고질문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협력한다는 점이다. 또한 표준 포맷에 의해 작성되어 규격화 되어 있고 질문응답 내용도 가공되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국립국회도서관에서는 참고봉사의 제공대상을 도서관 사서로 제한하고 있다. 일반인들은 참고봉사를 신청할 수 없으며 참고봉사 제공범위 및 제한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전화 또는 이메일로 참고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메일 상담 시에는 도서관 이용등록신청을 해야한다. 신청된 참고봉사는 가공된 후 참고봉사 협동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도록 시스템화되어 있다. 참고로 참고봉사 협동데이터베이스 화면을 첨부하였다.

144 해외 협력형 디지털참고봉사 사례조사

◦ 홈페이지



◦ 참고봉사사례 데이터베이스 검색 I



◦ 참고봉사사례 데이터베이스 검색 II



2. 사서 및 외부주제전문가 협력형 디지털참고봉사 협력사례 : 덴마크

덴마크의 디지털참고봉사 협력사례는 국가주도로 전국단위의 공공도서관 및 연구도서관을 통합한 형태이며 주제전문사서의 서비스와 더불어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도서관 이외의 외부주제전문가를 활용한 서비스를 병행하고 있다.

덴마크는 덴마크국립도서관 중심의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발전을 위한 프로젝트(1998년 “Biblioteksvagten”)로 전화와 네트워크를 이용한 온라인참고봉사를 실시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Holstebro도서관과 Herning공공도서관이 중심 역할을 하였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성공하지 못했었다.

여기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보완하고 “Biblioteksvagten” 정신을 기초로 하여 1999년 1월부터 2000년 8월까지 18개월 동안 온라인 참고정보서비스를 위한 협동을 목적으로 기존의 Herning공공도서관과 Silkeborg공공도서관중심의 “Netnavigatøren” 프로젝트와 Gentofte의 “Internet Dialogue Project”를 합친 국가대표도서관 통합형시스템을 만들었다.

2001년 8명의 프로젝트그룹에 사서가 참여하고 추후 전체 도서관사서가 합류하여 메일링리스트를 통한 업무 교류를 하였고 매년 한차례씩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Biblioteksvagten”은 참여도서관의 대표자로 이루어진 “조정위원회”의 지휘아래 중요한 논의들을 결정한다.

2002년 말 덴마크연구도서관 프로젝트에서 Bibliotek.dk의 가상참고봉사를 목적으로 4개의 연구도서관이 참가하여 Denmark's Electronic Research Library(DEF)로 발족하게 되었다. 이후 2003년 1월 공공도서관과 연구도서관은 덴마크국가단위의 협력형 디지털참고봉사를 완성하였다.

덴마크의 경우는 공공도서관의 활발한 참고봉사의 기반위에서 이루어진 협력형 서비스이며 각 도서관의 주제전문사서가 배치되어 있어 서비스 인력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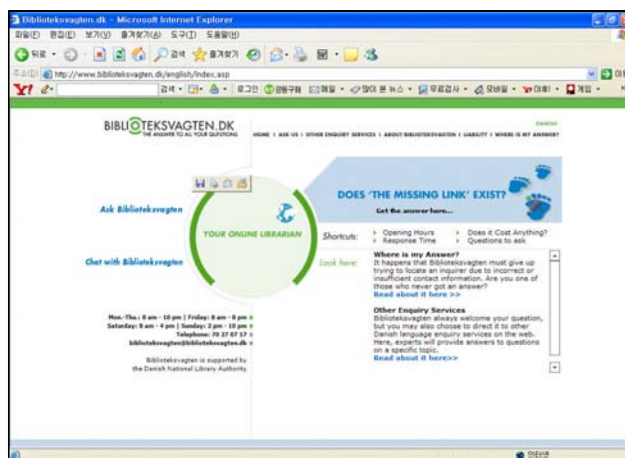
서 우수하고 주제전문사서가 서비스하는 디지털참고봉사 홈페이지 안에 주제 전문가서비스 메뉴를 함께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덴마크국립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기존의 공공도서관에서 활발히 이루어진 참고봉사를 활성화하고자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패하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따라서 실패하지 않기 위한 현황파악과 현실적인 적용방안 논의 및 문제점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서비스 명칭과 홍보활동에 있어서 “Biblioteksvagten” 서비스는 “사서에게 물어보기”의 덴마크어로 디지털참고봉사의 경우 국제적인 고유명사화 되어 명칭 자체로써 홍보의 의미를 함께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로고나 기타 포스터 등 홍보를 위한 활동내용을 홈페이지 상에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서비스제공은 전화, 웹폼(이메일) 서비스에 채팅을 포함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과 같이 디지털참고봉사를 위한 전문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하기 보다는 자체적인 통합형 홈페이지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디지털참고봉사를 위해서는 통합형 국가단위 전용홈페이지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통합형홈페이지와 웹폼 형식 및 채팅서비스 화면을 첨부하였다.

◦ 홈페이지



◦ 웹폼 형식

The screenshot shows a web form titled "Ask us" on the Bibloteksvagten.dk website. The form is for sending information to the library. It includes a "Back Home" link, a "My question is:" text area, and a section for selecting the purpose of the information. The purpose options are: General interest/hobby, Primary and lower secondary school paper, Research, Greenhouse school paper, business college paper (SML, HTK), Assignments/Disertation, and Business. There are also fields for "My name:", "My email address:", "Please reply within:" (with a dropdown for "No deadline"), and "Postal Code:". A "Send" button is at the bottom right.

◦ 채팅 형식

The screenshot shows the chat interface on the Bibloteksvagten.dk website. It features a "Chat with a Librarian at Bibloteksvagten.dk" section. Below this, there is a text area for the user's message and a "Send" button. The interface also includes a "Back Home" link and a "Last update" timestamp of "24. Februar 2004".

◦ 주제전문가 질문서비스 : 주제전문가(8개 분야)

The screenshot shows the "Other Online Enquiry Services" page on the Bibloteksvagten.dk website. It lists various subject areas where users can find experts for their questions. The listed areas are: Children/Family, Animals, Consumption/Environment, Law, Natural Science, Social Issues, Health/illness, and Technology/Trade. There is also a section for "Children/Family/Parental Relations" and "Family/children".

3. 도서관 및 박물관, 기록보존관의 협력형 디지털참고봉사 협력사례 : 영국

영국은 정부의 주도하에 재정지원을 통해 도서관에 국한하지 않고 도서관 및 박물관, 기록보존관이 합동으로 협력하여 디지털참고봉사를 하며, 아울러 글로벌 디지털참고봉사인 LC의 QuestionPoint서비스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사례이다.

영국 도서관.박물관.기록보존관 위원회(The 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 : MLA)는 People's Network를 통해 협력형 디지털참고봉사인 Enquire를 제공한다. 2005년 5월에 시작한 Enquire는 People's Network에서 나온 첫 번째 서비스이다

MLA는 정부 주도로 기금이 모여진 Big Lottery Fund의 보조금으로 서비스의 발전과 배급을 지원하고, Co-East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관리하며, OCLC는 24/7 서비스를 포함해서 QuestionPoint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다. 참여 도서관들은 전체 97개이고 이미 전 도서관의 60%이상이 Enquire를 배급하는데에 노력을 기울이며 계속해서 참여하는 도서관들이 늘고 있다. 또한 참가하는 도서관들은 기술, 훈련, 관리 요금을 보상하기 위해 처음 서비스 배급 기간(2005년 봄-2006년 11월)동안 £1,500(부가세 포함)의 할인된 금액을 기부함으로써 서비스를 지원한다. 그들이 해야 할 의무는 문의들에 답변하기 위해 한 달마다 하루의 시간에 직원을 배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더 많은 도서관들이 계획에 참여할수록 줄어들 것이다.

웹폼 형태의 'Ask a Librarian'은 1997년에 개발되었다. 수년에 걸쳐 이 서비스로부터의 데이터를 평가한 결과 대학교수, 학생, 사업가, 아마추어 가족 역사가들까지 각계각층의 이용자들이 사서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다. 이 요구는 Ask a Librarian이 운영된 수년 동안도 감소하지 않았다. 영국 공공도서관들에게 'Ask a Librarian'은 모든 협동 서비스의 모태가 되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고된 작업과 기술적인 준비로 수많은 달이 지난 후에, the People's Network Enquire, Discover and Read(<http://www.peoplesnetwork.gov.uk/>) 서비스들이 공식적으로 2005년 10월 19일에 함께 시작되었다. 이 서비스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용된 the Big Lottery Fund로부터의 £500,000 보조금은 2004년 6월에 도서관 서비스가 공공도서관들의 범위를 확장시키기 위한 전례 없는 기회로 주어졌고 물리적인 장벽을 깨고 사람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를 접근하도록 하였다.

Enquire는 하루에 24시간, 일주일에 7일(24/7) 지속적인 전달(통신) 또는 chat session과 같이 작동하는 실시간 참고봉사이다. 영국의 도서관 서비스들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Enquire를 전달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다른 도서관 직원들과 함께 일한다.

Discover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선택된 웹사이트와 뉴스 서비스들을 포함하여 광대한 자원들의 범위에 대한 접근을 개인화하고, 도서관, 박물관, 기록보존관 프로젝트의 넓은 범위로부터 특정 주제에 대해 탐색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Read는 책과 온라인 서비스의 범위에 대한 접근과 독특한 방법으로, 독서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독자들과 관련된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 접근할 수 있게 한다.

Enquire 서비스는 서비스 전달 매니저들이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고객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모범사례와 교육 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참가도서관들에게 피드백을 해준다. 또한 참가 도서관 사서들도 참고상담 사례 사본을 입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적으로 참고봉사실태를 평가하고, 도서관 직원 교육 시 이를 활용하고 있다.

참고로 홈페이지와 로고를 첨부하였다.

○ 홈페이지



○ 로고 및 슬로건 사용

People's Network website : 24/7 national public library services



People's Network Enquire : your questions answered



People's Network Discover : find hidden treasures on the web



People's Network Read : get into a good read online



4.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 정보센터, 연구기관 협력형 디지털참고봉사 : 캐나다

캐나다는 캐나다국립도서관 중심으로 도서관 및 아카이브, 박물관, 연구기관 등이 회원이 되어 각 기관 상호 디지털 참고봉사를 이룬 대표적인 국가사례이다.

Virtual Reference Canada(VRC)는 영어와 불어로 지원되는 캐나다 국가단위 디지털참고봉사 협력네트워크로 캐나다 국민들의 정보요구에 가장 적절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가 주도하는 VRC는 캐나다 도서관과 정보서비스를 하는 다양한 기관들의 협력과 지원으로 개발되었으며, Department of Canadian Heritage and Communication Canada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원 받는다.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는 1998년부터 디지털 참고봉사의 네트워크화를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때 캐나다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Canada)은 이미 LC가 주도하는 CDRS(Collaborative Digital Reference Service) project에 참여하는 회원이었고, 이후 CDRS는 OCLC에 의해 QuestionPoint로 발전하여 국제적인 네트워크로 구축되었다. 캐나다국립도서관은 초기에 CDRS에 참여하면서, 캐나다의 언어적,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고 저작권과 개인정보 등과 관련된 자국의 법률을 준수하는 협력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에 여러 조사 후 2001년 4월 캐나다 참고봉사와 네트워크를 위한 질문시스템과 웹사이트 작업을 시작하여 2002년 5월 데모버전을 선보이게 되었다.

캐나다국립도서관은 VRC에 참가할 다양한 관종의 도서관과 기관으로 포럼을 개최하여 VRC 시스템을 소개하고 운영에 필요한 여러 정책과 사항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그 후, 2002년 8월 참고서비스 온라인 포럼인 REFCAN-L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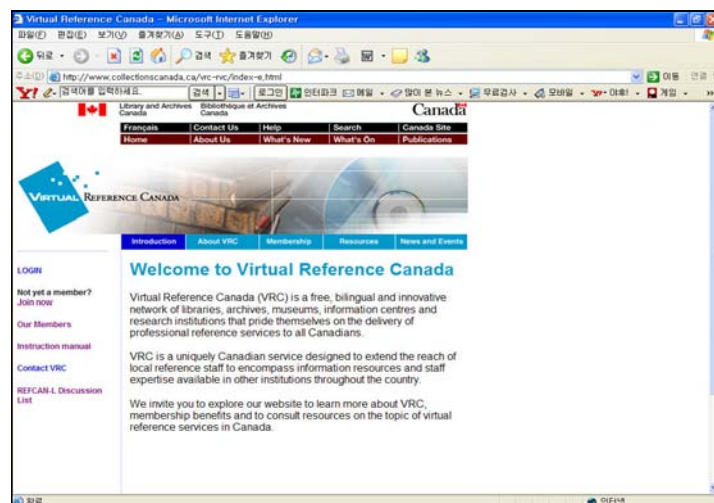
VRC에는 도서관 뿐 아니라 각종 형태의 자료로 참고상담서비스를 하는 아

카이브, 박물관, 정보센터, 연구기관 등 다양한 조직들이 회원가입을 통하여 서로 협력하고 있다. VRC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한 기관은 온라인 폼을 이용하여 질문과 답변을 한다. 홈페이지에 올려진 질문은 각 기관이 회원가입 시 작성한 프로파일(중점 주제, 장서구성의 깊이, 서비스 가능한 시간과 언어 등)에 근거하여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기관에 프로그램(matching algorithm)을 통하여 자동으로 분배된다. 답변을 지정받은 기관은 내용작성이 완료되면 온라인 폼에 답변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올리고, 답변이 불가능할 경우는 다른 기관으로 재분배된다. 답변작업이 끝나면 질문기관에 의해 이용자에게 제공된다.

VRC의 개발로 이용자가 어디에 있든 그들에게 전문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협력화된 디지털참고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각 기관들의 한정된 예산과 장서, 인력 등으로 협력과 파트너쉽은 더 필요해졌고 VRC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VRC가 활성화되고 발전됨에 따라 FAQs, Pathfinders, Knowledgebase 등 부가적인 참고봉사 도구들의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고 향후 이는 이용자들에게 제공되어 질 것이다.

참고로 홈페이지와 로고를 첨부한다.

○ 홈페이지



○ 로고



국가단위 협력형 디지털참고봉사는 대부분 2000년 이후부터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하였으며 국가대표도서관이 재정지원 및 프로젝트 발표를 통하여 국가전체도서관을 통합하는 디지털참고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처럼 참고상담서비스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형, 덴마크의 주제전문사서와 외부주제전문가의 협력형, 영국과 캐나다의 도서관과 박물관 및 기록보존관, 기타 전문 학회 등 다른 기관들과 협력한 발전된 참고봉사 형태는 우리나라의 협력형 디지털참고봉사가 어떤 유형의 협력형태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결정하고 나아가 미래의 모습을 예측하는데 좋은 예시가 될 것이다.

IV. 국내협력형서비스 사례

국내협력사례 조사 결과 우리나라 도서관협력망은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도서관협력망, 대학도서관 간의 협력망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특수 도서관에서도 일부 제한된 협력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협력내용에는 상호대차, 공동수서, 공동편목, 원문복사 등의 서비스가 있다.

1. 강원지역도서관협의회

- 시작연도 : 1998년도
- 참여기관 : 강원지역대학도서관 강릉대, 관동대 등 9개관
- 협력목적 : 자료공유
- 협력내용 : 분담수서, 원문복사서비스

2. 경기도사이버공공도서관

- 시작연도 : 1999년도~2000년도
- 참여기관 : 경기지역공공도서관 개관
- 협력목적 : 도서관서비스의 지역격차 해소
- 협력내용 : 상호대차, 디지털콘텐츠(e-book, e-Learning 등) 공유

3. 경기지역 6개대학 외국학술잡지 공동구독협의회

- 시작연도 : 1998년도
- 참여기관 : 경기지역대학도서관 경기대, 경희대(수원), 명지대(용인), 수원대, 아주대, 한양대(안산) 등 6개관
- 협력목적 : 자료공유
- 협력내용 : 분담수서, 외국학술지 목차교환서비스

4. 광주전남지역 대학도서관협의회

- 시작연도 : 1997년도
- 참여기관 : 광주전남지역 대학도서관 13개관
- 협력목적 : 자료공유
- 협력내용 : 상호대차, 원문복사서비스

5.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STIMA)

- 시작연도 : 1972년도
- 참여기관 :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 소속 전문연구기관 56개관
- 협력목적 : 특정주제분야 분담수서 및 공동활용
- 협력내용 : 상호대차, 온라인원문복사서비스, 정보관리 및 도서관운영 관련 학술대회 개최

6. 국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 시작연도 : 1979년도

- 참여기관 : 국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소속 49개관
- 협력목적 : 자료공유
- 협력내용 : 상호대차, 원문복사서비스

7. 대구경북지역 대학도서관협의회

- 시작연도 : 1997년도
- 참여기관 : 대구경북지역 경북대, 계명대, 대구카톨릭대 및 영남대도서관 등 5개관
- 협력목적 : 자료공유
- 협력내용 : 분담수서, 상호대차, 원문복사서비스, 외국학술잡지목차정보

8. 대전충남지역 대학도서관협의회

- 시작연도 : 1991년도
- 참여기관 : 대전충남지역 대학도서관 28개관
- 협력목적 : 자료공유
- 협력내용 : 원문복사서비스

9. 부경지역 대학도서관정보교류협의회

- 시작연도 : 1997년도
- 참여기관 : 경성대, 동아대, 동의대, 신라대, 인제대 등 5개관
- 협력목적 : 자료공유
- 협력내용 : 공동수서, 온라인원문복사서비스

10. 서울동북부지역 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 시작연도 : 1994년도
- 참여기관 : 광운대, 대진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삼육대, 서울여대, 한성대 등 7개관
- 협력목적 : 자료공유

- 협력내용 : 분담수서, 상호대차, 원문복사

11. 서울신촌지역 4개 대학도서관

- 시작연도 : 1998년도
- 참여기관 :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등 4개관
- 협력목적 : 자료공유
- 협력내용 : 분담수서, 외국학술저널목차정보교환, MathSciNet DB구독
컨소시엄

12. 전북지역 대학도서관협의회

- 시작연도 : 1998년도
- 참여기관 : 전북지역대학도서관 군산대, 우석대, 원광대, 전북대, 전주교대,
호원대, 한양정산대 등 8개관
- 협력목적 : 자료공유
- 협력내용 : 분담수서, 상호대차, 원문복사서비스

13. 종합목록데이터베이스(UNION DB) 자료공동활용 협의회

- 시작연도 : 1989년도
- 참여기관 : 50개관
- 협력목적 : 자료공유
- 협력내용 : 온라인 원문복사서비스

14. 천안아산지역 도서관협의회

- 시작연도 : 1997년도
- 참여기관 : 천안아산지역대학도서관 남서울대, 단국대(천안) 등 9개관
- 협력목적 : 자료공유
- 협력내용 : 상호대차, 원문복사서비스

15. 포항공대 자료공동활용협의회

- 시작연도 : 1995년도
- 참여기관 : 국공립대학도서관(20), 사립도서관(45), 정부출연연구기관(9),
기연부설연구기관(17)과 학술정보자료 공동이용협정체결 및
포항공대, 산업과학기술연구소, POSCO포항광양연구소 등 148
개관
- 협력목적 : 자료공유
- 협력내용 : 온라인 원문복사서비스

16. 학술지공동활용협의회(KORSA)

- 시작연도 : 1999년도
- 참여기관 : 국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소속 75개관
- 협력목적 : 자료공유
- 협력내용 : 분담목록, 국외학술지온라인 원문복사서비스

17. 한국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전자도서관(NDSL)

- 시작연도 : 1992년도
- 참여기관 : 대학도서관, 연구기관, 기업체 등 401개관
- 협력목적 : 자료공유
- 협력내용 : 참고상담서비스, 분담목록, 국외학술지온라인 원문복사서비스

18. 한국과학기술원 전자저널 국가권소사업
(Korean Electronic Site License Initiative)

- 시작연도 : 1999년도
- 참여기관 : 전국 대학, 기업체, 연구소, 병원 등 297개 기관
- 협력목적 : 자료공유
- 협력내용 : 해외학술지 WEB DB공동 활용 및 학술전자저널 공동구매

19.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 시작연도 : 1996년도
- 참여기관 : 420개관
- 협력목적 : 대학학술정보 공유
- 협력내용 : 전국대학소장자료 및 일본대학소장자료통합검색, 국내외학술지 및 학위논문 원문복사서비스, 주제별서비스, 연구지원정보, 기간서비스(상호대차 및 사서커뮤니티)

20.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 시작연도 : 1972년도
- 참여기관 : 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소속 99개관
- 협력목적 : 자료공유
- 협력내용 : 원문복사서비스

21. 한국사회과학 정보자료기관협의회(KOSSIC)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시작연도 : 1990년도
- 참여기관 : 44개 기관
- 협력목적 : 사회과학관련기관간의 업무협조, 정보교환, 연구활동
- 협력내용 : 상호대차, 문헌복사서비스, 학술세미나 개최

22.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 시작연도 : 1972년도
- 참여기관 : 신학관련도서관 52개관
- 협력목적 : 자료공유
- 협력내용 : 상호대차, 원문복사서비스, 신학분야 석박사학위논문DB, 신학관련기사색인작성

23.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MEDLIS)

- 시작연도 : 1968년도
- 참여기관 :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소속 도서관 157개관
- 협력목적 : 의학정보의 공유
- 협력내용 : 상호대차, 문헌복사서비스
(주로 의학관계잡지종합목록을 통한 문헌복사서비스)

V. 결론

협력형 디지털참고봉사는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1990년대 중반 이후로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으며 참고봉사의 기법 또한 많이 발전해 왔다. 이번 연구팀에서 조사된 주요 협력형 사이트를 살펴보면 영국을 비롯한 유럽지역의 협력형 디지털참고봉사는 정부 주도하에 국가단위로 주로 구축되었으며 미국은 주로 주단위, 대학단위 등 지역단위, 기관단위로 협력이 이루어졌다. 참고봉사 방법으로 이메일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며 채팅의 경우는 17개 조사사이트 중 15개(88%) 사이트가 실시하고 있어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사서에 의하여 서비스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17곳 중 5개 사이트에서 외부 주제전문가와 협력을 하여 참고봉사를 하고 있었으며 캐나다 국립도서관의 경우처럼 박물관, 기록관 등 회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있었다. 기금조성의 부분을 살펴보면 미국의 주단위 협력형 디지털 참고봉사의 기금조성은 대부분 LSTA법령에 의거하여 재정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국가단위의 협력일 경우는 주로 국립도서관이나 국가기구에 의하여 기금이 운영되고 있었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캐나다 국립도서관(Virtual Reference Canada) 처럼 자체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외부 프로그램으로 “Virtual Reference Toolkit”, “QuestionPoint software”, “24/7 reference” 등이 대표적이었다. 국내 협력사례 조사 결과 우리나라 도서관협력망은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도서관협력망과 대학도서관 간의 협력망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전문·특수도서관에서도 일부 제한된 협력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참고봉사의 협력은 아직 미비한 상태이며 개별 기관내에서의 참고봉사의 실태는 향후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일본과 덴마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개별 로컬 도서관의 활발한 참고봉사의 기반위에서 협력형 디지털참고봉사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장기간에 걸친 의견 수렴과정과 단계별 서비스 실행 단계를 거치면서 지속적인 평가와 보완을 통해 협력모델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점은 향후 국내에서 국가단위의 협력모델을 만들어감에 있어 참조 할 만한 사례이다. 협력의 여러 사례 중에서 한국 실정에 맞고 국립중앙도서관의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기 위하여 디지털 참고봉사를 위한 협력의 범위, 협력의 방법, 협력의 자원 등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대한 이후 더 세분화된 연구가 이어져야겠다.

< 참고정보원 >

<단행본>

- 김휘출 등. 협력형 디지털참고봉사 모형구축 :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서울 : 한국 교육학술정보원, 2004.
- D. R. Lankes et al.. Digital Reference Service in the New Millenium. New York : Neal-Schuman, 2000.
- Yi'Jin, Mfin Huang, Haming Lin, and JingAGuo. Towards Collaboration : The Development of Collaborative virtual ReferenceI Service in China, 2005.
- Janes, Joseph. Introduction to Reference Work in the Digital Age. London: Neal-Schuman Publishers, 2003.
- Lankes, David R. et al., The Virtual Reference Experience : Integrating Theory into Practice. London: Neal-Schuman Publishers, 2004.
- Lipow, Anne G. The Virtual Reference Librarian's Handbook. New York : Neal-Schuman Publishers, 2003.
- Mabry, Celia Hales ed., Cooperative Reference : Social Interaction in the Workplace. New York : Haworth Press, 2003.
- West, Jessamyn ed. Digital versus Non-Digital Reference: Ask a Librarian Online and Offline. New York : The Haworth Information Press, 2004.
- Zweiaig, Douglas. et al., Tell It! Evaluation Sourcebook and Training Manual.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19?

<정기간행물>

- 김석영. “디지털참고정보서비스의 최근 개발 동향.” 情報管理學會誌, 제19권, 제4호(2002, 12).
- 김성희. “실시간 디지털 정보서비스에 관한 연구.” 情報管理學會誌, 제22권, 제1호(2005, 3).
- 이미화, 이나니. “협력참고정보서비스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7권, 제3호(2003, 9).
- 장혜란. “대학도서관의 디지털참고봉사 제공 및 이용 분석.” 한국정보관리학회지, 제20권, 제4호
- 최은주, 이선희. “협력형 디지털참고정보서비스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지, 제21권, 제2호(2004. 6).
- Marks, Maxine et al., “Practical Examples for Reaching Current and New Users.” ALA Annual(June 2004).
- Susan Curtis, Barbara Mann. “Cooperative reference: Is there a consortium model?” Reference & User Services Quarterly, Vol.41, No.4(Summer. 2002).
- Thomas A. Peters “E-Reference: How Consortia Add Value.”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Vol.28, No.4(Jl/Ag. 2002).

<학위논문>

- 김휘출. 디지털 참고봉사 모형구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0.

<전자자료>

- 글로벌네트워크를 활용한 CDRS 협력모형 구현에 관한 연구.
 <<http://www.db.dk/kon/virref2005/>> [cited 2005. 10. 31].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 Homepage.
 <<http://www.ala.org>> [cited 2006. 3. 31].
- Boss, Richard W. Virtual Reference. 2004.
 <<http://www.ala.org/ala/pla/plapubs/technotes/virtualreference.htm>>
 [cited 2005. 10. 31].
- Chasing the Sun-Virtual reference service-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Group Administrators.
 <<http://www.salus.sa.gov.au/cts/CTS%20administrators%20MOU.pdf>>
 [cited 2005. 11. 3].
- Enquire for staff Service overview
 <<http://www.peoplesnetwork.gov.uk/staff/enquire/overview.html>>
 [cited 2005. 10.31].
- IFLA Public Library Guidelines (Revised)
 <<http://www.ifla.org/VII/s8/proj/gpl.htm>> [Accessed 2005. 10.30.]
- IFLA Public Library Guidelines (Revised)
 <<http://www.ifla.org/VII/s8/proj/gpl.htm>> [Accessed 2003. 10. 30.]
- Library of Congress. QuestionPoint Users Group Guidelines(DRAFT)
 QuestionPoint Member Guidelines:
 <<http://www.questionpoint.org/web/members/memborguidelines.html>>
 [Accessed 2003. 10. 30.].
- NISO. Report on the NISO Workshop on Networked Digital Reference
 Services., 2001. <<http://www.niso.org/news/reports/netref-report.html>>

- McNamara, Carter. Description of Strategic Planning.
<http://www.managementhelp.org/plan_dec/str_plan/basics.htm>
[cited 2005. 10. 31].
- Sloan, Bernie. Collaborative Live Reference Services, 2004.
<<http://people.lis.uiuc.edu/~b-sloan/collab.htm>> [cited 2005.10.31]
- Reference and User Services Association [RUSA] Home page.
<<http://www.rusa.org>>
- Virtual Reference Desk: Facets of Quality for Digital Reference:Version
4(Oct. 2000).
<<http://www.vrd.org/facets-10-00.shtml>> [Accessed 2003.10.30.].
- Virtual Reference Desk: Facets of Quality for Digital Reference:Version
5(June 2003).
<<http://www.vrd.org/facets-06-03.shtml>> [Accessed 10/30/2003]

이제부터의 도서관 상*

: 지역을 유지하는 정보거점을 지향하며

도서관미래구상연구회 편/ 황면 역**

목 차

시작하며

제1장 호소

1. 지방공공단체의 모든 기관에 계신 분들에게
2.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에게
3. 지방 주민 여러분들께
4. 각종 단체와 기관에 계신 분들에게

참고자료(생략)

사 례

제2장 제안-이제부터의 도서관의 본질

1. 공립도서관의 주변 환경
2. 이제부터 도서관 서비스에 요구되는 새로운 시점
3. 이제부터의 도서관 경영에 필요한 시점
4. 국가, 도도부현(都道府縣)의 역할

본 제언은 「공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상의 바람직한 기준」(평성13년 문부과학성 고시 제132호)시행 후의 사회와 제도의 변화, 새로운 과제 등에 대응하여 앞으로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새로운 관점과 방책 등에 대한 제언이다.

따라서 도서관 설치자인 지방 공공 단체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동 기준에 근거하여 도서관 정비 및 서비스의 충실에 노력하며 아울러 본 제언을 이제부터 도서관 개혁의 지침으로 활용하여 도서관 발전에 이바지하기 바란다.

* 이 자료는 「이제부터의 도서관상 - 실천사례집」(평성18년 3월)의 보고서로서 문부과학성 생애학습정책국의 위탁을 받아 도서관미래구상연구회가 기획, 편집한 것이다. 보고서의 한글 번역을 위해 연구주관기관인 일본 문부과학성 생애학습정책국 사회교육과 도서관진흥계(담당자: 市川恵理)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고 허락을 받았다. 이 보고서 중 참고자료(도서관통계 및 법규)와 개요는 지면사정으로 본 번역문에서는 생략되었음을 미리 알린다. 일본의 공립도서관 개혁의 지침서에 수록된 이러한 사례들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운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사무관

시작하며

여러분들이 느끼는 도서관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 많은 분들은 도서관을 취미나 오락을 위한 시설, 책을 무료로 대출하는 장소, 학생이 공부하는 공간으로서 받아들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도서관에서는 지금 개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개혁이 시작된 도서관에서는 사서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도서뿐만 아니라 잡지기사, 신문기사, 인터넷 상의 정보 등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활용한 정보 발신과 전자 메일에 의한 통신으로 도서관에 가지 않아도 상당한 정도까지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도서관에서는 이용자는 필요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얻을 수 있는 정보의 폭도 넓어지고, 정보를 탐색하거나, 업무나 생활상의 과제해결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개혁을 추진한 도서관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지역을 유지하는 정보거점」으로 자리잡아 「지역과 주민에게 유용한 도서관」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이 진척되는 도서관은 그다지 많지 않으며 개혁이 일부에 그치는 도서관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부터의 도서관 본질 검토 협력자회의」에서는 이 개혁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도서관이 지역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시설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에서 본 협력자회의에서는 지금부터 사회에서 도서관이 지역과 주민에게 어떻게 공헌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유용한 도서관」으로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도서관이 각별히 대처하지 않으면 안되는 새로운 과제에 대한 방안이나 구체적인 전개 방식을 종합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본 제언의 제1장에서는 지방공공단체, 도서관직원, 지역주민, 각종단체와 기관 등에게 호소하고, 제2장에서는 오늘날 특별히 대처해야 할 과제를 묶어 그 방안이나 구체적인 전개방책을 기술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도서관에서 새로운 사업 착수 시에 도움이 되도록 각 과제에 열심히 대처하는 도서관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담았습니다.

이 제언으로 여러분들의 도서관에 대한 이미지가 새롭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도서관을 관리 운영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새로워지기 바랍니다.

이제부터의 도서관은 지역의 과제 해결 지원이나 조사 연구의 요망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한 이용자 여러분들은 즐거운 독서를 위해 도서관을 이용도 하면서 과제해결이나 조사연구를 위해서도 계속하여 도서관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개혁에 협력해 주십시오. 시대의 요청을 깨달은 도서관은 이러한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새로운 도서관의 모습과 실적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것으로 한 사람이라도 여러 면에서 도서관의 존재의의를 인식하게 된다면 다행입니다. 도서관이 여러분에게 친근한 존재가 되고 그로 인해 지역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제1장 호소

1. 지방공공단체의 모든 기관에 계신 분들께

○ 도서관 설치자로서

도서관의 설치자인 지방공공단체의 여러분은 도서관이 지역 과제해결을 지원하고 지역 발전을 유지하는 정보거점임을 인식하여 도서관행정.정책을 한층 충실하게 추진하기 바란다.

여러분들 중에는 도서관을 도서 대출만하는 시설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도서관은 원래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지방분권이 추진되는 현대사회에서는 지방공공단체가 각기 독자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현상을 판단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행정에도 주민 참가가 활발하여 주민이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의사 결정하는 일도 중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

이 도서관이다. 도서관은 지역 행정이나 주민의 자립적인 판단을 지원하는 정보 제공 시설이다.

또한 도서관은 지식(knowledge)의 원천인 도서관 자료를 제공하여 주민의 독서를 추진하고 기초학력이나 지적수준 향상 도모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지적기반이며 나아가서는 지역의 문화와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이에 도서관 자료 등의 구입비와 인건비 등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이 지방교부세 제도로써 조치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도서관은 구미제국과 비교하면 그 정비가 반드시 충분하다고 할 수 없고 도서관 진흥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는 동아시아 제국에게도 급속하게 추격당하고 있다. 향후 한층 국제화가 추진되는 중에 불충분한 정보제공 시설밖에 없는 주민은 정보를 수집·활용할 능력을 습득할 수 없어 지역 나아가서는 일본 전체가 국제적인 지식(knowledge)의 대경쟁 시대에서 크게 뒤떨어지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지역에서 도서관의 존재 의의를 명확히 하여 그 충실을 기하는데 착수하지 않으면 장차 한층 더 어려운 재정상황이 예상되므로 개혁의 기회를 오랫동안 잃게 되어 지역의 지적 기반 조성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일본의 도서관 중에 정비 상황이나 서비스 상황에 관한 수치가 상위에 있는 도서관의 수치를 참고하여 도서관정비를 위한 지표와 목표, 계획을 몸소 설정하여 착실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이용자 및 연계·협력처

도서관이 「지방공공단체의 정책 결정과 행정사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적확하게 제공하려고 힘쓰는」 것은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상의바람직한 기준」(평성13년 문부과학성 고시 제132호)에서 규정되어 도서관 본래의 업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행정당국은 도서관의 레퍼런스 서비스¹⁾를 활용하면 정책입안이나 사업의 기획·개발 등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입수할 수 있어 업무 전체의 효율화에도 연결된다.

1) 레퍼런스 서비스 : 어떤 자료나 정보를 요구하는 도서관 이용자에 대해 도서관 직원이 요구받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 또는 제시함으로써 원조하는 일과 그에 관련한 업무.

또한 각 부국, 특히 상공노동부국과 건강복지부국 등에서는 강좌·상담회 등의 사업을 도서관과 연계하여 개최함으로써 도서관만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을 얻을 수 있다. 도서관은 지역주민이 부담 없이 들르는 시설이기 때문에 도서관에 이 부국들의 사업을 안내·홍보하여 널리 알림으로써 지금보다 넓은 범위에서 많은 참가자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도서관은 이들 사업 추진 시에 관련 정보나 자료 전시, 자료나 정보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소개·배포하여 사업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

의회는 입법이나 심의, 조사, 감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관점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의회에서는 의회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으나 공립도서관의 자료와 레퍼런스 서비스도 이용하여 보다 폭넓은 자료 중에서 사서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사회의 변화와 지역주민의 요망을 정확하게 반영한 조례나 예산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도서관은 지방공공단체의 각 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보다 크게 사업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유용한 시설이다. 그러나 실제 이용한 적이 없다면 도서관이 얼마만큼 편리한 시설인지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실제로 도서관을 이용하여 도서관의 유용성을 실감해 보기 바란다. 그리고 도서관 이용을 통하여 개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도서관의 개혁을 추진하고 그 도서관을 계속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지역 주민을 위한 보다 적절한 행정서비스전개를 기대한다.

2. 도서관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께

도서관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도서관이 주민의 독서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과제 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주민 생활상의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 제공의 역할을 맡은 시설임을 확실하게 인식하기 바란다. 여러분 중에는 대출이나 리퀘스트 서비스²⁾만을 중시하고 그 외 다른 업무는 부수적인 서비

2) 리퀘스트서비스(request service) : 이용자가 요청한 자료가 도서관 서가에 없는 경우 그 자료를 원칙으로 하여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 대출 중에 있는 자료는 반납을 기다려서 연락하고 미소장 자료로서 구입이 가능한 자료는 구입하고 구입할 수 없는 자료거나 구입에 적합하지 않는 자료는 다른 도서관에서 빌려준다.

스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 점에서 여러분들도 의식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출발점으로 여러분 도서관의 기본계획에 명시된 레퍼런스 서비스, 성인이나 근로자 서비스, 잡지기사와 신문기사 제공이 어느 정도 실시되고 이용되는지 등 서비스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지역 주민과 행정관계자가 도서관을 얼마만큼 지역의 유용한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묻는 관점에서 서비스의 현상과 그 인지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것에 의해 도서관이 처해 있는 위기적인 상황(도서관에 대한 행정이나 주민의 인식 저조, 도서관 홍보 부족 등)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 특성과 그 중에 도서관이 가진 특징을 분명히 하고 정리함으로써 도서관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자원(자료, 직원, 집회실 등의 공간 등)과 능력(정보검색능력, 정보를 정리.체계화하여 제공하는 능력,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능력 등), 부가적인 자원(입지조건, 개관일.개관시간, 명칭, 분위기 등)상황을 명확히 할 수 있다.

다양한 기관과 연계.협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제까지는 도서관이 단독으로 사업을 완결 짓는 일이 많았던 것 같으나 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생애학습을 추진하는 사회교육시설인 점을 인식하여 지역의 사회교육시설이나 사회교육관련단체 등과의 연계.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서 학교, 지방.국가의 행정부국, 의회, 상공단체나 의료.복지 단체 등의 공적기관, 주민단체, NPO 등, 여러 기관과 연계.협력한다면 도서관이 단독으로 노력하는 것보다도 정보제공이나 강좌개최, 도서관 역할과 기능을 알리는 등에 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서관 업무에 우선순위를 두어 무엇을 어디까지 시행할지, 혹은 무엇이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교육위원회나 지역주민과 상담하면서 판단하여 결정된 것을 확실히 실행하도록 노력해야한다. 또한 도서관은 주민의 사회참가의 장으로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도서관의 활동과 사업에 대해 지원.협력해주는 자원봉사자나 주민의 자주적인 조직이 그 활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체제를 정비하고 참가하기 쉬운 환경만들기에 힘써야 한다.

3. 지역 주민 여러분께

도서관은 자료나 정보 찾는 방법을 안내하고 조사하는 것을 지원하며 지역의 과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제까지 문학서나 신간 잡지, 그림책 등을 열람하거나 빌리기 위해 도서관을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은 많으나 생활과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레퍼런스 서비스를 활용하여 입수하거나 본인이나 가족이 안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레퍼런스 서비스를 활용하여 입수한 적이 있는 사람은 아직은 일부인 것 같다.

오늘날의 사회는 자기 판단.자기책임을 요구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이것에 대처하기 위해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자료나 정보를 정확하게 얻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다. 이러한 자료를 주민이 손쉽게 입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곳이 도서관이다. 여러분이 도서관에 가서 어떤 자료를 구하려는가를 말한다면 분명 도서관 직원은 다양한 자료에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해 줄 것이다. 도서관은 자료 저장고가 아니고 정보 제공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시설이다.

또한 국제적인 지식(knowledge)의 대경쟁 시대라는 21세기에는 어릴 때부터 정보 활용능력이나 독해력 습득은 어린이들의 미래, 나아가서는 일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불가결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유아기부터의 독서습관 형성과 독서환경의 정비는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많은 도서관에서 아동코너나 청소년(Young Adult)코너 설치, 북스타트(Book Start)사업, 책읽어주기 등, 아동.청소년서비스를 충실하게 시도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이平成16년도에 실시한 「부모와 아이의 독서활동 등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보호자가 어린이를 「도서관에 데리고 간다」등을 지원하는 경우, 책읽기를 좋아하는 아동.학생의 비율이 높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다. 어린이 독서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도서관이 수행하는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다.

도서관은 이용하는 여러분을 통해 지역의 요구를 파악하여 서비스의 충실을 기할 수 있다. 여러분은 도서관이 본래 가지고 있는 기능을 인식하여, 도서관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그 지역에 유용한 시설이 되도록 도서관이나

지방공공단체의 행정당국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또한 전국의 약 반수의 도서관에서는 자원봉사자와의 연계·협력으로 활동을 충실하게 하고 있다. 지역의 여러 사람들이 자주적인 조직을 만들어 도서관을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예도 있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의 여러분에게 도서관 기능을 이해받고 더구나 사회 참가 의식을 양성하는 데에도 의미 있는 활동이다. 도서관 운영에 대해 적극적인 참가를 바란다.

4. 각종단체와 기관에 계신 분들께

각종 단체와 기관은 도서관과 연계함으로서 다양한 자료나 정보를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고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활동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단체나 기관은 도서관과의 연계로서 특히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1) 학 교

공립도서관은 어린이 독서활동이나 학습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다. 공립도서관을 활용함으로써 독서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또한 학교자료만을 사용하여 조사하는 것보다 보다 많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 조사 학습이 충실해진다. 그 결과 어린이들의 주체적인 학습활동과 보다 나은 문제해결능력, 풍부한 감성과 정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씨 등을 기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어린이들의 독서활동과 학습활동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도서관과 학교가 더 한층 연계·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도서관도 학교도 이러한 것을 똑똑히 인식하여 어린이들의 독서환경과 학습 환경이 충실하게 되도록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대처를 통하여 지역에 도서관이 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식이 어린이들에게 전달되었으면 한다.

(2) 상공단체와 의료·복지단체 등의 공적기관

지역에서 공익사업을 하는 공적 기관의 여러분은 각종 강좌나 상담회 등의

사업을 도서관과 공동 주최로 도서관에서 개최함으로써 강좌 등이 널리 알려
져서 자신들의 활동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지금보다도
넓은 범위에서 많은 참가자를 얻을 수 있다. 더구나 참가자가 도서관 자료를
활용하고 도서관에서 문헌리스트 등의 정보를 제공받으며 정보를 탐색하는 방
법을 배움으로서 자주적인 정보 입수를 촉진하여 사업의 효과를 더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제2장 제안—이제부터의 도서관 본질

1. 공립도서관 주변 환경

(1) 도서관 현상

① 설치상황

일본에는 공립도서관이 2,714관이며 그 중 도도부현립이 64관, 시(구)정촌.
조합립이 2,650관이다. 평성11년도 조사 때부터 153관이 늘어 연평균 50관정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공단체의 도서관 설치율은 평성14년도에는 도도부
현은 97.9%(知事部局소관의 도서관 동종시설을 포함하면 100%) 시(구)립은
97.7%이나 정(町)립은 45.4% 촌(村)립은 17.6%에 그치고 있다³⁾.(*1)

한편 시정촌 합병이 급속하게 진행되어 시정촌 수의 감소(평성11년 3월31일
3,232시정촌 → 평성18년 3월31일 1,832시정촌)로 숫자상으로는 도서관설치율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시(구)정촌립도서관의 설치율은 평성14년에는 51.8%
이나 (사)일본도서관협회의 추정계산에 의하면 평성18년 3월 말에는 69.9%로
18.1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전 정촌부(町村部)
를 중심으로 도서관서비스를 집 가까이에서 받을 수 없는 지역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으며 합병이전은 도서관 미설치였던 지역까지 전역 서비스를 실현하여
동일 지방공공단체내의 지역 격차를 개선하는 것이 긴급과제이다.

3) (*1) 출전 : 「사회교육조사보고서」, 문부과학성

② 조건 정비 상황

어려운 재정상황이 지속되는 중에 도서관 직원의 총수는 증가하는 경향이나 사서·사서보의 전임 직원수는 감소하고 있다(전임사서·사서보 평성11년 7,658명 → 평성14년 7,528명)(*1)

도서관 자료구입비도 삭감되는 경향이다. 1개관 당 평균 자료비는 평성13년도부터 평성17년까지 5년간 도도부현립에서는 477만엔 삭감(5,727만엔 → 5,250만엔), 시(구)정촌립에서는 205만엔이 삭감(1,211만엔 → 1,006만엔) 되었다(*2)

더구나 이른바 ‘삼위일체 개혁’의 일환으로 평성16년도부터 사회교육에 관한 보조금이 폐지되어 도서관의 주변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 외에 도서관 상황은 지방공공단체에 따라 커다란 격차가 있다. 평성17년도 시(구)정촌립도서관에서 주민 1인당 자료구입비는 평균 228엔이지만 약 600엔의 시(구)정촌도 있는 반면에 100엔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구)정촌도 있다(*2) 사서 또는 사서보 자격을 가진 전임직원이 없는 도서관은 약 800관(약 3할)이다(*2). 매년 새로운 도서관이 만들어지는 한편, 협소화, 노후화하여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대응이 늦어지는 건축된 지 30년 이상 경과된 도서관도 821관(30.3%)이다(*1).

도서관 정보화에 관해서는 「e-Japan 전략 II」(평성15년 IT전략본부)등에 의해 행정기관, 학교, 도서관 등의 공공시설을 고속네트워크에 연결하는 「지역공공 네트워크」등의 전국적인 보급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IT 신개혁 전략(평성18년 IT전략본부)에는 누구라도 손쉽게 IT를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게 도서관을 비롯한 다양한 공공시설의 정보화를 추진하면서 그런 시설에서 IT를 활용하는 학습 등을 보조할 인재 배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평성14년 10월 현재 컴퓨터를 소유한 도서관은 도도부현립에서 62관(96.8%), 시(구)정촌립에서는 2,457관(92.7%)이다.

그러나 도서관 업무의 온라인화 등은 아직 충분치 않으며 도도부현에서는 49관(76.6%), 시(구)정촌립에서는 1,567관(59.1%)에 그치고 있다.

4) (*2) 출전 : 「일본의 도서관」 : 통계와 보고. (사) 일본도서관협회

③ 관리운영 상황

도서관 관리 운영형태에 대해서는 지방공공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 외에 평성15년 지방자치법(소화22년 법률67호) 개정에 따라 지정관리자제도가 도입되어 민간 사업자를 포함한 법인과 그 외의 단체에 의한 공공시설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민간 자금 활용 등에 의한 공공시설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평성11년 법률 제117호, 이른바 PFI법)에 입각하여 정비된 도서관도 개관하였다. 관리 운영에 관련한 복수의 선택지 중에 지방공공단체가 지역 실정을 기반으로 하여 주민서비스를 더 한층 향상시킨다는 관점에서 자주적인 판단과 책임으로 적절한 관리 운영 형태를 선택하는 일이 중요하다.

④ 관련법제 동향

사회와 국민의 의식 변화에 따라 도서관에 대해 요구하는 역할도 다양화되었으므로 법제도를 정비하여 도서관기능의 명확화와 도서관사업의 충실이 도모되고 있다.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법률(평성13년 법률 제154호)에 근거하여 책정된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평성14년 8월 각의 결정)에서 도서관은 어린이 독서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책)읽어주기 등의 실시, 자원봉사자의 참가 촉진, 장애 어린이를 배려한 도서관 서비스를 충실히 하여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에 힘쓸 것, 또한 필요한 도서 자료의 계획적 정비 및 아동실 등 어린이 독서를 위해 필요한 공간 확보 등에 노력할 것 등을 요구받았다. 게다가 동 법률에서는 도도부현 및 시정촌은 각기 「어린이독서활동추진 계획」을 책정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평성 17년 3월 현재, 45도도부현, 184 시정촌에서 책정하였다.

한편 문자·활자문화진흥법(평성17년 법률 제91조)에서 시정촌은 필요한 수의 도서관 설치 및 적절한 배치에 노력할 것,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서 등 인적체제의 정비, 도서관 자료 충실, 정보화 추진 등 물적 조건 정비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 등을 규정하였다.

(2) 사회의 변화

오늘날 일본은 재정난, 한 자녀 고령화와 지방분권, 국제화의 진전 등 다양한 과제와 변화에 직면하고 있어 이들 과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시야에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지방공공단체에서는 지방 상황에 부응하는 독자적인 정책입안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제도의 변화가 심하고 기술 혁신도 급속하기 때문에 사회인이 가진 지식이 급속하게 낡아지고 필요한 지식의 범위도 넓어져서 새로운 지식을 일상적으로 학습해 나가야 하게 되었다. 더욱이 고용제도와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인해 직업생활 중에 직업상의 지식이나 기술을 수시로 다시 배우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자기 판단·자기 책임의 경향이 강화되어 적절한 판단을 위한 판단의 참고가 될 정보를 수집하고, 끊임없는 학습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적절히 입수할 수 있게 환경을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대도시권과 그 밖의 지역은 대학, 서점, 시험연구기관, 박물관 등 정보거점이 되는 여러 기관과 그에 관계되는 사람의 수, 산업, 교육, 문화 등에 관한 이벤트 등 정보제공의 기회에 격차가 있고 이는 입수할 수 있는 정보의 격차로도 연결된다. 이러한 격차는 개인이나 단체의 판단을 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저지하여 그 결과 지방 분권하의 지역 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정보 입수 방법으로 출판물과 인터넷 이용이 있으나 출판물은 도서만으로도 연간 7만점 이상 출판되어 개인이 출판물 전부를 이용하기란 어렵다. 한편, 근년엔 인터넷상으로 공개되는 정보가 증가하고 있으나 정보량이 상당하여 필요한 정보를 아무리해도 찾지 못하는 경우 외에도 신뢰성과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어 체계적인 정보를 얻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도서와 잡지에서 그 내용이 인터넷상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주 일부분이다. 평성16년 말 인터넷 이용 인구는 7,948만명, 인구 보급율은 62.3%(평성17년 정보통신백서)로 보급이 상당히 추진되고 있으나 인터넷 이용 기회와 활용 능력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이용기회를 제공하고 정보 리터리

시)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 외 어린이와 청소년들 여유있는 마음씨를 가지고 건전한 정신발전을 이루며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능력이나 독해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유아기부터의 독서습관의 형성과 독서환경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2. 이제부터 도서관 서비스에 요구되는 새로운 시점

도서관법(소화25년 법률 제118호) 제2조에서 도서관은 도서 등 필요한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며 이용자의 교양, 조사연구, 레크리에이션 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되어 있다. 또한 제3조에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도서관 봉사’ (도서관 서비스)의 내용이 정해져 있으며 직원이 ‘도서관 자료 이용을 위한 상담’에 응대하고(레퍼런스 서비스) ‘시사에 관한 정보 및 참고자료’를 소개,제공하는 일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1960년대 후반에 시작된 대출을 중시하는 도서관 서비스로 인하여 도서관 수와 규모, 소장 자료의 축적과 직원 수 증가, 도서관 이용의 비약적인 증대 등을 가져왔다. 그러나 도서관법에서 거론되는 조사 연구의 지원이나 레퍼런스 서비스, 시사정보 제공 등은 아직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제부터 도서관은 종래의 서비스에다 이들을 위시로 하는 서비스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과제해결이나 지역의 진흥을 꾀하여야 한다. 그것이 사회교육시설로서 도서관의 새로운 역할이며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금부터 도서관서비스에 요구되는 새로운 관점을 순차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1) 도서관 활동의 의의와 이해촉진

도서관은 출판물에 발표된 정확하고 체계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며, 인터넷상의 다양한 정보원의 이용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도서관은 이들 다양

5) 정보 리터러시 : 여러 종류의 정보원 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여 액세스한 정보를 바르게 평가하고 활용하는 능력

한 자료나 정보를 분류·정리·보존하고, 안내·제공하면서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기관이며 직원이 이런 요구에 부응하여 안내하는 점이 큰 특징이다. 아울러 이 정보들을 이용하기 위한 정보리터러시를 육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도서관은 여러 다양한 주제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므로 과제 해결과 조사 연구 시에 어떤 과제에도 대응할 수 있고 어떤 분야의 사람에게도 유용한 시설이며 또한 관련된 주제를 포함하여 넓은 범위에서 파악할 수 있어 다방면의 관점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데 주민이나 지방공공단체 관계자들은 도서관이 ‘책을 빌리는 곳’, 도서관 직원은 ‘책 대출 수속을 하는 사람’, 도서관에서는 ‘책은 자기 스스로 찾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소규모 도서관에서는 소설이나 실용서 중심으로 전문서는 거의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도서관을 그런 시설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도서관이 지닌 능력이나 효용은 거의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

도서관 서비스 내용이나 도서관 존재 의의에 대해 아직 이해가 진척되지 않는 것은 도서관 관계자들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폭넓은 이해를 얻기 위해 도서관 서비스와 활동 내용을 재점검하고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구체적인 틀로서 먼저 지역 사회의 현상을 파악하여 생활과 업무에서 여러 다양한 과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도서관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알기 쉬운 모습으로 분명하게 한다. 그리고 도서관이 지역의 과제해결이나 조사연구를 지원할 수 있게 서비스와 운영을 개혁하여 도서관 이용을 지역 사람들에게 적극 장려하는 일이다. 이 때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주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용을 권유하고 신체적, 거리적, 시간적 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덧붙여서 지방공공단체 관계자를 비롯한 여러 관계자에게 도서관의 의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때때로 행정과제에 도서관이 어떻게 도움이 될지를 검토하고 지방공공단체의 행정당국에 대해 도서관측에서 적

극적으로 제안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에도 도움을 주는 도서관’ 으로 어필하여 도서관정책이 자치단체 행정의 기본적인 정책 체계에 자리 잡을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처 실적을 근거로 예를 들어 ‘어려울 때에는 도서관으로’ ‘모른다면 사서에게 묻기’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이것이 주민이나 지방공공단체 관계자의 의식 속에 떠오르도록 또한 ‘유용한 도서관’ 으로서 인지되도록 힘써 나가야 한다.

(2) 레퍼런스 서비스 충실과 이용촉진

이용자가 구하는 자료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혹은 짧은 시간에 조사의 회답을 얻기 위해 레퍼런스 서비스를 활용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조사 연구에서 레퍼런스 서비스를 통한 잡지기사나 신문기사 검색과 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나 레퍼런스 서비스를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음은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 그 원인으로 레퍼런스 서비스 제공 체제를 제대로 갖춘 도서관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전국 공공도서관 중의 중심관에서도 독립된 전용 카운터를 설치한 도서관이 13%, 대출 카운터 내에 창구를 설치한 도서관이 10%에 그치고 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이러한 카운터와 창구가 없는 도서관이 65%에 육박한다. 또한 전용카운터와 창구를 설치하고 있는 도서관에서도 시립에서는 2할(20%), 정촌립에서는 7할(66%)가까이가 직원을 배치하지 않고 있다(수치는 「2004년도 공립도서관 레퍼런스 서비스의 충실에 관한 연구보고서(전국공공도서관협의회)에서」).

이처럼 전용 카운터를 설치한 도서관이 적고 설치된 경우에도 2층 참고도서 실이나 입구에서 잘 보이지 않는 구석진 곳에 있는 경우가 많다. 레퍼런스 서비스 존재를 아는 이용자가 드물고 실제 이용도 드물었던 원인의 하나가 여기에 있다.

레퍼런스 서비스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던 이유로도 이외에 도서관 서비스가 대출책 수와 이용자 수 등으로 평가되었던 것과 참고 도서와 잡지가 적은 도서중심으로 장서가 구성되어 있는 점, 전 직원이 모든 업무를 일률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식이 있고, 레퍼런스 서비스 담당자를 배치하는

일에 소극적인 태도이었던 점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향후 대출 서비스만을 우선하지 않고 레퍼런스 서비스를 없어서는 안 될 서비스로 자리매김하여 레퍼런스 서비스 이용을 촉진하는 체제와 환경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 전용데스크를 설치하고 확실하게 직원을 확보하여 직원능력향상을 도모하면서 이용 상황이나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개선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레퍼런스 서비스를 개선한 예로서 ‘책 안내’ 등 전용 데스크를 입구 가까이 배치하여 부담없이 질문할 수 있게 알기 쉬운 표현이나 사인을 사용하는 등의 조치가 있다. 또한 레퍼런스 서비스가 실생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행정지원, 학교교육지원, 비지니스 지원 등의 서비스 중에서 레퍼런스 서비스를 실시하여 이용을 촉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도서관에 내관하기 어려운 사람이나 근무시간 후에 도서관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전화, 팩스, 전자 메일로 레퍼런스 질문을 받고 학교, 행정당국, 시민단체, 상공단체 등의 조직에 대해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레퍼런스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상으로 공개되고 있는 도서, 잡지기사나 신문기사 등 데이터베이스 외에 각종 기관이나 단체가 공개하는 정보원도 활용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문헌을 조사하거나 조사를 추진할 수 있게 안내서(path finder)를 작성하고 강습회를 개최하는 일도 필요하다.

(3) 과제해결 지원기능 충실

이제부터 도서관에서는 주민의 독서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과제해결을 위한 대처로서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의 일상생활에 관한 문제해결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역이나 주민의 과제해결을 지원하는 기능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 과제 해결 지원에는 행정지원, 학교교육지원, 비즈니스(그 지역소재의 거래소나 거래업자 : 地場産業)지원, 어린이 양육지원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그 외 의료건강, 복지, 법무 등에 관한 정보나 지역 자료 등 지역 실정에 부응한 정보제공 서비스가 필요하다.

조사해결 지원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직면한 과제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판되는 도서나 잡지는 물론 지역자료나 행정자료 등도 포함, 문제해결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확실하게 수집하는 일이 중요하다. 서비스면에서는 기초적 서비스인 대출, 레크리에이션 외에 레퍼런스 서비스의 충실이 필요하다. 과제해결 지원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자료나 정보를 그대로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용자가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게 분류, 목록, 배가, 전시 등 조직화에 신경을 써서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공리를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관련자료 안내도나 사인 정비, 테마별 자료코너나 전시코너 설치, 문헌탐색.조사안내(path finder)나 링크집 작성 등이다. 관계기관이나 단체와 연계하여 강좌나 상담회 등도 개최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들에 대해 홈페이지를 사용하여 정보를 발신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또한 도서관이 가진 이러한 기능을 널리 알려서 지역과 주민의 과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기관임을 어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수동적인 자세로 이용자의 내관을 기다리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발신할 필요가 있다. 이들 과제해결지원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려면 지역의 관계기관이나 단체와 연계.협력하여야 한다.

사례 1.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시즈오카시립 미유사정(町) 도서관)

시즈오카시립 미유사정(町) 도서관은 시즈오카시의 중심부 건물 4, 5층에 입주해 있다. 6층에는 산업 교류 센터로서 입지상, 이용자층은 성인 남녀와 고교, 대학생이 많다. 비즈니스 지원은 「모든 분야가 비즈니스에 관계하고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다른 분야의 서가에서 분리된 코너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대신 현관 홀의 눈에 띄는 위치에 손으로 만든 전시판(panel)과 팸플렛류 전시를 중심으로 한, 대형 전시용 서가를 설치, 주로 데이터베이스, 창업정보,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평성17년 1월) ‘진화하는 기업형태’ 라는 제목으로 신회사법, M&A,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도서와 팸플렛 기획전시를 하고 있다. ‘창업 책’ ‘상표가 뜨겁다’ ‘고통.클레임 대책’, ‘회계입문’ 등 팝(pop: 눈에 띄도록 묘사한 문자)이 진열되어 있고, 신문 절취나 북리스트와 함께 수 권 내지 수십 권의 도서 표지를 전시하고 있다. 이들 미니코너는 1개월에서 2개월을 주기로 기동적으로 교체하고 있다. 6층의 산학교류센터는 공통 애칭 「B-nest」로서 강력한 연계체제를 구축하며 산학교류센터에 창업과 경영에 대해 상담차 온 이용자를 상담원의 판단으로 도서관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담사업의 연계를 「상담사업의 심리

스(seamless)화」라고 하여 중시하고 있다. 최근의 상담 사례로는 「우리 고장의 버스 회사 이용객수.버스보유대수 등을 알고 싶다」 「소매점 업무 매뉴얼을 만들 참고 자료를 바란다」 「시즈오카현.시의 계다 생산량을 알고 싶다」등이 있다.

또한 산학교류센터는 일반적인 비즈니스지원 강좌를 실시하고 있지만 도서관에서는 동 센터와 도서관 쌍방의 PR을 의도하여 강좌 테마에 관련된 도서.잡지.웹사이트.데이터베이스를 소개하는 안내서(path finder)를 작성하여 관내에서 강좌의 광고 전단과 함께 배포하고 강좌 수강자에게도 나누어주었다.

비즈니스 지원의 전형적인 요구는 ① 창업.부업에 흥미가 있다 ② 개인투자에 흥미가 있다 ③ 취직.전직.자격취득.스킬 업에 흥미가 있다 ④ 자신의 현재 직업에 관련된 지식을 더 늘리고 싶다. ⑤ 직접 자신이 관련하는 업무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은(pinpoint) 것이 있다는 것으로 이처럼 다양한 이용자의 필요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자료수집 방침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도서관으로서의 비즈니스 지원을 도서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산학관 연계의 기본 틀 내에서 독자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연계체인 산학연계센터와는 격주로 담당자 차원에서 상담하고 있다. 또한 시 관광과 및 관광협회로부터 수시로 자료 제공을 받으며 관광정보 서비스의 거점으로서 도서관이 자리매김하여 관광과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이것도 비즈니스지원의 하나로 생각된다.

(4) 종이매체와 전자 매체를 조합한 하이브리드 도서관 정비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전자매체의 이용을 추진하고 인쇄매체와 인터넷 등으로 전자매체를 조합시켜 이용가능한 도서관(하이브리드 도서관)을 지향하는 것이 긴급 과제로 되었다. 도서관을 하이브리드화함으로써 레퍼런스 서비스와 과제해결 지원기능의 충실을 꾀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도서관에서도 국립국회도서관이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와 국가.도도부현 수준의 종합목록 데이터베이스와 횡단 검색시스템 등을 활용함으로써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도서관은 업무를 온라인화하고 인터넷 단말기를 설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인터넷상의 정보를 활용하면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먼저 도서관 이용안내와 공지, 소장목록(Web - OPAC⁶⁾) 링크집 등을 정비한다. 더욱이 문헌탐색.조사안내(Path Finder), 레퍼런스 회답 데이터베이스, 지역자료 색인, 관계

6) OPAC : 이용자가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검색하기 위해 컴퓨터화된 목록. 온라인열람목록. 이용자가 직접 단말기에서 온라인으로 도서관 컴퓨터와 접속하여 장서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다(Online Public Access Catalog의 약자)

단체·기관 리스트 등 독자적인 콘텐츠를 작성하는 등 도서관 실상에 부응하여 계획적·단계적으로 홈페이지를 충실히 함으로써 다양한 정보원의 입구(gate)로서 ‘지역 포털사이트’⁷⁾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인터넷 단말기에서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것 외에 이용자가 집이나 직장 컴퓨터에서 도서관으로 접속하여 이용허락을 받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이나 싱가포르에서도 데이터베이스나 각종 소프트웨어 제공, 전자도서보급 등, IT를 활용한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충실하게 되고 있다.

또한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메일에 의한 레퍼런스 서비스, 메일 메거진 배급 등 적극적인 정보발신도 충실히 하여야 한다.

전자정보 활용으로 장애인 등 도서관에 내관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도 정보 활용의 범위가 넓혀지고 자립의 촉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도 대처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게다가 향후에는 행정기관 등이 발행하는 전자정보를 정리·보존하여 디지털아카이브 기능을 지향하는 것도 도서관의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위와 같이 IT화의 진전에 따라 주민이 IT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용안내·지원, 다른 사회교육 시설 등과 연계하여 정보리터러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강좌를 충실히 하는 것도 도서관의 중요한 역할이다.

사례 2. 하이브리드 도서관(치바현 히카리정(町) 도서관)

히카리정(町)도서관에서는平成12년 12월부터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정보발신용 서버를 도서관내에 배치하고 정보발신의 근간 부분인 홈페이지와 메일 메거진을 중심으로 구축하고 그 위에 블로그를 활용하여 정보갱신의 빈도와 폭을 넓이고 있다.

정보발신은 아주 긴밀한 정보를 중심으로 신간도서, 신착자료정보 제공 등을 하고 있다. 정보는 선도(鮮度)높은 것을 제1로 삼아 주로 다음의 콘텐츠를 수시로 갱신하고 있다.

7) 포털사이트 : 인터넷상의 여러 다양한 정보나 서비스에 액세스하기 위해 입구가 되는 웹 사이트. 인터넷 접속 시에 맨 처음에 액세스한다. 분야별로 정보가 정리되어, 링크처가 표시된다.

* 메일 메거진 배포

배포빈도는 주 1회로서 내용은 신간서의 간행 예정과 신착자료 안내를 중심으로 행사 안내와 공지, 자료정보 링크 등을 게재하고 있다.

* 테마에 따른 소장리스트 제공

계절에 일어난 일이나 뉴스기사, 도서관 행사 등과 관련한 소장 자료 정보를 제공한다.

* 최신 화제 링크

주변 화제의 안내(path finder)로서「생활에 필요한 책과 정보원 링크」페이지를 작성하고 있다. 행사안내나 책 소개 등으로 최신 뉴스에 기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블로그도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 이 외에도 홈페이지 상으로 예약과 레퍼런스 창구 등을 설치하고 있다.

향후에는 블로그 활용을 증진시켜야 한다. 도서관내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에는 언제 어디서든지 정보를 발신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이용가치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이용범위를 검증하고 있다.

* ‘히카리정’은 시정촌을 합병하여 평성18년 3월 27일부터 ‘요코시바히카리정’으로 변경

토픽 : 한국이나 싱가포르에서 급속하게 진행되는 도서관 하이브리드화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는 IT를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원 등 8개 기관이 참가하여 70개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의 공동 이용과 종합검색이 가능한 ‘국가전자도서관’ (<http://www.dlibrary.go.kr>)을 구축하고 있다.

이 중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학술정보의 원문데이터베이스를 작성·제공하며 각 공립도서관은 단말을 통하여 무료로 열람·프린트출력할 수 있다. 이것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출판 단체와 교섭하여 실현한 것으로 출판 후 5년 이상 경과한 저작물을 국립중앙도서관이 무료로 전자화 할 수 있었다. 한편, 출판 후 5년 이내 저작물은 저작권을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복사전송권관리센터’에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면 전자화나 프린트출력할 수 있다. 또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는 학술잡지의 전자화와 석사 이상의 학위논문을 웹상에서 전문(full text) 공개하고 있다. 그 외 각 공립도서관에서도 각종 지역자료에 대해 원문 데이터베이스나 지역에 관

한 신문.잡지기사 색인 데이터베이스 등을 작성.제공하고 있다.

공립도서관에는 ‘디지털라이브러리’가 설치되어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단말기가 여러 대(10대~100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다. 디지털라이브러리에서는 인터넷 이용 외에 위에서 기술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와 e-러닝 콘텐츠 등의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이용자는 자택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석을 예약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외국어 자동번역, 낭독, 전자음성 정보 등 소프트웨어도 사용가능하다.

이러한 하이브리드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서관 직원 연수도 장려되고 있으며 연수에 참가하여 포인트(점수)를 취득하여 이를 직장에서 승진이나 승급에 반영되는 구조로 준비되고 있다. 대학원에 입학하여 고도의 지식을 습득하려는 직원도 많이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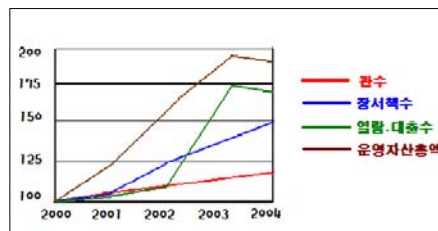
또한 싱가포르의 상용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각종 데이터베이스(약 80종)를 국립도서관이 일괄하여 라이선스 계약하고 이용자는 각 공립도서관 단말에서 아주 싼값의 사용료(1분 3센트(평성18년 2월 현재))로서 열람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해서 도서관 이용자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고 관내는 도서관 자료를 열람하면서 퍼스널 컴퓨터를 이용하려는 이용자로 넘친다.

또한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청(National Library Board)에서는 가까운 미래의 도서관상을 표현한 Library 2010(<http://www.sg/CMS.portal>)을 정비하여 도서관 진흥을 꾀하고 있다.

○ 한국과 싱가포르 도서관 정비 상황 - 한국

연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도서관수(관)	420	437	462	471	487
장서책수(도서만) (만책)	2,516	2,697	3,097	3,447	3,842
열람.대출수 (만책)	10,161	10,873	11,007	17,967	17,270
운영예산총액 (백만원)	186,449	231,516	300,716	354,576	345,624

주) .행정자치부 소관 공공도서관 및 교육청 소관의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함.
.연도말은 12월31일임



- 싱가포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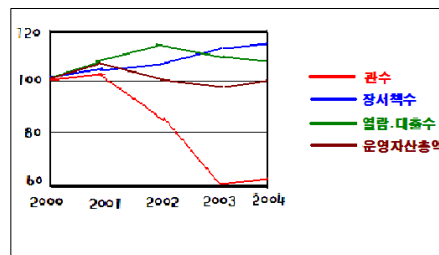
연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도서관수(관)	66	67	57	40	41
장서책수 (도서(만책)) + (정기간행물(만점))	702	738	752	790	800
대출수 (만책)	2,503	2,795	2,867	2,696	2,634
운영예산총액 (결산액) (백만싱가폴 달러)	165	181	167	160	165

주) .국립도서관, 지역도서관, 커뮤니티 도서관, 커뮤니티어린도서관을 대상으로 함

.도서관수가 2001년 이래 감소하고 있는 것은 도서관(커뮤니티어린도서관)정의(定義)

변경에 따른 것으로 생각됨.

.연도말은 3월31일임



(5) 다양한 자료 제공

이제까지 도서관은 도서제공이 중심이었으나 앞으로는 도서뿐만 아니라 잡지기와 신문기사도 중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자료나 지역기관과 단체가 발행하는 팜플렛, 광고전단을 제공하는 것도 지역의 과제해결이나 지역 문화보존의 관점에서 중요하게 되고 있다.

잡지에 게재된 기사나 논문의 특징으로는 그때그때 관심이 높은 테마를 다루고 있다, 기사의 건수나 저자의 수가 많다, 단행본에 수록되지 않은 정보가 많아 상세한 주제검색이 가능하다, 잡지 과월호는 서점에서 입수하기 어렵다 등이 있으며 조사연구와 과제해결 지원에 없어서는 안된다.

지역자료로서는 활자자료이외에도 사진, 8밀리.16밀리영화, 비디오, DVD 등 영상자료나 음성자료 등이 있으며 지역의 상황 형편과 생활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조직적, 계통적으로 보존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박물관과 향토박물관 등과 연계하면서 도서관에서도 계통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토사, 지역문화 등 지역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고 출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필요하다. 더구나 이들 지역자료를 전자화하여 보존하고 디지털아카이브 기능의 일환으로 광범위하게 이용하도록 정보 발신하는 것도 중요하다.

강좌나 세미나 등은 최신 문헌을 소개·해설하여 아직 자료화되지 않은 최신 지식을 제공하여 참가자가 안고 있는 문제의 회답을 직접 줄 수 있는 점에서 정보제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사례 3. 지역정보 제공(이바라기현 이나정(町)립도서관)

이나정(町)립도서관에서는 ‘지역자료 컬렉션 정비와 충실’을 관의 특징의 하나로 내세우고 개관 당초부터 정(町)과 이바라기현 남부지역에 관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해왔다.

그 중에서 특히 평성17년 8월에 개업한 철도 ‘쓰쿠바 익스프레스(이하 TX)’ 관련 자료는 특별히 의식적으로 수집하였다. 역 신설로서 정(町)이 큰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을 예측한 점과 정촌(町村)합병이 정(町)의 중요 과제가 될 것으로 상정되었기 때문이다. TX개업이 다가오는 중에 철도회사, 지자체, 부동산회사 등에서 정보가 우르르 쏟아져 발신되었기 때문에 도서관이야말로 주민에게 다양한 관점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철도나 지역 만들기에 관한 자료를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틀은 다음 두 가지이다.

* 신문기사로 본 이나정(町) & TX & 합병

신문에서 이나정, TX 및 이나정 합병에 관한 기사를 매일 클리핑하여 목록데이터화 한 것. 평성9년 5월부터 개시하여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고 있다. 현역(懸域) 2지(紙)와 전국지 1지(紙)를 대상으로 하여 매주 월요일에 갱신된다. 신문기사 색인 데이터는 지역 관련 레퍼런스 시에 대단히 유용하다. 이용자로부터도「이런 편리한 것을 도서관에서 만들었던 말인가」라는 반응이 있으며 신문기사 이외의 레퍼런스 의뢰 증가로 연결되고 있다.

* TX & 이나정(町) 행정정보 & 합병 정보코너

평성15년 1월부터 설치. TX와 행정.지역 만들기.정촌(町村)합병 등에 관한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철도회사의 홍보지, 행정자료, 도서, 잡지, 신문 기사의 원본, 홍보용이나 관련 이벤트, 팸플렛, 포스트, 광고 전단, 비디오, 역 공사 사진, 철도 연변의 모든 자치체의 주택지도 등을 수집대상으로 한다. 입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의 기둥 사방에 회의용 책상과 판넬을 설치하고 컬렉션의 일부인 포스터, 지도 등으로 전시하고 다양한 관점으로 역사적 경위를 개관할 수 있게 하였다. 서적과 잡지는 북엔드로 표지를 잘 보이도록 고안하고 해당 페이지에 부전지를 붙여 관심을 끌었다. 광고전단 등 배포물을 제공하고 있다.

이나정립 도서관은 정직원 5명, 임시직원 8명으로 적은 인원이지만, 꾸준히 철저히 자료를 모아 공개한 점, 또한 TX라는 누구라도 알기 쉬운 소재를 전면에 내세운 점에서, 지역정보를 수집하여 발신한다는 도서관의 기능.존재를 주민이나 행정에게 알릴 수 있었다.

*이나정(伊奈町)은 시정촌 합병으로 평성 18년 3월 27일에 ‘쓰쿠바 미래시’로 변경

(6) 아동·청소년 서비스의 충실

어린이의 독서 이탈을 방지하고 어린이 독서를 육성시키기 위해 학교와 연계를 꾀하면서 도서관의 아동서비스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평성15년(2003년) 7월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실시한 PISA조사(학생의 학습 도달도 조사)에 의하면 일본 15세 아동의 독해력(스스로 목표를 달성, 스스로 지식과 가능성을 발달, 효과적인 사회 참가를 위해, 쓰인 텍스트를 이해, 이용, 숙고하는 능력)은 세계 제14위로 전회인 2000년 조사 순위 8위에 비해 크게 떨어졌으며 점수는 OECD 평균 정도까지 낮아졌다.

독서활동은 어린이가 언어를 배우고 감성을 연마하며 표현력을 신장하고 창조력을 풍부히 하는 것으로 인생을 보다 심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데 결여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또한 독서를 통하여, 읽고 쓰는 능력과 같은 이런 힘의 기초가 되는 언어에 관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미래를 짚어진 어린이들이 이러한 실력을 습득하는 것은 일본의 계속적인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문부과학성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 독서활동에 대해 보호자가 어린이에게 「집에 책을 많이 놓아둔다」 「도서관에 데려 간다」 등의 지원을 하는 경우와 지원하지 않는 경우를 비교하여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고 대답한 어린이.학생의 비율은 5%이상 높았다고 한다. 또한 어린이의 독서 활동 추진에 필요한 것으로서 지역에서는 「공공도서관에서 아동코너 설치나 아동서 충실」, 가정에서는 「책에 대해 이야기 한다」, 「도서관에 데리고 간다」등이 많이 거론되었다. 그리고 전술한 「학생의 학습 도달도 조사」에서 독해력이 제1위인 핀란드에서는 독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인구당 도서관수가 많고, 도서관 이용율이 상당히 높다고 한다.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청소년(young adult)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 서비스를 보급시키면서 미 등교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도 지역 전체의 대처 안에서 도서관으로서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독서이탈이 진행되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을 위한 대응으로서 도서관에서 책에 관한 안내나 조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독서회 개최 등 책에 관한 의견 교환의 장을 제공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아동.청소년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PTA나 어린이회, 아동회 등 어린이 독서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그룹이나 자원봉사자와의 연계가 필요하며 도서관에서는 그들을 대상으로 연수회를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례 4. 청소년(Young Adult)서비스 (돗토리현 구라요시 시립도서관)

구라요시(倉吉) 시립도서관에서는 일반이나 아동과는 별도로 독립된 청소년(Young Adult) 자료 수집 방침을 작성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계속 읽히는 자료, 성인이나 교사가 추천하는 자료뿐만 아니라 현재 젊은이들이 지지하는 자료에 중점을 두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 도서관에서는 청소년(Young Adult) 서비스로서 강연회 및 테마 전시, 중.고등학생에 의한 책 소개 작성, 학교와 연계(단체대출, 아침 독서용 세트 대출, 수업에 강사파견(책읽어주기 지도, 정보검색지도), 직장체험접수, 북 토크)등을 전개하고 있다. 여기서는 특징적인 활동으로서 ‘청소년(Young Adult)용 도서관 NEWS’ 발행을 소개한다.

○ ‘청소년(Young Adult)용 도서관 NEWS’

청소년(Young Adult)층에 도서관을 PR하며 독서에 관한 흥미를 심화시키고 정보 교환의 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평성15년 7월부터 연 4회 발행하고 있다. 도서관 카운터, 시립중학교, 시내 문방구점 등에서 무료 배포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고 있다. 또한 독자 투고용 함을 도서관, 시내 문방구점 등에 배치하고 삽화나 특집 코너의 참가 작품을 모집하고 있다.

편집위원은 도서관 직원과 중고생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었다. 중고생 자원봉사자는 현재 3명이며 특집 테마나 소개할 신작도서 선정, 본문 작성, HP편집 작업이나 지면상의 삽화를 제공한다. 기본적인 운영은 자원봉사자의 자주성에 맡기며 도서관 직원은 도움말이나 원고를 교정한다. 자원봉사자 모집은 당 NEWS지외에 학교도서관에 모집 포스터를 게시하여 자원 봉사 요청을 하고 있다.

당 NEWS지를 발행한 평성15년도는 중학생의 총 대출책수가 전년도 대비 120% 늘어났다. 특집 「도서관에 가자」나 매호의 신작도서 소개가 이용 증가로 이어지는 것 같다.

(7) 다른 도서관과 관계기관과의 연계·협력

① 도서관간의 연계·협력

도서관은 서로 연계 협력함으로써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발전시키며 운영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연계·협력을 보다 확대하여야 한다.

현재 도도부현도서관에 의한 지역내 시정촌립도서관의 지원은 모든 도도부현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인근 시정촌간에 있어서도 연계·협력의 기본 틀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도부현의 도서관을 중심으로 하는 도서관 자료의 횡단검색시스템은 현재, 전 공립도서관의 약 3할밖에 정비되지 않았다. 또한 상호대차가 실시되더라도 이용자가 입수시 까지 1~2주간 걸리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 실제 효과적이고 매력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단기간에 이용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향후 횡단검색시스템을 정비해 나가면서 틀림없는 자료반송 서비스와 결합하고 도도부현내의 도서관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시정촌립도서관 등의 지원이나 상호대차를 통한 전역 서비스를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대학도서관이나 전문도서관과 협력하여 주민이 공립도서관의 레퍼런스 서비스를 통하여 대학도서관 등이 가진 전문적인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거나 전문적인 질문에 대한 레퍼런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과 대학도서관 등에 있어서 공립도서관이 가진 일반서나 초급 전문서 등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서로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틀로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활동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서관간의 네트워크 형성, 운영경비부담의 올바른 방향 등 접속 가능한 기본 틀에 대해 검토하여 컨소시움⁸⁾ 설치나 협력협정 등 방안을 강구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 도서관과 연계, 협력을 추진하여 국립정보학연구소가 제공하는 NACSIS - CAT⁹⁾ 나 NACSIS - ILL¹⁰⁾, 국립국회도서관의 종합목록 네트워크¹¹⁾나 레퍼런스 협동 데이터베이스 사업¹²⁾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사례 5. 도서관간의 연계(미타현립도서관)

미타현 도서관 정보 네트워크「MILAI」는 현립 도서관의 기본 방침인 「전 도서관을 모든 이용자에게」에 기초하여平成11년 3월부터 본격 가동하였다.

「MILAI」는 일반이용자가 가정이나 직장의 인터넷 단말기에서 현내 소장데이터 제공관의 소장정보를 모두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소장 데이터 제공관간은 다른 도서관 장서검색뿐만 아니라 상호대차의 의뢰 송신, 수락 회신을 「MILAI」를 통해 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제공관 이외 가맹도서관에서는 현립도서관 자료의 상

-
- 8) 컨소시움 : 자원의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도서관으로 이루어진 공적 연합조직. 가맹관 간 협정을 체결, 상호이용, 상호대차, 공동계약 등 여러 가지 상호 협력 활동을 한다.
 - 9) NACSIS -CAT : 국립정보학연구소에 의해 제공되는, 전국의 대학도서관 등이 소장하는 학술 문헌(도서,잡지)의 종합목록 데이터베이스. 요구하는 문헌이 어느 대학 도서관 등이 소장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 10) NACSIS - ILL : 전국 대학도서관에서 실시되는 문헌 복사나 현물 대차에 관한 업무 중 소재 조사 및 통신연락에 관한 업무시스템. 국립정보학연구소에서 제공한다.
 - 11) 종합목록네트워크 : 국립국회도서관 및 도도부현립, 정령(政令)지정도시 도서관이 소장한 일본 도서의 종합목록데이터베이스. 요구되는 문헌이 이들 도서관 중 어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국립국회도서관을 중심으로 시행된다.
 - 12) 레퍼런스 협동 데이터베이스 사업 : 공립, 대학, 전문 각종도서관의 레퍼런스의 사례(레퍼런스 질문과 회답)등에 관한 데이터를 축적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함으로써 도서관 등에 레퍼런스 및 일반이용자의 조사 연구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국립국회도서관을 중심으로 시행된다.

호대차를 「MILAI」상으로 한다. 「MILAI」의 편리성이 인지됨에 따라 데이터 제공관, 가맹관이 해마다 늘어 평성16년 말 현재, 소장 데이터 제공관은 약 40개관(미타대학 부속도서관 포함), 가맹관은 약 70개관(대학·단대·고전(高專) 포함)으로 검색 가능한 타이틀건수는 약 300만건, 소장책수는 약 450만 책으로 되어 있다.

「MILAI」에서는 평성14년부터 일반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2종류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 온라인 예약배송서비스(통칭 e-Booking)

집이나 직장의 네트워크 상으로 현립도서관의 책을 예약하고 수취 장소를 지정하면 가장 가까운 도서관이나 공민관, 정촌교육위원회 등 자신의 생활권내의 시설에서 자료를 빌리고 반납할 수 있다. 현재 69개 시정촌 중 대부분 수취 장소로서 시설을 제공하여 현립도서관의 실제 이용자를 현 전체 지역으로 넓히게 되었다. 시정촌도서관에서는 소장하기 어려운 전문성이 높은 도서를 자신이 인터넷으로 가장 가까운 도서관에서 수취할 수 있는 편리성 덕분에 16년도에는 이용실적이 연간 1만명을 넘었다.

* 온라인 리퀘스트 서비스

이 서비스는 상호대차의 의뢰기능을 일반 이용자용으로 확장한 것이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을 수취 장소로 지정하면 소장 데이터 제공관의 모든 자료가 네트상에서 예약 가능하다. 또한 이 서비스는 소장데이터 제공관에서 초기 비용이 없어도 도입할 수 있는 사양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활동으로서 미타현립도서관은 가상(virtual)의 대형도서관으로 변모하였다. 앞으로 가능한 한 많은 도서관에서 온라인 리퀘스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독려하여 서비스 전개의 범위를 조금씩 넓혀가고 있다. 또한 동시에 개인 대상의 서비스 실시에 따른 다양한 과제, 예를 들면 e-Booking을 빌리고 반납하는 장소로서만 시정촌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어떻게 지역의 도서관 이용자로 연결할 것인가 하는 과제 등에 대응하는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② 행정부국, 각종 단체·기관과의 연계·협력

도서관은 지방공공단체의 여러 행정부국과 연계하여 행정 지원함으로써 행정사무나 정책입안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사무나 정책입안에 필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레퍼런스 질문에 회답하고 요구하는 자료를 검색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적극적인 정보서비스로서 지역이나 지방

자치에 관한 신문기사 리스트, 관계 잡지의 목차를 정리한 책자, 관련 자료 리스트를 제공할 수 있다. 지방공공단체의 청사 내에 도서관을 설치하여 도서관과의 협력으로, 각 부국이 공통으로 이용하는 전문서나 잡지, 유료데이터베이스 등을 도서관에서 수집·제공하고 사서가 필요한 정보를 검색·제공하는 시도도 하고 있다. 각 부국이 구입한 잡지의 과월호를 도서관이 일괄 관리할 수도 있다. 필요시에 도서관이 자료를 빌려줄 수 있어 행정부국은 자료를 중복하여 구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비용 삭감에도 효과가 있다. 그 외, 행정기관이나 공적시설, NPO, 지역 만들기 단체, 자원봉사자 등이 그들의 대응이나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작성·배포하는 광고 전단을 적극적으로 수집·배포하여 지역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알리고 추진을 꾀할 수 있다. 행정기관이 지역과제에 관한 이벤트를 실시할 경우에도 관련 자료 전시나 자료 리스트를 배부할 수 있다. 이것으로 주민에게 지역과제에 관한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다.

이 외, 도서관은 행정부국이나 각종 단체·기관과 연계하여 강좌나 상담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강좌 등의 주제에 관한 자료를 전시하거나 자료나 정보 리스트를 작성·배포하여 소개할 수 있다. 단체나 기관에 따라서는 도서관의 집객력(集客力)이나 자료와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도서관은 정보제공 기능을 어필할 수 있어, 내관자가 증가하는 등 서로 간에 커다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연계활동으로서 인적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그에 따라 정보 제공을 확대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에 의해 행정부국에 대한 도서관 기능의 이해 촉진 도모, 도서관이 유용한 시설임을 인지하게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례 6. 행정지원서비스(돗토리현립도서관)

평성17년 10월 돗토리현청 내 지방분권시대의 현정(縣政)의 ‘지식(knowledge)의 거점’으로서 도서관이 탄생하였다. 지역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직원 스스로 주체적으로 시책을 기획·입안하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직원의 업무 달성에 유효한 정보 수집·활용을 지원·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평소에도 담당 업무 외에 폭넓은 지식·정보를 얻을 수 있어 현청 직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 향상 촉진도 그 목적의 하나이다. 넓이는 약 50m², 소장자료 약 550점인 소규모이지만 인접한 현립도서관의 장서·사서와 긴밀한 연계 하에 운영되고 있다. 이용은 아직 일부 직

원에 머물고 있어 평성18년에는 현청직원을 대상으로 정보 활용 연수회를 현청자치 연구소, 현립도서관과 연계하여 개최할 예정이다. 도서관의 구체적인 업무내용, 설치운영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업무내용

- ① 직원이 필요로 하는 정책 형성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레퍼런스 서비스)
- ② 직원에 대한 정보발신(현정의 중요과제 등에 관한 테마별 도서 리스트 작성 등)
- ③ 직원의 정보 리터러시의 향상 지원(정보 활용 연수회 개최 등)
- ④ 현청내의 자료 조직화

2. 설치·운영 형태

- ① 실 설치 : 서가, 테이블, 도서관시스템·청내LAN 단말 각 1대를 설치.
현재(縣材) 삼나무판 서가 등, 편안함속에서 새로운 착상이 떠오르게 공간을 연출
- ② 운영형태 : 개실 시간은 8시 30분부터 19시까지. 담당 사서 1인을 중심으로 총무과 직원 몇 명이 교대 운영

(8) 학교와 연계·협력

어린이 독서활동이나 학습활동을 추진한 연후에 학교도서관 활용이 나아지고 있으나 도서관은 이러한 학교도서관 활용이 왕성해지도록 학교도서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 의뢰에 부응하여 일정량의 도서를 장기 대출하거나 레퍼런스 서비스를 하는 외에 학교를 방문하여 이야기회나 책읽어주기를 하거나 조사 학습을 지원하는 등 협력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사서교사, 학교도서관 업무를 맡은 직원의 연수 지원과 정보제공도 필요하다.

도서관이 학교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는 것은 교육위원회에 도서관 존재 의의를 이해·촉진시키는 데에도 중요하다.

사례 7. 공립도서관의 학교지원(치바현 이치가와시립도서관)

이치가와시에서는 「공공도서관과 학교를 묶는 네트워크사업」(교육센터사업)을 실시하여 시립도서관과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간 상호네트워크화를 꾀하고 있다.

이 사업으로 장서가 유효하게 활용됨으로써 시내 전체가 장서수 140만 책인 큰

하나의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하게 되었다. 동시에 학교도서관에 관련된 교육위원회 담당과(교육센터, 지도과, 시립도서관, 취학지원과 등)간의 연계가 추진되었다.

이치가와시 중앙도서관은 개관 당시부터 아동 서비스 부문을 독립시켜 7명의 전임 사서를 배치하고 학교 지원을 충실히 하였다. 현재는 ① 학습활동에 필요한 도서자료(네트워크 전용도서를 정비) ② 학급문고에 단체 대출 (40책의 독서물 세트 50조) ③ 출장 이야기회 ④ 교직원 체험연수와 ⑤ 어린 학생의 체험학습 등을 하고 있다.

먼저 도서 대출과 반납을 위한 도서관과 학교, 학교 간 배송은 위탁업자가 한다. 이치가와시 중앙도서관을 기점으로 2대의 배송차가 전교 66개소를 순회한다. 매주 2회 운행하며 대출기간은 4주간, 대출책수에 제한은 두지 않는다. 배송에 의한 이동책수는 연간 6만책으로 이중에 이치가와시 중앙도서관에서의 대출이 35%를 차지한다.

학교는 「학교도서관 이용 연간계획」을 세워 계획적인 학교도서관 이용을 주선하고 교육센터에서는 시내 전체 도서관 이용계획을 정리하여 활용하기 쉽게 하고 있다.

또한 학교도서관에서는 전용 컴퓨터가 설치되어 메일링 리스트로서 한꺼번에 대출의뢰와 학교장서 50만책,시립도서관 장서 90만책의 검색, 인터넷 정보취득,발신 등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전용 FAX,전화, 메일로도 정보교환이나 정보발신을 하고 있다.

이 사업으로 시내 전체 학교도서관이 활성화되어 어린이 독서활동이나 학습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9) 저작권 제도의 이해와 배려

도서관에서는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신속 정확하게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때에 저작권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저작권자의 배려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된다. 직원이나 이용자에게는 저작권 제도의 이해가 불충분한 경우도 눈에 띄기 때문에 도서관에서는 직원에 대해 저작권에 관한 연수 기회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용자에 대해서도 도서관에서의 권리제한 현상이나 그 외 저작권의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 정보 리터러시의 일환으로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도서관 자료의 복제권 제한에 관해서는 상호대차로 자료를 빌린(借受) 도서관에서의 복제 등에 대해 도서관 단체나 권리자 단체에서 가이드라인을 책정한 경우도 있으나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계속해서 도서관과 권리자, 저작자간에 협의의 장을 마련하여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다.

3. 이제부터의 도서관 경영에 필요한 시점

(1) 도서관이 가진 자원의 재점검과 재배분

「제2장 이제부터 도서관 서비스에 요구되는 새로운 시점」에서 제안한 서비스는 모두 도서관으로서 본래 실시하여야 하는 서비스이다. 앞으로는 기존에 실시해 온 서비스를 계속하면서, 그와 동시에 이제까지 충분하지 못하였던 레퍼런스 서비스, 과제해결·조사 연구의 원조, 시사정보 제공, 전문적 자료 제공, 근로자 서비스 등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

그 실현을 위해 도서관 경영방침이나 자원배분의 우선순위와 비율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도서관이라도 적절히 자원을 배분함으로써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자원 배분을 위한 구조 틀로서 도서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양, 조사연구, 레크레이션’이라는 목적에 따른 틀과 ‘대출·리퀘스트, 레퍼런스·정보발신’이라는 서비스 방법에 따른 틀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 틀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적절한 계획을 세우고, 착실하게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열람서비스, 대출서비스, 리퀘스트 서비스는 가장 기초적인 서비스이다. 이들 서비스가 아직 충분하지 않는 도서관도 있으므로 이용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확실하게 탐색·제공하는 것을 중시하여 책 안내나 레퍼런스 서비스 등을 충실하게 함으로서 도서관 서비스의 만전을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도서관장의 역할

도서관을 사회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개혁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개혁을 리드하고 도서관 경영의 중심을 짚어준 도서관장의 역할이 중요하며 앞으로는 더욱더 관장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도서관장은 사회와 지역 속에서 도서관이 갖는 중요성과 수행해야 할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여 그 실현을 위해 직원을 통괄하고 신속하게 의사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지방공공단체의 수장·행정부국이나 의회에 대해 도서관의 역할과 중요성을 이해받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도서관

직원에 대해서는 사회의 요구와 행정 시책을 이해시키고 이들과 도서관서비스의 관계를 찾아내어 결부시킬 수 있게 배려해야 한다.

교육위원회는 도서관장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도서관장으로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근무체제와 권한 확보와 동시에 도서관 경영에 대해 계속적으로 연수받을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3) 이용자 관점에서의 경영방침 책정

도서관 경영에서는 개관시간의 연장이나 내관이 어려운 사람의 대응, 이용조건의 완화, 이용자(민원)소리를 운영에 반영시킬 기본틀 만들기 등, 이용자의 관점에서 경영 방침의 책정이나 서비스 내용의 재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 서비스, 고령자 서비스, 다문화 서비스에 대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갈 필요가 있다. 이 서비스들은 도서관에 따라 실시 상황의 격차가 크고, 실시하는 경우에도 직원 전체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를 위해 각 도서관은 구체적인 서비스 지침을 작성하여 확실하게 실현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처방안들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국과도 연계하여 지역 전체로서 검토·추진해가야 할 것이다.

(4) 효율적인 운영방침

운영비용 삭감이나 사서의 업무 생산성 향상 등 운영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적정 배치, 기계화에 의한 일줄임(省力化), 다른 기관과의 연계 방법 등이 있다.

직원을 자격, 근무경험, 교육·연수경력, 능력 등에 따라 적절히 업무에 배치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서가 담당하는 전문 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그 전문 업무에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서의 전문 업무는 전문적 지식과 어느 정도 경험연한이 필요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지역사회 요구 파악, 지방공공단체의 시책 파악, 도서관 운영의 기

획 입안, 서비스 계획 작성, 지역의 조직·단체와의 연계협력, 지역의 과제나 요구에 부응하는 자료수집과 컬렉션 구축, 레퍼런스 서비스와 정보제공 서비스, 대출서비스 관리, 리퀘스트 서비스, 이용자별 서비스(아동·청소년, 행정·학교교육·비즈니스·자녀양육지원,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의 각 서비스 등)의 계획 작성과 실시, 도서관 경영·관리 등이 거론된다.

이 외에도 개개 직원의 능력을 살리고 이용자 요구의 변화와 새로운 서비스에 신속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팀, 그룹제 등 유연성 있는 조직 도입에 대한 검토가 바람직하다

또한 BDS¹³⁾, 자동 대출기, IC테크 도입 등 업무 부담 줄이기(省力化)와 경비절감으로 이어지는 기계화를 추진하거나 업무의 내용에 따라 업무위탁도 추진할 수 있다.

다른 도서관, 행정부국, 학교, 각종단체·조직과의 연계·협력도 효율적인 운영방법의 하나이다. 다른 곳과 연계할 경우에는 먼저 도서관이 가진 자산을 철저히 밝혀내어 충분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서관이 가진 자산에는 모든 주제·분야에 걸친 자료, 자료와 정보의 검색시스템, 사서를 포함하는 직원, 열람석이나 집회실 등 공간, 입지조건, 토요일요일이나 야간 등에 걸친 개관 일·시간, 지역의 인지도, 유아에서 고령자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 등 이제까지 축적·확대해온 다양한 자산이 있다. 이것은 연계한 기관들에게도 귀중한 자산을 얻는 것이 된다.

(5) 도서관서비스 평가

도서관서비스 평가는 지방공공단체가 하는 정책 평가의 일환으로 자리잡아 간다.

도서관 서비스의 필요성, 유효성, 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주민에게 공포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평가에 있어서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서비스가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입각하

13) 자기(磁氣)를 이용한 도서관용 대출수속 확인 장치. 대출수속을 마치지 않은 자료를 밖으로 가지고 나가려고 하면 센서가 반응하여 경보가 울리거나 게이트 바가 닫히거나 한다(Book Detection System의 약자).

여 이제까지 대출책수 중심의 평가를 현재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재점검하여 다양한 서비스에 대응한 평가의 본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가 지표에는 얼마만큼 자료와 서비스 등이 제공되었는지(output)뿐만 아니라 서비스 등을 제공한 결과로서 지역이나 주민들에게 실제 어떤 성과를 이루게 해주었는지(outcome)를 나타내는 지표가 필요하다. 더구나 설치자와 주민, 도서관과 연계 협력하는 제기관의 3자의 관점에서 평가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평가 지표의 예로서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대출책수나 이용자수에 더하여 레퍼런스 서비스건 수, 홈페이지 방문자 수, 집회.행사강좌 등의 개최상황 및 참가상황, 이용자의 만족도(각종 도서관자료, 각종 서비스, 이용환경 등)등이 있다. 또한 아울러 본 보고서 참고자료 「3. 도서관서비스의 지표에 및 인구 단계별 상위수치」에 나타난 지표 및 수치도 참고가 된다고 생각된다. 이들을 자관(지방공공단체)에서 시계열로 분석하거나 다른 유사도서관(지방공공단체)과 비교하거나 하여 자관의 실적을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평가는 실시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확실하게 업무개선으로 연결짓는 것이 중요하다. 평가 결과를 근거로 업무 개선 방침이나 계획을 책정하고 도서관협의회와의 협력을 얻어서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례 8. 활동의 평가(카나가와현립도서관)

카나가와현립도서관은 평성14년도부터 활동 평가를 위한 작업을 시작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다. 평가 목적은 ‘업무개선’ 과 ‘이용자(주민)에게 활동을 설명하는 책임을 다하려는 것’ 이다. 또한 동시에 현민(縣民)에게 PR하는 효과도 겨냥하여 지표 선정시에도 이것을 의식하고 있다.

평성16년도는 연초에 목표수치를 정하고 목표에 대응하여 평가하였다. 목표와 기본 지표는 다음과 같다.

목표 1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발신

기본지표 : 레퍼런스서비스 총 건수, 집회활동의 참가자수 및 강좌 등 개최회수, 직원 연구 활동 및 성과 발신건수

목표 2 네트워크 센터 기능 강화

기본지표 : 시정촌립도서관 직원대상 연수 참가자수

목표 3 자료정보 제공 서비스의 충실

기본지표 : 입관자수 및 문헌복사매수, 자료대출수(개인대출수 및 도서관 등에
도서대출수), 홈페이지 접근수 및 OPAC접근수

수치는 전년도 대비, 수치 비교와 변화 요인을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결과는 ABCD 4단계로 표시하고 평가에서 도출된 ‘개선점’도 함께 표시하였다. 더욱이 16년도판은 전년도까지 비교하여 목표지표.보고서 페이지수도 대폭 축소하였다. 업무시간을 할애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가능한 한 단시간에 도움이 되는 것, 현민(縣民)에게 PR도(度)가 높은 것으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외 동관에서 현정(縣政)모니터의 미니 앙케이트와 내관자 앙케이트 2종류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앙케이트에서는 만족도뿐만 아니라 기대수준도 묻고 그 차이(gap)를 측정하였다.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도 하였다. 또한 평성17년도는 그룹인터뷰도 실시하였다.

향후 과제는 국립국회도서관에서 책정하는 평가나 기준 등도 참고하여 평가 기준을 완성하는 일. 레퍼런스 서비스는 질적 평가가 어렵고 양적인 평가도 관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협력사업에서는 협력 대출.협력 레퍼런스시정촌 도서관 직원연수 등 복수 업무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연구해 나갈 예정이다.

(6) 계속적인 예산 획득

일정한 도서관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 신규 자료의 계속적인 수집과 레퍼런스 서비스의 충실, 전자정보의 충실을 꾀함으로써 비로소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하여 이용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 이러한 도서관 예산의 계속 증액을 위해 도서관에 투자함으로써 어떻게 사회가 보다 바람직하게 변화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지역사회로부터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그러한 도서관이 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작성하여 모든 직원에게 주지시키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서관 개혁이나 기능 확대를 도모하여 그에 따른 예산 요구 방침을 검토하고 도서관내에서 공통 이해를 얻는 일도 중요하다. 이러한

대처를 통하여 도서관 직원은 도서관 서비스와 그것에 투입된 예산이 어떻게 주민이나 지역사회 향상에 기여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7) 홍보

도서관 활동이나 사업, 이벤트 등을 홍보하는 주된 매체는 지방공공단체의 홍보지이다. 주민 및 행정관계자를 대상으로 도서관의 다양한 기능을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홍보지외에 학교, 시청, 사회교육시설, 상공단체, 시민단체 등의 조직·단체에 대해 개별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직·단체와 협력하여 그 구성원에 대해 홍보하는 것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어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연계의 계기도 된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는 최신 정보를 때 맞추어 제공할 수 있고, 충분한 양의 정보 제공이 가능하며 평소에 착실하게 성과를 홍보할 수 있어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기회가 늘어나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홍보는 대상에 밀착하여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성인, 어린이 등), 민간단체, 행정관계자, 지역보도기관 등을 대상으로 어디에 관심이나 흥미를 가지는가를 검토하여 매체나 기법, 중점적으로 홍보할 점 등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중에서 특히 지방 신문사나 텔레비전 방송국 등 보도기관을 통한 홍보는 사업, 이벤트 등을 홍보하는 이상으로 굉장히 효과적이므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평소의 도서관 활동을 소개하고 이벤트나 화제가 된 사건을 안내하면서 알기 쉽고 간결하게 기사를 쉽게 써서 홍보 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원격지의 주민이나 여러 다양한 이유로서 지금까지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았던 사람에 대해서도 원격지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도서관 직원은 이제까지의 ‘기다리는’ 자세에서 의식을 전환하여 새로운 이용자 개척을 위해 도서관측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8) 위기관리

도서관에서는 음식물, 큰소리, 악취, 만취, 외설행위, 스토키, 폭력, 폭언 등 불쾌한 행위, 도난(이용자 소지품, 자료절취.가지고나감), 사고(관내, 자전거 주차장 등),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진, 수해, 폭설 등 자연재해나 화재 등의 재해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고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예방책을 강구하면서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위기 발생시에 누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지를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각 지방공공단체에서 재해위기관리 매뉴얼 등을 작성하고 있으나 이것과는 별도로 도서관이 독자적으로 도서관의 특징을 고려하여 관내.외에서 발생이 상정되는 모든 사태에 대해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위기관리 매뉴얼에 대해 전 직원이 파악하여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위기발생 시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두지 않으면 안된다. 나아가서는 훈련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실효성을 검증하고 필요한 개선을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 덧붙여서 자관이나 다른 도서관에서 발생한 사태에 대한 대처방법.실적 등의 정보를 공유하여 매뉴얼 갱신에 노력하여야 한다.

(9) 도서관 직원의 자질 향상과 교육·연수

① 도서관 직원의 자질향상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도서관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직원이 의식을 개혁하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도서관의 낡은 이미지를 불식하고 도서관이 주민의 학습이나 지역 과제해결에 공헌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어필하는 능력을 습득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사서 양성과정이나 연수에서 지역사회의 과제나 그에 대한 행정시책.기법, 지역의 정보요구 내용, 도서관 서비스 내용과 가능성을 배우고 정보기술이나 경영능력을 익히고 나아가서 코스트 의식이나 장래 비전을 지녀야 한다.

② 도서관 직원 연수, 리커런트(recurrent) 교육

앞으로는 도서관 직원의 연수, 리커런트 교육에 한층 힘을 기울여야 한다.

도서관 직원 연수는 1)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 작성, 2) 논문·리포트, 워크숍(연습·토론)형식 등 연수방법 도입 3) 그 실적을 평가·인정하는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 리커런트 교육에는 사회인 대학원의 학습도 장려되어야 한다. 현재, 국가수준에서 ‘신임 도서관장 연수’ 나 ‘도서관 사서전문 강좌’ 등의 연수가 실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수에 적극적인 참가도 바람직하다.

바쁜 직원이 사정이 팬찮은 시간에 희망하는 연수 내용을 반드시 받을 수 있게 자기 연수용 텍스트, 비디오 교재 등의 준비를 충실히 하여야 한다. 또한 e-러닝을 포함한 원격 연수도 검토되어야 한다.

도서관장에 대한 연수도 중요하다. 도서관근무 연수가 많은 도서관장에게는 자치제 행정에 관한 연수, 도서관 근무연수가 적은 관장에게는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지역 사회의 의의에 관한 연수가 중요하다. 또한 사서는 지방공공단체의 행정시책이나 행정기법에 대해서도 깊은 인식을 가져야 한다.

도서관에 배속된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초임자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이나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연수에서는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정보와 심의회 정보, 업무 개혁 사례 보고 등을 주지시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사서양성

사서양성과정에서는 실천적이고 전문적인 지식·능력을 습득함과 아울러 지역사회의 과제나 요구를 파악하는 능력, 정보기술, 도서관 경영 능력 등 개혁이 진행된 도서관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사서를 목표로 하는 사람 중에는 이전의 도서관 이미지에 빠져있는 사람이나 대출·리퀘스트 서비스만을 중요시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새로운 도서관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실제 상황을 적극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인재가 사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양성 단계에서 새로운 도서관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서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취득(修得)과목이 개정된 지 이미 10년이 경과하였으며,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과목을 재점검하는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사서자격에 대해서는 사서자격 획득을 위한 취득과목 개정시, 종래의 과목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서의 재교육 실시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정 기간마다 얼마 기간 교육·연수를 하여 자격을 갱신하는 갱신제도의 검토도 필요하다.

④ 전문주제정보담당자 교육

앞으로 의료, 법률 등 전문적인 정보 제공 서비스를 위해 각 분야의 정보에 대해 고도의 교육을 받은 사서 양성도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법률분야에서는 석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도서관원 등 전문성이 높은 직원 양성을 조직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현상을 고려한다면 전문적인 사서를 양성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므로 현직 도서관 사서를 스킬 업(skill up)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다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기업관계자, 법조관계자, 의료관계자 등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10) 시정촌 합병에 입각한 도서관 경영

시정촌 합병으로 지방공공단체의 규모가 증대되고 지방분권 진행 등과 맞물려서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정보요구도 증가한다. 도서관 서비스 대상 지역도 확대되면서 배치나 체제도 재검토되어야 하므로 이것을 도서관 개혁·충실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아 주변 지역을 포함한 전역 서비스의 실현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지향하여야 한다.

시정촌 합병으로 정촌 수가 감소함으로 인해 정촌도서관 설치율은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 수의 증가에 따른 설치율 상승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까지 도서관이 미설치된 정촌 지역에 서비스가 향상되고 전역서비스의 실현에 근접한 것인지의 여부 등 합병 후 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합병 시정촌간의

자료 검색 시스템의 통합, 새로운 서비스 계획 책정 등의 대처도 필요하다.

전국 어디에서나 일상적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공민관 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 개방 등을 포함한 중학교구(區) 등 생활권마다 도서관 서비스 거점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도서관 정비 지표로서는 인구당 뿐만 아니라 실제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 단위 면적당으로 정비율(整備率)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례 9. 시정촌 합병에 입각한 도서관 경영(야마나시현 미나미 알프스시립도서관)

미나미 알프스시는 평성15년 4월1일에 4정 2촌(하타(八田村), 시라네(白根町), 아시야스(芦安村), 와카쿠사(若草町), 쿠시가타(櫛刑町), 코사이(甲西町)이 합병하여 총 면적은 264 km²이고 야마나시현의 약 6%를 차지한다.

인구는 약 7만 2천명(평성17년 10월1일 현재)이고 국도에 면한 넓은 시가지와 시의 서부를 차지하는 산간부로 이루어져 있다.

시에는 현재, 합병 전 자치체 6 지구에 도서관 시설이 있다. 쿠시가타(櫛刑)도서관이 중앙관 기능을 하며 시립도서관 전체의 관장과 사무직원을 배치하고 시 전체 도서관의 의사결정 및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합병에 즈음하여, 전역 서비스와 합병 전 서비스 수준 유지를 기초로 하여 어떤 것이 주민에 대한 서비스 확대가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현재 아래와 같이 대처하고 있다.

* 도서관 시스템 통일

각 도서관·도서관의 컴퓨터 시스템을 통일하여 1매 카드로서 시내 어느 도서관에서도 대출, 반납이 가능하게 되었다. 도서자료의 반송은 1일 1회 시내 전 지역을 운행하는 행정편(메일편)을 이용하고 있다.

* 미설치지구 서비스

합병 전에 도서관이 없던 아시야스(芦安)지구는 평성15년 7월, 건강관리센터 내에 쿠시가타(櫛刑)도서관 분관을 개관하였다. 개관시간은 화·금요일의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지역 케이블 텔레비전국의 협력을 얻어 도서관 시간을 마련하여 반복 방송하며 서비스를 소개하고 이용을 장려하였다.

* 도서관서비스 재검토

개관시간이나 리퀘스트, 행사, 아동서비스, 장애인 서비스 등 서비스 내용을 재검토하고 개관시간 연장, 이야기회 등 각 도서관 서비스를 충실히 하였다.

(11) 관리운영 형태의 사고방식

도서관의 관리 운영 형태로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접 운영 외에 평성15년 9월에 도입된 지정 관리자 제도에 의해 민간 사업자를 포함한 법인, 그 외의 단체에 의한 관리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 중에 최근 도서관의 관리 운영에 지정 관리자 제도를 도입하는 지방공공단체도 일부 보인다. 도입 시에 지정관리자가 맡은 업무의 범위, 기간, 체제 등은 각각의 지역 실정에 따라 다르다. 한편, 도서관의 관리운영에 지정관리자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지방공공단체도 있다.

도서관 관리 운영 형태를 검토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그 내용으로는 도서관의 설치 목적에 비추어서 도서관 서비스 목표와 달성도를 어떻게 설정할지, 어떠한 내용.계획으로 실시할지, 어떤 방법으로 서비스 질과 양을 확보한 수준의 유지를 도모할지, 어떻게 자료를 계획적.장기적인 수집을 할지, 운영비용의 효율성과 운영의 중립성.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관계기관 등과의 연계.지원체제를 어떻게 확보할지, 주민이나 지역의 정보수집.제공 체제를 어떻게 정비할지, 운영에 대한 책임 소재는 명확한지 여부, 전문적인 직원을 어떻게 확보할지, 이외에 전문적인 지식.기술을 계속적으로 축적하기 위한 대처방안, 직원 연수 및 계획적인 인재 양성 실시, 설치자와 주민에 의한 점검.평가 실시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 어떤 관리운영형태가 해당지역의 실정에 비추어서 당해 도서관의 설치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 각 지방공공단체가 스스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국가, 도도부현의 역할

(1) 도도부현의 역할

도도부현 교육위원회는 본 제언에서 제시하는 도서관의 새로운 본질을 실현하기 위해 도도부현의 도서관 정책의 지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해 주체적으로 선도하는 것이 요망된다.

도도부현립도서관은 조사·연구기능을 활용하고 시정촌립도서관이나 지역의 대학과 연계 협력하여 도서관의 새로운 서비스나 서비스 평가 방법의 조사·연구개발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시정촌 도서관 지원이나 공립도서관 간과 관중이 다른 도서관간에 연계의 중심이 되는 점, 지역내 도서관 직원의 연수 프로그램 개발·실시 등에 힘써야 할 것이다.

(2) 국가의 역할

국가는 선진 사례 수집·정보제공이나 모델사업 실시와 성과 보급, 도서관 본질 제시 등을 하여야 한다.

문부과학성은 관중을 초월하여 도서관 연계협력을 넓히는 것을 근간으로 공립도서관,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담당부국간의 연락을 조정하고 관중을 초월한 연계협력을 촉진하며 관중을 뛰어넘는 종합적인 도서관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서 독서, 정보 활용, 도서관 이용에 관한 조사나 국민이 도서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조사하는 일, 정부의 다양한 전략적 시책 중에 도서관이 자리잡도록 각 성청에 조치를 취하는 일 등으로 일본 도서관 전체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한다.

(3) 국립국회도서관의 역할

국립국회도서관은 전국 도서관과의 연계·협력을 임무의 하나로 삼고 있다.

현재 국립국회도서관은 도서관 서비스로서 자료 대출, 복사, 우송이나 전자 메일 등으로 레퍼런스 서비스를 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도서관 서비스의 정보원이 되는 1차 정보, 2차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다. 도서관 협력

사업으로는 국립국회도서관 종합목록 네트워크 사업, 레퍼런스 협동 데이터베이스 사업, 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 및 도서관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실시 외에 공립도서관과의 인사교류등도 하고 있다.

또한 지부도서관인 국제어린이도서관은 국내외 관계기관과 연계.협력하여 아동서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연구를 지원하는 국가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며 어린이가 책과 도서관을 가까이 하는 계기를 부여하기 위해 각종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국립국회도서관에서는 이러한 대처와 역할의 충실을 도모하면서 공립도서관과의 연계를 한층 촉진하도록 대처방안의 주지.보급, 이용의 편리성 향상에 한층 노력하는 것 등이 요망된다.

이 자료는 2006년 5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중국 국가도서관에서 개최한 제10차 한·중 국립도서관 업무교류의 기초연설과 『국가지식정보 정책지원을 위한 활성화 방안』과 『고객만족 도서관 경영을 위한 이용자 서비스』를 공통 주제로 발표한 내용을 수록한 것이다.

기 조 연 설

2006년도 국립중앙도서관의 정책방향과 중점사업

강 창 석*

한국과 중국 국가도서관간의 업무교류가 올해로 10회째를 맞았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오랜 기간동안 양국 도서관간의 한결같은 우정에 깊이 감사하고, 금번 중국을 방문한 우리 대표단을 따뜻하게 환영해주신 관장님 이하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업무교류를 직접 주관하시는 천리 부관장님을 비롯하여 함께 하신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우리 일행 모두가 소중한 인연으로 간직하겠습니다. 작년에 장야광 부관장님을 비롯한 중국의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하셔서 “도서관 환경변화에 따른 법제 정비 방향”과 “중국국가도서관 업무에서의 제도마련에 관한 문제”를 발표해 주셔서 양국 도서관 간에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금년에도 이곳 북경에서 “국가지식정보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와 “고객만족을 위한 도서관 이용서비스 향상”을 주제로 업무 교류를 진행하게 되어 기대가 큼니다.

우리도서관은 2005년에 개관 60년을 맞아 “국립중앙도서관 2010”이라는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여 지력강국을 위한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올해가

*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장

그 원년으로 각종 정책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 추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개관 등 중요한 과제들을 수행해나가기 위하여 우리 도서관 전 직원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특히 세계 도서관인들의 축제인 세계도서관정보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며 도서관이 지식정보사회의 역동적 엔진이라는 메시지를 공유하기 위해 8월이면 전 세계 도서관인들이 서울로 발걸음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1996년 이곳 북경에서 대회가 열렸을 때 참가했던 한국의 도서관인들이 대회 기간동안 중국 도서관인들의 역동적인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도 한국을 찾는 세계 도서관인들에게 우정과 감동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더불어 그 때 또 한번 우리의 만남을 기대합니다.

한국과 중국의 국립도서관이 비슷한 시기에 디지털도서관 건립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보다 한해 앞서 200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디지털도서관 건립사업은 여러모로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디지털도서관의 모습은 국내외에 산재된 고품질의 디지털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가 자유롭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지식정보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아시아의 정보 게이트웨이로서 중국과 한국이 동반자로 발전하기 위해 앞으로 많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은 금년 6월말 경에 국립어린이청소년 도서관이 개관 준비를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공공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립기관으로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독서진흥정책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국내외 어린이·청소년 분야의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어린이·청소년 전문 연구 도서관, 정책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국립중앙도서관은 지식정보화사회를 위한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을 위해 RFID를 기반으로 하는 도서관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고 디지털 콘텐츠 확충, 국제간 자료교류 확대, 국가 지식정보정책 지원을 위한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 고객만족을 위한 도서관 이용서비스 향상 등 주요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

정보서비스 활성화와 이용서비스 향상 방안 등에 대해서는 뒤이어 주제발표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가 될 것이고 중국 측의 선진화된 정책정보 서비스 방안과 노하우를 습득하여 향후 우리 도서관 정책에 반영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8월에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 중국의 많은 도서관인들이 동참하여 화합과 협력을 위한 축제의 장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부락을 드리고, 오늘의 업무교류가 또 한 차례 10년을 예고하는 새로운 좌표를 제시하는 의미 있는 협력의 장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중국과 한국 국가도서관의 영원한 우정을 기원합니다.

주 제 발 표

고객만족을 위한 도서관 이용서비스 향상

여 위 숙*

목 자

- I. 머리말
- II. 고객만족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현황
- III. 주제전문사서제도 운영
- IV. 고객만족 도서관 운영을 위한 TF 운영
- V. 맺음말

I. 머리말

지식정보사회의 이용자들은 온라인, 오프라인 상의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고품질의 정보를 획득하기를 원한다. 도서관은 온라인 정보 제공자들과 끊임없는 경쟁을 하고 있으며, 도서관 이용자의 새로운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고객 만족의 서비스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고객만족을 위한 이용서비스 향상 방안으로 개인별로 전문화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제전문사서제도 운영, 편리하고 신속한 정보서비스를 위한 최첨단 정보기술의 적용, 이용자로부터 적극적 의견수렴을 통한 도서관 경영 및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이용자위원회 운영 등 고객만족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 전략들을 추진하고 있다.

* 국립중앙도서관 정보화담당관

II. 고객만족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현황

1. RFID를 기반으로 한 도서관 이용증 제도 실시

국립중앙도서관은 2004년 첨단무선기술인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적용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관리, 관내 대출/반납 및 열람, 이용자관리 등 업무 및 이용서비스 전반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5년까지 각 자료실에 RFID장비를 설치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단계를 거쳐 12월 1일부터는 이용증 제도를 전면 실시하고 있다.

RFID를 적용한 이용증 제도의 실시로 인해 이용자는 편리하게 무인자가대출/반납이 가능케 되었고 MIS분석을 통해 1:1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디지털자료실 인터넷 예약서비스 운영

국립중앙도서관 5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자료실은 비도서자료, 웹DB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특히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내 주요 도서관이 구축한 디지털 콘텐츠(원문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최첨단의 컴퓨터 기기와 각종 디지털정보원을 이용할 수 있어서 국립중앙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장소중의 하나로 하루 평균 600여명이 이용하고 있어 항상 좌석이 부족하다.

디지털자료실 내의 컴퓨터 및 각종 기기를 이용하기 위하여 기다려야 하는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은 예약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이 시스템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예약이 가능하다.

3. 야간도서관 서비스 실시

주간에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용자를 위하여 야간에 도서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도서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야간도서관 서비스를 원하는 이용자는 인터넷·전화·팩스를 통하여 원하는 자료를 예약 신청한 후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도서관 1층 정보봉사실에서 예약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이용자위원회 운영

고객의 의견을 반영한 고객지향적 서비스를 지향하여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고 도서관과 이용자간의 소통을 활성화하며 이용자중심의 서비스체제 구축을 위해 2005년 말에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위원회를 구성하고 매월 1회씩 회의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위원들의 의견 수렴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고 있다.

Ⅲ. 주제전문사서제도 운영

정보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이용자 개개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과 평가가 확대됨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에서의 도서관은 더욱더 전문화 다양화된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지식정보의 폭발적인 증가는 정보의 단순한 수집과 정리차원을 넘어 주제별 배경지식을 비롯한 전문검색과 자료의 분석 및 평가 등 주제 전문가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양한 지식정보서비스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여 이용자별 정보요구와 정보이용 행태에 대한 조사기능을 강화하고, 대국민 직접 봉사 영역으로부터 정책적, 전문적 정보서비스 영역으로 그 지평을 확대하고자 주제전문사서 제도를 도입하여 주제별 정보서비스 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추진 배경 및 경과

지난 2003년 국립중앙도서관은 지식정보사회에서 국민의 다양한 정보 욕구에 부응하는 고품질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제전문사서 제도의 도입을 결정하고, 2004년 31개 주제에 대한 직원 개인별 희망 주제 분야를 조사하였다. 그에 이어 2004년 11월에는 기존의 열람봉사과를 주제정보서비스 중심의 주제정보과로 직제 개편하고, 주제전문사서교육 초급과정 이수자를 중심으로 20명의 사서들을 주제별 자료실에 배치하였다. 2005년에는 주제정보서비스 중심의 주제별 자료실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주제전문사서 지원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ID카드제 운영을 통해 이용자 데이터베이스 관리환경을 마련하였다. 2006년 1월에는 주제전문사서 운영 TF가 구성되어 그 동안의 주제전문사서 시범운영 단계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향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고 기존 31개 주제 분류를 재검토하여 순수 학문분야로 분류한 16개의 주제를 새롭게 제안하였다.

2. 주제전문사서의 지원정보관리시스템

주제전문사서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에 따라 자료실의 업무는 질적·양적으로 많은 변화를 맞이하였다. 주제전문사서들은 소장자료 관리와 열람서비스에 치중하던 기존의 업무를 한 차원 높여 담당 주제분야의 국내외 출판 연구동향 분석, 전문주제 장서개발, 주제별 맞춤정보서비스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전문적 주제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주제전문사서의 고도의 전문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정보관리 시스템을 웹 기반으로 구축하였다. 이 시스템은 주제전문사서 업무 통합 관리, 주제별 홈페이지 운영, 디지털참고서비스, 온라인정보원 제공, 학술DB 및 사서추천자료 소개, 맞춤정보서비스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2006년 1월에는 국내 협력형 디지털참고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정보서비스 표준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팀을 구성하여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 연구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3. 주제전문사서 교육

지난 2004년 10월 주제전문사서의 육성을 위한 주제전문사서 교육 초급과정을 신설하고, 총35시간의 강의 및 분임토의, 워크숍 등을 통해 32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2005년 3월에는 교육 대상자를 전국 도서관 직원으로 확대하여 초급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생의 희망 주제별로 인문·사회·자연과학 중에서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교육내용은 각 주제 분야의 기초 이해 및 정보원 연구로 학문분야별 기초 지식과 개념 파악, 국내외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및 정보검색기법 터득, 이용자 연구, 관련 소장자료 연구 등이었다. 초급과정에 이어 2005년 9월에는 주제전문사서교육 중급과정을 개설하였다. 중급 교육과정은 주제별 학문 기능에 대한 프로파일 작성, 주제서지 및 사회적 현안서지 작성, 주제별 정보원 조사 연구 등의 직무전문 과목과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기법 등 소양 과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4. 향후 운영 계획

주제전문사서 제도의 시범운영 단계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수립을 위하여 2006년 주제전문사서운영TF가 구성되었으며, 심도 깊은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하여 주제분야를 기존 31개에서 16개 주제로 변경하였으며, 단계별 주제분야 확대와 주제전문사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단계별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다. 2005년의 주제전문사서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2단계(2006~2007)에서는 인사관리 등의 제도적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교육을 통한 내부역량 강화, 주제전문사서 정립을 위한 선행 과제 확립, 주제전문사서 직무 기술서 작성, 협의회 운영을 통한 협력망 모색, 이용자관리정보시스템 구축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계획하고 있다. 마지막 3단계(2008~2010)에서는 주제전문사서의 양적·질적 확대와 제도의 정착으로 전문화된 주제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제별 협의회 및 주제게이트웨이 운영 확대, 협력 채널의 다각화를 모색하며,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주제전문사서 육성 프로그램 개발을 실시할 계획이다.

IV. 고객만족 도서관 운영을 위한 TF 운영

우리도서관에서는 2005년 고객만족 도서관 경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06년에 주제전문사서TF를 포함하여 총 6개 분야의 혁신TF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고객만족 이용자 서비스를 실천을 위해 활동 중이다.

1. 도서관경영정보시스템(MIS)발전 TF
: RFID기반의 도서관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고객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MIS시스템을 연구하여 장애요인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시스템에 반영함으로써 이용자를 중심에 둔 도서관 경영합리화 도모
2. 주제전문사서TF
: 주제전문사서 업무의 코디네이팅과 도서관 내외 주제전문사서간의 워크숍, 교육프로그램 제안 등 주제전문사서 역량 강화
3. 이용자중심의 공공도서관 협력 TF
: 도서관협력 담당자간의 정보 공유, 공공도서관 지원 및 협력기능의 내실화로 이용자 중심의 공공도서관 정책을 확립하고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
4. 도서관 고객만족도 진단 TF
: 고객의 만족도 측정 및 평가를 위해 상시적으로 이용자들의 도서관 이용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수시 적용이 가능한 고객만족 방안 도출
5. 국립중앙도서관 알리미 TF
: 도서관의 각종 정책사업, 행사 등을 민간 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홍보강화 전략으로 열린도서관의 이미지 제고

6. 도서관서비스 향상 TF

: 도서관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혁신 마인드와 창의적인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강좌 개설 및 토론회를 주관함으로써 고객만족 경영 실천의 노하우 축적

국립중앙도서관이 고객을 중심에 두고 발전지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 및 비전 제시가 필요한 분야를 선별하여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TF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수시로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도서관 이용자 서비스 향상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V. 맺음말

국립중앙도서관은 전국민이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하고 신속하게 정보서비스를 획득할 수 있는 정보이용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서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수많은 정보 속에서 도서관의 이용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고도화된 정보서비스를 위하여 주제전문사서 제도 운영, 최첨단 정보기술인 RFID와 각종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도서관이용자가 만족에서 더 나아가 감동의 순간이 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며, 국립중앙도서관의 고객감동을 위한 힘찬 발걸음은 이미 시작되었다.

주 제 발 표

국가지식 정책정보 지원 활성화 방안 - 국립중앙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사례 중심 -

윤 경 훈*

■ 목 자 ■

- I. 서 론
- II. 국립중앙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현황
 - 1. 정책정보서비스 기반 구축
 - 2. 정책정보서비스 추진 현황
- III. 결 론

I. 서 론

정부는 정보(Government is Information)라고 정의하였던 할란 클리블랜드는 정부에서 일하는 공직자는 정보근로자이며 그들이 사용하는 일의 재료와 산출물은 모두 정보라고 하였다. 따라서 한 나라의 정보정책은 그 나라의 핵심정책으로 국가경쟁력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써 의미 있는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IT와 인터넷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발달은 정보 제공에 있어 정보정책을 실현해 가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차원의 문헌정보기관으로서 국민들에게 정책정보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체제로 전환하고자 2004년 11월에 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정책자료과 사서주사 (oh7722@nl.go.kr)

조직을 개편하여 이 업무를 담당할 정책자료과를 신설하였다. 이를 계기로 국가의 재정 지원으로 생산되는 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책입안자들의 정책 활동을 보좌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정보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은 정부기관 자료실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정책정보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정부간행물 등 신뢰할 수 있고 활용가치가 높은 정책정보 자료를 안정적으로 수집함으로써 이렇게 수집한 자료들을 공직자, 정책입안자, 연구원, 일반 국민들에게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정책 정보서비스는 정부 각 부처의 전략적 목표에 맞추어 정책실무자의 효율적 정책수립에 있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활용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 지식 정책정보서비스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주축이 되어 정부부처자료실과 함께 운영 측면에서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본 논문은 정책정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정책정보서비스의 구축과 관련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추진하고 있는 현황과 향후 국가정보센터로서의 정책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관한 추진 계획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II. 국립중앙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현황

1. 정책정보서비스 기반 구축

가. 정책정보 지원업무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국립중앙도서관과 정부기관자료실 간의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2005년 9월부터 일부 기관 대상으로 실시해 온 정책정보서비스 시범 실시 기간을 마치고 2006년 4월부터 전체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정책정보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 23개 부처의 자료실 담당사서와 관내 직원과 함께 총 2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정책정보 지원업무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협의회에서는 정책정보서비스 운영 방안에 관한 논의와 『정책정보서비스』 홈페이지 운영 및 정부자료실간의 협력망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해 연 4회 이상의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여기서 나온 회의결과는 정책정보서비스 추진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나. 정책정보자료 기관대출제도 개선

국립중앙도서관은 정부부처 직원들이 정책 활동에 필요한 우리도서관 소장 자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대출제도를 개선하였다.

개선내용으로는 대출자료 범위를 국내자료인 경우 복본자료로 대출하며, 복본자료가 없는 외국자료의 경우는 원본자료로 대출하기로 하였다.

대출 책수 및 기한은 1회 5책(점)을 10책으로 확대하였고, 대출기한은 10일로 하였으며,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 정부 부처담당관제 운영

정책정보의 근간이 되는 정부간행물을 안정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직원들의 전공과 관심 주제 분야를 고려하여 총8명으로 부처담당관제도를 운영한 결과, 전담사서들이 정부 부처자료실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각 부처에서 발행되는 정부간행물을 분야별로 파악·수집하여 작년대비 3,000책 이상의 수집 증가 효과가 있었다.

2. 정책정보서비스 추진 현황

가. 정책정보 서비스 내용

1) 상용 DB 무료 제공

2005년도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구입한 전 세계 규격정보, 해외일간신문, 국방 분야 등의 상용DB를 정부 공직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정부자료실에 지원하기 위하여 각 부처별로 구독을 희망하는 상용DB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한 후 이 중에서 제공이 가능한 상용DB를 구입하여 정부 부처자료실에 지원하였다. 현재 각 부처 자료실에 제공되는 상용DB는 10종에 달한다.

2) 국립중앙도서관 구축 소장자료 원문DB 제공 확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구축한 소장자료 원문DB 약 32만책(건)을 정부 23개 부처자료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금년 말까지 중앙정부·처·청 단위기관까지 지원하고 향후 지방자치단체 등 전 국가기관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자료실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3) 기관대출제도 확대 실시

국립중앙도서관 기관대출 규정에 의한 문헌제공서비스로 정책 활동 입안자 및 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우리도서관 소장자료에 대하여 적극 활용 하도록 대상범위를 정부·처·청 단위기관은 물론 비영리법인 연구기관까지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현재 매주 2~3 건 기관대출이 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자료의 대출이 가능하나, 국가대표도서관의 국가문헌 보존과 관리상 다음에 열거한 자료는 대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대출예외자료 -

1. 귀중자료와 고서
2. 특수자료
3. 법령집, 회의록 및 가제식자료, 신문자료
4. 연속간행물과 참고도서
5. 개인문고
6. 마이크로형태의 자료
7. 훼손되었거나 열람빈도가 높은 자료
8. 기타 보존 또는 관리상 특별한 취급을 필요로 하여 대출하기에 부적당한 자료로서 자료 관리부서의 장이 지정한 자료

4) 정부 부처별 비치희망 외국도서 신청제도

정부 기관에서 업무수행에 참고할 외국자료가 있을 경우 국립중앙도서관홈페이지 (<http://www.nl.go.kr>)에 비치희망도서 신청코너를 마련하여 수시로 신간자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신청 후 홈페이지에서 자료수집이 확인되면 기관대출을 통하여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5)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원문복사서비스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에서 제공되지 않는 2000년 9월 이전 관보의 원문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에 대하여 정부 부처 및 연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복사·전송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6) 국제기구 기탁자료 목록 제공

국립중앙도서관은 UN, FAO, IFAD, ILO, WMO, OECD, ADB, ICAO 등 국제기구에서 발간되는 자료를 기탁받아 주제별로 목록을 작성하여 유관기관 및 일반국민의 조사·연구활동에 제공하고 있다.

7) 공직자 대상 맞춤정보 서비스(SDI)

정부 부처별 공직자 정보파일을 구축하여 공직자가 신청한 관심분야에 대한 소식과 신규로 입수되는 정책분야 자료의 목록·목차·원문 등 다양한 매체의 정보원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8) 정부부처 자료실 사서대상 워크숍 및 대회 개최

정책정보서비스에 관한 주제로 관련 교수 및 사서들을 초빙하여 주제발표, 사례발표, 종합토론 형식의 세미나 개최를 통하여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가능한 일부터 계획을 세워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1년에 1회 정도는 정부·처·청 단위기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등 연구기관 자료실 사서 대상으로 대규모 대회를 개최하여 정부부처자료실 사서 중심으로 협력망을 구성함으로써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9) 국비 국외 훈련

정부 부처자료실 담당사서 대상으로 정책정보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선진국의 운영실태를 연구·조사하기 위한 팀제 훈련으로 1~2개월 기간동안에 훈련기관에서 브리핑 청취, 토론, 자료수집 및 세미나 참석, 첨단시설 현장 방문 등의 훈련을 통하여 정책정보서비스 운영에 있어 최선의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나. 「정책정보서비스」 홈페이지 운영(<http://www.nl.go.kr/policy/index.php>)

정부부처 및 기관 공직자의 정책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2006. 1. 2부터 「정책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다음과 같이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1) 정책정보서비스 홈페이지 소개

○ 접근방법

- 「정책정보서비스」 홈페이지로 직접 접근
-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정책정보서비스」로 접근
- 정부간행물실, 동북아자료실에서 「정책정보서비스」로 접근

○ 홈페이지 기본 메뉴

- 정책정보서비스 소개 : 정책정보서비스 개념 설명
- 정책자료 소개
 - 정부간행물, 동북아자료, 해외영인자료, 국제기구 기탁자료 등 정책자료 별 설명
- 정책정보 DB 소개
 - 정부기관 DB : 정부기관 생산 DB 소개 및 링크
 - 학술 DB : 우리도서관 구입 학술 DB 소개 및 링크
 - OASIS : 우리도서관에서 구축한 온라인수집시스템 검색화면으로 링크

○ 정책자료 신간안내

-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발간한 신간자료 소개

- 표지이미지, 서지사항, 내용, 목차정보 등
- 정책포커스
 - 정부 주요정책 및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주요현안을 선정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목록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 최신동향 서비스
 - 정부부처별 최신 뉴스사이트로 링크
- 디지털참고서비스 : 공직자 대상 질의답변 서비스
 - 정책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관심 연구주제에 관하여 웹폼을 통해 질문을 하면 부처담당사서가 E-mail을 통하여 답변을 제공하는 디지털참고서비스 공간
- 공지사향
 - 정책정보서비스 또는 정부부처 자료실의 공지사향, 뉴스를 소개하는 공간
- 정부기관자료실
 - 정부 및 기관 자료실 소개 및 링크
- 관련사이트
 - 정부기관, 동북아관련기관, 정책관련연구기관, 국제기구, 해외한국학관련기관 등 관련사이트 링크
- 자료찾기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검색화면으로 링크



다. 『정책정보&뉴스』 발간

2006년 2월부터는 웹진 형식의 『정책정보&뉴스』를 반월간으로 발간하여 공직자 중심으로 이메일서비스를 하고 있다. 『정책정보&뉴스』는 정책 활동을 수행하는 공직자와 정부 정책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에게 정부부처 및 기관의 최신동향, 정책정보서비스 안내, 정책포커스 및 정책자료 신간안내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소식지이다. 이를 국립중앙도서관 메인 홈페이지와 정책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사서들의 정보 공유의 공간인 ‘도서관메일링리스트’에 발간사항을 홍보하고 있다. 또한 개별적으로 수신을 원하는 희망자에게 메일발송을 하고 있다.

III. 결 론

정책정보서비스는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대국민서비스 기능에 있어 전에 없었던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안겨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IT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하여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정책정보제공 웹 사이트는 기술적으로 상당한 수준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용 측면에서 본 정부 부처 사이트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이용자 측면이 아닌 부처 위주로 구축되어 있고 민원서비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정부 부처에서 발간하는 정책정보에 대한 검색 및 원문을 제공하는 웹 사이트는 많지 않다.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가 선진국과 같은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산재한 1차정보, 뉴스정보, 각종 분석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오늘날 사회는 전문화되고 다양화되어 개별 도서관만으로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정보요구를 다 수용할 수가 없다.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각 부처별 도서관의 경험과 정보력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가 문헌정보 수집 및 축적 제공기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이 각 부처 도서관과 함께 정책정보 포털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립대표도서관으로서의 위치를 이용하여 정부

의 정책기획 자료와 관련하여 각종 정책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DB화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적시·적기에 제공 서비스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가지식 정보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해야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은 정책정보서비스의 추진과제로 3가지에 역점을 두고 있다. 첫째, 국가 정책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이용자가 요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이용자의 요구를 체감하고 이용자를 가장 가까이 대면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스템으로 개발하고 그것을 서비스하는 것으로써 사용자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온라인 콘텐츠 생산 및 유통에 대한 조사·연구·분석, 틈새공략 전략으로서의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의 서비스까지도 노력하면서 국가 전체적인 정보의 정확성 및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서를 확산하는 데도 일조해야 한다.

기 조 연 설

네트워크 환경에서 중국국가도서관의 자원 구축, 저장, 서비스

천 리(陳力)*

一, ‘국가도서관 2기공정 및 국가 디지털도서관 공정’을 계기로 디지털 서비스와 전통 서비스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네트워크 서비스를 강화한다.

1. 우리 도서관의 ≪ ‘11차5개년’ (11.5) 계획 개요≫에서 서비스 정의

≪국가도서관 ‘11.5’ 계획 개요≫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도서관의 ‘서비스 모델은 실체형 문헌 제공 위주에서 실체형 문헌과 디지털 문헌 병행 제공으로 전환한다; 일반적인 문헌 대출 서비스에서 심층적이며 차별화된 서비스를 추진한다. 서비스 내용은 단일 형식의 자료 제공에서 종합적 형태의 자료 제공으로 전환한다. 서비스 수단은 도서관의 직접적인 문헌 대출 서비스와 원격, 네트워크화한 문헌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병행한다. 자문 참고 업무를 강화하고 사이버 참고 자문 서비스를 추진한다. 문헌 제공 업무를 강화하고 문헌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이런 서비스 정의는 이용자 수요 변화를 고려한 것이다.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실체형 문헌이나 디지털 문헌 모

* 중국국가도서관 부관장

두 이용자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병행해야지 어떤 한가지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이용자 수요의 다원화는 문헌 정보 자체의 다원화를 결정했으며, 문헌 정보의 다원화는 서비스 다원화 실현을 근거로 한다.

2. ≪ ‘11.5’ 기획 개요 ≫의 업무 목표 달성은 국가디지털 도서관 건립이 좌우

먼저 ‘디지털도서관’ 과 ‘전통도서관’ 의 관계를 분명하게 해야 하며, 두 번째는 그것을 바탕으로 디지털도서관 자원을 어떻게 구축할지 분명히 해야 한다.

1) ‘디지털도서관’과 ‘전통도서관’

우리는 ‘디지털도서관’ 은 도서관이 디지털시대로 발전했다는 일종의 칭호이며, ‘전통도서관’ 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한다. 자료 구축, 서비스 방식 등 많은 부분에서 ‘전통도서관’ 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사회 속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디지털도서관’ 은 이용자에게 평등하고 공익적이며 비영리의 문헌 정보를 제공한다.

문헌 정보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보면, ‘디지털도서관’ 은 개방된 형식으로 방대한 문헌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무한한 포용성을 가졌으며, 자료를 스스로 구축하거나 함께 구축해 공유할 수 있고 구매 등의 방식으로 다른 문헌을 소장한 기구, 상업적 DB, 심지어 명확하게 소장한 기관이 없는 자유 정보(예: 인터넷상의 대량의 자유 정보)를 서비스 시스템에 넣을 수 있다.

‘디지털도서관’ 자체의 기술, 관리, 서비스 모델도 끊임없이 증가하고 변하는 이용자의 정보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계속 바뀌고 있다. 우리는 ‘포스트 디지털도서관’ 시대를 맞이할 것이며, 오늘의 ‘디지털도서관’ 이 바로 내일의 ‘전통도서관’ 이다.

2) 이용자 수요와 디지털도서관의 자원 구축

이용자 수요라는 각도에서 볼 때, 인류의 경험과 지식은 복잡한 체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디지털화된 자원이라고 해도 인류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반영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디지털화된 문헌이 종이 문헌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으며 디지털도서관의 자원 구축을 디지털 자원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화된 문헌은 몇 천 년 동안의 인류 문명사에 누적된 모든 정보를 담을 수 없다. 둘째, 우리 역시 디지털 수단으로 종이 문헌에 포함된 모든 정보를 이식할 필요성이 없다. 셋째, 앞으로도 비디지털 문헌이 계속해서 인류에게 중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넷째, 우리는 아직까지 디지털 자료를 장기간 보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디지털도서관의 자원 구축을 디지털화 자원 구축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 디지털화하지 않은 자원에까지 시야를 넓혀서 소장 자료의 디지털화와 사회 디지털화 자원의 소장화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뿐 아니라 디지털화하지 않은 자원을 디지털도서관 자료 시스템에 포함시키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비디지털 자원을 디지털도서관의 자원 시스템에 포함시키는 것은 100% 가능하다. 디지털도서관의 복잡하고 다양한 유형, 다양한 차원의 자원 가공, 조직, 서비스 체계에서 비디지털 자원은 그 중의 한 자원 유형인 것이다. 일정한 데이터 정리와 교환 규칙에 부합하기만 하면 비디지털 자원과 디지털 문헌을 비롯한 서로 다른 유형의 자원을 종합해 통일성 있는 유형별 자료와 서비스 시스템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용자가 컴퓨터를 통해 정보를 검색할 때, 완전히 디지털화된 문헌을 검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직 디지털화가 되지 않은 문헌도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수요와 실제 상황에 근거한 여러 형식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 디지털도서관 자원 구축과 서비스 기본 인식의 귀납

1) 디지털도서관은 완전히 디지털화된 자원을 보유한다.

디지털 자원, 즉 우리 도서관이 자체 구축하거나 다른 경로로 확보한 디지털 자원(구매와 차용 포함); 소장하지 않은 디지털 자원, 즉 인터넷 및 관련 공유 협의를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자원.

2) 디지털도서관의 자원은 비디지털 자원도 포함한다.

자원 구축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도서관 기존의 종이 문헌 및 기타 문헌을 디지털화하는 것이다(비교적 중요하거나 자주 사용하는 문헌을 우선 디지털화한다). 일정한 형식의 디지털화 처리를 거쳐 디지털 수단으로 관리한다.

3) 디지털도서관의 자원 구축은 다원적이고 서비스 형식도 다원적이지만,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환경은 일체적이다.

디지털 문헌 정보이든 비디지털 문헌 정보든 모든 문헌 정보 서비스는 공동의 가공, 조직 규범과 기준에 따라야 하며, 이를 통해 여러 형태, 여러 유형의 문헌이 통합되고 통일된 서비스 환경에서 구축될 수 있도록 한다.

4. 국가디지털도서관의 정의와 자원 구축

디지털도서관은 지역을 초월해 많은 도서관과 기구가 협력해 건립한 네트워크 자원 구축과 서비스 시스템이다.

1) 국가디지털도서관의 정의

국가디지털도서관의 건립은 현재의 국가도서관 외에 별도의 문헌 정보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도서관의 자원과 서비스를 그대로 계승, 발전시키고 현대적인 관리방식과 서비스 철학, 현대적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국가도서관의 각종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2) 국가디지털도서관 자원 구축의 원칙

(1) 국가디지털도서관 자원 구축은 공익을 위한 것

국가디지털도서관의 자원 구축은 사람들의 공평한 정보 획득 권리를 만족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운영 면에서 국가디지털도서관은 국가도서관이 주축이 되어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도서관의 특징과 임무에 근거해 자원 구축 중점을 확정하고 자원을 구축해야 한다. 내용이 풍부하고 사용이 편리하며 여러 층의 이용자에게 서비스하는 환경을 구현하는 것은 국가디지털도서관의 기본 목표이며 국가디지털도서관의 자원 구축은 이 목표를 주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2) 국가디지털도서관의 자원 유형은 다원적

국가디지털도서관의 자원 구축은 디지털화된 자원 및 디지털 방식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비디지털 자원을 포함한다. 즉 국가디지털도서관은 디지털 기술을 수단으로 하고 각종 디지털, 비디지털 문헌 정보를 포함하는 문헌 정보 서비스 시스템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디지털도서관의 자원 구축은 각종 디지털 자원 수집과 비디지털 소장 문헌의 디지털화에만 집중되어서는 안 되며 효과적인 방법으로 비디지털 문헌을 디지털도서관의 자원과 서비스 시스템에 편입시켜야 한다. 국가디지털도서관의 자원 구축에서 ‘디지털’의 의미는 디지털 수단으로 문헌 정보의 내용을 고효율, 고품질로 제공하는 것 또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지식 서비스’ 하는 것이지 문헌 정보의 물리적 표현 형태가 아니다.

(3) 국가디지털도서관의 자원 다원화

국가디지털도서관의 자원 구축은 지적재산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개방, 협력의 이념에 따라 기준, 규범, 협력을 통해 여러 가지 문헌 정보를 자체 구축, 구입, 협력, 공동구축 및 공유 등의 루트로 확보해 국가디지털도서관의 자원 구축과 서비스 시스템에 편입시키는 것이다; 그 밖에 국가디지털도서관의 자원은 전체 디지털도서관 네트워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3) 향후 5년간의 업무 내용

(1) 디지털도서관 건립

문헌디지털가공센터, 디지털자원가공센터, 디지털자원저장관리센터, 네트워크관리센터, 디지털자원서비스센터, 시스템개발정비센터, 발전연구센터와 전시육성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튼튼한 소프트, 하드웨어 지원환경을 구축하고 신기술을 도입하며 방대한 디지털 자원을 수집, 가공, 보존, 관리, 서비스하는 기술지원 플랫폼을 구현할 것이다. 다른 디지털도서관 시스템과 상호 연결해 정보 공유를 추진해서 전국 디지털도서관 시스템의 공동 건설 및 공유를 위한 기반을 다진다. ‘건립을 하며 서비스 한다’는 생각에 따라 디지털도서관 서비스 포털 사이트를 개설할 계획이며, 지적재산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행 가능성 있는 방법을 연구해 각 계층의 이용자가 여러 통로를 통해 최대한의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디지털도서관 기준과 규범 체계를 만들어 디지털도서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것이다.

(2) 네트워크 서비스

국가도서관 네트워크 참고 자문 서비스, 도서관 내 무선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 종합 정보 서비스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디지털 자원 발표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해 자원의 이용률을 높일 예정이다; 네트워크 자원의 장기 보존 항목 중 디지털간행물, 정부 사이트 온라인 서비스를 전개할 계획이다; 자원 사용권한 관리 시스템, 데이터 방송 시스템, 원스톱 서비스 등 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착수할 것이다; 특색 있는 소장 자원 디지털화 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광역통신망 이용자에게 대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전자도서를 구입할 예정이며 국가도서 사이트를 재정비할 것이다.

二, 문헌 정보 수집과 보존 업무를 강화하고, 고품질의 국가 문헌 정보 보존 기반을 다져 내용이 풍부하며 다양하고 특색 있는 문헌 정보 체계를 갖춘다

1. 우리 도서관 《‘11.5’ 기획 개요》의 문헌 정보 보존 계획

《국가도서관 ‘11.5’ 기획 개요》에 따르면, 우리 도서관은 ‘소장 문헌 보존과 보호를 더욱 철저히 하고 문헌 보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문헌 복원 속도를 가속화하고 복원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귀중하며 특색 있는 소장 자료는 마이크로필름 제작이나 디지털화 등 재생성 보호 작업을 강화한다; 각 유형별 디지털 정보의 분석 연구와 전략적 보존 작업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향후 5년 동안 우리 도서관은 소장 문헌 보존과 보호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문헌 보존 환경을 개선할 것이다. 중문보통고서고, 기본소장서고, 신문자료실 등을 개보수 할 계획이다; 전자자원과 음향자료 보존실을 건립하고 선진적인 서고 환경 제어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문헌 복원에 박차를 가해 문헌 복원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민국 문헌 및 기타 훼손이 심한 문헌의 보호 작업을 하고 귀중하고 특색 있는 소장 자료는 마이크로필름 제작이나 디지털화 등 재생성 보호 작업을 강화할 것이다; 유형별 디지털 정보의 분석 및 연구와 전략적 보존 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2006년 우리 도서관은 도서관에 들어오는 문헌 구조를 조정할 계획이며, Aleph500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디지털 자원 포털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서비스 및 관련 작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2. 전자자료 수집과 보존은 ≪ ‘11.5’ 기획 개요≫ 문헌 보존 계획 실천의 핵심

문헌 정보는 국가도서관의 근본이며 서비스 제공의 기초이기 때문에 문헌 정보 보존 작업을 강화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다. 지금 인쇄 문헌, 시청각 문헌, 마이크로필름 문헌, 전자자원이 공존하고 있는 이러한 형태는 이미 우리 도서관의 다원화 자원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

전통 문헌의 보존에 관해서는 우리 도서관이 이미 성공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강조할 것은 이용자의 수요 때문이건 우리 도서관이 현대 서관의 형태로 변화된 것이건 전자자료의 수집과 보존은 이미 우리 도서관 문헌 수집과 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는 점이다. 전자 정보의 수집과 보존 작업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도서관 문헌 정보 보존에 특별한 의의가 있다. 즉, 전자 정보 수집과 보존은 우리 도서관 소장 자료 구조를 바꾸었고, 우리 도서관 업무 공정과 서비스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3. 국가도서관 전자자료의 수집

전자자료 수집은 그 자체가 보존의 시작이다.

1) 전자자료의 소장 개황

우리 도서관의 전자자료 수집은 1987년 CD DB ERIC의 도입에서부터 시작되었다. 2004년말 까지 우리 도서관에 소장된 CD류 전자자료는 18,934 종이며, 인터넷 DB는 111 종(그중 중문판 28 종, 외국어판 83종)이다. 중문 전자간행물 1만 여 종, 외국어 전자간행물 8천 여 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회, 과학기술 등 모든 영역을 망라한 간행물, 신문, 도서, 학위논문, 회의논문, 표준, 통계자료, 명부 등 다양한 유형의 문헌이 있다. 이로써 다양한 언어, 다양한 분야, 다양한 유형의 전자자료 구조가 형성되었다. 전자자료는 매체형식에 따라 실체형과 네트워크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획득 방식에 따라 개방입출형(Open

Access) 자원과 상업형(fee-based) 전자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은 상업형 전자자원 수집과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겠다.

2) 전자자료의 수집 원칙

전자자료의 선별 작업은 우리 도서관 ‘중국어는 전부를 추구하고, 외국어는 핵심을 추구한다, 즉 국내 출판물은 전부를, 해외 출판물은 핵심을, 종류는 다양하게, 복사본은 적게’ 라는 원칙에 따른다. 구체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맞춤형 원칙

우리 도서관은 국내와 홍콩, 마카오, 타이완판 전자자원, 해외에서 출판된 중문 전자자원과 중국 관련 외국어 전자자원, 학술적 가치가 높은 해외 전자자원을 중심으로 선별한다. 판본 선택에서는 다중 사용자 인터넷 DB를 우선 고려한다; 만약 저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면 현지 mySQL DB를 우선 선택한다; 자원 유형 선택에서는 원문 DB를 주로 선택한다.

(2) 조정 원칙

[1] 유형별 문헌의 조정

우리 도서관처럼 인쇄형 문헌, 시청각 문헌, 마이크로필름 문헌 등 다매체 문헌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유형별 문헌 내용의 중복률을 일정한 비율로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도서관의 원칙은 중문 전자자원은 전부 소장하고, 외국어 핵심 자료(예: 학술간행물, 학술전문서적) 및 중국학 관련 문헌은 전자판 존재 여부에 상관없이 주문한다는 것이다. 도구 또는 검색형 전자자원은 원칙적으로는 주문하지 않지만 검색하기 편리한 인터넷판은 주문하며 특히 다중 사용자, 업그레이드된 인터넷 DB에 편중한다; 종이 원본과 인터넷판이 중복되는 간행물, 특히 고가의 과학기술 간행물은 종이 원본을 다시 주문하지 않는다. 시효성이 강한 신문은 필요에 따라 수집한다. 중요한 신문은 인쇄판과 마이크로필름을 구입하고 기타 신문은 인터넷판을 구입한다. 이용자의 열람 습관이 아직

개선되지 않은 도서는 인터넷판을 대량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현재 우리 도서관은 《사고전서(四庫全書)》, 《사부총간(四部叢刊)》 등 고서 귀중본 인터넷 DB만 선택했다.

[2] 도서관 간의 협의

우리 도서관은 베이징 지역의 많은 대형 도서관과 분업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원 공동 구축 및 공유를 추진하려 한다. 의학, 농업, 지질, 군사 분야의 문헌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기초적인 부분만 수집했으며, 과학기술 보고, 회의록, 표준, 특허, 제품 설명서 등 다른 도서관이 전문적으로 소장한 문헌은 소장하지 않았다. 지난 몇 년 동안 CALIS와 국가과학기술도서문헌센터가 대량의 과학기술 전자자원을 도입한 것을 감안하면 이런 종류의 문헌 정보 수요는 어느 정도 충족되었기 때문에 우리 도서관은 2005년부터 과학기술 분야의 소장 자료 비율을 조정하기 시작했고, 사회과학 분야 문헌 소장에 집중하고 있다. 그 밖에, 우리 도서관은 고품질 국내 긴급수요 DB를 구입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E-journal BackFile, ECCO, EBBO 등이다. 원격 권한, 도서관 간의 상호 대출, 문헌 전달 관련 권리를 얻어 자원의 전국 공유를 실현했으며 국가 전체 자원 구축과 서비스 시스템을 마련했다.

(3) 적용 원칙

전자자원의 저장, 이용, 기술지원은 전통 문헌과 다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전자자원은 반드시 사용자 수요, 편리한 이용, 효과적인 수집, 편리한 운영과 호환이 쉬워야 한다. 이를 위해, 2005년 우리 도서관은 도서관 포털 시스템 Metalib와 SQL 서버 SFX를 도입해, 전자자원을 통합하고 자원 간의 개방적인 연결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구입한 자원을 지원하는 HTTP, Z39.50, OpenURL, OAI 등과 관련 협회가 필요하다. 일부 DB에 다른 표준 규범을 적용하거나 심지어 원문을 읽는데 특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자원 통합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 대해 우리 도서관은 수집을 할 때 자원 제공업체나 서비스업체에 관련 기술을 요구한다.

(4) 안전 원칙

전자자원(특히 인터넷 자원)은 데이터 장기 보존과 이용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우리 도서관은 CD DB, 현지 mySQL DB를 우리 도서관의 실제 소장 자료로 삼고 있다; 기타 DB는 종이 원본 예비분, CD 예비분, 영구 사용권 구입, 그룹 예비분 등의 방식으로 문헌의 영구 보존과 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3) 전자자원의 수집 과정

우리 도서관은 ‘문헌자원 구축 지도위원회’, ‘전문가자문위원회’, ‘베이징지구 관장연석회’ 등의 경로를 통해 우리 도서관 문헌자원 구축을 지도, 협의하고 있으며, 비정기 이용자 좌담회, 이용자 설문조사와 자문직원 참여를 통해 전자자원 구입을 책임지고 있는 간행자료부에 구체적인 건의를 한다. 그 밖에, 전자자원의 기술지원은 간행자료부와 자동화부가 각각 처리하고 있어 우리 도서관은 비교적 촘촘한 전자자원 수집과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다.

4) 전자자원 서비스

우리 도서관 전자자원은 여러 경로와 방식으로 도서관을 찾은 이용자와 도서관을 찾지 않는 이용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1) 도서관에서 이용자의 검색과 열람 서비스

1995년부터 우리 도서관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전자열람실을 마련해 이용자에게 CD DB, 인터넷 DB, 멀티미디어 CD 및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디지털 자원 통합과 서비스

자원이 풍부해 지면서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이용자의 검색 문제를 해결하며 자원 간의 긴밀한 연결을 할 수 있을지는 디지털 자원 서비스의 주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를 위해, 2004년부터 우리 도서관은 디지털 자원 통합 서비스 실시해 착수하고, 2005년에 Metalib/SFX 환경을 도입한 후

‘국가도서관 디지털 자원 포털’을 구축해, 다양한 언어, 다양한 매체, 다양한 유형의 소장 자원을 유기적으로 통합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에게 원스톱 검색 서비스를 제공해 원격검색 및 맞춤형 서비스를 실현했다.

디지털 자원 통합 부분에서 우리 도서관은 포털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구입한 소장 자원을 통합했을 뿐 아니라, 도서관의 사이버 소장 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Open Access 자원을 수집하고 포털 시스템에 통합시켰다. 지금까지 통합한 무료 전자간행물은 1,600여 종에 달한다. 이와 함께, 검색엔진, 인터넷 서점을 통합했다; 포털 시스템을 이용해 이용자에게 문헌 전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 도서관은 또한 Google Scholar과의 연계해 소장 범위를 확대했다.

(3)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검색 서비스

현재까지 인터넷 DB 사용은 출판사가 도서관 네트워크 내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 이용자가 큰 불편을 겪었고 우리 도서관의 서비스 효율도 떨어졌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 도서관은 출판사를 직접 방문해 적극적인 설득으로 원격 서비스 권리를 획득했다. 일부 출판사의 허가와 협력을 통해 LexisNexis와 CSA는 이미 Remote Access(원격 접근)를 허가협약서에 넣었다. 합리적인 권익을 획득한 후, 우리 도서관은 디지털자원 포털 시스템 및 기존의 IT기술(VPN 또는 Proxy 등)을 이용해 이용자에게 장소에 상관없이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 고차원 정보 개발 서비스

도서관에 오지 않는 이용자를 위해 우리 도서관은 전자자원을 바탕으로 정보 네트워크 기술과 전통자문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결합해 특정주제 검색, 비즈니스 정보 검색, 수치 검색과 논문 및 저서를 국내외 유명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밖에, 우리 도서관은 기업에게도 정보 추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5) 이용자 교육

DB, 디지털자원 포털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생소한 기술을 우리 도서관은 시기별, 상황별로 나눠 맞춤형 교육과 인터넷 강의실, 수시지도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6) Open Access의 수집과 서비스

상업성 자원 수집과 서비스 외에 우리 도서관은 Open Access 전자자원 수집도 늘려가고 있으며, 포털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우리 도서관이 수집한 중문 Open Access 자원은 다음 네 가지이다.

[1] 기적문고: <http://www.qiji.cn/eprint/>

[2] 중국전본서비스시스템: <http://preprint.nstl.gov.cn/newprint/index.jsp>

[3] 중국과학기술논문온라인: <http://www.paper.edu.cn/home.jsp>

[4] 중국수리과학전자전본 mySQL DB: : <http://xxx.itp.ac.cn/>

5) 문제점과 전망

(1) 자원 구축 거시조정 문제

우리 도서관의 전자자원 구축은 국가 전체 문헌 자원 구축 작업의 일부지만 현재 중국은 아직 강력한 거시조정 기제가 취약하기 때문에 각 지역, 도서관 간의 협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며 루트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 때문에 국내 자원의 중복 구축, 지역간 자원 구축 불균형, 비용 낭비 등의 상황이 심각한 실정이다.

(2) DB 업체 자료 가격 문제

대형 DB 업체의 자료 독점으로 가격, 판매방식, 애프터서비스 등의 부분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 도서관과 국내 11개 기구가 연합해 구입한 어떤 전자간행물 DB는 끼워팔기식으로 일정 금액의 종이 간행물을 구입해야 한다. 이런 방식은 우리 도서관 외국어 간행물 소장의 조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 회사의 인쇄본 간행물 가격은 매년 5% 이상 인상되는데, 2005년 SDOL의 인상폭은 20%에 달했다. 이러한 독점적인 지위로 협

상도 계속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도서관은 각국 도서관이 협력해서 이러한 외국어 간행물의 독점 문제를 개선하기를 희망한다.

(3) 계약 문제

계약 체결 문제 역시 외국어 전자자원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 외국업체가 제공하는 계약서는 예외 없이 모두 영어이고, 중국어는 참고자료일 뿐이며 법률중재기관도 모두 해외 관련 기관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중국의 5개 대형 문헌기관이 연합해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모든 외국어 전자자원 업체에게 판매 계약서의 중문, 영문문서 모두 같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분쟁중재기구도 반드시 중국의 법률중재기구 또는 제3국의 중재기구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4) 중문 인터넷 전자자원의 납본 문제

국가뉴스출판총서가 1996년 발표한 문건에는 전자자원 출판업체는 국가도서관에 전자자원을 납본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체형 전자자원만 규정하고 있고 인터넷 전자자원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불완전한 납본제도는 국내 수많은 우수한 전자자원을 소장 및 보존할 수 없게 만들고 있으며, 이런 자원을 구입하려면 엄청난 자금이 사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서관은 《도서관법》(의견서 제출)에 인터넷 전자자원을 법정 납본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5) 수집 작업의 표준화와 규범화 문제

디지털도서관연맹(DLF)이 발표한 《Electronic Resource Management Report of the DLF Initiative》(《전자자원관리보고서》)는 전자자원의 관리를 자원의 전체 생명주기인 평가부터, 선택, 시험사용, 수집, 추가주문, 주문정지까지로 보았다. 현재 일부 ILS 업체(Dynix, Endeavor, Ex Libris, Innovative, Sirsi, VTLS)가 DLF ERM에 기반을 둔 소프트웨어를 출시해 도서관 전자자원 수집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가 생겼다. 우리 도서관은 앞으로 관련 소프트웨어를 집중 연구하고 선진 전자자원 관리시스템을 하루 속히 도입해 전자자원 수집을 강화하고, 전자자원 수집 작업을 표준화, 규범화할 것이다.

三, ‘인재로 도서관을 흥하게 하고’, ‘과학기술로 도서관을 강하게 하며’, ‘서비스로 도서관을 세우는’ 전략을 실시해 현대화, 세계화된 국가도서관을 만든다.

- 1) ‘인재로 도서관을 흥하게 한다’ 전략 실시. 인재 도입 기제를 업그레이드시켜 인재 도입 루트를 다원화한다. 인재관리 시스템을 정비해 직책관리와 계약관리를 강화하고 신분관리는 약화시킨다. 건전한 인재 장려 체제로 인재의 합리적인 유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혁신적인 인재 계획’을 실시해 직원의 평생학습 강화와 직책에 대한 책임의식을 키우며 전 직원교육을 강화한다. 전 직원의 자질 향상과 혁신 인재의 체계적인 교육을 결합한 직원의 지속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한다.
- 2) ‘과학기술로 도서관을 강하게 한다’ 전략 실시. 도서관학과 정보관리이론 및 디지털도서관 이론 연구를 강화해 거시적으로 도서관 사업 및 학문분야 발전 방향을 파악하고 국가도서관 발전을 과학적으로 지도한다. 국가도서관의 세계화 수준지표 시스템과 현대화지표 시스템 연구를 전개한다. 기존의 네트워크 환경을 고도화해 시스템의 보안성, 신뢰성,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네트워크 서비스 능력을 제고한다. 국가디지털도서관 건립을 계기로 속도가 빠른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한다.
- 3) ‘서비스로 도서관을 세운다’ 전략 실시, 서비스 모델은 실체형 문헌 제공 위주에서 디지털 문헌을 함께 제공하는 모델로 전환한다; 일반적인 문헌 대출 서비스에서 맞춤형 서비스로 발전시킨다. 서비스 내용은 단일 형식의 자원 제공에서 종합적 자원 제공으로 전환한다. 서비스 수단은 도서관의 직접적인 문헌 대출 서비스와 원격, 네트워크화한 문헌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병행한다. 자문 참고 업무를 강화하고 사이버 참고 자문 서비스를 추진한다. 문헌 제공 업무를 강화하고 문헌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四, 표준 규범과 업무 규정의 연구와 제정을 강화해 도서관 업계에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관 사업을 발전시킨다.

- 1) 세계 관련 업무 표준의 발전을 바탕으로 국내외 같은 분야의 표준 규범의 새로운 상황을 연구해서 도서관과 정보 분야의 각종 표준 규범의 연구제정 작업을 조직하고 참여한다. 국가디지털도서관 표준 규범 시스템을 만든다. 국제표준, 국가표준과 업계 표준을 강화해 국가도서관에 적용하고 표준 규범의 공동제정 및 공유와 상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한다.
- 2) 개방 자원은 능동적으로 도서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습, 연수, 교육 등 여러 방식으로 업무를 지도한다; 전국연합목록센터의 문헌 범위를 확대해 전국연합목록센터와 기타 연합목록센터의 정보 공유를 실현한다; 도서관 간의 상호 대출업무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연합사이버참고자문 시스템을 구축한다; 도서관과 정보관리 등 학문분야 포털과 개발문고를 개설한다.

五, 국가문화 공정 계획, 조직 및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선진문화건설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한다.

자체문헌, 인력과 설비자원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해, ‘중화고서특장보호계획’, ‘중화귀중본재생공정’, ‘농촌에 책 보내기 프로그램’ 등 문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전국문화정보자원공유 프로그램’, ‘청나라 역사 편찬 프로젝트’ 등 국가문화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六, 사업 발전 수요에 적합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효율이 높은 관리 체제와 운영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대사회의 관리철학을 거울삼아, 인간본위의 정확한 관리를 중시해서 관리로 사업의 발전을 추진한다. 직책관리를 더욱 세밀화하고 규범화한다. 직책관리를 핵심으로 하고 목표관리, 프로젝트관리, 건수별관리 등 다양한 방식의 관리를 부차적인 관리방식으로 한다. 도서관의 비핵심 업무는 아웃소싱하여 문헌 처리 효율을 높인다.

디지털도서관 건립 수요에 따라, 기존의 업무와 구조를 재편하고 서비스 업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한다.

七, ‘개방적 구축, 장점 상호 보완, 정보 공유, 공동 발전’의 원칙으로 국내외 도서관 간 협력과 교류를 한다.

국내에서는 각 지역 도서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각종 학술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국제적으로는 국가를 대표해 대외 문화협정과 대회홍보 작업을 진행한다; IFLA 등 국제기구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국제도서관 간의 양자 또는 다자간 업무 교류활동에 적극 참가해 실질적 내용이 있는 국제 협력 프로그램을 찾는다; 해외 도서관과의 문헌교환, 업무교류, 상호방문을 늘린다.

주 제 발 표

국가도서관 기능 이행, 국가 입법과 정책결정에 서비스 제공

루하이옌(盧海燕)*

중국국가도서관은 종합 연구도서관이며 국가 총서고로 지식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연구, 이용,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 입법과 정책결정에 문헌정보를 제공하는 대정부 자문 서비스는 중국 국가도서관이 중국에서는 유일하게 국가급 도서관으로서 담당하고 있는 주요 임무이자 중요 기능이다.

一. 역사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지금까지 국가도서관은 정부기관에 문헌정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국가기관이 하달한 문헌정보 자문 서비스 임무를 여러 차례 수행해 국가의 중대한 사안에 관한 정책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근 60년 동안 국가도서관이 정부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 역사를 종합해 보면, 서비스의 내용은 중국의 여러 중요한 역사 발전 시기의 중대한 정책 제정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서비스 대상, 정보 수요, 서비스 전략, 서비스 방식, 서비스 형식, 협력 관계, 업무량 및 관리 방식 등은 국가도서관의 대정부 정보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함께 변화해왔다. 그 중 정보 제공 서비스 대상이 점차 고위층, 핵심층으로 발전했고, 서비스 형식과 방법이 체계화, 현대화되었으며

* 참고자문부 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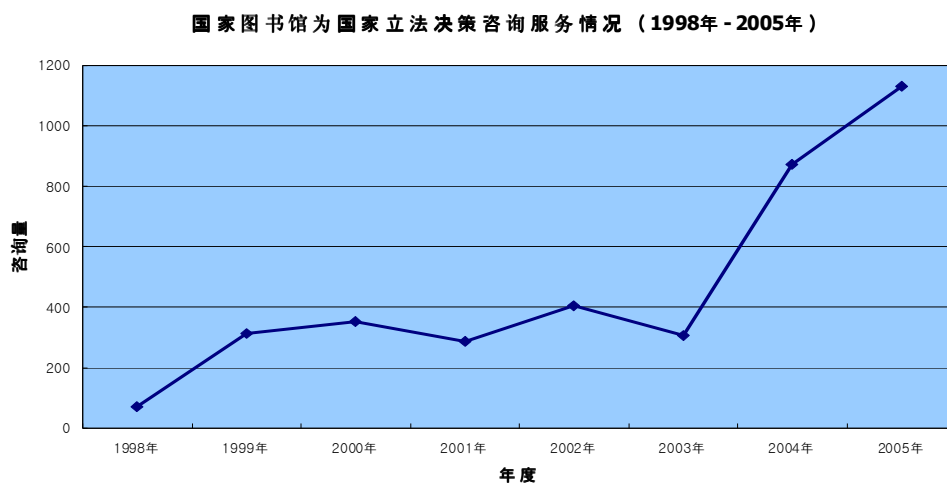
관리 방식이 과학적으로 진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국가도서관의 대정부 자문 서비스 질과 수준은 국가 지도자의 충분한 인정을 받았을 뿐 아니라 중국 도서관 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면, 지난 세기 국가 정책결정 기관에 과학기술 발전 추세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자산업, 자동제어, 컴퓨터 등에 대한 세계 기술 현황 자료를 제공했고, 정부가 농업정책을 제정할 때는 미국 농업 통관문제, 세계 각국의 농업 기계화 발전정도, 주요 서방국가의 농업 발전 추세에 관한 자료를 제공했다. 또한, 중미 양국의 상호 자산 동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덩샤오핑(鄧小平)의 위탁을 받아 관련 문헌자료를 제공하기도 했다.

한편, 국가도서관이 1998년부터 실시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정치협상회의(정협)에 대한 서비스, 국가 각 부위(部委)에 ‘부위분관(部委分館)’ 설립, 국무원 ‘중남해(中南海) 사이트’ 개설, 국가 지도자를 위한 정보 제공 서비스 및 전국인민대표대회상임위원회에 대한 365일 서비스 및 9개 전문 위원회를 위한 연간 입법 계획 수립 서비스 등은 세기가 바뀌는 시점에서 국가도서관의 새로운 대정부 자문 서비스로 등장했다.

1998년부터 2005년 11월까지 국가도서관이 중국 정부에 제공한 자문 서비스는 3,700여 건에 달한다.

국가도서관의 대정부 자문 서비스 상황(1998년 ~ 2005년)



국가도서관의 대정부 서비스의 발전, 특히 정보와 네트워크가 발전하고 국가 입법과 정책결정이 과학화되고 민주화가 가속화되면서 국가도서관이 정부 기관에 제공하는 정보량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특히 지난 2년간, 중국공산당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비서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정보센터, 대외연락부, 통일전략업무부, 민정부, 민항총국 등 기구 또는 각 부위가 적극적으로 국가도서관과 업무협력 관계를 맺거나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해 국가도서관의 대정부 서비스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二, 업무내용

1. 국가 주요 지도자의 국무 활동에 문헌 정보 제공 서비스

1세대 지도자의 집권시기부터 국가도서관은 지도자에 대한 문헌 정보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지난 몇 년 간 이 서비스는 더 자주 실시하고 있다. 국가 지도자는 해외방문을 하거나 중요한 국무가 있을 때 마다 국가도서관에 관련 배경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요청한다. 예를 들어 2003년 말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미국 방문 시 하버드 대학에서 강연을 했는데, 원 총리는 국가도서관이 제공한 ‘화이불동(和而不同)’ 관련 사료를 참고해 중미관계를 묘사했다. 당시 기자들이 풍부한 역사 지식을 바탕으로 한 그의 예리한 중미관계 해석에 감탄하자 원자바오 총리는 내 뒤에는 국가도서관이 있다고 답변했다.

2. 중공중앙판공청과 협력해 정보 보고 업무 시스템 구축하고 당과 주요 지도자에게 정보 제공

2003년 중공중앙판공청비서국은 국가도서관을 중앙판공청비서국의 정보연결 기관으로 정하고 정보 제공 업무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서비스는 2년째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국가도서관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중앙관공청비서국 지도자들은 국가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 평가했다. 2004년 국가도서관은 400여 개 정보 제공 기관 중 정보 채용율 3위에 올랐으며, 2005년에도 중앙관공청비서국 정보 제공 기관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3. 국무원관공청과 협력해 ‘국가도서관데이터자료실’ 개설 (중남해 사이트)

국무원관공청 관련 지도자의 요청으로 2004년 말 국가도서관은 국무원 지도자를 위한 정보 제공 서비스인 《국가도서관데이터자료실》 사이트를 정식 개설했다.

4. 매년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가 열릴 때마다 대표들에게 자문 서비스 제공

1998년부터 국가도서관은 전인대정보센터와 협력해 매년 양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24시간 당직자를 두거나 인민대회당 회의 현장에 정보 자문부스를 설치하는 형식으로 대표들에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양회 대표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국가도서관이 국가 입법과 정책결정의 과학화와 민주화에서 발휘한 긍정적인 역할은 전국인민대표대회상임위원회 관공청으로부터 여러 차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국 도서관들은 국가도서관의 양회 자문 서비스를 도서관의 대정부 서비스의 성공적인 모델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있다. 국가도서관의 양회 자문 서비스의 함의와 영향력은 양회 기간의 인민대회당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양회 대표들의 일상 입법 과정에까지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전국인민대표대회상임위원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각 전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서비스

2003년 7월부터 국가도서관과 전국인민대표대회정보센터는 양회 서비스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전국인민대표대회상임위원회위원장 회의, 전국인민대표대회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각 전문 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두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상임위원회 전체회의와 같이 진행되며 제공되는 정보는 전국인민대표대회상임위원회 회의 중 심의한 각종 입법에 관한 배경자료, 법률 기본 개념과 정의 및 그와 관련된 문헌자료이다. 그 밖에, 국가도서관은 위 기관들이 입법을 준비, 심의하여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요구하는 법률 전문 자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2004년을 예로 들면, 국가도서관이 전국인민대표대회상임위원회와 각 전문 위원회에 제공한 자료는 65개 주제에 대한 3,700여 건에 달하며 누적 정보량은 1억 자를 돌파했다.

6. 국가도서관 ‘부위분관’ 설립 등의 형식으로 여러 부위와 정보 서비스 협력 관계 구축

행정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세계 각국 국가도서관이 보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이다. 중국국가도서관은 국가도서관 부위분관 설립이라는 형식을 통해 국가입법, 정책결정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1999년 국가도서관은 인사부와 협력해 국가도서관 인사부 분관을 설립했는데, 이것이 국가도서관 최초의 부위분관이다. 그 뒤 국가도서관은 전 국가계획경제위원회, 노동사회보장부, 재정부, 국가개발은행, 중국공산당중앙조직부 등과 각각 국가도서관 분관 설립 또는 문헌정보 서비스 협력 관계를 맺었다. 국가도서관의 업무 지도를 바탕으로 이들 부위는 각자의 문헌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도서관에 소장된 방대한 문헌자료와 경험이 풍부한 인력자원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정책을 결정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7. 국가 총서고라는 장점을 발휘, 지도자에게 최신 도서 정보 제공

국가도서관은 국가 총서고로서 매년 국내외 최신 출판 도서 약 60만 권을 구입한다. 국가도서관은 매월 최신 도서 상황을 파악한 뒤, 중요한 참고 가치가 있는 도서를 선별하여 《신간추천》 형식으로 국무원판공청에 제공해 국가 지도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8. ‘부(部)급 간부 역사문화 강좌’ , 중국문화 이야기 테마 전시회 개최

2002년부터 국가도서관은 테마강좌와 전시회 등의 서비스 방식을 대정부 자문 서비스와 결합해 국가 각 부위 고위층을 위한 중외역사, 철학문화, 민족종교, 문학예술, 시사정치, 사회경제 등 6대 시리즈 ‘부급 간부 역사문화 강좌’를 개최했으며, 국제사회에 중국 전통문화 홍보를 위한 전시회도 개최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57번의 강좌를 열었으며, 부급 간부 만 여 명이 참가했다.

이와 함께, 국가문화부가 계획, 제작하고 2003년 개최한 《한자-갑골문에서 컴퓨터까지》 전시회 역시 중국 전통문화를 홍보하고 세계에 중국을 알리는데 큰 공헌을 했다.

9. 일상적인 자문 서비스

위에서 설명한 대정부 자문 서비스 외에, 국가도서관은 평소 각 국가기관이 요청한 각종 임시성 정보에 대해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三, 서비스 방식

국가도서관이 대정부 자문 서비스를 시작한지 근 60년이 되었다. 그동안 국가도서관의 서비스 수준은 시간이 지날수록 향상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서비스 방식 역시 변화하고 있다.

1. 민정감시

민정감시는 기본적으로 정보량이 많고 전파 속도가 빠른 언론에 대한 감시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주목하는 내용 또한 즉각성과 단계성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시사 이슈 문제를 분석하고 중대한 사건 연구 등의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서비스 방식은 국가도서관이 정부에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그 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 테마자문 서비스

테마자문 서비스는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한 차원 높은 자문 서비스 방식이다. 이 서비스는 어떤 특정한 테마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문헌자료 검색을 하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관련 테마에 대해 완벽한 자료를 제공한다. 국가도서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법과 정책결정 기구는 일반적으로 연초 업무 계획에 따라 국가법률, 법규 제정, 개정과 정책 방침 제정 작업을 하는데, 이러한 테마에 대한 사전 조사, 연구, 준비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업무 특성 때문에 테마자문은 국가도서관이 정부에 제공하는 서비스 중 가장 중요한 서비스 방식이며 국가도서관이 정부에 제공하는 서비스 방식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3. 테마강좌와 전시회

강좌와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은 사회와 이용자에게 국가도서관 소장 자료를 홍보하고 중국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한 서비스 방식이다. 국가도서관은 2002년부터 테마강좌와 전시회라는 서비스 방식을 대정부 서비스에 적극 응용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4. DB 구축과 웹사이트 서비스

컴퓨터 기술의 발전은 국가도서관의 대정부 서비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위에서 말한 국가 지도자를 위해 개설한 ‘중남해 사이트’가 바로 전문 DB 구축과 웹사이트 서비스의 핵심이다.

5. 부위분관

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人), 재(財), 물(物)을 서로 분리하고 양측이 업무적으로만 지도하고 지도받는 관계, 이것이 부위분관 서비스의 특징이다. 현재 국가도서관이 국가기관에 제공하는 서비스 방식은 탁월하다고 할 수 있다. 고품질의 참고 자문 서비스 외에 고위층 강좌, 국가도서관 부위분관 설립, 국가 지도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도서 데이터자료실’ 사이트 개설 등은 모두 국가도서관이 정부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방식으로 이러한 서비스 방식은 서로 보완관계를 가진다. 이런 방식을 통해 국가도서관의 대정부 자문 서비스 체계도 초보적인 틀이 형성되었다.

四, 2006년 주요 업무

국가도서관은 《국가도서관 2006년 업무요점》과 《국가도서관 ‘11차 5개년 (11.5)규획 개요》를 실시하고 ‘국가도서관의 단계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우선은 대정부 자문 서비스이며, 중점은 국가교육, 과학연구와 생산업체 서비스이고, 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는 정신을 관철하기 위해 2006년 대정부 서비스 부분에서 우리는 다음 몇 가지 주요 업무를 실천할 것이다.

1. 국가기관의 입법 및 정책결정 정보에 대한 수요 조사 연구

국가기관의 문헌과 정보에 대한 수요 변화를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대정부 자문 서비스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해 국가도서관은 2006년 5월부터 7월까지 국가부위에 대해 수요 조사연구를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조사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2. 국가도서관 부위분관 신설

올해 중국민항총국과 국가민정부는 각각 국가도서관과 협력해 국가도서관 중국민항총국분관, 국가도서관 국가민정부분관을 설립할 예정이다. 국가도서관 중국민항총국분관의 설립은 국가도서관의 대정부 자문 서비스가 더욱 더 전문성을 가진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대정부 자문 서비스를 위한 좌담회

2006년 7월 국가부위에 대한 수요 조사연구가 완료되면 국가 각 부위의 도서 문헌 소장 및 자료구축 상황, 정보 제공 방식, 정보 네트워크 환경 구축 상황 및 정보 수요 특징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각 기관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2006년 가을 우리는 대정부 자문 서비스 좌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좌담회에서 참가한 모든 정보 수요 기구와 정보 서비스 기구 인원들에게 그동안 국가도서관의 대정부 자문 서비스 성과를 보고하고 국가기관 정보 수요 변화의 특징을 종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4. 초보적인 ‘대정부 자문 서비스 환경’ 구축

‘중남해 사이트’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기관의 다양한 정보 제공 요구를 한층 더 만족시키기 위해 국가도서관은 2006년 말 초보적인 ‘대정부 자문 서비스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五, 문제점

대정부 정보 제공 서비스는 중국국가도서관의 중요한 기능이며, 이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괄목할만한 성적을 거두어 국가도서관의 대정부 서비스 브랜드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문제점 또한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이 자료 공유 문제와 서비스 심화의 모순이다.

분관 운영 모델에서 나타나는 문제만 살펴보자. 각 부위는 그 기능과 임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독특한 정보 서비스 체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 문헌 정보 자료가 국한되어 있어서 국가도서관의 방대한 자료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정보 요청 비밀보장 요구와 정보 서비스 기술지원 환경의 특수성 때문에 각 부위와 국가도서관의 자료 공유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네트워크 환경이 발전하고 자원 공유 수요가 증가하면서 디지털 자원 구축과 서비스 과정에서의 지적재산권 문제는 도서관과 이용자, 디지털 자원 공급자 등 삼자를 모두 곤란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 네트워크 환경에서 대정부 자문 서비스 수요 현황을 파악하고 디지털 자원 판권 허가 범위를 늘려 대정부 자문 서비스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국가도서관이 중요시해야 할 부분이다.

논문 투고 안내

1. 「도서관」에 게재되는 논문은 학술적 또는 실용적으로 도서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도서(학위논문 포함)나 연속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 논문의 종류는 연구논문, 번역논문으로 한다.
3. 논문의 접수는 수시로 하며, 접수일은 그 원고가 당관에 접수된 일자로 한다.
4. 논문의 게재여부는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국립중앙도서관 간행물편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논문의 게재순서는 원칙적으로 접수된 순서로 한다.
6. 투고 요령
 - 1) 제 출 처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정책과
 - 2) 부 출 수 : 원본 1부, 사본 2부 및 디스켓을 제출한다.
 - 3) 표 출 지 : 논문 제 1면에 제목, 투고자의 성명 및 소속을 국·한·영문으로 표기하며, 집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를 기재한다.
 - 4) 초 록 : 영문으로 작성하되, 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 5) 원고작성 : 한글 완성형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본문의 글자크기를 11포인트, 줄간격은 160으로 하고 분량은 A4용지 20매를 한도로 한다.
 - 6) 논문구성 : 영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부록의 순으로 한다.
 - 7) 번역논문 : 번역한 논문인 경우에는 원본과 함께 저작권 허락서류를 첨부한다.
 - 8) 그 림 : 그림은 이미지파일(GIF, JPG, PCX, BMP, WMF)로 제출하거나 트레이싱페이퍼 또는 백지에 깨끗이 그려서 제출한다.
 - 9) 참고문헌 : 가나다순과 알파벳순으로 배열하되, 한글문헌에 이어 외국문헌을 기재하고 본문의 문헌 소개는 “어깨번호”로 표시한다. 그러나 중요한 문헌은 본문에 저자를 소개할 수 있다.
 - 10) 교정은 초교에 한하여 저자가 할 수도 있다.
 - 11) 별쇄를 원하는 경우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필요 부수는 논문표지에 붉은 색으로 표시한다.

※ 「도서관」이 2005년부터 계간에서 반년간(6월, 12월)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전화 : (02)590-0779 FAX : (02)590-0546
- ▶ E-mail : hanfly@mct.go.kr
- ▶ 주소 : 우)137-70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산60-1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정책과

[비매 품]

도서관 제61권 제 1 호
(반년간) 통 권 제376호

2006년 6월 28일 인쇄

2006년 6월 30일 발행

발행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산60-1

전 화 : (02)590-0779 팩 스 : (02)590-0546

홈페이지 : <http://www.nl.go.kr>

인쇄처 : 원화인쇄

DOSEOGWAN

Vol.61 No.1(376)

June 2006 (Bi-annual)

Publishing office :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60-1, Banpo-dong, Seocho-gu, Seoul, Korea

Tel.(02)590-0779 Fax.(02)590-0546